

곡성 입면 선 후배
고향카페개설 12주년기념
게시글 모음집

동악산기슭

(제1집)

2012. 10. 26



동악산 기슭에는 새싹이 움트고
섬진강 맑은 물은 깊숙절 친다

daum.cafe.net/ipmyen

목 차

1. 동악산 기슭카페 글 모음집을 내면서	1
2. 뽕나무가 있는 집, 그리고 우리 어머니	2
3. 돼야지 죽을 뻔 했네	9
4. 그 때 그 집이 그립다	15
5. 성남송을 노래하며	19
6. 동악산 그 곳에는	23
7. 시장통 큰 점방	26
8. 입면에서 – 창정리	29
9. 입면에서 – 서봉리, 한자락 더	37
10. 검은들 사람들	41
11. 우리 아버지의 교육 방식	44
12. 부처님 같은 울 어미이	49
13. 고향에서의 하룻밤	53
14. 당산	58
15. 대발	60
16. 입면 시장	63
17. 세월가도 변하지 않는 고향 입맛	66
18. 정겨운 고향사람들(만수)	68
19. 정겨운 고향사람들(창정)	69
20. 정겨운 고향사람들(제월)	70
21. 그 옛날 무서운 이야기	72
22. 섬진강 줄 배	76
23. 지게꾼	79
24. 당산나무 아래 낮잠	82
25. 고향을 그리워 하며	85

CONTENTS

26. 네잎 클로바	88
27. 시골 뚱돼지	91
28. 아버지의 나뭇짐이 그립습니다	93
29. 입면에서 – 애비요, 보소	98
30. 흰 민들레	102
31. 녹 김매기	105
32. 입면 시장통에 모르고 있었던 『복 받으세요』	107
33. 검은풀 팽나무	111
34. 그 때는 그랬다	115
35. 철없었던 나	119
36. 입면장 가는 날	121
37. 입면 최고의 산책길	126
38. 관악산 야등	128
39. 두 친구	131
40. 컴퓨터	134
41. 음력 설날, 옛 달이던 추억	136
42. 모 심은 입면 들녘	141
43. 중국 오이화(烏爾禾)의 풍광	144
44. 군대 이야기	147
45. 날씨도 더우니 섬진강 낚시터로	152
46. 신작로	155
47. 동악인	157
48. 강촌	160
49. 개만도 못한 조부모	162
50.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군요	165

목 차

51. 동악카페 가족을 만나던 날	168
52. 시애틀에서의 고향생각	172
53. 입면에서 – 보파속모	178
54. 난장판	182
55. 최근에 그린 그림들	185
56. 아름다운 섬진강	188
57. 중국 명산명승 사진 연재를 마치며	191
58. 옛 생각에 잠기며	195
59. 60년대 이발소	197
60. 용못과 삿갓 방죽	199
61. 가물었던 어느 여름 날 이야기	204
62. 입면 고향이 그리워서	207
63. 입면 골프장	208
64. 개판 치는 것을 보고 싶은 디	210
65. 꽈리	212
66. 광수네 집	214
67. 입면출신 서울시의원과 함께	216
68. 가입인사(이봉재)	218
69. 글 모음집 발간에 대한 댓글	220
70. 부록	
○ 추억의 입면초등학교	226
○ 고향풍경 1~10	228
○ 입면 마을이름 유래	238
○ 동악카페 대문사진	257
○ 운영자 명단 및 사진	258

꿈은 이루어진다

동악산기슭카페 글 모음집을 내면서

카페지기 김종일(창정38)

“동악산기슭” 카페가 입면 고향 선후배 사랑방으로 개설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회원수도 6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고향은 누가 뭐래도 어머니 품같이 포근한 곳입니다. 고향의 향수를 맡으면 그 날은 기분이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답고 잊을 수 없는 고향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 오래 전부터 전국 방방곡곡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우리 사랑방에 오셨습니다. 이제 카페 가입회원들만 보기에는 아까운 재미있고 소중하고 귀한 고향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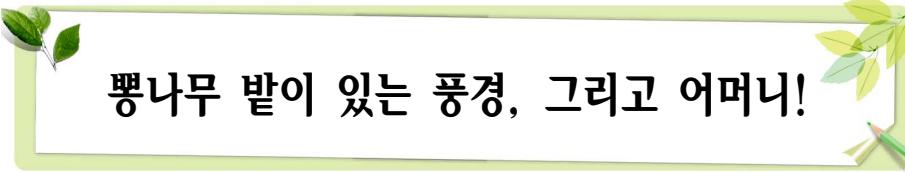
그 동안 먹고 살다 보니 잊고 지냈던 그 때 그 시절의 고향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번에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경험했던 추억과 선후배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동악인이 함께 이 책을 보면서 비록 삶은 어려웠지만 잊지 못할 소중한 옛 추억을 떠 올리며 바쁘고 힘든 일상 중에서도 조금이나마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처음이라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고향의 추억을 담은 이야기들이 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고향 선후배님들께서 『동악산기슭 카페』에 오셔서 유익한 정보와 그 때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게시글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밤늦게까지 글을 선정하고 편집하고 다듬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동악갤러리님을 비롯해서 카페운영자님들 그리고 많은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2년 가을에



뽕나무 밭이 있는 풍경, 그리고 어머니!

방현기(택촌47)

내 고향 집 뒤에는 조그만 산이 하나 있었다.

동네사람들은 뒷동산이라 불렀는데 우리 집은 동네의 끝, 지대 높은 뒷동산 자락 끝에 북향으로 서 있었다. 그 산은 대부분이 대밭이고 나마진 감나무, 밤나무 등이 듬성듬성한 밭으로 일궈져 있었다. 집 뒤로 조금만 돌아 나가면 뒷동산 아래 외갓머리 논 일곱 닉행이 중에 제일 위 물길이 땅지 않는 한 닉행이 밭으로 이용되곤 했다.

밭에는 뽕나무가 봄, 여름엔 탐스런 뽕잎을 피워 올리고 겨울엔 가지를 양상하게 드러낸 채 찬바람을 맞는다. 사이사이엔 철 따라 참깨, 도라지, 콩, 고추, 감자, 고구마가 자라고 별 잘 드는 쪽으로는 무, 배추, 가지, 오이, 솔, 토란 등을 심었던 것 같다. 어머니, 아버지는 동산의 나무 그늘 때문에 밭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항상 불만이셨다.

동산의 둘레 언덕엔 텅자나무 올타리가 빽빽했는데, 봄에는 조팝나무가 하얀 꽃을 풍실몽실 탐스럽게 피워 올리고, 그 옆으로는 작은 배가 열리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우리는 '아그배'(아기 배, 작은 배)나무라고 부르며 구슬같이 달랑 달린 열매를 언덕 풀 움켜잡고 텅자나무 가시 찔려가며 포도시 따서 씹으면 입 안 가득 그 맵은맛에 진저리 치며 내 뱉고는 배 움켜잡고 "아구 배야! 아구 배야!" 하며 웃었던 기억이 난다.

또 바로 길 아래 다른 집 밭 언덕에 큰 도토리나무가 두 그루 서 있었는데 큰 돌 들어 올려 킁킁 치면 알밤 같은 도토리들이 우박처럼 쏟아졌다. 손닿지 않는 곳 저 위 상수리나무 등치에 난 상처의 진을 빨아 먹으려고 등개(풍뎅이)들이 까맣게 바글 바글하고, 말벌 몇 마리, 가끔은 찌께(사슴벌레) 한 마리 붙어 있을 때도 있었다.

우리는 심심하면 '찌께' 잡으러 가자고 했는데 이 사슴벌레는 산 속 풀밭 참나무 아래 땅을 파면 두더지 굴 같은 것이 나 있었는데 꼭 이 속에 한 마리씩 들어 있곤 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점심 먹으러 오면 우리 어머니는 "아기! 독새(독사) 물릴라. 낯바닥이 거 뭐이냐! 빠르게 탔다. 그만 나댕겨라." 하셨다.

당시엔 누에고치(생사)를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정부에서 누에치기를 장려해서 수매를 하는 바람에 농가 부업으로 수입이 짭짤했던 것 같다. 어머니는 농사일 틈틈이 겨울엔 길쌈을 하시고 봄, 여름엔 누에를 치셨는데 팔아서 생긴 돈은 어머니 혼자 가용으로 쓰시고(아버지가 어쩌지 못하는) 우리 자식들 용돈도 주고 그러셨다.

내 기억으로는 봄에 한 번, 늦은 여름(초가을)에 한 번 이렇게 일 년 두 번 누에를 길렀다. 봄에는 아버지가 봉잎을 줄기 채 베어 지게에 지고 오셨는데, 비 맞아가며 지게 가득 물기 어린 봉잎 줄기를 지고 오시던 아버지 모습이 눈에 선하다. 누에가 크게 자랐을 때는 봉잎 달린 가는 줄기 채 누에밥을 주었다.

가을에는 새로운 봉나무 줄기에서 아가손 같은 연한 새순이 나왔다. 그러면 줄기는 놀둔 채 가위나 면도날 같은 걸로 고리를 만들어 손가락에 끼고 봉잎을 '똑똑' 잘랐다. 가을에는 봉잎을 한잎 두잎 일일이 따야하기 때문에 일손이 딸려서 아버지와 우리 자식들이 모두 나서야했다.

중학교 2학년 봄 그 해 오월은 막 사춘기라는 통과의례를 겪느라 참 많이도 앓았던 시기인지라, 봉 따는 것도 통 건성이었다. 그렇지만 온 세상천지가 새순처럼 싱그러웠던 내 생의 봄날들이었다.

지금도 해마다 봄이 오면 어쩌다 바람처럼 스쳐가는 그 때 그 감정들, 몇 초랄 것도 없이 순간처럼 찾아왔다가 아침이슬 스러지듯 사라지곤 하는 그 느낌들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누에는 자라며 네 번의 잠을 자는데 엄청난 양의 봉을 먹으며 무럭 무럭 잘도 큰다. 금방 커버리기 때문에 대나무로 만든 새로운 채반에 신문지를 깔고 누에를 나눠 옮기고 어머니가 봉잎을 듬뿍 얹어 골고루 펴 놓으면 밤새도록 부시락거리며 봉잎 깎아 먹는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마치 밖에 비가 내리지 않나 착각할 정도로 소리가 비슷했다.





그 보드랍고 서늘한 누에의 감촉, 가끔은 방바닥에 떨어진 걸 자다가 깔아뭉개는 바람에 아침에 일어나면 웃이 시퍼렇게 얼룩져있을 때도 있었다. 밤에 자다가도 뿩을 쥐야하기 때문에 다 기르는 한 달 동안 어머니는 거의 잠을 못 주무셨는데 어쩌다 누에가 잘 때는 코를 골며 고단하게 주무시곤 했다.

언젠가는 뿩이 부족해 애달아하시던 어머니 모습이 선하다. 애지중지하던 자식 같은 새끼들이 굶는데, 요것들이 한 잠만 더 자면 셋에 오르는데 하며, 정신없어 하시던 어머니. 남의 밭 다 딴 뿩나무 밑동에 남아 있는 뿩잎 이스락 주우시고 나중엔 산에 가셔서 꾸지뽕(산뽕나무)까지 따 오셨다. 부드러운 밭뽕이 쌀밥이라면 산에 나는 꾸지뽕은 잎이 거칠어 보리밥이라고나 할까!

누에가 잠도 실컷 자고 다 자라면 뿩도 먹지 않고 몸이 마약강하게 투명해지며 입에서는 끈끈한 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되면 어머니 손길이 더욱 바빠진다. 늦기 전에 집 지을 새 터전을 마련해 줘야하기 때문이다. 누에 올린다고 하는데, 짚으로 만든 셋을 새 채반에 올리고 다 익은 노르스름한 누에들을 골라 옮겨줘야 한다.

거미는 꽁무니에서 거미줄이 나오는데 누에는 입에서 나오다. 누에들은 밤새도록 쉼 없이 고단한 한 몸 평생 누일 자기 고치를 몇 날 며칠을 하얗게 새며 집을 지어 나간다.

나비되어 날아 갈 꿈을 꾸면서.....

쉬지 않고 고개 내둘러 혼신으로 지어 낸 허리 잘록한 하얀 고치.

누에는 마지막으로 정갈한 마음에서 그러는지 오줌인지, 뭔지 모를 노란 액을 밖에다 싸고 집에 드는데, 새하얗고 잘록한 흠이 없는 누에고치는 일등품, 오줌 얼룩이 있거나 쌍아리 진 것(두 마리가 한 집을 지은 것)은 따로 추려서 등외로 골라내곤 하였다.

눈물 그렁그렁 고치 짓고 들어가신 우리 어머니!

언제 다시 나비되어 날아오시려는지.....

먼 훗날 언젠가 내 눈썹에 눈물 한 방울 맺히는 날.

"어머이! 방에다가 모구약 뿌려 붓는디..."

"아이고메 으黜꼬나! 내 새끼덜!"

하시며 부엌 문 박차고 마루로 뛰어 올라 방문 열어젖히고 시렁에 새끼누에
내려놓으시며 울상 지으시던 어머니!

여름날 콩밭 매시다가 점심 드시러 오실 때 콩잎에 땅개비(방앗개비) 한 마리 잡아 싸 오시던 어머니! 꿈에서라도 꼭, 그 모습 다시 보고 싶어지는 여름밤이다.

粝 박종민(서봉41) 02:54

아름다운 글, 한밤에 만나는 기쁨!

동악산기슭 원고(교정)를 보다가 읽는 님의 글에 행복합니다.

그 긴 목을, 아니 생몸을 뺏빳하게 세우고 넉 잠을 자야 비로소 고치가 되는 누에처럼
님도 그 어린 무렵을 지나 고운 누에나비로 자라

이 세상을 날고 있다는 생각 저 너머 누에를 보살피듯

아이들을 돌보고 뒷바지해주신 님의 어머님의 자애로운 모습 겹칩니다.

사박사박 뽕잎 먹는 누에 같은 아그들을 님도 부모님처럼 잘 건사하시기를.....

↳ 饪 방현기(택촌47회) 12.08.17. 12:16

사람은 몇 잠을 자야 고치(완성)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饪 박동규(택촌 37) 12.08.18. 17:44

(미안. 현기 답글에 더하여) 하하 고치도 과정이라네.

우화등선, 고치에 든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나방이 알을 낳고, 알이 누에가 되고,
누에가 고치가 되고, 되고, 되고... 한다네. 하하

↳ 饪 방현기(택촌47회) 12.08.18. 22:18

ㅎㅎ선배님, 반갑습니다.^^

아, 그렇네요. 고치가 완성이 될 수 없지요! 생의 순환 과정이지요.

粝 김종일(창정38) 06:13

그 당시에는 대부분 누에고치를 키워서 학비 조달도 하고 가용도 썼지요.

누에만큼이나 정갈하게 잘 쓰셔서 그 당시 분위기로 돌아 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밖에 내리는 소나기 소리는 마치 누에가 마지막 뽕잎을 먹는 소리로 들립니다.

마지막 부분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늘 건강하셔서 이렇게 좋은 글 자주 올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粝 김종옥(창정37) 10:52

고우셨던 그때의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가끔 공부를 하던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고 내가 노는 시간을 빼앗아간 누에!

뽕잎을 한꺼번에 많이 따 올 수도 없고 매일 따야만 했지요.....

아름다운 글 잘 보고 갑니다.

粝 조용섭(만수+종방39) 11:02

방 한 칸에 3단 4단으로 누에덕을 매서 넉 잠 자고나면 누에 별이 노란색이 되고

누에고치 만들기가 시작 되지요.

그리고 약 1주일이 지나면 단단하고
 눈부시게 하얀 누에고치가 만들어지고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고
 속에 들어있는 번데기는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를 완죤 무공해 고단백 식품!!
 정말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좋은 글 감사 합니다.

↳  **방현기(택촌47회)** 12.08.17. 12:23

맞아요! 누에발이 투명하게 노래졌었죠, 연약한 것이 단단한 고치를 짓는, 참 대단하지요.^^

한봉수(상금38) 15:37

그 시절 우리 어머님들 일에 묻혀 뼈골이 으스러졌습니다.
 누에 쳐서 고치만 따면 그나마 나은 일이었고 그 고치 솔에 끓여 명주실 뽑아
 비단 짜는 일까지는 그 수공이 얼마나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하셨던 우리 어머님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그 비단 옷 입고 계시는지요....

↳  **방현기(택촌47회)** 12.08.17. 12:25

고치 솔에 끓여 명주실까지 뽑아내셨군요! 어머님! 꼭 비단옷 입으시고 잘 지내시겠지요.^^

박종윤(서봉37) 12.08.17. 12:52

누에도 질Samsung 마냥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군요.
 어렸을 적에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낸 뒤 번데기를 얻어 먹었던 기억이 새롭네요.
 우리 집 울타리에 뽕나무가 한 그루 있어 오디를 따 먹곤 했었지요.
 그리고 더러는 누에치는 분들이 뽕을 따려 오기도 했었고요.
 "어머이! 방에다가 모구약 뿌려붓는디..." "아이고메 으찔꼬나! 내 새끼덜!"
 당시에 누에를 얼마나 애지중지 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는 대목이네요.
 정말 감명 깊게 잘 읽었습니다.

↳  **방현기(택촌47회)** 12.08.17. 12:27

선배님 댁은 누에치기는 안 하셨나봐요.^^ 좋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주(상금42) 12.08.17. 14:02

누에치시는 분들의 뽕잎 사랑은 깊이를 가늠하기가 어렵겠지요?
 지금은 용도가 많아져서 보양식으로 '뽕계탕'도 있고요..
 어릴 적 확독 옆에 뽕나무 한그루... 때 되면 오디는 맛나게 따 먹었어도
 한 그루만 지켜 오신 조상님의 의중은 알 길이 없습니다...

↳  **방현기(택촌47회)** 12.08.17. 15:48

^^ 확독 옆에 뽕나무가 있었군요!

🍰 안기석(만수37회) 12.08.17. 22:26

누에치던 그 시절 그 때를 생생히 복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요.
내 기억으로는 봄누에 키울 때 통째 잘라서 먹이면
밑동에서 이내 새줄기를 솟구쳐 올렸지요.
동네 산자락에 다행이 밭두렁을 따라 줄줄이 이어 심어 누에고치로 돈 사던 수입원이
지금은 오디주로, 뽕잎 효소로 끝없는 변신을 하고 있더군요.
근디 택촌 방씨 집안이면 세상 일찍 떠났던 내 친구 방진주를 아시는가요?

↳ 🍔 방현기(택촌47회) 12.08.18. 22:31

네, 저희 큰집(당숙) 형님이셨죠.
저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셨지만,
얼굴, 목소리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 심선흐(택촌49회) 12.08.18. 11:02

현기오빠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한 동네에 살아도 워낙 말이 없으셔서... 좀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어린 시절의 추억에 흠뻑 젖은 글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 시절엔 올 동네가 엄청 커 보이고 살아있는 느낌이었는데 요즘 가끔 택촌에 가면
너무 고요하고 적막하기만 해요...
우리들의 어린 시절 그런 택촌은 추억과 함께 멀리 멀리 사라져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어찌 꿈엔들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언제나 그리운 택촌...
한 번쯤은 택촌 모임을 통해 옛날 추억을 더듬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 방현기(택촌47회) 12.08.18. 22:27

^^선흐... 반가워! 그 시절 추억들은 사라져간 것이 아닌,
우리가 언제든 펼쳐볼 수 있는 빛 바랜 사진첩 같아!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기대하며 항상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래.^^

ὅ 이정재(금산47) 12.08.20. 15:59

현기 친구~!!
어린시절에 와 있는 느낌이군요....
초등학교 때 송구부(지금의 핸드볼)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운동이 하기 싫어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누에가 뽕잎 깎아먹는 소리가 꼭 비오는 소리처럼 느껴져서

밖에 비 오는지를 어머님께 여쭤보곤 했었습니다.

방문을 열어주는 어머님이 무슨 비가 오느냐고??....

하루쯤 비가 내리면 송구 연습을 쉴 수가 있어서 아주 좋았었던 그 시절!

누에를 길러 그 누에고치 수매해서 중학교 수험료를 냈었는데....

글 고맙구나,,,친구

ㄴ  **방현기(택론47회)** 12.08.20. 19:50

^^그래 맞아! 핸드볼을 송구라고 했었지.

모든 일에 적극적인 친구도 싫어하는 일이 있었네.^^

건강하고 밝은 친구 모습은 내가 닮고 싶은 것이라네!



장바위(약천)

돼야지 죽을 뻔 했네

김종옥(창정3?)

그 시절 그 때는 니 집 내 집 할 것 없이 밭에 삼나무를 심었습니다. 겨울밤이면 어머니는 베틀에 앉아 삐그덕 딸깍 삐그덕 딸깍 배를 짜든 시절입니다.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아버님께서 삼 잎싸구를 돼지우리에 몽신 넣어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챙겨 저녁 무렵 산속에 있는 귀방죽으로 밤낚시를 하러 가셨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무렵 돼지가~꽥꽥 대기 시작입니다. 돼지 나 죽네~꽥꽥거리며 눈이 빨개지고 침을 질 질 흘리며 펄쩍 펄쩍 뛰며 우리를 뛰쳐나올 듯 했습니다.

“아이고 저놈에 돼지가 왜 날뛰고 난리냐!” 며 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는 “어메 우리 가보1호 다 죽는다. 빨리 가서 아버지 모셔 오니라” 하신다.

날은 이미 어두웠는데 나는 별써 달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뒤 방천을 따라 귀방죽 산속을 향합니다. 그쯤 산속에 도깨비들 훈련인지 귀신들의 노래자랑인지 엽~얍~아~이야. 엽~ 얍~아~이야 산속을 뒤 흔들었습니다. 발길을 멈추고 꼼짝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방뚝이 높아 뚝 안쪽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야, 이거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도깨비 아니 귀신소굴로 들어가야 하나.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보 1호가 죽어 가는디 나는 산속 제방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제방에 올라서니 저 멀리 남포등 불이 몇 개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쿠 살았구나!” 큰 숨을 들이 쉽니다. 아~브이 아~브이.....

집에서 생긴 일을 말씀 드렸습니다. 낚시를 접으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그렇게 죽어가든 돼지가 조금은 살아났습니다. 아직도 눈은 빨갛고 침은 흘리고 있지만 꽥꽥 거리는 소린 좀 사그라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의사도 아니신데 어찌 하겠습니까 그대로 놔두었지요.



도깨비 귀신들 소리는 송전리 동네 청년들이 당수(격투기) 배우는 소리였습니다.
얍~엽~ 아~이야. 다음날 일어나 돼지를 보니 힘이 없습니다.

“주인님 나 어제 지옥 갔다 왔씨유! 나 죽을 뻔 했써유…….”

그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원인도 모른 채……

수년이 흐른 뒤 닉우스에서 유명 가수 대마초 사건을 접하고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악인은 아닌 것은 먹지도 말고 남에게 주지도 말아야
겠습니다…… 돼지 수갑 채울 뻔 했습니다.



금호타이어공장과 섬진강

▨ **김종일(창정38) 12.06.13. 17:34**

돼지가 대마초를....???

귀방죽도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단어구요. 지금도 귀방죽 생존해 있는지....

암튼, 너무 재미있어서 단숨에 읽어 버렸습니다...ㅋ

↳ ▨ **김종옥(창정37) 12.06.13. 17:47**

고맙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네. 귀방죽이 살아 있는지?

그때는 대마법이 없었지...

아버님 모시러 갈 때 무서워 혼났네.

아마 내 나이 12살 정도...

↳ ▨ **박종민(서봉41) 12.06.13. 20:52**

귀방죽?

혹시 창정 뒤편 옥과cc 가는 길목에 작은 저수지 같은 방죽이 있던데 그건가요?

↳ ▨ **김종옥(창정37) 12.06.13. 21:02**

네... 창정리 창립 초등학교에서 송전리 가는 길로 중간지점 논다랭이 나오면

좌측 산 밑에 있습니다. 제법 큰 방죽이지요.

▨ **박종윤(서봉37) 12.06.13. 18:33**

ㅎㅎ..오랜만에 자네 덕분에 실컷 웃고 가네.

재미있는 글 정말 감사하네.

↳ ▨ **김종옥(창정37) 12.06.13. 19:15**

반갑네 고마워.

좋은 글 많은 활동 바라네.....^^

▨ **박종민(서봉41) 12.06.13. 21:08**

참으로 참으로 살면서 이로코롬 포복절도할 이야기는 첨입니다.ㅎㅎㅎㅎㅎ

돼야지가 몽롱하게 취하여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송전마을 당수 귀신들 소리도 아련히 들리는 것 같고요

정말 동악산기슭에서 얻어 듣는 귀한 선물입니다

(돼지가 수갑 차면 주인은 어찌 되는 건가요? ㅎㅎㅎ)

↳ ▨ **김종옥(창정37) 12.06.13. 21:08**

네 고맙습니다. 아마 그 돼지 홍콩 갔다 지옥 갔다 그랬을 겁니다.

돼지 죽을까 무섭고 귀신 땜에 무섭고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지워지질 않네요.

▣ **임번섭(동산초 5회, 대장리) 12.06.13. 21:13**

삼을 먹었었나보군요. 흥 흥

재밌는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옥(창정37) 12.06.13. 21:47**

네 후배님 고맙습니다.

후배님 좋은 글로 많은 활동 기대 합니다.....^^

↳ **박종민(서봉41) 12.06.13. 21:49**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동악산기슭에 큰 그늘을 드리워 줄 분이라고.....

참말로 문기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37회 선배님들.

↳ **김종옥(창정37) 12.06.13. 21:51**

두서없는 글 몇 자 올린 것뿐인데 즐겁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종만(창정38) 12.06.13. 21:49**

어렸을 때 대나무 베어다 낚싯줄 달아서 지렁이 잡아 귀방죽에 많이 갔었는데

지금도 그 때 생각만 하면.....

아련한 추억에 젖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 **윤옥희 (축석42) 12.06.13. 22:14**

ㅋㅋ시트콤 찍어도 되겠네요~

우리고향의 냄새가 흠뻑 담긴 글 너무 재미있게 읽고 갑니다^^

↳ **김종옥(창정37) 12.06.14. 10:00**

네, 재미있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 **신행임(제월)39회 12.06.13. 23:09**

오메 ~정성껏 내려주신 글 베스트셀러 숨죽이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집안 일로 밖에서 집에 이제야 들어 왔습니다.

저녁 늦게 카페를 접속했더니 글쎄 방문자가 360명입니다.

이렇게 챔난 글로 이 방을 후끈 달아 오르게 만드셨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하루의 여정을 돌아보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동악인의 공간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함께 겪고 공감하는 글 스티커 5장 드리고 싶어요 ~

▶ **김이현(제월38회) 12.06.14. 15:59**

카페에서 뵈니 반갑습니다.

글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 **김종옥(창정37) 12.06.14. 16:19**

아이쿠 이현씨, 오랜만이구먼! 한동안 못 보았지.

이렇게 커어서라도 볼 수 있어 반갑네. 카페에서라도 자주 보세....^^

▶ **이정재(금산47) 12.06.14. 17:59**

그 돼지 황홀한 경험을 했구먼 ^*^

▶ **박상우(흙석43회) 12.06.15. 00:15**

아득한 옛날에 이야기입니다. 흙석에도 방죽 옆에 삼나무 밭이 있었답니다.

삼나무 속을 저롭대로 불렀는데 맞는지는 모르지만 참 다양하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 **양순용 (종방 38회) 12.06.15. 00:52**

생각 같아선 선배님 글 솜씨에 엄지손가락 한 열 개 찍어 드리고 싶은데요.

한 사람이 한 개 밖에 못 찍게 되어 있네요.

참으로 아쉽구만요. 그리고 그 옛날 귀방죽에서 토탄 캐며 고생깨나 했던 생각이 납니다.

토탄 캐러 웅덩이에 들어가면 토탄냄새가 퀴퀴하게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많이 났었죠..

아마 몇 천 년은 물려 썩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배님도 그 때 그 시절 토탄 캐지 않으셨나요?

물 마른 방죽 안에 삼삼오오 짹 깔려서...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그리고 선배님 요즘은 대마초 안 피우니까 신고하지 말아 주세요..~ㅎ ㅎ ㅎ

▶ **김종일(창정38) 12.06.15. 07:13**

종방에서도 토탄 캐러 왔었남?

엊그제 같이 기억이 생생하구먼...

리어카로 마당에 옮겨 말리면 가벼워지고 화력도 괜찮은 연료였지....

▶ **김종옥(창정37) 12.06.15. 10:59**

순용씨도 토탄 캐러 귀방죽에 왔었구만....

그 때 무쟈게 덥고 무척 힘들었지!

고마워요....^^

 김현님 [37회] 12.06.15. 09:52

37회 김종옥은 아직 얼굴을 못 보아서인지 아리송한 생각이 드는구먼!!
 글 솜씨가 대단히 훌륭해서 종종 카페를 열어 친구의 글을 흥미로운 마음으로 보고 싶구먼!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얼굴 한 번 만나 보세, 시간이 되면 연락 좀 해 주게나.
 꽤나 많이도 보고 싶당께 말허,,,,,, 흐 흐 흐 흐

↳  김종옥(창정37) 12.06.15. 14:30

아이구 반갑다. 먼저 부회장 된 거 축하해. 인천은 잘 다녀왔고?
 그래, 앞으로 모임에 자주 참석할께. 동안 동악산에서 자주 만나자.
 전화 입력했음. 고마워.....^^

 이춘자(창정38) 12.06.15. 13:38

귀방죽 살아 있습니다.
 4월 달에 골프장 가는 길에 벚꽃 보러 갔는데 벚꽃도 만개해서 좋았지만
 그 길가 바로 밑에 귀방죽이 너무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 있어서
 정말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그 곳으로 벚꽃 구경 오세요.

↳  김종옥(창정37) 12.06.15. 14:47

아~ 고맙고 반갑습니다. 곱게 단장을 하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군요.
 꼭 가야겠습니다. 지금은 그늘도 있고 좋을 듯하군요.
 정보 주시어 감사합니다.....^^

↳  김종일(창정38) 12.06.15. 15:32

고맙네요... 아! 귀방죽~ 살아 있다니 다행입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네요~
 지나가시면 스마트폰으로 한 번 찰칵~하시어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럼 우리 카페에 올라옵니다...
 좋은 세상!!! 암튼, 꼭 한 번 가보고 싶네요...
 낚시질도 많이 했던 곳... 낚시하면서 먹던 도시락은 정말 맛있었는데...

 김형옥(혹석37) 12.06.15. 19:02

재미있게 읽었네! 종옥이 글 솜씨가 대단하군~~
 창정에 글 솜씨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예전엔 미쳐 몰랐네.~ 죄송...

↳  김종옥(창정37) 12.06.15. 19:54

반갑네. 지난 일을 좀 올린 걸 그리 띄우면 안 되네.....
 그냥 평범하게 봐 줘.

그 때 그 집이 그립다

박상우(흑석43)

장독에 맨드라미와 봉숭아가 피어 있던 집. 항상 사립문이 열려 있어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마음대로 드나들었던 집 그 집이 그립다.

어떤 사람은 사랑방으로 어떤 사람은 아지트라 부르기도 했다. 윗목에는 고구마를 담아놓은 뒤주가 있었고 나락을 담아놓은 가마니도 있었다. 쥐생원도 있었는지 왕겨와 함께 쥐똥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찾아 왔었는지 그 집이 그립다.

쇠죽을 끊인 방이라 누우면 등뼈에 시린 피로가 스르르 풀리었고 진흙 벽이라 흙냄새까지 그 시절의 찜질방! 귀한 친구가 올 때면 흥학처럼 목이 긴 항아리에 들꽃을 꺾어다 향기로움으로 내 마음을 대신 해주었던 그 집이 그립다.

이름만 다를 뿐 우린 매일 여기 저기 배회하다 밤이면 만나는 후천적 혈연처럼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구심적 접착제 역할을 해왔던 상우네 집! 사는 일이 울적해도 그 때 있었던 추억을 떠올리면 행복과 함께 웃음의 바이러스가 찾아온다.

때로는 누구에게 좌절이 찾아오면 서로서로 인생관을 총동원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위로 해주고 자질을 닦아주고 익욕을 갖도록 희망을 주었던 그 때 그 형제들... 품위있는 선비처럼 능력도 과시하지 않으면서 우리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셨던 김형옥 선배님도 함께 할 때가 있었던 그 집이 그립다. 얼마 전에 시인 고은님의 팬 사인회에 함께하신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망각하고 있었던 큰 사랑을 더 알려드리고 싶다.

우리 집 뒷켠으로는 도량물이 흐르고 찔레꽃이 울타리가 되었고 옆에는 창포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다. 여름이면 동네 아낙들이 훌러덩훌러덩 머리도 감고 미역을 하는 모습이 지금도 선한데 마치 단원 김홍도가 풍속화를 그리기 위해 연출해 놓은 듯 했던 집!

38회 김옥심 누나 40회 신영희 누나 41회 윤이순 누나가 단골손님, 아랫마을 남선댁(상구 엄마)도 그렇게 뭉개구름 가는대로 세월 따라 멀리와 있건만 고무줄로 연결해 놓은 듯 내 순정은 고향을 찾아 또 떠납니다.

신행임(제월)39회 12.05.27. 22:27

장독에 맨드라미 봉숭아꽃 피고 집이 사랑방으로 동네사람 방앗간이 상우씨네 집이였군요!
 원래 사람이 짖는 집이 인정 넘치고 베품이 풍부해서 대문도 없이 드나든다고 하였습니다...
 몇 줄만 읽어도 상우씨의 따뜻한 부모님 슬하의 형제 자매 모습이 그려집니다. 내가 사는
 우리집도 대문을 활짝 열어 재껴놓고 올 동악님들이 시도때도 없이 드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휴일 배려와 나눔의 기쁨을 맛보는 오월의 마지막 휴일로 보내고 싶어요,,,,
 상우씨 늦은 시간 지필에 수고했어요 ~

L 박상우(흙석43회) 12.05.27. 23:44

그러게요. 선배님 ㅎ ㅎ ㅎ 개를 키워도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어 짓지도 않던데요.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생고구마도 깎아 먹고, 비밀인데요 고스톱도 한번씩 했답니다.
 집에 오면 11시쯤 되어서 밥 먹고 하면 늦은 시간까지 하게 되요...감사해요. 선배님!

박종민(서봉41) 12.05.28. 22:58

후천적 혈연! 찔레꽃 아래 창포비녀를 꽂고 목욕하는.....
 참 아름다운 흙석입니다. 자랑스러워하실 만 합니다.

L 박상우(흙석43회) 12.05.29. 23:27

사립문 잠그고 나도 못 들어오게 하고 훌러덩 훌러덩 선배님동창 김옥순 윤이순 박봉애도
 지금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고마워요. 선배님!

김종옥(창정37) 12.05.30. 16:40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요즘 동악에서 고향내음 물씬 풍기는 글을 접하고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흙석 저수지. 상우씨네 뒤 도랑물을 머리 속에 그리며 삐긋이 미소 짓습니다....^^

L 박상우(흙석43회) 12.06.01. 23:11

반갑습니다. 선배님 누추한 저에 방에도 찾아오셨네요. ㅎ ㅎ
 기억력이 있을 때 생각나는 걸 한 줄이라도 남겨 놓아야 할 것 같은 마음에서요.
 도랑물에서 미역 감다 타이야표 검정 고무신도 많이 잃어 버렸던 지난 세월이랍니다.

윤옥희 (흙석) 42 12.05.30. 21:06

상우의 어머님은 성품이 온화하셔서 누구든 편안하게 그 집을 드나들었지.
 옆 모퉁이 돌아가면 우리가 오손 도손 놀았던 공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고...
 사립문에서 부엌쪽으로 돌아서 뒷켠으로 가면 또랑이 있고
 그 곳은 동네 언니들의 선녀탕이였지~
 지금도 우리 이순이 언니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믿고 있거든^^
 순진하기만 하던 니가... 알면 까무려칠꺼야~

↳  박상우(흡석43회) 12.06.01. 23:19

하루는 학교 갔다가 사립문을 여는데 눈에 들어온 것은 백옥같이 하얀
선녀들에 뒷모습 옥심이 누나 고함고함 지르고 그때 누드는 처음 봤지..ㅎㅎㅎ
엄마들이야 보든지 말든지! 훌러덩훌러덩 쭈글쭈글 ㅎㅎㅎ

↳  박종윤(서봉37) 12.05.31. 22:16

고향의 옛 추억은 언제 들어도 구수하고 정답기만 하네요.
구구절절 마음에 다가와 옛 추억에 빠졌다 갑니다.

↳  박상우(흡석43회) 12.06.01. 23:25

감사합니다. 선배님 참 좋은 시절이었지요. 옛 시절로 돌아갈 수 만 있다면 서봉 선배님
집에도 가서 하룻밤 신세도 지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선물도 하고...
그런 시절이 다시는 올 수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  김형욱(흡석37) 12.06.01. 18:43

맨드라미, 봉송아, 쇠죽, 또랑, 찔레꽃, 청포꽃 단어만 들어도 다정스럽기만 하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넉넉한 인심을 늘 잊지 않고 있단다.

↳  박상우(흡석43회) 12.06.01. 23:44

가는 세월과 함께 잃어버린 것도 많지요. 함께 했던 사람들과 만나서 지난 날
소중한 기억들이 본능적으로 되살아날 때 짜릿한 희열 서글픔 아쉬움...
정말 카페의 고마움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기억해야 되겠지요.

↳  김병완(41회) 11:00

박상우 후배님이 게시한 글을 하나하나 보았지만 필자는 여러가지 작품 중에서도
이 작품이 고향의 향수를 자극하며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정감 있게 잘 보았습니다.

↳  방현기(택촌47회) 12.08.20. 19:56

어린 시절 개구쟁이들이 재미난 추억은 젤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 시대는 더 재밌었군요.^^

↳  박상우(흡석43회) 12.08.20. 23:43

반가워요. 뽕나무에 관하여 아주 재미나게 쓰셨던데요. 우리들도 오디를 따먹으며 지난
시절이 떠올라 그리움이 더하였답니다. 요즈음 들어서 글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난 것 같아요. 내가 막내같은 느낌으로 살다 후배님이 참여하니 정말 반갑네요. 고마워요.

↳  방현기(택촌47회) 12.08.21. 00:00

^^감사합니다! 저도 선배님 글 열심히 찾아 읽을래요.^^

 박종민(서봉41) 12.08.21. 00:27

저는 이 글을 열 번 이상 읽게 되는군요.(교정을 보는라 읽을 때마다 상우님네 또랑에서 나도 등록을 하는 기분이지만....) 지기님 그리고 상우님, 또한 우리동악인 땜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글이란 누구나 그 쓰는 사람은 달라도 그 감흥은 엇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의 길고 짧은, 열정에 물어나는 호흡을 느끼다 보면요.

(그리고 새삼 댓글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새록새록 되새기게 된답니다.

여러분도 댓글을 많이 달아보시고 댓글을 잘 읽어 보시면 앱니다. ㅎㅎ)

 박상우(흡석43회) 12.08.25. 00:05

반갑습니다. 선배님 제 글은 가볍게 웃으면서 넘기는 글이지만

선배님의 글에서는 많은 지식을 배우고 깨달아 가면서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고향의 말, 선배님 글에서 배우는 후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궁동 총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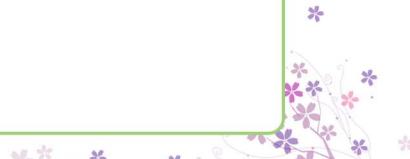
성남송을 노래하며

박종민(서봉41)



행복은 그리는 것이 있으므로
나도 몰래 시작되는 것인지요

고향을 찾느라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쓰고 몸을 다그치면서
순간을 영원으로 새기는 눈빛 만나고
기쁘고 설레는 일 마주하는 어귀에서
행복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 아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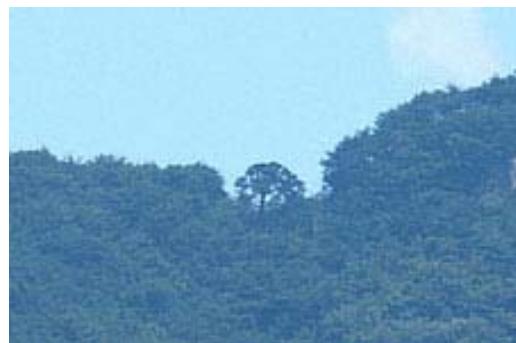




마을 모습, 골짜기 윤곽 새기고 새기며
고샅 풍광, 들풀 이름 부르고 부르면서
언제라도 사람을 떠올리는 자리
자꾸나 사람을 그리워하는 터전
고향!

그 멀고도 가까운 곳에 가고자 눈물인
마음에 세워둔 이정표 하나 남았으니
그 이름 성남송인 것 잊지 않으리라
거기 동악산에서 태어나
그곳 섬진강에서 자라난
사람은!

늘쌍 저 솔기둥 스치는 바람 가슴에 있고
시방 저 솔가지 비치는 햇살 어깨에 닿아
끝내, 나는 너로 비롯하여 행복, 행복하다
고마워라, 그대 성남송이여!
영원하라, 입면땅 고향이여!



❶ **박종민(서봉41) 06.10.23. 11:56**

성남송이라는 명칭에 대해 어쩜 서낭송, 서낭솔은 아닌지 라는 의문이 갑자기 납니다.
보통 서낭당, 서낭나무 그려도 성남재는 서낭재이고 성남송은 서낭송이 와전되어 불리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기석(만수37) 06.10.23. 20:23**

과연 깊은 통찰입니다. 서봉, 금산 쪽 분들에게 고증을 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❷ **김영길(만수42) 06.10.24. 07:01**

여보게 종민이! 오랜만일세. 오랜만에 자네 작품이 올라 왔네 그려.
성남송의 뜻은 잘 모르겠네마는 친구 글을 보니 그냥 좋네!

↳ **박종민(서봉41) 06.10.24. 09:37**

어제 문득 그대 이름 떠올라 나도 좋았네! 잘 지내시게!

❸ **박종윤(서봉37) 09.07.12. 11:29**

성남은 서낭재가 와전된 건 아닌 거 같고요.
보통 서낭당이나 서낭재는 마을 어귀나 부녀자들이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작은 고개에 위치한 게 일반적이며 서낭당도 아마 민간신앙의 자연숭배나 祈子신앙에서 와전 된 거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성남재처럼 높은 위치에는 서낭당이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서 서낭재가 성남재로 와전된 것은 아닐 거로 사료 됩니다. 물론 좀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 **박종민(서봉41) 06.10.30. 15:28**

참 오랜만입니다. 가족 모두 평안하신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뜻 성남재 소나무에 어른들께서 정월에 금줄을 둘러놓은 것을 한식 무렵 시제에 가다 본 것이 기억나서 동악산 성남재 솔나무가 당제를 지낸 대상이기도 하다는 생각에서 혹시 서낭나무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해서의 사족입니다.

성남이라면 곡성읍의 남쪽이라는 의미에서 온 말이기나 할까요? –

↳ **박종윤(서봉37) 12.03.15. 12:13**

딱히 내 지론이 맞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내 견해를 말했을 뿐이며
드물게는 高峯峻嶺에도 서낭당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혹, 성남재도...

❹ **선인장 (택촌43회) 08.07.27. 10:36**

저 소나무 우리 집이 동향이라 눈뜨면 보였던 곳인데 반갑네요.
흐린 날엔 곡성역 기적소리와 함께...
그러면 울엄마 “워메, 비 올란갑네!” 하셨던 것이 생각나네요.

↳  박종민(서봉41) 08.07.29. 11:16

아고, 그 기적소리를 머리맡에 두고 자란 분이구나!
동향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해를 보았으며 얼마나 많은 동악산을 보았을까.....
보신 만큼 들은 만큼 더 부자이신 분인 거 맞지요?

↳  선인장 (택촌43회) 08.08.10. 20:08

그 소나무 이름이 성남송이란 걸 이 카페에서 알았습니다.
누가 왜 성남송이라 헛을까요?

↳  김재복(제월38회) 09.07.11. 10:11

입면에 관문을 들어서면 맨 먼저 동악산 성남송이 우릴 반겨주곤 하지요.
이 카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무심결에 별의미를 갖지 못했는데
종민 아우님 덕분에 성남송이 우리 동악인의 가슴 속에 자리하면서
어쩌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일체감 내지는 입면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주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네!

입면의 멋스러운 풍광을 자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말 고마우이~

↳  박종민(서봉41) 09.07.11. 21:23

감사합니다.
입면 사람으로서 입면을 상징하는 코드가 있다면 바로 성남송이라는 생각입니다.
정신과 육신의 회귀점 역할을 하고 있는 성남송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쩜 정말 행복한 입면 사람입니다.

↳  안기석(만수37회) 12.09.04. 22:36

비오는 늦은 밤 성남송을 읽으며 애절한 배경악 들으니 내 가슴이 까닭없이 저며오네
무정하게 먼저 세상 떠난 친구가 눈물 나게 그립다.
아, 고향 그리워라!

같이 부대끼며 삶을 나누던 이 집 사람 저 집 사람 다 그리워라! 사랑하리라~
미움 떨쳐 내리라~ 이 땅에 남은 세월, 오직 사랑만 하리라

↳  박종민(서봉41) 12.09.04. 23:02

늘 행복하소서!
다 그리워하는 마음. 사람, 추억 그 모든 것 간직한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하소서,
고향이라는 오래된 친구를 보듬으며.....



동악산 그 곳에는

박종윤(서종3?)

추석명절 잘들 보내셨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했듯이 요즘처럼 마음이 푸근한 부자였으면 하네요. 이번에 성남재에 올라가 입면 뜰을 바라보며 느꼈던 바를 글로서 몇 자 적어봅니다.

- 동악산 그곳에는 -

동악산 성남재를 힘겹게 오르자니, 구름도 힘겨운지 비 한 들금 쏟아놓네, 짐 벗은 저 구름 가볍게도 재를 넘고, 비에 젖은 이내몸 걸음걸음 천근일세.

구름 따라 오른 성남, 양산나무 그대론데, 서리 내린 이내 머리 몰라 할까 했더니만, 만고풍상 겪은 노송 가지 뻔어 반겨주니, 오랜만에 만난 벗과 한잔 술을 기울였네.

섬진강물 굽이굽이 한달음에 달려와서, 입면 뜰 언저리를 휘휘감고 노닐다가, 살뿌리에 여울만나 가쁜 숨 몰아쉬며, 입면 품을 못 잊어 울어울어 흐르네.

만경 뜰 넓다하나 이보다도 넓을까나, 성남에서 굽어보니 황금물결 춤을 추네, 팔도강산 어느 곳에 이런 산천 또 있을까, 초가삼간 집을 지어 예서 살까 하여라.



 **온종일serv 07.09.27. 16:31**

시와 사진... 동악인의 자랑입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몇번이고 읽고 갑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리운 입면 뜰...울 카페 대문에 걸어 두고 보고 싶습니다...

 **대부이정재(금산47) 07.09.27. 18:39**

선배님 가고 싶은 고향이지만 여건상 가보지도 못하고....
보여주신 고향의 모습 마음에 새기고 갑니다. 감솨

 **박종윤(서봉37) 07.09.27. 18:55**

정재씨, 이번에 고향 못가셨구나? 어머님께서 집에 같이 계시니까 담에 가셔도 되지요.
뭐.. 암튼, 막걸리 생각나면 핸폰 해요.

 **김종만(창정38) 07.09.27. 23:17**

정겨운 고향산천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고향에 갔었는데
올해 어머님마저 떠나시니 이제는 명절에 고향에 갈일이 없네요.
다음 달 중순쯤 성묘차 고향에 다녀올까 합니다.

 **박종윤(서봉37) 07.09.29. 23:00**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겪는 일입니다만, 아직도 어머님의 정이 간절하겠네요..
성묘 잘 다녀오세요.

 **코스모스(만47) 07.09.27. 23:43**

이번 추석 때엔 시골도 가보지 못했는데 사진으로나마 고향을 볼수 있어 참 좋네요~~
화면이 탁~~트인 게 시~원하고 좋네요~~ 잘 보고 가요~~

 **코스모스(만47) 07.09.28. 00:11**

산악대장님 !! 산행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인자는 절대 쪽지나 전화나 그거 안 할래요 ~~
게시물 보고 참석하면 좋고 못가면 말고 ...ㅎㅎ
보통은 ~~올려 놓으면 알아서 참석한다고 답글 쭉~~ 달던디 ...
참 그건 그렇고 봄, 가을에 한 번씩 산행 좀 잡아 보세요~~ 무조건 정하면 따를께요~~
산행이 아니어도 좋아요.. 이곳저곳 여행 다니시다가 좋은 곳 있으면 당일코스 여행으로 잡아 보세요~~~산악대장님!! 11월이든 12월이든 젤로 멋있을 때 ~~ 겨울여행도 좋지요~~

 **대부이정재(금산47) 07.09.29. 00:34**

아~~~ 따 이번에 북악산 같이 가면 되지라우.

↳  코스모스(만47) 07.09.28. 12:49

북악산 당연 가고~ 나들이 여행도 가고 그러면 좋지요~~ 이 가을에 ~~ㅎㅎ

↳  박종윤(서봉37) 07.09.28. 21:32

겁주지 마요, 갈께요..ㅎㅎ

↳  도토리(서봉,48회) 07.09.28. 08:32

서봉 모정에서 씨잘대기 없는 얘기만 나누신다더니. 볼 것 찍을 것 할 것 다 하셨구먼요,
오라버니 덕분에 잘 보았네요, 은공이라도 갚아야 하나?. ㅎㅎ

↳  박종윤(서봉37) 07.09.28. 20:32

모정에서 새벽 3시까지 술만 드릿따 푸다가 잠도 못자고 성남에 올랐다가 디지다 살았구먼..
오빠는 올라 왔는감?

↳  도토리(서봉,48회) 07.09.28. 22:17

오빠는 아직도 시골에서 일하시고 계시더구먼요. 부모님 일 좀 도와드린다고.....

↳  탑동(박종민:서봉41) 07.09.28. 11:54

"서리 내린 이내머리 몰라 할까 했더니만 만고풍상 겪은 노송 가지 뻗어 반겨주니"
아름다운 풍광과 달뜬 마음으로 맞는 추석이 잘 느껴집니다.
그런가봅니다, 고향은 늘 나를 기쁘게 살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좋은 사진 깊은 시, 감사드립니다

↳  박종윤(서봉37) 07.09.28. 20:35

탑동 오랜만이네, 잘 지내시지? 즐거운 명절 잘 지내셨기를...

↳  코스모스(만47) 07.09.29. 11:50

탑동님은 답글도 시적으로 다시네요~~

↳  이노순(제월40) 07.09.28. 21:05

그리운 고향 전경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시와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 풍경이 정겹습니다.
동악을 사랑해주신님들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길 빌며
선배님 고향소식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  코스모스(만47) 07.09.29. 11:51

언니 잘 계시지요?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 하세요~~

↳  바우(만수47회) 08.02.05. 08:15

운율까지 척척, 노래나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멋지고 감동어린 글과 사진들 가슴 가득히 담고 갑니다.



시장통 큰점방

한정훈(입석41)



큰점방에서 사탕하나 사가지고

이빨로 깨어서

동네아이들 다 나눠주던 누님

지금은 어디쯤 살고 계실까?

입면시장에서

-야초-

▣ **박상우(흡식43회) 12.06.26. 00:07**

연상에 여인을 찾으시네요... 흠 흠 흠
라면땅 쪼득이 소년전과 뽕기풀선 눈깔사탕 옥산주판
취급품목이 여려가진데 갑자기 생각이 잘 안납니다.

▣ **한야초(입석41) 12.06.26. 10:33**

지금은 폐가가 되었지만 46년 전쯤 저 처마 밑에서 사탕 하나도 다섯 쪽으로 나누어 동네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게 해주던 인심 좋았던 누님을 만나면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 **박종민(서봉41) 12.06.26. 10:43**

큰 점방이면 김선생님 집을 말하는 건가?
오다마를 어금니로 칙, 살짝도 아니고 심을 줘서 바수는 것도 아니게.....
(콱 물면 입술이 닫혀지고 춤이 묻으니까)
그 누님 나도 한 번 보고 잡다, 비록 사탕은 못 얻어 먹었지만....

└ ▣ **한야초(입석41) 12.06.26. 10:47**

입면 시장에서 가장 큰 점방이라 큰점방이었는디
원래 주인은 서울로 이사 가고 그 뒤에 김일신 선생님 사모님이 가게를 보시다가 광주로 이사 가시고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가게를 보시다가 그만 둔 걸로 알고 있다.

└ ▣ **김종옥(창정37) 12.06.26. 11:05**

조금 커가지고 담배를 사야하는데 가게는 김일신 선생님께서 지키고 계시지
이거 어떻해야지?..... 뒤 돌아 갔습니다.

└ ▣ **박종민(서봉41) 12.06.26. 11:08**

哼哼哼 그 담배 얻어 필려면 아직 기다려야 쓰겄는가요?

└ ▣ **김종옥(창정37) 12.06.26. 13:12**

타임머신 타고가 사와 불까요..... 흠 흠 흠

▣ **김종옥(창정37) 12.06.26. 10:54**

문턱이 달토록 넘나들었습니다.
눈깔사탕 독사탕
독사탕 입안에 하나 넣으면 십 리 갑니다 (10리 사탕)
누구 없소 큰 점방 살리실 분.....???

└ ▣ **박종민(서봉41) 12.06.26. 11:11**

큰 점방 옆 집(시방 하얀 시멘트 집)은 장터에서 돼지 너비아니 굽고 막걸리 팔던 자리가 맞나요? 돼지 국물 속에서 건져 먹던 던 국시가 생각나서요....

↳  **한야초(입석41) 12.06.26. 12:26**

큰 점방 바로 옆에는 석유 지름 집이었고
그 옆에 양복점 있었고 그 옆에 짜장면집이 있었지요

↳  **박종민(서봉41) 12.06.26. 20:28**

짜장면집 말고 고기 굽고 막걸리 팔던 집은 도대체 어디쯤인가?
- 다음 사진에 좀 올려주시게 (그리고 자네도 이참에 실명으로 수정하시지 그런가)

 **최갑락(38회) 12.06.26. 11:58**

아~~~추억의 큰 점방이 이렇게 되었나요... 세월이 무상하네요...

↳  **한야초(입석41) 12.06.26. 12:29**

큰 점방에 없는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늘 찾던 곳인데
손님이 떠나니 가게가 저리되고 말았나 봅니다.

 **김재복(제월38회) 12.06.26. 16:00**

그 옆에 양복점이 올 작은아버지가 사장님이었는디~~~
그 덕에 난 늘 맞춤복만 입고 자랐습니다. 쪼매 부러움을 받았지요.
지금 그 사장님은 광주에서 공인중개사 1회 자격증을 획득하여
83세의 연세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며 공인중개 동구지회장 꺼정 하신답니다.

↳  **한야초(입석41) 12.06.26. 16:17**

그렇군요. 대단히 성실하신 분인데...

 **신행임(제월)39회 12.06.26. 16:20**

이구동성으로 추억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
인간인지라 저 깊은 곳에 있는 기억들을 들춰내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정녕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점방....추억하고 기억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은 것이 생각납니다~ 저 한테는,,,
그 때는 점방집 애들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

↳  **한야초(입석41) 12.06.26. 16:18**

그때 오셨더라면 사탕 반쪽 나눠 드릴 수 있었을 것인디요... ㅎㅎㅎ

 **박종윤(서봉37) 12.06.28. 13:43**

이 가게가 시장 입구 쪽에 있었던 가게인가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사진입니다.



입면에서 - 창정리

박종민(서봉41)



어딘가를 거치지 않고 어딘가로 나아갈 수는 없다
어딘가로 향하는 과정에 스치는 꼭 어딘가인 한 어귀
어딘가에서 오는 도중에 반기는 딱 어딘가인 그 자리

늘 신작로 하얀 길 중간 위치를 자리매김하며
동경의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점 초소같이도 다가와
외지로 가는 길목에서 필히 읽어두어야 하는 이름, 창정
막 버스가 어느덧 다한 구비길을 감아돌기 전에
귀향의 원뜸에 다다르는 종착 검문소같이도 느껴져
여행을 마치는 안도숨을 휘이 몰아쉬게 하는 마을, 창정
- 들락대고 번창한 저자거리를 예견했을까, 창자라고도 불리운,
안에서 나가고 원데서 들오다, 꼭 디딤턱으로 딛는 대문 같은 -



누구나 전장에 가기 전에 만나는 훈련소처럼
처음으로 접한 장터에서 세상과의 거래를 배우고
한 어귀를 지나서 또 다른 처소에 나가게 되듯,
누구나 귀향에 닿기 전에 들르는 검역소처럼
마지막에 접는 장터에서 세월과의 흥정을 마치고
한 자리를 돌아서 오래된 귀소에 이르게 되듯,

꿈결에 보이는 곳으로 열린 산과 산 사이를 나는 새처럼
십 리, 백 리, 만 리 먼 곳 행상꾼같이 생활이란 짐을 지고
고개 너머 옥과 지나 광주에 이르고, 아니 세상에 이르도록
꽃잎 날리고 눈비 내리는 시장에서 단련된 생몸 깊숙히
길을 새기다 보면 꼭짓점이 되는 곳이 있게 마련인
생의 노정, 긴 남녘길의 회귀점으로 못박아둔, 자리



사람은 물론, 떠나가기 위해서 고개를 듈다
 세상이라는 마천루에 올라 꿈과 사랑을 이루고
 사람은 또한, 돌아오기 위해서 고개를 듈다
 세월이라는 신기루를 돌아 추억과 귀향을 찾아

마음에 두지 않은 곳은 실재하지 않는 자리이련가
 구곡간장 구비구비 애간장을 녹여서라도 간직하련다
 떠나고 돌아가는 가늠자로 찍어둔 그 어딘가, 창정
 눈에서 멀어진 곳은 마음도 찾아갈 수 없는 자리이련가
 가슴 물길처럼 갈래갈래 길을 어제도 내일도 외우련다
 시작하고 마치는 이정표로 꼽아둔 그 어딘가, 창정

거기를 떠나온 그때처럼, 다시 그곳에 닿기 위해
 고개를 드는, 누구에게나 꽃처럼 어리는 마루, 창정



 박종민(서봉41) 12.05.15. 12:56

어느새 한 해도 반 토막!

돌아보기 좋은 자리, 창정이여~ 그대를 빌어 지금 선 자리를 돌아보게 된다.

바람 가득한 그대 뒷등에 앉아 내 생의 동악산과 섬진강을 마주해보는 초여름
저 들녘에 무엇을 두어야 할까,

이 뭔가 심지 않고는 못 배길 것 같은 저 들에.....

 신행임(제월)39회 12.05.15. 19:15

어느새 반 토막 참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음이라는 빌미로
후회와 반성이라는 단어 앞에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어김없이 녹음이 짙어가는 고향의 향기 언제나 고맙습니다 ~

 한야초 12.05.15. 17:49

창정 늘 오고가며 보던 마을이지... 창정 당산나무는 많은 사람들의 이별과 만남을
지켜 보았을 거야! 나도 객지 나갈 때 어머니께서 꼭 당산나무까지 나와 주셔서
웃고름에 숨겨둔 여비를 따로 주시고 눈물 훔치시던 모습이 선하다.

 박종민(서봉41) 12.05.15. 19:13

나올 때 외워두고 들어갈 때 마주하는 이름, 창정~ 그 디딤덕 같은 마을,
거기야말로 어머니를 불러 보기 좋은 곳, 가슴 속으로 가만히 어머니, 부르다 보면
입면 땅보다 먼저 창정이 마중 나와 있었지! 고향의 원음을 지키는 이정표, 돌장승처럼....

 안병만(창정) 12.05.15. 18:22

박종민 님! 저는 그대를 잘 모릅니다. 아니 알 수 없는 것이 "당연지사" 일련지요.
다만 그대가 써 내려간 "고향의 시"를 읽어 내려가면서 나의 고향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동안 잊고 지내왔던 내 고향 창정!
지난번 고향을 찾았을 때 창립초등학교는 폐교이고, 입면초등학교는 입면 중 자리에
우뚝 솟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찹~ 세월의 흐름과 달라져가는 고향의 모습들을
한 눈으로 보고 있노라니 문~득 아련한 옛 추억에 눈을 지그시 감고 감시 명상에 젖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맘으로 이 글을 드립니다.

-대구에서 안병만- 창립초등 3회 / 입면중 1회

 박종민(서봉41) 12.05.15. 22:09

부끄럽지만 감사합니다. 님의 고향이자 저의 고향이니 제가 부끄러운 목소리로 노래해도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라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진 작은 처음 것이자
마지막 큰 것, 고향이 주는 그 모든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네 삶이 잠시 풍요로울 것이라 위안을 해 봅니다.

 **신행임(제월)39회 12.05.29. 19:43**

님의 글을 찬찬히 읽어 보고 있노라니 창정이 오늘날의 스테이션아니었을까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래를 하고 물건과 돈이라는 것과 바꾸는 것을 배우는 곳이 입면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신작로 넓은 길 중앙에 자리 잡고 이정표 역할을 하는 곳이 창정이었던 것 같아요. 생의 노정 창정마을 아득히 그 곳을 그려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깊은 시향을 지필하실 수 있습니까?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머무는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

 **박종민(서봉41) 12.05.15. 19:25**

대문간 앞에 서서 지나온 고살을 돌아보는 기분!
앞으로 몇 번이나 창정을 내 노정의 이정표로 찍어낼 일이 있을까는 모르지만
이참 여름에는 자꾸 돌아봅니다, 이참 여름에는.....

 **온종일servant 12.05.30. 12:35**

박종민 갤러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창정(昌亭)... 한자(漢字)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초소(哨所), 역(驛)마을로 번성한 곳인데
글에서도 녹아 있네요... 존경하는 저의 蒲公님께서 저의 아호를 昌亭으로 지어 주셨답니다.
창정친구 안병만님이 감동의 고향의 시를 보고 대구에서 댓글을 주셨군요.

※ 昌창성할 창 ①창성(昌盛)하다, 흥성(興成)하다 ②번성(蕃盛·繁盛)하다
③아름답다, 곱다 ④착하다, 선량(善良)하다 ⑤외치다, 주창(主唱)하다
⑥(기운, 세력 등이)성(盛)한 모양 ⑦기쁨, 경사(慶事) ⑧예쁜 모양.
※ 亭정자 정 ①정자(亭子) ②역마을(驛亭) ③여인숙(旅人宿), 주막집(酒幕) ④초소(哨所)
⑤한가운데 ⑥고르다, 평평(平平)하게 하다 ⑦기르다, 양육(養育)하다 ⑧곧다 ⑨우뚝솟다
⑩알맞다, 적당(適當) 하다 ⑪균등하다(均等), 균형(均衡)이 맞다 ⑫(물이)머무르다

 **박종민(서봉41) 12.05.15. 22:38**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으시니 외려 얼굴이 따갑습니다.
더 많은 것을 노래하고자 와도 제 목청이 션찮은 것으로 혜량하여 주셔요.
고향에 갈 때마다 제 스스로를 검증해보게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창정은!

 **박종민(서봉41) 12.05.24. 23:27**

참말 가슴 절이며 답글을 적으신 마음이 다시 보입니다.
창정천 위에 뜬 달빛처럼 한참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온종일servant 12.05.30. 12:35**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종민 동악갤러리님의 詩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시절 맑디맑은 시냇가(昌亭川)에서 피래미, 봉어, 메기, 참게를 잡던 생각이 납니다.
겸연 산정리에서 발원한 창정천(昌亭川)은 삼오리와 입석리를 관류하면서 입석평야를

이루었고, 형제봉에서 발원한 한 지류는 약천제(藥川堤)를 거쳐 매월리와 서봉리에 이르면서 서봉평야를 이루고, 창정천과 합류해 섬진강으로 흘러들지요.

은빛 금빛 모래 위를 맨발로 걸으면 기분이 상쾌하고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 🍞 박종민(서봉41) 12.05.15. 22:20

탱자를 너머 밭곡식 풍성하고 개울가에 나이롱 극장 들어와 심청가 춘향가 소리 높던 어귀. 여름방학 더욱 가차을수록, 거기 입면장 초입! 자꾸 그 물가 어름에 나를 세우곤 합니다, 추억은.....

↳ 🍞 온종일servant 12.05.17. 06:33

그 개울가 창정천(昌亭川)... 안산(安山)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곳...

나이롱 극장, 마을콩쿨대회 무대를 설치했던 곳...

님 덕분에 잠시 지그시 눈을 감고 추억여행을 해 봅니다.

이런 추억이 없는 도시(都市)태생 친구들이 가끔 불쌍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 🍞 박종민(서봉41) 12.05.16. 20:11

안산(安山)이라면 풍수에서 말하는 조산, 안산할 때 그 산인가요?

아님 옥과cc쪽으로 보이는 지금의 입면초등학교 뒷산쯤을 두고 말하는 단순한 지명인가요?

기왕에 알고자운 맘이 들어 묻습니다

↳ 🍞 온종일servant 12.05.17. 09:29

창정마을 앞에, 정남향쪽에 조그맣고 아담한 산입니다... 어렸을 때는 약간 크게 보였는데...

↳ 🍞 박종민(서봉41) 12.05.17. 09:55

예, 창정 삼거리 쪽에서 입석 방향으로 발 아래 창정천을 감고 선 산인가 봅니다,

맞아요, 야트막하지만 바로 눈 앞에 있으니 크게 보이기도 하지요, ㅎ,

창정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 🍞 온종일servant 12.05.30. 12:34

한자로 창정(昌亭)이 초소(哨所). 역(驛).의미가 있을 줄이야... 그 뿐인가요?

청주비행장은 상승리(上昇里) 상하리(上下里)에 건설했는데 이륙하는 활주로는 상승리에

착륙하는 곳은 상하리에 지어졌다고 하네요... 선조들의 예측력과 한자의 신비로움...

그 외도 많이 있지요... 옥과(玉果)... 과일 맛이 좋은 곳 등등...

↳ 🍞 박종민(서봉41) 12.05.24. 23:30

가지가지 옥과로다(호남가 대목 중에도 나오는 옥과, 옥 같은 과일, 생각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떠올리게 하지요). 네, 들여다볼수록 한자의 깊이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 🍞 박종민(서봉41) 12.05.25. 09:12

번창하고 활기로운 정자(당산머리)에는 늘 사람이 오고 가고..... 쉬다 놀다.....

사람이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듯 우리 주변의 정자,

초소, 역마을, 원듬에 가는 길목..... 역할을 하는 곳 창정!!

생각할수록 한껏 설레다가도, 비로소 차분해지는 곳입니다, 아직도 제게는....

냠 양효숙 12.05.24. 15:44

마을마다 좋은 글 잘 보고 감상 잘 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냠 김종옥(창정37) 12.05.26. 14:58

어느 덧 창정리 142번지 내가 태어난 곳에 와 있다. 벌써 동네를 한 바퀴 잡아 돈다.
사삼골짜기(청계동)로 향한다. 제월 뒤 생여바위를 지나 배님재를 간다.
바람재 도투마리재를 뒤로 하고 월맹앞 치마바위다 돌꼭재를 지나 이제 입면 5일장에 왔다.
눈깔사탕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 돈을 주울려고 눈을 까고 다닌다. 돈이 없다.
어전 앞에 꼬막 한 주먹 쥐고 뛴다. 아 이제 창정 당산나무 앞이다. 당산나무를 빽빽
기어올라 꼭대기 자전거(자전거 모양 가지가있음)에 앉아 꿈을 키우며 미지의 세계로
힘차게 페달을 밟았었다. 이젠 당산나무도 식구가 늘었다. 반백수가 된 지금 귀향의 꿈을
안고 또다시 힘차게 페달을 밟는다. 박종민씨 감사합니다..... ^^\n

냠 박종민(서봉41) 12.05.28. 22:23

식구가 는 당산나무! 힘차게 페달을 밟다가 또다시 힘차게 페달을 밟는 모습,
참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나래를 펴고 자전거 뒤를 따라 달릴 수 있도록 기쁜 답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냠 양순용 (종방 38회) 12.05.29. 08:32

종민 후배님, 감사합니다. 고향풍경과 좋은 글들! 원래 창정마을은 입면의 관문이기 때문에
모든 입면인들이 유독 정이 많이 든 고향마을이지요. 선후배분들도 많고요.
특히 우리 동창 친구들이 많지요. 한마디로 친구가 제일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정도 많이 가고 추억도 많고요.

그리고 창정 대선배님들이 우리 어렸을 때 한가닥씩 하신 분들이 특히 많았었죠.. ㅎ

냠 박종민(서봉41) 12.05.29. 09:42

재미있고 구체적인 창정 이야기를 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창정이라는 고향의 당산머리에 서 봅니다.

냠 양순용 (종방 38회) 12.05.30. 00:31

종민 동생, 항상 고맙고 감사해요. 어느날 만나게 되면 코가 빠뚤어지도록 술한잔 합시다...

냠 박종민(서봉41) 12.05.30. 21:39

고맙기도 하고 과분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좋습니다, ㅎ

 **한상태(창정34회) 12.05.30. 11:59**

오랜만에 본 내 고향 창정! 눈으로 보고(사진), 마음으로 보여준(詩語) 당신 참 멋져요.
내 고향 창정이 이렇게 멋있는 줄, 60고개를 넘어 그대에게서 알게 되었습니다.

↳  **김종옥(창정37) 12.05.30. 17:50**

형님 안녕 하시지요? 형님 못 뵈 지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자주 뵐요.....^^

↳  **박종민(서봉41) 12.05.30. 21:41**

과찬을 주시니 머리 속여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좀 더 나았으면 하는 욕심과 함께 저의 미움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최갑락(38회) 12.05.31. 20:25**

탄금쟁이를 잊으셨나요? 다음 사진엔 탄금쟁이도 넣어주세요...

↳  **박종민(서봉41) 12.06.04. 18:56**

탄금쟁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아님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인지요?

탄금은 순창 쪽에 있는 마을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  **김종옥(창정37) 12.06.06. 18:06**

가마동하고 탄금쟁이는 창정리에 속하지요.

탄금쟁이는 창립초등학교에서 송전리 가는 길 왼쪽에 있지요. 약 10여 가구...?

지명에 대해서는 고수님들께 넘깁니다.....^^

 **콜라비 12.06.01. 19:47**

종민 후배님! 좋은 글 멋진 동네를 즐겁게 감상하고 갑니다~~~

※ 2012.8.29 창정 당산나무(위 사진)가 태풍 불라벤으로 힘없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입면에서 - 서봉리, 한 자락 더

박종민(서봉41)

저토록 찬란히 나래를 펴고 날오는, 뭣이다
 청룡등 당산서 걸렁통 거쳐 한벽정 우로, 짹
 파란 하늘에 훨훨 날개자락을 펴는, 봉이랴
 이토록 살맹히 나래를 접어 내리는, 뭣이다
 웃거테 어깨턱부터 사랑고개 옆굴데기까지
 푸른 청대밭을 크다란 날개죽지 한 짹으로, 쑥
 감싸고 또 한 짹으로 마저 마실을 품는, 황이랴

그렇다, 봉황이 깃드는 자리, 서봉이랴
 해가 성남송에서 들녘을 지나 서편으로 가는 동안
 봉처럼 설 자리와 황처럼 앓을 자리를 고르고 골라
 사람을 사람으로 질들이는 것이 일이다
 꿈이 없으면 어찌 사람이 사람이라
 가슴에 봉황을 두고 봉황처럼 살자는 노래
 아름다워 아름답지 않으랴





물 좋다, 흄배 약수 바우에서 내린 물이 웃샘 아랫샘
코두박지샘까장 타고 내려 흐북하니 고이는, 물 좋으니
사람 좋다, 해마다 집집마다 들르는 제비들도 봉황처럼
새끼를 질르는 것을 봄서 봉황같이 자식에 자식을 키우니
근동서 질로 크다, 사람도 절로 많다

적지몰 어름에 서보면 온전히 뵈인다
봉황이 서린 능선에 사람의 꿈이 어떤 움터를 마련했는지
봉황이 깃든 자리서 사람의 뜻이 어찌 자식을 농사하는지
마실 등거리 같은 청대밭 남는 한, 봉황이 나듯 사람이 나겠다
마실 한가운데 맑은 물길 그치지 않는 한, 봉황이 목을 축이듯
사람이 사람의 정으로 젖겠다

서봉

백 년 한 번, 봉처럼 대냥구 꽃씨만 넘길 수는 없지만
천 년 한 번, 황처럼 하늘에 날개를 펼칠 수는 없어도
거침없이 사는 것이란 어떤 것이다
땅을 거스르지 않으면 목숨이 천하지는 않아
사람에게 걸맞는 뜻을 사람에게 대물림하는 것이라
뜻을 모으면 역사가 되고 역사를 남기면 탑이 된다

탑동

동각거리 나오면 분명코 만나게 된다
아까참에 까만 차를 날개 펴고서 떠나간 사람
봉황처럼 꿈을 펼치며 오르더랴, 서봉 너머로
이따참에 하얀 차를 날개 접어 돌아오는 사람
봉황처럼 뜻을 다하여 내리더랴, 탑동 안으로

마음 태죽에 봉황을 그리고 사는 사람들위 마실
봉황은 서봉 사람들, 사람노릇의 다른 이름이다

▣ 박종민(서봉41) 12.06.12. 14:57

물길 따라 산길 따라 이어진 고향의 순례! 이 아름다운 봄날들을 잊지 못하리라.
이 아름다운 마을들을 난 기억하리라.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시 만나리라.
고향이여, 가슴 벅찬 고향이여! 내가 더위 먹지 않고 그대를 더욱 뜨겁게 안아낼 수 있도록
동악산이여, 산바람 한 자락을 허락해다오. 섬진강이여, 내 가슴 피들기를 이끌어다오.

↳ ▣ 신행임(제월)39회 12.06.11. 20:47

가슴 벅찬 고향이여! 모든 마을이 종민님 글 밭에서는 아름다움으로 승화됩니다.
동악산, 섬진강, 서봉마을의 봉황이여 서봉에서 태어나심을 축원드립니다.

↳ ▣ 박종민(서봉41) 12.06.11. 22:44

서봉의 봉황이라면 지킴이 문화형이 아닐까 생각된답니다
청룡등에서 걸령통 지나 한벽정 올라 동악산이 다 보이는 자리.
홀배 어름에 집을 한 채 떡 하니 짓고 해를 맞고 달을 보며 들판을 들락날락.....
고향 순례를 서봉리로 시작하여 서봉리를 한 자락 더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도
문화 형의 서봉사람 노릇 때문이기도 합니다, ㅎ

▣ 한야초(입석41) 12.06.11. 10:14

서봉이 아름다운 것은 봉황처럼 큰 꿈을 가지고
탐을 쌓고 공들이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가 보네...

↳ ▣ 박종민(서봉41) 12.06.11. 22:17

탑이란 탑돌이를 하고자 하는 마몽이 굳어진 그림자라더라
봉황의 나래가 머문 곳이 서봉이라면 서봉이라는 모든 마을이 모여 입면을 세웠으리라!

▣ 김종일(창정38) 12.06.11. 13:49

많은 자료와 연구가 녹아있는 시를 봅니다.
서봉에 인물들이 많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을 정화시키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군요.
모두 좋은 시 덕분입니다...

↳ ▣ 박종민(서봉41) 12.06.11. 21:54

고맙습니다.

▣ 신행임(제월)39회 12.06.11. 20:47

고향을 그리는 시향, 언제나 공감하며 고맙습니다. 지나온 길목마다 구성진 방언과 속 깊은
발자국,,,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푸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설레임과 기대가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깊은 정 고운 정 나누는 동악산 기슭 입면의 쉼터와 자랑거리입니다.,,,

고운자리 꽃 한 송이 봉실 피어 오릅니다~

↳  **박종민(서봉41) 12.06.11. 21:56**

입면 사람들 마음이 벙긋 연꽃처럼 피어오르고

서로 기쁜 얼굴로 마주하는 자리 동악산기슭을 날다가 님을 만난 것도 기쁨입니다.

 **박상우(흙석43회) 12.06.12. 00:11**

먹물 냄새 풍기는 지식인들이 많은 서봉 아니신가요.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존경하는 스승님 최전우 선생님,

학문 인격 덕망 두루 가지신 특정인 박종윤, 박종민 선배님...

근데 나는 서봉에 딱 한 번 밖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한 번 가서 두루두루 관찰하고 싶습니다.

↳  **박종민(서봉41) 12.06.12. 10:22**

언제 같이 한 바퀴 돌아봅시다.

 **박종윤(서봉37) 12.06.12. 00:13**

동생 글을 따라 동네 한 바퀴를 빙 둘러보니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네 그려.

오늘은 너무 많이 걸어 내일 한 번 더 돌아 볼 샘이네..ㅎㅎ

↳  **박종민(서봉41) 12.06.12. 10:23**

웃샘이든 아랫샘이든 아니면 코두박지샘이든

한 모금 목을 축이고 싸목싸목 냉기셔요, ㅎ

 **소나무.조재갑 41회 12.06.13. 12:47**

서봉에서 나 서봉에 어린 시절의 추억을 물어둔 그곳 ! 늘 가고픈 고향 !

다시 한번 남쪽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  **박종민(서봉41) 12.06.13. 22:29**

늘 거기 그 하늘을 보는 자네도 어쩔 수 없이 서봉 사람이네 그려!

 **정앵숙(서봉48회) 12.06.26. 10:55**

이 글을 보며 눈물이 나는 건 뭘까요?

↳  **박종민(서봉41) 12.06.26. 20:16**

고해성사처럼 내 자신이 보이는 자리라서 그런가요?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바람을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는 징조인디.....

그대 가슴에 흥건히 흐르는 것은 눈물은 아닐꺼여

고향의 모든 기억들이 고이는 가슴속 맑은 샘물이겠지,,,,,



검은들 사람들

김형우(흑석3?)

이지러진 초가의 지붕, 돌담, 흑석저수지, 대부동, 마을 앞을 흐르는 또랑, 보리밭, 자운영, 유산각, 새뜸 당산나무, 아랫검은들 미루나무..... 오랜 세월동안 망각의 여백 속에서 그냥 묻어두었던 검은들 풍경들이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쓸쓸한 가난한 마을이었지만 그래도 90여 호가 오순도순 평화롭게 살던 마을... 늘 정적속의 마을이지만 7월 말경부터 8월 초순이면 갑자기 분주해진다. 검은들 마을은 어느 때 부터인지 집집마다 왕골을 재배하여 초석을 짜 생활하는 마을이다.

왕골의 특성이 키가 커 바람에 약하여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오면 쓰러져서 제때에 껍질을 말리지 못하면 초석감이 빨갛게 변하여 망치는 경우가 많다. 이맘때쯤 비바람이 부는 날이나 태풍이 오는 날이면 온 동네가 들썩댄다. 약천양반도 뛄고, 짐산댁도 뛄고, 서봉댁도 뛄고, 덩달아 온 동네 강아지들까지 따라 뛴다... 해마다 쉽게 볼 수 있는 풍경들이다.

할아버지, 할머이부터 온 동네 꼬맹이까지 바쁘다. 어른들은 왕골을 베고 씻어서 젊은 총각은 나르고 처녀들은 빠른 손놀림으로 왕골을 쪼개고 꼬맹이들은 잡으면서 밤새 작업을 하여 면동이 트기가 무섭게 들판에 말려서 초석감으로 사용한다.

이런 특수한 곳이다 보니 검은들 사람들은 협동심이 강하고 이웃끼리 오순도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으리라... 그래서 난 검은들 사람들을 좋아한다. 향수만으로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검은들 사람들은 심성이 곱고 부지런하여 책자에 나가서도 모두들 사랑받으면서 잘 사는 이유이다.

검은들 사람들이 순하게 살아서인지 검은들 하늘에는 별들이 참 많이도 떴던 마을이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좌우당간 09.07.14. 20:15

맞습니다... 근데 지내 놓고 보니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그땐 엄청 힘들었어요...
 왕골끼기 하면 잎이 날카로워 끊기고 밤에 왕골 쪼개기 하면 모기는 달라붙죠, 잠은 오죠...
 그래도 왕골 쪼개기 끝나고 밤참으로 콩 갈아 짜낸 콩물국시는
 지금도 그 맛이 잊혀지지 않네요.

 김형욱(흑석37) 09.07.14. 20:26

그 시절 돈 만지는 일은 초석밖에 없었으니 그래도 우리 마을은 복 받은 마을인 거 같네...

 박종윤(서봉37) 09.07.16. 15:51

한참이나 순수하고 정이 많은 우리 고향 사람들.. 검은들이나, 서봉이나 여타 마을사람들도
 정이 넘치는 고을이지.. 오랜만에 들어보는 '초석' 정말 정감이 가는 단어가 아닌가 싶다. 그
 리고 정겨운 고향사람들의 사는 얘기인 형욱이 니 글의 정말 공감이 간다. 암마! 근디 검은
 들 사람만 순허냐? 질랄 염병!.. ㅎㅎ

 김형욱(흑석37) 09.07.14. 20:54

입면분들 다 순하지..... 그러나 쪼까 검은들 사람들이 더 순하지 개미눈물 만큼~
 그러니 검은들 하늘엔 별이 유난히 많잖아ㅎㅎ

 조정만(서봉47회) 09.07.14. 21:08

하 ~ 보기좋습니다^^

 김형욱(흑석37) 09.07.14. 21:58

종윤이랑 친한 친구라서 장난하더라도 후배들이 잘 좀 봐줘 임~~~

 박종민(서봉41) 09.07.14. 21:41

왕골, 그 부드럽고 맨질맨질 하고 그러면서도 유려한 모습, 풀인데도 풀 같지 않게 곧아
 하늘에 달을 것 같은, 참 아름다워서 몰래 몰래 훔쳐 손마디 만하게 자르고 양쪽을 쪼개서
 따다닥 딱딱..... 딱따개비를 만들어 놀던 기억 새롭습니다. 초석 깔고 신랑 각시 맞절하는
 동네 가운데 장닭 우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흑석 그 검은들 마을!

 박종민(서봉41) 09.07.14. 21:44

근데 검은들이 맞나요, 검은들이 맞나요? 아마 저수지 아래 흙이 검고 기름져 검은들이라
 오래 전부터 불려 왔을 것인데 일제가 마을 이름을 한자식으로 고치다가 검은들, 흑석으로
 표기한 것은 아닌가요? 검은들이면 흑야라고 했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맞나요?

↳ 🍔 김형욱(흑석37) 09.07.14. 21:54

고향 분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니 즐겁네... 어르신들이 늘 검은들이라 불렀는데 일제시대 때 한자표기를 대충 흑석으로 했던 거 같네... 난 검은들이라고 우리말로 부르고 싶네 ...

↳ 🍔 박종민(서봉41) 09.07.14. 21:59

그렇군요, 저도 검은들이 더 정감이 가고 가깝게 다가오는 이름입니다.
제 기우가 부질없어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 📸 양경희(택촌43회) 09.07.14. 21:59

저도 외갓집이 흑석이라 가끔 가면 우리 동네와 다른 점이 있었지요. 온동네 사람들이 왕골 째는 일에 남녀노소 애 어른 모두 난리도 아니었죠. 꼭 공장 같다고 해야 하나..ㅎ 암튼 그 동네 사람들 쎄지요 무~~지 ㅎㅎㅎ

↳ 🍔 김형욱(흑석37) 09.07.14. 22:03

아버님이 선구안이 있으셔서 장가를 잘 드셨군 ㅎㅎㅎ
보나마나 어머님 부지런하시고 섬세하실 건데?

↳ 📸 들고래 09.07.15. 08:47

우리 동네 매산에서는 몇 집에서만 왕골농사를 짓고 초석도 짜고 했지요.
왕골 쪼개기의 잡기를 하면 왕골속을 뚫으로 받곤 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쟁탈전도 벌이곤 했던 추억이 글을 읽으며 떠오르네요. 지금도 돌아가신 아버님이 선물하신 왕골 둋자리를 더운 여름철엔 서울의 한복판에서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 🍔 일반섭(동산초 5회, 대장리) 09.07.15. 09:07

긍게, 망원동 우리 반석교회 송목사님이 그렇게 인자하고 정이 많구만요. 내 주례도 서시고 시방도 종교적 철학적 스승으로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노회 회장직을 맡아서도 리더십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다고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우리교회 목사님은 48년생인 게로 몇 회나 되실려나?

↳ 📸 매산_김영의(45회) 09.07.15. 21:15

검은돌, 검은들, 검들.....

다들 향수를 느끼게 하는 말들이지요. ~~~~~





우리 아버지의 교육 방식

방현기(택촌4?)

나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하나 있는데, 그건 왜 날 사내답지 못하게 '어리보기(하는 짓이 다부지지 못하고 어리숙한 사람)'로 기르셨나 하는 것이다.

자신의 부족한 것, 성격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지만, 불만인 부분은 스스로 바꾸고 노력해서 많은 부분 고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아니 드는 건 아니지만, 도대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 왔다.

또, 이런 내 약점이 생의 주요 고비마다 커다란 함정으로 작용했음을 아프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회고해 보면 어릴 적, 아버지는 내가 학교에 들어가 그럭저럭 공부를 하니까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던 것 같다. 남들 책보 매고 다닐 때, 예쁜 가방도 사 주고, 집에선 검정 고무신을 신었어도 학교 갈 땐 꼭 검정 운동화를 신겨 보내셨다. 한창 자라는 아이라, 발이 금방 안 맞으니, 지푸라기로 내 발 크기를 재서 오일장에서 새 신발을 사 오시곤 했던 걸 기억한다.

내가 원하는 걸 모두 해 주시니까, 건방지게도 난 내가 바라는 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혹, 이러다가 내가 책장이나 넘기는 백면서생이나 책상물림 쯤 되지나 않을까 나름으로 염려를 하셨던 모양이다.

이것은 많은 부분, 할아버지의 삶으로부터 비롯된다. 아버지 말씀으로 추측컨데, 할아버지는 글 깨나 읽은 유생이었던 걸로 짐작한다. 평생 양발 개고 글 읽는 것으로 소일했고, 쟁기에 녹이 스는지, 쌀독이 바닥이 나는지 어쩐지는, 통 관심이 없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할머니는 시어미 구박 받아가며, 찬밥 한 덩이로 베틀에서 허리가 휘어졌으며, 아버지 또한, 학교 담장 근처도 열씬 못하고 코흘리개 적부터 지겟다리 땅바닥에 질질 끌리며, 동약산을 한량 원족 나다니듯 무시로 오르내리셨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대가리에 텸 날 때부터' 라고 술만 자시면 자학하신단 말인가!

설날, 아버지는 할아버지 묘소에 성묘 한 후, 코 훌쩍이던 어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느그 하나브지는 워쩐 냥반인 줄 아냐? 벌초를 하기 싫응께, 설에 싱묘 약서는 우리들 세와 놓고, 민듯칼로 큰 풀을 한나씩 짤르는 냥반이었다."

또, 엄마가 언젠가 하시던 말, "여름에 마당에다가 덕석을 깔고 보리를 널어 놨는디... 아이! 쏘내기가 안 오냐. 글먼 우선 급현께, 얼릉 비 안 맞게 덕석부팀 채 덮어야 쓰덜 않겠느냐? 근디, 니 하나브지는 당산에서 노는, 느그 작은 아부지를 찾으러 "창규야!" "창규야!" 불르면서 질갓(골목)을 내리 가는 냥반이었다."

그건 그렇고, 아버지는 나 일 좀 시켜보겠다고 중학교 들어갈 무렵인가 가을에 나락 맷 달발을 지게에 지게 했는데, 가다가 두 번인가 내부치니까, 다음부턴 다시 시키지 않았다, 한 번은 리아까를 끄집고 가다가 내리막에서 홀라당 뒤집으니까, 아예 절망적인 눈빛을 지으시더군! 쳇. ㅜㅜ

앞에 내 스스로 '어리보기'라고 했지만, 그래도 사자가 지 새끼 산몰랭이에서 궁글리면서 모질게 단련시키듯이, 인내를 가지고 '주마가편' 했더라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의 하는 짓이 션찮아도 그럴수록 더 시키고 지켜봐야 하는데, '넌 약해서 안 돼. 니가 그걸 어떻게 해?' 하시며 당신이 직접 하시었다. 그래서 오기가 없던 나는 더 소극적이 되어 가고, 자신감도 사라져 갔다.

뒤돌아볼수록 내 자신이 풀어야 할 숙제라는 걸 느끼지만, 어쩐지 후회스럽고 그래서 내 자식들은 나 같은 고통 겪지 않고, 세상 자신 있게 살아가라고 강하게 키워 보려는 마음은 있지만, 나 자신 아버지에게 매 한 번 맞은 기억이 없듯, 특히 내 딸 아이의 막무가내의 버릇을 잡지 못해 찔찔 매고 있다. 다 타고난 성격, 바꾸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어릴 적,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시는 날은 언제나 얼근히 술이 취해 들어오신다. 지금껏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나는 술 먹으면 기분이 좋던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지, 아버지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대문을 들어오시는 것이다. 집에 오시는 아버지 얼굴을 딱 보면, 벌써 표정이 평상시와 달리 굳어 있다.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하나같이, 재 저지르고 야단맞은 개 마냥 슬금슬금 눈치 보며 옆걸음질을 쳤다.



그날 저녁 밤상머리 풍경이다.

"아이 늠들아! 내 노골로, 대가리에 텔 날 때부턴 지게질을 혔따."

"니그 하나브지가 어쩐 낭반인 줄 아냐?"

"평상 가야 지게질을 한본 혔냐? 밭뙈기 한나가 있었냐?"

"산 한나 있는 거 팔아 묵어 불고, 나 요리 평상 고상시키고....."

"노골로, 내가 국민학교 문턱만 나왔으도 요렇게 안 산다이 놈들아!"

"니 하나브지 평상에 책만 피 들고, 글만 읽었따."

"니기 할머이가 읊매나 고상헌 줄 아냐?"

"니그들! 고령게 공부 하기 싫으면 자파하고 니열부텀 지게 져라."

"가서 가방 가져 와라. 이놈의 책을 싹 불 질러불 것이다."

"아이 늠들아! 니그들, 내가 워쩌 일을 안 시키는 줄 아냐.....?"

아버지 잔소리가 끝이 없이 이어진다. 한 번 하신 말씀, 또 하고..... 밤상에 김치를 젓가락으로 들었다 놨다, 텔다가 또 잔소리 한 번 하시고, 대접에 국물을 후루루, 숟가락으로 밥을 뜨다가, 코밍밍이 소리, 술 취해 들오신 날은 으레 그랬다. 이쯤 되면 내 눈에 그렁그렁 눈물방울이 아롱거리면서, 아버지 쳐다 볼 엄두도 못 내고, 엄마 눈치만 살피다 보면 밥맛은 삼천리로 달아나 버렸다.

기이내(여자)들은 시집가면 다 쓰잘 데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가?

이런 경우 공부해라는 꾸중은, 누나가 아닌, 십중팔구 나를 겨냥한 것임을, 난 지난 경험으로 익숙히 알고 있다. 헌데, 아버지 말씀은 공부를 하라는 건지, 일을 하라는 건지, 도무지 종잡기가 힘이 들었다.

이제 와 생각하면, 책만 들고 공부만 하면 할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게 되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아버지 나름의 경험으로 체득한 철학이셨던 것 같다.

묵묵히 숟가락질만 하시던 엄마가 더 이상 듣기 싫었던지 기어가는 소리로 한 마디 한다.

"아! 인자 그만 허제. 내동 놔두다가 꼭 밥상 받아 놓고 아그들 밥도 못 먹게 그러네."

"아니, 이 물으갈 놈의 이핀네가 아그덜 역성을 들고 그려."

"어머이라고 집구석에서 요 모냥잉께, 아그들헐라 따라서 그러제."

"아이 지발 인자 그만 혀. 딛기 싫응께. 술만 묵고 들오면 왜 해를 내고 그려."

"아니! 이 썩을 늄의 이핀네가..... 이 늄의 밥상을 그냥 콕....."

노한 아버지가 '네 다리 밥상'을 양 손에 잡고 내동댕이 칠려는 서슬에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들이 한 쪽으로 쓸리며, 반찬 담긴 접시 중발 하나가 팽그렁 방바닥에 떨어지며 아랫목 비랑박(바람벽)에 빠런 고춧국물이 튀겼다.

우리는 모두 울상이 되었고, 엄마는 지은 죄를 뉘우침 없이(?), 그래도 고시랑거리며 정젯문을 열고 행주를 가져오더니, 서발 나온 쪽구한 입을 들썩들썩 하시며, 김장 끝난 무밭의 실가리같이 널브러진 그릇들을 주섬주섬, 국물을 눈물처럼 흉치셨다.

이제 막 술가락 들 나이가 된 막내만, 뜰래뜰래 싱긋거리며 웬 소동인지 영문을 모르는 것 같았다.



 김종일(창정38) 12.08.20. 21:57

어렸을 때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자랐을 겁니다.
 시대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고향 말투로 취기에 그간의 심정을 토해 내신
 아버지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내일 또 읽어 보렵니다...

 박상우(흙석43회) 00:08

문장력이 좋으니 장편소설을 쓰셨네요. 공감이 가는 글 잘 읽었습니다.
 그렇게라도 가르치려고 힘든 일 마다 않고 고생하셨던 아버지가 위대하십니다.
 그 시절, 교육이 부족했던 걸 어떤 친구들을 차별하는 못된 친구들이 있어서
 마음 아픈 걸 하소연으로 대신합니다.

 박종민(서봉41) 00:10

가만히 말간 것이 고입니다. 4대가 겹쳐지는 생의 노정이 겹칩니다.
 저 묵은 시간 속 풍정이 되돌려주는 그 힘, 당신은 결코 어리보기가 아닌 참보기가 되어
 그 어른의 깊은 속을 다 받아낸 튼실이입니다.

 김종옥(창정37) 12.08.21. 13:46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식 사랑 교육 바램 등,
 대부분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박종윤(서봉37) 12.08.21. 13:52

이 글을 연속해서 두 번을 읽었네요.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글입니다.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다시금 생각해 되는군요.
 한 편의 소설을 읽은 듯한 기분입니다. 잘 읽고 가네요.

 바우-양준호(만수47회) 12.08.30. 23:16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었겠죠.

부처님 같은 울 어므로

김종옥(창정3?)

어므로..... 어므로..... 어므로.....

오늘 옥과 장이랑께 빨리 오랑께.

어지께 장에 어므로이가 월외감 한 개 안 사줬는가이
어치께나 맛잇든지 한 개 묵응께 배가 별뚝 나와 불데.
어므로이는 배부르다고 안 묵엇제이
오늘은 어므로 내가 월외감 사줄랑께 빨리 오랑께.

어므로..... 어므로..... 어므로.....

오늘 순창 장이랑께 빨리 오랑께.

어지께 장에 어므로이가 국밥 한 그릇 안 사줬는가이
어치께나 맛나든지 한 그릇 묵응께 배가 별뚝 나와 불데.
어므로이는 배부르다고 안 묵엇제이
오늘은 어므로 내가 국밥 사줄랑께 빨리 오랑께.

어므로 어므로 어므로

오늘 입면 장이랑께 빨리 오랑께.

어지께 장에 어므로이가 꺼면 고무신 한 켤레 안 사줬는가이.
웃 사달라고 땅깡놓고 떼썼제이.
그래도 다이야표 신 한 켤레 얹어 신고 좋다고 햇제이.
오늘은 어므로 옷 사고 신발 사준당께 빨리 오랑께.

어~므로~... 어~ 모~이.... 어~므로 ~ 이.....!!

▣ 김종옥(창정37) 12.05.28. 13:51

16년 전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살아 계실 때 잘할 걸
늘 후회하며 반성하면서
서투른 글 몇 자 올려 보았습니다.

└ ▣ 온종일servant 12.05.28. 16:31

오늘이 부처님 오시는 날이죠..... 부처님 같은 을 어르이....
고향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글.....
훌륭한 순수 자작 글입니다. 고향에 관한 글 방으로 옮깁니다! 감사합니다..

└ ▣ 신행임(제월)39회 12.05.28. 16:56

우리네 삶은 늘 후회와 반성이라는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 김종옥(창정37) 12.05.28. 16:26

부족함이 넘 많습니다.
동악산이 가신님의 주소인 듯 싶어서.....
감사드립니다.

▣ 신행임(제월)39회 12.05.28. 17:14

어므이는 늘 먹지 않아도 배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어므이는 생선 가운데 토막은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므이는 늘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어므이는 10자식을 거느리지만 자식들은 한 부모를 거느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환갑이 다 되어 어머니 가신 뒤에 깨달았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부처님 오시는 날에 가슴에 지침이 되는 훌륭한 글 고맙게 접했습니다.

└ ▣ 김종옥(창정37) 12.05.28. 17:13

신행임님 감사합니다....^^

▣ 박종민(서봉41) 12.05.28. 23:17

조만간 37회 박종윤 형 김형욱님과 함께 우리 동악산기슭을 덮을
큰 그늘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37회 선배님들의 문기(文氣)가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 박상우(흙석43회) 12.05.28. 23:50

좋은 글 혹시나 잊어 버릴까. 되새기며 두뇌에 입력 하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선배님!

↳ 🍔 김종옥(창정37) 12.05.29. 09:55

박종민님. 박상우님 고맙습니다.

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 김종윤(서봉37) 12.05.29. 20:35

너무도 가슴에 다가오는 글이다.

부모님 살아실제 다 하지 못한 불효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되는구나.

정말 좋은 글 너무 감명 깊게 감상하고 간다.

↳ 🍔 김종옥(창정37) 12.05.29. 21:10

반가워 동악에 오니 자주 보게 되어 정말 기쁘네.

여기저기 종윤이 좋은 글 늘 즐감하고 있다네. 고마우이....^^

🍔 김종만(창정38) 12.05.29. 21:50

어머니 살아 계실 제 못다한 효도, 왜 이리 가슴 시린지,

부모님 생존해 계신 동악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네요.

🍏 푸르름 12.05.30. 01:17

우리네 동악의 정기를 받은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울 카페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명심보감의 효행편 보다 마음에 와 닿고 가슴이 저밉니다.

어릴 적 철 없었던 시절 들킨 것 같아 부모님 생각에 씁쓸한 미소만 가득합니다.

누군들 후회 않겠습니까?

형편과 처지 땡시 어찌어찌 하다 보니

부모님 먼저 가시고 지금이라도 후회하고 부모님 기억하고

미안한 맘으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맘을 가진

우리 선배님들의 마음에 동감하며 그 마음 저도 간직하겠습니다.

↳ 🍔 김종옥(창정37) 12.05.31. 09:56

김종만님. 푸르름님 고맙습니다.

푸르름님 종방 마을이신 것 같은데....성함이.....?

↳ 🍔 김종일(창정38) 12.05.30. 12:16

조만간 본명으로 변경하시리라 믿습니다...기다려 보십시오...

6월1일부터는 입면사람이면 누구나 실명으로 하시어 동악카페에 올라 오실 것입니다...

냠 ★ 김형주 ★ 12.05.30. 18:38

옛날 시골장과 어머님이 그립습니다.

ㄴ 냠 ★ 김종옥(창정37) 12.05.30. 19:13

반갑네. 함 만나세... 고마우이

냠 ★ 김형주 ★ 12.05.30. 20:27

저도 창정 38회입니다. 같은 동네인데 제가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ㄴ 냠 ★ 김종옥(창정37) 12.05.30. 21:19

김종천 큰 집. 내가 종천이 보다 생일이 빨라 쪼금 형이지.

나는 너 기억이 있는데...



고향에서의 하룻밤

임번섭 (대점 동산초5)

사후세계 확신도 없어서 벌초 같은 것은 그다지 맘에 들어 하지 않는데 올해는 띠약볕에 벌초를 했단 말입니다. 새벽 네시에 일어나 낫을 들고 작업복을 입고 부지런을 떨면서 산소로 가서 벌초를 해부렀어라우.

작업복이 없어서 비싼 바지, 가격을 말하기는 그렇고 지금까지 입어본 옷 중에 제일 편한 옷이었는디 옷에 물물이 시커멓게 들어 부렀어요. 하여간 비싼 옷 버려가면서 벌초를 하고 어슬렁어슬렁 동악산 기슭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벌초도 끝났겠다. 인자 동네주변 둘러볼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동악산 종턱에 오르니 아름드리 노송이 휘어질듯 산 아래를 굽어보고 아래로는 계곡물소리가 시원한, 그야말로 절경이었어요. 소나무 아래, 아니 계곡위에 잘 지어진 집이 있고 그 집으로 들어서니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마당에서 일을 보고 있더란게요. 면밀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마당도 정리하고 화초도 가꾸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갔던 큰 형님이 "참으로 좋은 곳에 사시네요." 인사를 건네면서 "술이나 한잔 먹고 갑시다." 하니까 이 산속에 아저씨, 하던 일을 멈추더니 "그럽시다"하고는 뒤란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바깨스에다가 술이라고 하면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바깨쓰에 담긴 술을 들여다보니 뻘겋게 생긴 것이 빛깔만으로도 입맛을 당기게 하는데 동악산 기슭에서 키우는 복분자로 담근 술이랍니다.

"귀한 술을 잘 숨겨두시지 이렇게 많이 바깨스에다가 가져와 불면 동나불것인디 어찔라고 그런다요." 했드만, "마침 오늘이 술내리는 날이라 걱정 안해도 되야, 쪄그 뒤안에 또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가지로 그 복분자를 한사발 퍼서는 그拉斯에 한 잔씩 덜어주는데 생전에 바깨쓰에 다가 술 먹기는 첨이었습니다.



맛을 보니 하야, 이것은 프랑스 유명한 와인은 저리 10리 밖으로 가라여요.

산속에서 먹는 와인 뺨치는 복분자를 서너잔 들이키고 하늘을 보니 달이 휘영청 떠오르더만요. 산좋고 고향 좋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잠시 기다리라고 허더니 닭을 몇마리 기른 개로 한 두마리 잡자고 허더라고요.“닭을 이 밤중에 잡기가 좀 거시기 하다”고 허더니 “닭 잘 잡는 친구가 있다”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한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와 불더만요. 그 친구는 가끔 그 산중에서 자기도 하고 닭도 잡아묵기도 한게로 부담없이 전화만 허면 달려와 분다고 허더라고요.

그 친구는 언제 고향 안오냐고 맨날 나한테 전화하던 친구였던지라 님도 보고 닭도 잡게 생겼드란게요. 그 친구는 닭모가지를 비틀고 나는 물을 끓여서 텔을 뽑고 그리고는 큰 솔에다가 잡어넣으니 먹기도 전에 배가 든든하더만요. 닭을 솔에다가 앉히고는 산속의 그 아저씨 장뇌삼이 있다고 하면서 닭괴기에는 장뇌삼이 좋다고 산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아파, 형님, 닭괴기도 과분현디, 먼 장뇌삼이다요. 내 생전에 산삼은 귀경도 못했지만 그 비싼 것을 닭삶는데 넣어서 먹는 사람은 첨보요. 궁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꼬까 참으시요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뿌리 구경이라도 허고 싶은디 벌써 다섯 뿌리를 뽑아와서 5년 키웠다고 허시면서 솔에다가 집어 넣어 불더라고요.

“그놈을 나한테 주면 양주병에다가 넣어서 두고두고 우려묵을 것인디 허망하게 그렇게 솔에다가 넣어분다요.” 말은 그렇게 혐시로 솔에 가서 장뇌삼 향기를 맡은 게로 군침이 절로 돌더만요.

닭이 솔에서 익는 동안 바깨쓰에 복분자를 마시는디 페도퍼도 줄지 않는 산속의 샘이더만요. 바가지로 아무리 페도 줄지를 않더만 닭괴기가 나와불고 장뇌삼이 둑둥 떠오를 무렵에는 안주덕분인지 복분자도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산속에 새소리는 계곡물소리와 어우러져 천상의 하모니를 이룹니다. 넉넉한 인심의 고향선배와 꾀복쟁이 친구가 옆에 앉아 있고, 동나지 않은 맛난 술이 있으니 신선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여름날의 산속,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을 자고 일어나 본계로 산중에 그 아저씨는 일어나기가 무섭게 닭죽을 쑤어야 한다고, 어젯밤에 남겨놓은 닭을 푹푹 삶고 거기다가 냉장고에서 산채로 만든 반찬들을 죄다 내놓으시면서 아침을 먹자는 거예요.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 밥생각이 없다고 해도 먹어야 된다면서 억지로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술먹었응게로 밥을 해도 한참 아래인 내가 혀야지. 참말로 면목이 없더량게요. 그래서 원래 술뚝으면 하루종일 밥 한술도 안묵는 내가 아침밥을 다 묵었당게라우. 그리고는 먹자마자 다시 침대로 가서 쓰러져 자부렀어요,

큰형님이 서울로 올라가자고 혀서 일어나 밖으로 나와보니 그 아저씨는 벌써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아마도 일이 있어서 먼저 가셨나보다 생각하고 즐거운 어젯밤의 일을 생각하면서 서울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인사를 못하고 온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다음 날,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이, 어찌 그리 빨리 가부렀당가. 술뚝고 속이 안좋을 것 같어서 쪘그 장에 가서 수박 사왔는디 벌써 가불고 없데!"

.....

할 말이 없습니다.

콘크리트에 염색된 내 후각으로는 이 한없는 고향의 정을 맡을 자신이 없습니다.

바께스에 복분자를

닭죽에 장뇌삼을

산속에서 친구와 달을

그리고...

한없는 고향의 맛을 느낀 어느 여름날 밤에...



 文相玉(금산43) 09.08.06. 13:12

좋은 추억 만들고 와부렀네요~~~

↳  임번섭(동산초 5회, 대장리) 09.08.06. 17:35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즐거웠던 그날의 추억을...

 양 명숙(외금♥사오) 09.08.06. 16:27

고향에서의 그 광경들이 짹~~~보이는 듯 하네요...인정이 넘치는 고향의 정이요~~~

↳  임번섭(동산초 5회, 대장리) 09.08.06. 17:35

고향의 정이 아직도 살았더랑게요.

답례로 무엇을 살까 요즘은 그게 기분 좋은 고민이랍니다.

 이정재(금산47) 09.08.06. 17:27

아파 지대로 고향 맛 마시고 묵고 담고 와부렀구먼... 정익이는 잘 있던가....???

↳  임번섭(동산초 5회, 대장리) 09.08.06. 17:34

솔뚜껑 정익이하고 면장아들 정수하고 그날 코가 빠뚤어지게 묵어 부렸네.

정익이 가는 두 손에 한 마리씩 닭모가지 비트느라고 고생이 무쟈게 많았다네.

 (외금)정태옥 09.08.06. 19:09

정말 좋은시간 소중한 추억 만드셨네요 ~~~겁나게 행복하셨지요???

↳  임번섭(동산초 5회, 대장리) 09.08.07. 08:51

저는 이번 휴가 때 대굴하고 월명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외금을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입면에 멋진 동네들이 너무 많지요. 겁나게 행복한 휴가였답니다.

 박종윤(서봉37) 09.08.06. 21:45

휴가 때 별초 땡겨 왔나보네? 우리네가 고향을 잊을망정 거기에 고향은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우릴 기다리고 반겨준다네. 그 정을 잊지 말게나.

↳  임번섭(동산초 5회, 대장리) 09.08.07. 08:53

글씨 말여요. 고향은 인간의 근본이자 철학의 시발점이 아닌가 싶어요. 고향을 잊고 산다는 것, 그것은 곧, 나를 잊고 산다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님, 복분자 한잔 해야죠?

 박종민(서봉41) 09.08.07. 09:54

대접 대판(대파이) 그 높은 곳에서 입면 뜰을 내려다보는 눈요기도 뛰는데

눈코귀입 오만 호강을 다하고, 부럽소!

그 기억 오래 건사하여 기쁨으로 간직하소서!

↳  **임번섭(동산초 5회, 대장리) 09.08.07. 10:43**

오만 호강을 다 혀부렸어라우. 잊을라고 혀도 자꾸만 떠오르구만요.

벌초를 해서 조상님이 복을 내려 부렸는가 싶기도 하고..ㅎㅎ

↳  **김형욱(흑석37) 09.08.07. 19:06**

글로 보아 임번섭 후배가 그리는 곳이 입면에서 하늘아래 가장 가까이 있는
대점 풍경이 그려지네...

나도 젊은 시절에 대점 어느 후배 집에서 얻어먹은 닭죽을 늘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거든...

고향 가서 대접받는 후배의 심성도 그려지고...부럽당~~~

↳  **임번섭(동산초 5회, 대장리) 09.08.07. 20:30**

흑석을 지나 월명도 가보고 대굴도 가봤지만 대점보다 골짜기는 아니더라고요.

대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다음에 보면 한잔 올리겠습니다.

노원구도 도봉산 땜에 경치는 좋지요?





-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당 산

박동규(택촌3?)

시골마을이 대부분 그렇듯이 저희 시골마을 아래에는 당산이 있습니다. 어른 아름으로도 두엇은 넘을 당산나무(팽나무)가 너댓 그루가 있었고, 당산나무 아래는 큰 평상돌들이 평평하게 놓여 앉거나 누워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당산나무 아래 그늘에서 늙은이들은 농사일인지 무엇인지 한가롭지 않은 대화를 하는데 젊은이들은 농을 하면서 쉽니다. 햇볕이 쟁쟁한 여름날에는 너무 더워 두, 세시까지는 논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을 매던 농군들이 점심을 먹고 잠깐씩 눈을 붙여 고단한 육신을 달립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야말로 덩치가 황소만한 넓으죽죽한 황소가 저쪽 당산나무에 몇 마리 메어져 있습니다. 발정기를 맞은 황소들은 벌건 물건을 몸 밖으로 내놓은 채 머리를 잔뜩 치켜들고 허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음메 음메 소리치며 아무 소나 올라타려고 합니다.

30여 호에 지나지 않은 동네지만 아이들이 바글바글하여 당산에는 아이들 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젖먹이를 좀 지난 아이부터 좀 큰 아이들까지 당산에 몰려 나왔습니다. 놀기도 하고 놀면서 싸우기도 하고 싸워서 울기도하면서 해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당산에 겨울이 오면 눈 쌓인 적막만 남고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느 겨울풍경이 그렇듯 위용을 자랑하던 당산나무들도 푸르렀던 나뭇잎, 곁에서 놀던 사람들, 소들마저도 다 보내고 쓸쓸하게 자리를 지킵니다.

마치 겨울 당산처럼 이제 젊은이들이 다 떠난 마을에는 전마이 가득합니다. 당산나무 아래 군데군데 베어져 나간 평상돌처럼 군데군데 빈집만 늘어 갑니다. 마을 어디에도 소울음 소리도, 아이들 소리도 들리지 않고 노인들 해소기침 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계절은 겨울이 가면 봄이 오지만 시골마을은 저 노인들마저 가고 나면 겨울마저도 끝이 날 것 같습니다.

😊 **온종일serv** 04.06.11. 11:49

당산나무... 어느 마을에나 있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우람하고 크게 보였는데...
지금은 꼬부랑 할머니처럼 작게만 보여 집니다...
마을의 수호신... 당산나무... 모두들 그것과 함께 자랐는데
지금은 아스팔트와 매연 속에서 뭐가 그리도 바쁜지...
여름이네요.. 당산나무 그늘과 매미소리가 그립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 **해피한날** 04.06.11. 16:37

전 먹는 것에 굶주렸는지 평나무 열매를 따 먹던 생각이 또 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매를 따 주는 오빠에게 하나라도 더 얻어 먹어 볼라고....
무진장 애를 썼던, 기억,,,ㅎㅎㅎ

😊 **양해룡(만수38)** 04.06.11. 17:23

글을 읽다보니 겨울로 들어서면서 웬지 슬픈 마음이 드는군요.
지금은 님의 말씀처럼 시골에 빈집이 점점.....

😊 **안기석(만수37)** 04.06.11. 21:49

택촌 당산나무는 범위가 넓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소생이 노름 당산나무를 생각하면서 게시판에 올린 글도 있지요.
노름 당산나무는 딱 한 그루, 택촌 당산나무는 여러 그루였지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박동규(택촌37)** 04.06.11. 23:21

삶의 본질은 슬픔입니다.....

😊 **자비무적** 04.06.13. 21:36

당산. 우상각. 정자~~~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입니다.
자치기. 딱지치기. 비사치기. 여자들은 뒤질세라 고무줄 놀이를 즐기던 곳.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곳...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이노순(제월40)** 04.06.20. 21:54

동네를 지키는 정자나무 그늘에서 놀았던 옛 추억이 새록 새록 나세요.....
지난날의 추억을 더듬어 보면서....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자비무적** 04.06.20. 12:51

당산~~~제월리 곡촌에는 우상각을 다시 신축했답니다.



대 밭



안기석(노름37)

우리 동네 노름은 대밭 속에 있었지
아무리 북풍한설 몰아쳐도
대밭이 거뜬히 막아줬지.

우리 어릴 적엔 대밭 한 마지기면
아들 하나 대학 갈치는 것 문제 없었지.
짚과 더불어 우리들 모든 생필품,
대나무로 거의 다 맨들었지.

그런 시절 다가고
별가치 없어져서 그냥 놔두니
인적 없는 동네 집터들을
요놈들이 다 차지해 버렸네.....

대나무 이놈들아
아무리 사람 안산다고
온동네를 니기들끼리 다 해먹어도 되는거야?
사람 땅길 길이라도 놔둬야
옛집 그리우면 쉽게 들려 볼꺼 아냐?

그래도 나, 무성한 대밭 숲을
정다운 고향의 풍경으로 가슴에 새기고 산다.....



 코스모스 06.12.12. 17:24

죽순을 자르지 못하게 했지요 대나무싹을 자르니까요 근디 ... 요즈음엔 막 ~잘라도 돼요
사~알작 데쳐서 냉동칸에 넣어놓고 카레 짜장 할 때도 넣고 둘깨가루에다 자박자박하게
지지거나 볶아내면 뽀얀하니 맛나요 아삭아삭 하고... 암튼, 노름 ~ 허니께 무쟈게 반갑네요.

 코스모스 06.12.14. 01:24

노름 친구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2년 후엔가 한 번보고 못 봤어요.
저 결혼하고 그 동네 이사 왔거든요. 연말 지나면 다른 친구들 가입 시킬 테니 지달려 보셔요..
그러다가 올 동창 이곳에서만 놀면 안되는디

↳  이정재(금산47) 06.12.17. 14:45

노름이 돈 먹고 ??? 그런 것 아니었나?

↳  코스모스 06.12.17. 19:05

만수리 옆에 흑석위에 붙은 동네가 노름이여~ 밝은성한테 디지게 맞을려고 그러셔요?

 밝은세상 06.12.12. 21:45

코스모스님이 노름을 아시나보네요. 대나무밭이 방풍림 역할을 톡톡히 해내서 노름마을은 항상 훌륭한 안방이었습니다.

↳  코스모스 06.12.13. 15:40

저 작은 언제 살았쓰요 노름에는 양선자 김정순이 우리 동창이여요

↳  밝은세상 06.12.13. 18:22

코스님 반갑소. 글먼 기억이 좀 그런디,, 홍성희(?) 형님 동상이까? 32회 정도 되고 키가 매우 크며 권투좀 하시는 분 말여.. 하여튼 반갑소. 근디 김정순이 누구까? 심정순이 아녀?

↳  코스모스 06.12.14. 01:21

홍성희 오빠는 큰할아버지 우리집은 작은 할아버지 그래요

↳  밝은세상 06.12.15. 15:16

코스님 반갑소. 근디 홍성희 형님은 어데서 사시요? 그러면 태문 선배가 오빠 되는가?
글고 선자는 부산 사는가?

↳  코스모스 06.12.16. 14:35

홍성희 오빠는 평택살구요 딸 둘 낳구요

두 딸 다 교대가서 두 딸 모두 초등학교 선생님 됐어요. 장가를 늦게 갔는데 아빠를
닮아서 키도 크고 이뻐요 태문 촌은 막내 작은아버지예요.

지는 6남매중 장녀라 위에 아 무도 없쓰요 앞으로 밝은성 안하고

밝은오빠 허께

↳ 🍀 밝은세상 06.12.18. 17:09

코스 후배 참말로 고맙네이.. '성' 도 좋고 '오빠' 도 좋네. 뭐 '선배' 면 어떠나..

↳ 🍀 코스모스 06.12.18. 17:34

밝은선배님 허께요... 것이기.... 대부님 집 갈건디 시간되면 오셔요.

🍀 박종윤(서봉37) 06.12.13. 15:49

노름 그 찌까만한 동네도 있었거는 다 있었네 그려.. 대밭도 있고 말여.. ㅎㅎ

↳ 🍀 밝은세상 06.12.15. 14:26

무시허지 말어. 사람도 찌깐타고 달릴 것 안달린 것 봤서?

↳ 🍀 박종윤(서봉37) 06.12.19. 23:55

그러게.. ㅎㅎ.. 네가 넘 심했나.. ㅋㅋ

🍀 김재복(제월38) 06.12.15. 11:53

기석 선배~ 많이 반갑수!!1 언제한번 부탁쳤으면 좋으련만~~ 첸스가 통 안와서.

근디 어찌서 노름이당가~ 다시금 한해가 가려합니다. 모쪼록 건강 하시고 행복하시소~!!

↳ 🍀 밝은세상 06.12.15. 14:24

참말로 반갑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모든 식솔들이 행복하시기를 비네. 광주에 가면 연락하려니 하면서도 웬 지 잘 안되네. 충청도에 있다 보니 잘못하면 여그 사람 되것서..

☰ 김지영.혹석41회 12.05.08. 17:30

아하 - 노름.. 한참 생각 했네요 ㅠㅠ 기석선배님. 혹시 안기석님이신지요? ㅠㅠ

우리 집하고 바로 마주보는 동네이기에 기억 속에 남아있네요 ㅠ 반가워요 ...



입면 시장

한정훈(입석41)



북적거리던

사람은 간 데 없고

고요한 폐허.....

입면 시장에서

-야초-

▣ 김종일(창정38) 12.06.24. 08:02

입면시장이 이렇게 변해 버렸군요.

어린 시절 입면시장에 대한 사연과 추억들이 가장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잊지 못할 그 때 그 시절의 시장 얘기 있으신 분들 올려 주시면 댓글로 이어 갈 수 있을 듯 싶네요.

▣ 신행임(제월)39회 12.06.24. 16:11

폐허가 된 입면 시장의 모습이 넘 쓸쓸합니다 ~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이라는 것과 상품을 바꾸는 것을 배운 것이 입면장이었습니다 .

그 때나 지금이나 뭇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앞다퉈가며 자리싸움을 하고

생존경쟁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항상 기억이 있는 곳에는 추억거리와 정겨움이 가득합니다 ~

▣ 김종옥(창정37) 12.06.24. 19:26

녹 슬은 양철 지붕 쓸쓸 하네요. 추억이 엄청 많은 곳인데.....

야초님 추억을 돌려 줘서 고마워요....^^

▣ 박종민(서봉41) 12.06.24. 21:43

저 오래된 양철판에 남은 흙을 타고 일렁이는 여름 햇살처럼

내 가슴속 흙을 타고 흘러내리는 기억들이 자꾸— 뜨겁다

▣ 박상우(흙석43회) 12.06.25. 01:00

우리들은 꼬맹이 때 10리길을 부모님 따라 찾아갔었는데..

그 시절이 떠올라 아쉬움 속에 목이 메여옵니다.

따라간 보람으로 큰 찐빵 하나만 소득이 있었어도 하루를 즐겁게 보낸 세월이었답니다.

▣ 박종윤(서봉37) 12.06.25. 09:29

아! 이 사진에 보이는 장면이 입면 시장입니까?

그래도 뼈대는 잘 보존이 되어 있군요?

옛 지절 시장통이 그리워지네요. 잘 감상하고 갑니다.

▣ 한봉수(상금38) 12.06.26. 12:50

저의 <고향풍정>에도 올렸었습니다만 우리 시대에 장이 개설되었고

우리 시대에 문을 닫은 고향의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시장통입니다.

기억이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도 장이 서는 날 창정천 모래톱에 가설한 만병통치 약장수의 가설극장에서 보여주었던 심청전과 흥부전의 기억이 아련하고

시장 한 쪐에서 바이올린으로 우리의 옛 가요를 연주하던 그 당시 중년의 아저씨
그 선율이 지금도 귓청에 선합니다. 그 때의 그 인연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노래하는 것은
왕음치지만 듣는 것은 오로지 옛가요입니다.

▣ **김종옥(창정37) 12.06.25. 14:20**

맞아요 하천가에 약장수 그때 극이 얼마나 슬픈지 어린 나이에 연신 훌쩍이며 눈물 흄쳤어요.
장화 홍련도.....나도 옛 노래밖에 모릅니다.....^^

▣ **이정재(금산47) 12.06.25. 21:23**

안타깝네요....근대화로 인해 이곳도 옛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어릴적 여름 무렵에 장 구경하기 위해 꽂 한 망태 언릉 베다 놓고 구경도 다녔던 곳인데...

▣ **최갑락(38회) 12.06.26. 12:00**

세월이 갔지만 추억의 장소가 아름답게 마저 느껴지네요... 많이 올려 주세요...

▣ **김영춘(대접44) 12.06.26. 12:11**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 **김재복(제월38회) 12.06.26. 16:20**

입면 시장통 저도 그 짹에 쪼끔은 산증인 인디~ 먼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잊혀져가는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요.
한 일년 쯤 큰 점빵 옆에 양복점을 하시는 작은아버지 댁에서 살았습니다.
원거리 학교 땜에요. 개울(제월리 평촌부락)서는 먼게요.
그 때 시장통엔 국밥집 영태, 조한약방 금자, 설약방집 종욱이, 김약방집 인배형,
양재규형님 이발소, 하천뚝 집 성귀, 철물전집 이성규,
아무튼 참 많은 추억이 있는 곳 입니다.
언제 기회되면 시장통에서 조우 한 번 했으면 좋겠네요~~

▣ **김종만(창정38) 12.06.26. 21:59**

나는 중3때 첫사랑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걸멋만 들어 청바지에 키타 둘러매고 폼 잡고 휘젓고 다니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는데.....

▣ **김순옥*제월동강초5회 12.06.27. 21:32**

엄마 손잡고 썰랑썰랑 따라나선 시장구경~
내손에 쥐어주는 풀빵 한봉지 받아들고 행여 누가 볼까~ 몰래몰래 아끼며 꺼내먹던~
그 달콤한 풀빵 한봉지의 추억~~~



세월가도 변하지 않은 고향 입맛



오봉기(시애틀 서봉3?)

이민생활이 15년이 되어 가지만 우리네 식구 음식은 한국에서 먹던 그대로 김치에 된장찌개, 청국장이면 입이 개운하다고 할까?

가끔씩 여행을 가다보면 집식구는 큰 아이스박스에 한국 음식을 된장부터 시작해서 김치, 멸치 등 한국에서 먹던 것 보다 더 많이 챙긴다.

미국 직장에서의 점심시간은 30분간이라서 대부분 직원들은 집에서 음료수에 빵으로 준비해 간다. 하지만 나는 마누라가 한국음식을 고집하여 챙겨준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눈치에 고역이 아닐 수 없었지만 이제는 동료들도 김치 맛을 한 두 번 보아서 그런지 괜찮다.

어떤 때는 멀리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아침부터 빵으로 시작해서 점심도 간단한 빵이다. 저녁에는 식당으로 가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한국 식당도 없고 한국 사람도 없는 서부영화에 나오는 선인장으로 장식한 사막이 많은 아리조나주에 갔을 때의 일이다. 워매! 여긴 중국 음식도 없고 한 열흘 먹고 나니, 한 달 동안 입에서 아니 배속에서 한국 음식 좀 달라는디 미칠 지경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한국음식 비슷한 것을 찾아보자 하면서 메뉴판을 보니 기분 좋게 라이스가 보이는거여! 주문을 했지요. 밥이라고 해서 잔뜩 기대를 걸고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지요. 그런디 밥이 아니라 쌀을 가지고 온거여!

“여보쇼! 나 좀 봐요. 이걸 밥이라고 가져 왔죠?”

“예, 물론이죠. 여기서는 이게 밥이예요!”

.....
(참고)

여긴 쌀을 불리지 않고 밥을 하기에 그립니다.

지금은 한국 마트가 가까이에 많이 있어서 한국음식 애용합니다.

특히 청국장찌개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경기 덕소할머니 청국장 맛이 좋습니다.

▣ 박종민(서봉41) 12.09.01. 20:27

변하지 않은 것 중에 제일 천연덕스럽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 입맛이겠지요.
떼를 쓴 아이도 아니고 내 자신의 부덕을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불현듯 옛맛을 고집하는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근간 중의 하나, 입맛.....
고생이 많으셔도, 가끔 잊지 않고 찾아 드시는 그 옛날 맛에 행복 하시기를 빕니다.
미국에서는 추석에 무엇을 드시는지 그것도 걱정되네요, ㅎㅎ
늘 건강하셔요.

▣ 윤옥희 (일본 축석42) 12.09.01. 20:43

한국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도 길어야 삼일 정도가 되면 매콤한게 생각나지요.
일본도 지금은 유통업이 활성화되면서 전화 한 통이면
그 다음날로 한국식품이 택배로 배송되어 온답니다.
김치만 해도 종가집, 농협, 하선정을 비롯하여 순대, 족발 등 종류도 많이 있는 편이지요.
저는 일본 음식은 스시와 샤프샤브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김치찌개를 더 좋아해요!
청국장도 좋아하는데 사실은 맛있게 끓이질 못해서요~
김치찌개는 아주 맛있게....정말요...

▣ 박상우(축석43회) 00:12

한국에 살면서도 때로는 어머니 맛이 그리울 때가 많답니다.
심지어는 동지팥죽도 생각나고, 솔김치 호박잎 된장국 추어탕...
다시 태어나면 음식 잘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ㅎㅎ
점심시간이 너무 짧은데 선배님, 꼭꼭 쟁겨 드세요. 항상 건강 쟁기십시오..

▣ 김종옥(창정37) 14:26

반갑네...
그 입맛 변치 말고 오래도록 많이 드시고 건강 하시게.....

▣ 박종윤(서봉37) 19:04

봉기, 오랜만이네. 잘 지내시지?
그래도 요즘은 세계 어디에서나 한국 마켓이 더러 있어 다행인 것 같구먼.
이국 만리에서 조국의 음식을 꼭 쟁겨 먹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터인데...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길 빌것네...

정겨운 고향 사람들(만수)

김영길(만수42)



【2005.4월】

☏ 김영길(만수42) 05.04.11. 11:27

참 예쁘고 순수한 그 자체지요. 보기 좋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 파란풍차 05.07.10. 16:07

작년에 다녀왔는데요. 며칠 있으면 또 입면 가네요.

☏ 바우(만수47회) 07.11.13. 22:53

만수리 맞네.... 내가 다녔던 서당도 여기에!

✉ 미정이 08.06.03. 14:13

고향어르신들 보니 정겹네요.

정겨운 고향 사람들(창정)

김종일(창정38)



【2011.11월】

▣ 이노순(제월리40회) 11.11.07. 11:22

고향에 다녀오셨군요. 부모님과 통화를 하시는 어르신 모습이 흐뭇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 양명숙(외금45) 11.11.07. 13:12

고향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되어 정말 창정마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변했군요~

동네 어르신의 반가워 하시고 흐뭇한 모습에 마음이 찡~해 오네요~

항상 행복한 일들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박상우(흙석43회) 11.11.08. 00:05

노인분들이 외로워서 그러시는지 안부를 전할 때면 자꾸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 (탑동,지킴이39) 11.11.27. 22:16

농촌의 현실이지요? 고령화 되버린 농촌의 비극이랄까요?





정겨운 고향 사람들(제월)

한영걸(제월39)



제 월 리



2009.11월 단양팔경 관광

고향 선후배 님.

그리고 친구들! 깊어가는 가을 비록 짧은 하루였지만

무척이나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선후배.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길 바랍니다.

이노순(제월리40회) 09.11.03. 11:32

행복한 여행! 보는 이도 행복하네요.
제월리 선배님들 모습을 보니 고향생각이!!!!!!!

蒼山(박상섭46) 09.11.03. 16:41

단체사진은 구인사 정류장 같습니다. 좋은 곳 다녀오셨습니다.
단양은 가볼 곳이 참 많은 곳이지요. 드라이브 코스로도 딱 이지요

정태자(제월리39회) 09.11.04. 13:34

와~우리 동네 선배님들 많네요..
시간이 여의치 않아 같이 가진 못했지만 단합된 제월리 재경팀이 막강하군요..
오랜 세월이 흐른지라 누가누군지 분별하기 쉽지 않네요... 다음에 함께하고 싶군요..

살롬(신현숙) 09.11.07. 08:37

정말 행복한 날이었지요.
고향 선후배님들에 한량없는 사랑을 받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 할 수 있었던 나들이.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제월)

강덕기(제월.39) 09.11.06. 21:21

단단한 우애와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선배님과 후배님들 고맙습니다...
고향은 항상 포근한 어머니 품안....

강마루 09.11.07. 21:03

고향은 생각만하여도 마음이 설레이고 두근두근!!!
제월리 선배님 어르신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평촌)

장근선 10.05.28. 09:56

영걸이, 고향 분들과 단양팔경 구경했구만!
난 진즉했는데...

장근선 10.05.28. 09:59

희두성하고 영균이 밖에 모르겠네

강연자(동강6) 12.05.03. 23:10

안녕하세요! 고향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곡촌 강석만 동생(동강초 6회) 강연자입니다.
영균 영걸 두 분 오라버님과 현숙이는 아는 얼굴이라 얼른 눈에 띄네요^^



그 옛날 무서운 이야기

박상우(흑석43)

짙은 어둠속에서 혼불이 떨어져 동네 한바퀴를 빙빙 돌다 사라지면 동네사람 누구에 혼이 빠져나가 곧 초상이 날거라고 어르신들이 말씀 하시곤 했다. 예쁜 함속에 무서운 음모를 가지고 있는 미구에 노여움이 서려 있던 아주 무서웠던 어느 여름밤이 생각나곤 한다.

라디오에서 전설 따라 삼천리를 듣고 잠을 자서 그랬는지 그날따라 악몽에 시달려 식은땀을 흘리며 잠시라도 꿈속에서 탈출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깨우셨다. 공포에 새벽두시 아버지가 친구 분과 제 너머에 있는 논에 물을 대러 가신다면 나랑 같이 가자고 하셔서 따라가게 되었다.

그 시절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터라 초롱불을 들고서 저수지를 지나 공동묘지 사이 길로 가는 길이어서 어린마음에 담력도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 길을 따라 나선 게 지금까지도 생각만하면 오싹해지는 체험적인 슬기를 경험해 보았다.

밤의 색깔 뒤로 달도 숨어 버려 자꾸 불안은 엄습해 오고 초롱불로 겨우 의지하고 나는 제일 뒤에 따라나섰다. 이윽고 공동묘지에 다다르니 여기 저기 나지막이 들려오는 귀곡성! 나는 이미 숨이 멈춰버렸다. 이상하게 뒷머리에 느낌이 오더니 개들이 위협이 닥쳐올 때 털을 뻣뻣하게 세우듯 내 머리도 쭈뼛이 서 버렸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내 몸은 이미 대리석처럼 차갑게 변해버렸다. 담력은 무슨? 아휴 ! 무서워!

그 뒤로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았고 친구들과 밤길을 걸을 때도 제일 가운데 아니면 항상 앞자리를 택하였다. 더위를 참는 생활에 지혜로 이 같은 열치가 관습화 되어 위험을 무릅쓸 때의 스릴을 생각하며 이 무더운 날 하루를 이겨내는 지혜로 살고 있다.

● 김종일(창정38) 12.08.03. 08:33

납량특집이네요.

그 시절로 돌아가니 잠시 무더위가 멀리 물러가는 듯합니다.

어렸을 때 창정에서 가마동 가는 길에 배고픈 다리 바로 지나서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곳에 도살장 건물이 있었지요.

한 밤중에 그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증표를 가져 오는 내기가 생각납니다.

긴장하고 가서 넓은 건물의 유리창을 열고 쟁하고 바닥으로 뛰어내리니

그 소리가 울려서 얼마나 크고 무섭던지... 암튼 어렸을 적에 다녀 온 후로는 많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 ● 박상우(흡석43회) 12.08.04. 00:08

반갑습니다.

선배님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남량특집으로 상상 속에 숨은 절규처럼 생각해보았습니다.
무서운 곳도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가마동 그쪽엔 상여 만드는 곳이 있어서 해질녘에 지나던 길은 항상 습관처럼 뛰다가 뒤틀어보고 오싹 경계심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 정태자(제월리39회) 12.08.03. 22:58

마음 즐이며 그 때 당시 시절을 되뇌어 보네요.

그 땐 무서운 이야기도 왜 그리 많았는지요.

아마도 어둠이 밝음보다 많던 시절이어선지 몰라요 ㅋㅋㅋ

잘 읽고 갑니다. 상우씨...

↳ ● 박상우(흡석43회) 12.08.04. 00:23

선배님! 오랜만이입니다.

도시에서는 사람이 무섭다고들 하는데 고향에서는 무서운 곳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심지어 학교 화장실에도 재래식이라 그런지 귀신이 있다하여

어두워지면 가질 못했으니까요.

십대 시절엔 밤은 즐거웠지만 무서운 곳이 너무 많아서

친구 집에 가면 꼭 자고 왔으니까요..ㅎㅎ 선배님 고맙습니다.

● 한야초(입석41) 12.08.04. 05:09

언제였던가, 깜깜한 밤에 창정공동묘지에 간적이 있었는데

무서워서 뒤도 돌아보고 달려와 부렸네... 무서움이란 생명을 가진 자들의 두려움이겠지...

↳ ● 정태자(제월리39회) 12.08.06. 10:17

생명을 가진 자의 두려움이라... 인간의 불완전성?

 박상우(흡석43회) 12.08.04. 23:21

무서울 때는요, 있는 신앙 없는 신양 다 찾아보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워 보고
 찬송가를 소리 높여 불러 봐도 무서움은 사라지들 않던데요.
 오멘 같이 신앙으로도 이길 수 없는 악마들이 있기는 있나 봐요.
 선배님 고마워요.

 양순용 (종방 38회) 12.08.06. 15:45

아이구. 무서워라~
 여름밤이면 어김없이 귀신 이야기!
 종방 환갑이네 뚱통 앞에서 달걀귀신 덕석귀신 나온다는 무서운 사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할 땐 머리꼴이 풍긋 서버렸죠.
 그리고 종일님도 공동묘지 앞 도살장에 들어 가셨구만 ㅎㅎㅎ
 칠흑같이 어두운 날 무자게 무서웠지! 난 20살쯤 창정삼거리 기천이집 구멍가게에서 재선
 기천 오부자집 막내 등 여러 친구들과 내기가 벌어졌는데 마침 가위바위보해서 내가 오니가
 되어서 가게 되었지요. 여름철 어느 저녁 막걸리 두통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날 배고픈 다리 건너서 고구마 두루 밟고 도살창 안으로 들어가 돼지털을 한주먹
 주어 오면 여러 친구들과 기천이 가게에서 저녁내 막걸리 먹는 거 참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죠... 결과는 무서움을 무릅쓰고 공동묘지를 향해 거친 발소리를 들어가며 숨죽여 고구마
 둑을 한 발 한 발 이윽고 도살창 문을 딱 들어서니 갑자기 웅 하는 공간소리의 미세함의 촉
 각이 나의 뒷골을 마구 땅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돼지털을 한주먹 쥐고
 내 쫓빨아라 하고 정신없이 튀었던 그 옛날 공동묘지 도살장~~
 그란디 도살장 바닥을 손으로 쑥~윽 하고 쓸어 땅길 때 엄매 그놈의소리가 내가 듣던 소리
 중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오싹 오줌이 나올 듯 말듯 ㅎㅎㅎ 그래도 그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후배님이 시원하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돼지털 사건 흐~~우 그 날 막걸리 배터져라. 묵어부렀제...

 윤옥희 (흡석42) 12.08.09. 13:26

정말 예전에는 도깨비 불 봤다든가 무서운 얘기가 많았었고 또 그걸 믿어서 더 무서웠지...
 그때는 다 뒷간이 떨어진 곳에 있던 시절이라 밤중에 갈려면 정말 무서워서 제대로 볼일도
 못...빨간 손 나와라~~ 지금도 가끔 꿈에서도 본단다.

↳  박상우(흡석43회) 12.08.13. 23:39

그래도 밤길을 거니는 게 좋았지?
 한명이 달려가면 덩달아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모두 다 육상선수처럼 뛰어가고
 집집마다 명명이는 왜 그렇게 짖어댔는지 그 시절이 그립다.

▶ **박종윤(서봉37) 12.08.14. 00:25**

ㅎ ㅎ ~ 더위가 싹 가시네요.

누구나 어린 시절에 한 번씩은 경험했던 귀신 얘기 재미있네요..ㅋㅋ

▶ **박상우(죽석43회) 12.08.14. 23:20**

선배님 반갑습니다. 서봉에도 무서운 곳이 많이 있을 듯싶네요. 여시고개는

무슨 전설이라도 숨어있는지...여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죠?

항상 건강조심하세요.

▶ **김종옥(창정37) 10:49**

그래도 아버님과 함께 해서 무서움이 덜 했겠습니다.

어릴 적 무서운 곳도 참 많았지요.

초등학교에서 체벌 받고 어두운 밤에 창정리로 네 다섯 명이 오는데

배고픈 다리 옆 공동 묘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름날 잘 읽고 갑니다.

▶ **박상우(죽석43회) 12.08.16. 23:37**

반갑습니다. 선배님! 공동묘지는 공통적으로 무서운 곳의 대명사이군요..ㅎ ㅎ

옛날이야기도 귀신이야기가 많아서 그랬을거예요.

그래도 이야기하면 자세히 들을려고

귀를 쟁긋했던 그 시절이 그립네요. 감사합니다.



함허정 옆 섬진강



섬진강 줄 배

한정훈(입석41)



옛날에 오고 가던
줄배는 어디 가고
무심한 강물만이
고요히 흐르는가

입면 섬진강에서

-야초-

▣ **한야초(입석41) 12.07.05. 04:46**

줄 배로 강을 건너던 풍경... 그립습니다.

↳ ▣ **김종옥(창정37) 12.07.05. 20:39**

그 시절 돈이 없던 시절이라 배타는 운임을 바로 지불하지 않고 가을에 추수 끝나면
사공이 마을로 다니며 운임을 곡식으로 받아간 것 같은데 아시는 분 계시나요?

▣ **김종옥(창정37) 12.07.05. 21:03**

뱃 사공...!! 빨리 와요. 강이 왜 이리 작아 보이지요?

겨울철 배 참 빨리 안 옵니다. 옛날생각 나네요. 고맙습니다....^^

▣ **한봉수(상금38) 12.07.05. 15:58**

종방(방산)나룻터의 나룻배는 삿대질만으로 건넜을 때도 있었고

양 강안에 밧줄을 메어 놓고 줄을 당겨 건널 때도 있었지만

삿대질로 건넜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핸가 (1964~5년으로 기억) 큰물이 진 2~3일 후였는데 나루를 건너던 나룻배가
급류에 떠밀려 지금의 금호타이어 공장이 있는 곳(그 때는 포플러 밭의 섬)까지
떠내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곳은 수심이 깊어지면서 유속이 느려지는 장소였습니다.

이 아찔했던 광경을 그때 상금마을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었습니다.

그 나무로 만든 나룻배 없어진지 언제인지 모르고 작년에 갔을 때

모터보트 한 척이 정박해 있던데, 그 모터보트도 섬진강교가 완공되면~~~

▣ **박종민(서봉41) 12.07.05. 18:57**

줄배가 있었던 섬진강은 종방 하고 방산을 연결하는 곳, 그리고 살뿌리,

더 내려가면 호곡마을, 압록을 지나서 다무락 마을 앞 강쪽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여주는 자리는 어디인지 도대체 궁금하구나!

저 자리에 줄배가 뜯다면 아름답기는 하겠다

설마 저기가 시방 방산 쪽 언덕인가, 양수장 있던 자리는 아니고.....

↳ ▣ **한야초(입석41) 12.07.06. 11:05**

옛날에 백사장이 좋아 모래뜸 하던 곳!

양수장이 있고 정자도 있고 백사장이 좋아서 초등학교 시절 소풍갔던 곳이고

아이들 목욕하기도 좋은 곳이고 줄배는 없어졌지만 정취만 남아 있네...

↳ ▣ **박종민(서봉41) 12.07.06. 21:19**

그 그러니까, 양수장 쪽에서 강으로 내려오는 길이 새로 났다는 말이구나~

▣ 박상우(흡식43회) 12.07.06. 00:03

그 곳에서 안 살아서 잘 모르지만 어쩌다 가보면 뱃사공 부르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어릴 때는 배라고는 그 나룻배를 보는 게 신기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아쉬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네요.

└ ▣ 한야초(입석41) 12.07.06. 11:03

나룻배인데 줄을 당겨 오고가던 배가 줄배입니다.

▣ 박종윤(서봉37) 12.07.06. 21:19

여기가 종방 건너편 방메인가요?
옛날의 모습은 전혀 없군요.
와! 정말 많이 변했네요.

▣ 정태자(제월리39회) 12.07.06. 21:50

제월리엔 두 군데 사공배가 있었지요.
전북 대강면과 마주보이는 곳... 순창장에 갈 때면 어른들이 배타고 갔구요
대강중학교 다닌 친구들은 이 배를 타고 섬진강을 건넜지요.
또 한곳은 살뿌리에 있었는데 제월리는 차도 안 다닌 오지여서
오로지 배만이 교통수단(?)이 아니었나 싶네요.
까마득하기만 한 옛날의 기억을 끄집어 내 주는군요....

└ ▣ 박종민(서봉41) 12.07.08. 20:51

아, 거기 한 군데 더 나룻배가 있었지요.
순창장 가려면 탄금(전북 대강면) 쪽으로 배를 건너서들 갔지요, 제월 분들이.....

▣ 김병완(41회) 12.08.02. 13:33

나룻배 얼마나 정겹습니까? 필자 외가집이 남원군 대강면 저동리
어릴적 누나들과 같이 외가집 갈 때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모습이 생각납니다.
집은 면소재지에 살았지만 여름이 오면 친구들과 여러 번 자전거에 보리2되 정도 담아
섬진강 종방마을 가서 복숭아로 교환해서 목욕하면서 놀며 나룻배를 보곤 했지요.
입석 병옥 병균 장터 광수 창정친구들 형옥 은식 병호 윤배 그리고 여자동창들과
군대 입대하기 전 재미나는 에피소드와 추억들을 남기고 군대 갔던 생각이 납니다.

지 게 꾼

김종옥(창정3?)

우리 집에는 조그마한 지게가 하나 있다. 내가 어릴 적 곱추 아저씨가 집안 논밭 일을 돌봐주며 지고 다닌던 발목이 짧은 이쁜 지게다.

어느덧 나는 그 지게에 벗단 한 단 두 단 쪽 나르더니 이제 동악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다. 아침밥을 일찍 먹고 마을 앞 당산나무에 아저씨 그리고 선배 형들 이렇게 약 12여명이 출발을 한다. 오늘따라 날씨는 왜 이리도 춥노.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14살 아이가 어른을 따라가기란 그리 쉽지 않다. 빠른 종종 걸음으로 쫓아간다.

김씨 아저씨가 이야기를 꺼낸다. 옛날에 내 사카린 실은 배만 폭격 당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지게는 지고 다니질 않았을꺼네. 미국에서 사카린을 수입하는데 배에 수십 톤 가득 싣고 태평양 한 가운데 왔는디 일본 가미가제가 나타나서는 배 쿨뚝으로 그냥 내리 꽂아버리지 뭔가! 배가 침몰하면서 사카린이 바닷물에 다녹아 부럿어. 한 푼도 못 건지고 이렇게 지게를 지고 다닌다네. 자폭비행기 가들 쌩~앵~ 꽝~ 가미가제 참 무서버...

이제 양씨 아저씨가 이야기를 꺼낸다. 나도 그때 수입만 성공했어도 서울에 빌딩 몇 채하고 쎄단 자동차를 타고 다닐텐데... 나는 그때 말이시 라이타 돌을 비행기로 가득 싣고 오는데 일본이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이 다급해지니까 내 라이타 돌을 히로시마에 그냥 투하 해버렸지 뭔가! 그 라이타 돌이 원자 폭탄이었어. 비29폭격기로 가득하면 돈 좀 될텐데... 맞아! 라이타돌 하나만 화롯불에 들어가도 빛이 나며 폭발이 굉장히거든~ 그게 핵폭탄이구먼... 나는 그런 일로 망해가지고 지게를 지고 이 꽃로 다닌다네.

다들 그럴싸한 얘기들로 웃음을 터트리며 잘도 간다. 이번에는 박씨 아저씨 이야기 한다. 어여, 저기 대꼴 뒤 장바우 있잖은가... 저 장바우 꼬대기에 돼지 머리통만한 금덩어리가 하나 있다는데 그 금이나 내려 오세. 아니 어떻게 올라 간당가? 내가 말이시 밧줄에 돌멩이를 매달아 바우 너머로 던지면 되지 않은가! 에끼, 이사람! 자네가 어떻게 바우 너머로 돌을 넘겨? 나라면 몰라도 자네는 안 되네. 넘길 수 있다니까 그러네. 그럼 말이시 내일은 장바우 쪽으로 가세. 돌을 넘기나 못 넘기나! 지는 사람이 나무해 주기네...



이렇게 지게꾼들은 요란한 대포를 쏘아 대며 대판리 뒤 능선부근에 지게를 풀고 나무를 한다. 날씨는 춥고 바람은 얼마나 센지 저능선이 바람재란다. 대략 2~3시간 지나자 나무를 지게에 올린다. 애고 나는 뭐야? 나무는 난장이 통자루만큼 해놓고 시리... 에이 괜히 따라왔나 보다.....

아저씨 몇 분이 옛다 한다발씩 나무를 준다. 나는 말없이 눈에서는 눈물이 핑그르 돈다. 고맙습니다! 점심 도시락은 추위에 떡밥이다. 그래도 추운 산속에 떨면서 김치에다 먹는 밥 꿀맛이다. 물은 하얀 눈으로 대신하면서...

하산 길엔 맨 앞에는 다리가 길고 걸음이 빠른 아저씨가 길잡이. 가운데 초보, 맨 뒤 건장한 아저씨가 꽉 틀어막고 한덩어리가 되어 내려올 때는 다리가 세 개씩이다. 뭐? 가운데 다리냐고? 아~니~당~께! 계단진 비탈길은 지게 발목이 바우에 부딪히지 않도록 뒤 돌아 내려오며 지게 작대기를 한 다리로 쓰며 잘도 내려온다. 추운 날에도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흐른다. 비탈진 산을 다 내려오면 작대기를 질질 끌며 걷다 뛰다를 반복하며 약간에 음란스런 노랫말에 구전 가요를 부르는데 한 곡 생각 나는 게 있다.

작사 작곡 미상 곡명 치마바우 영자. 노래 모두다.

치마 ~ 바우 영자야 ~ 팬티나 ~갈아 입어라 ~
샛~ 빨간 ~ 그 팬티에 ~ 벼룩이 ~ 홀딱 ~ 뛴다 ~
아 ~ 잡았다 ~ 놓쳤다 ~ 놓쳤다 ~ 잡았다 ~
샛 ~빨간 ~ 그 팬티에 ~ 벼룩은 ~ 영 ~ 놓쳤다 ~

2절은 각자 더 검은 걸로 하며 좋은 노랫말은 아주 한 구절 자리를 잡는다.

지게꾼들은 걷다 뛰다를 반복해 이제 매산리를 지나 바우거리에 와 지게를 세우고 땀을 훔치며 아저씨들 담배를 입에 문다. 하늘로 연기가 피어 오르며 등 뒤에 젖은 옷에서 김이 모락모락 난다. 아저씨. 선배형들 또 다른 대포깨나 쏘아 대며 화력이 약한 대포는 사정거리(웃음)가 짧고 화력이 좋은 대포는 사정거리가 서울까지 갈 정도로 길~~다...

다시 일어나 걷고 뛰고 창정리 다와 간다. 굴뚝에 밥짓는 연기가 머리를 풀고 파아란 하늘로 피어오른다. 다들 수고했다는 인사와 저녁 사랑방에서의 약속을 하며 또 내일을 약속하고 각자 자기네 집으로 간다.

나는 칭찬을 나무짐 만큼이나 받으며 밥을 상머슴 고봉밥으로 먹고 무척 고단했던지 스르르 꿈나라로... 내 것을 나누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아들녀석이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동악산에 다닌다.

그래 그래, 그렇게 동악의 지게꾼이 되는 것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혼자 보고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 그 다음 내일은 또 지 아들도 지게꾼이 되겠지.....

큰 동악산 깊은 계곡으로 새떼가 날아든다.....

▣ **박종민(서봉41) 12.07.24. 21:36**

사카리, 라이타돌 대포쟁이 분들은 하마 동악산 그리며 뒷산에 누워 계시겠지요.
나무 한 단씩 나눠주는 그 마음이 가만히 다가옵니다.
지게를 지며 지게꾼이 되듯 세상의 큰 일꾼이 되어 이제 아이들도
어느새 제 키에 맞는 지게를 짊어지고...
동악산 깊은 계곡에는 새들의 노래가 이어지겠지요!
차분하고 깊은 추억에 잠기게 하는 글, 고맙습니다

└ ▣ **김종옥(창정37) 12.07.25. 11:35**

많이 살아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우(흙석43회) 12.07.25. 00:59**

선배님? 너무하십니다. 한참 신나게 읽었는데요. 뻥이라니요.
그리고 나무하러 동악산까지 오시다니... 그래서 우리는 동악산을 넘어서까지
나무를 해야 했었군요... ㅎㅎ 생각납니다. 종방사람들도 가끔 만나곤 했었는데
그렇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즐거운 웃음으로 되돌아 오는군요.
장편소설 읽다보니 새벽1시가 되어가는군요. 감사합니다.

└ ▣ **김종옥(창정37) 12.07.25. 11:41**

뻥이 없었으면 지게꾼들 삶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 날 나무하고 엄지 발톱하나가 빠져 버렸답니다. 고맙습니다..... ^^\n

▣ **한봉수(상금38) 12.07.25. 16:58**

이런 만화같은 이야기가 없었다면 창정에서 대점의 산기슭까지의 거리가 얼마인데
몇 곱절 더 힘이 들었겠지요.
작년엔가 창정의 후배님이 운영하는 개인택시를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배도 대점까지 가서 나무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 ▣ **김종옥(창정37) 12.07.27. 10:42**

산 너머로도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 짐을 지고 일렬 종대로 뛰는 모습
아름다웠지요. 이들 사이에 화력 좋은 대포가 많아 재미도 있고 지루하지 않고.....

▣ **김이현(제월38회) 12.07.26. 16:01**

추억의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산나무 아래 낮잠

한정훈(입석41)



달콤한 낮잠

모내기를 마쳤으니

걱정도 없네.....

입면 제월리에서

-야초-

▣ **김종일(창정38) 12.06.16. 19:37**

꼭 저기에서 저렇게 낮잠 한 번 자고 싶네요...

늘 고맙습니다... 귀한 사진 올려 주셔서요...

↳ **한야초(입석41) 12.06.17. 08:19**

힘든 일을 마친 뒤라야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 **신행임(제월)39회 12.06.17. 08:11**

고맙습니다...

어쩐지 나무가 낮설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역시 제월리 문화유산 돌정지남 당산나무군요.

어르신들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고자 저 나무 밑에서 낮잠을 주무시곤 했지요 .

시원한 그늘에서 꿀잠을 자고나면 피로가 썩 물러가지요 ~

↳ **한야초(입석41) 12.06.17. 08:20**

뙤약볕에서 일하다 잠시 쉬기 좋은 당산나무입니다.

▣ **김종옥(창정37) 12.06.17. 12:07**

잘 늘어진 나무 그늘 아래서 한 잠 잘립니다. 숙박비 무료겠죠... 감사합니다.....^^

↳ **한야초(입석41) 12.06.18. 10:19**

숙박비는 나무님한테 물어보니 돈은 절대 안 받는다 합니다.

그저 와서 쉬어가라 합니다.

▣ **한봉수(상금38) 12.06.17. 15:55**

시설 설치 장소의 설계변경만 약간하여 그 나무를 비켜 설치할 수도 있었을 텐데...

두고두고 후회할 일입니다.

↳ **한야초(입석41) 12.06.18. 10:15**

나무를 살려야 했는데... 무리하게 옮겨 심다가 그만...

근데 원래 심었던 자리가 좋은 자리라 여겨집니다.

▣ **한봉수(상금38) 12.06.17. 15:56**

개인적으로 승배(?)하는 고향의 나무 중 하나입니다.

어찌 저런 곳에 가장 크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느티나무를 심으셨을까를 곰곰 생각하게 합니다.

저 나무가 심어질 시절에 제월 앞 들판을 차지한 양반들이 어찌 논일을 직접 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뉴월 끼약볕에 논일을 하는 머슴들의 쉼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저 나무를
 심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강자의 위치에 있었을 지라도 약자의 입장을 배려한
 그 선대님들의 정신이 배어 있는 나무라 생각합니다.
 이와 쌍벽을 이룬 나무가 창정에서 종방으로 가는 곳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수리시설이 설치되는 바람에 그 나무를 인근으로 옮겼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박종윤(서봉37) 12.06.18. 23:51

신선이 따로 없습니다. 그려.. ㅎㅎ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고 여유로운 풍경입니다.
 감상 잘 하고 갑니다.

박종민(서봉41) 12.06.25. 11:23

재미있다. 그래 사람이 만드는 그늘(정자 그늘)과 자연이 만드는 그늘(나무 그늘)
 분명코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구나! 그나저나 참 달겠다.

김재복(제월38회) 12.06.26. 18:14

어릴 적에 그 나무 그 그늘에서 뛰놀며 자랐습니다.
 세월 참 빠르지요~인생이 덧없음인가요. 어린 시절이 그립습니다.
 당산나무 그늘에서 뛰놀던 그 땐 몰랐습니다.
 지금쯤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지를 말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했던가요.
 당산나문 몇십년이 흘렀어도 그 자리 그 모습인데~~감사합니다.

정태자(제월리39회) 12.07.06. 22:07

어린 시절 그 그늘 아래서 친구들과 놀 가지고 놀던 추억도 살아납니다.
 저 당산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군요.
 저렇듯 멋진 당산나무가 내 고향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네요.

고향을 그리워하며

박종윤(서봉3?)

고향!

그렇다. 고향!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아마 고향이란 단어에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 적혀 있을 것이다.

누구나 고향은 다 있다.

하지만 고향이라 한들 어디 다 같은 고향이겠는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부모 직장 따라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초등학교만 해도 수십 번을 옮겨 다닌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를 고향이라 할 것이며 또는 어느 학교를 모교라 할 것인가!

그리고 고향은 있으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과 현대문명에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수몰지역 등 기타 많은 사람들이다.

이기적인 문명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고향을 빼앗아 실향민으로 내몰았으며 또한 그들에게 고향다운 고향을 갖지 못한 슬픔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우리 동악회 회원들은 번듯한 고향을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으며 초등학교 6년도 모자라 더러는 중학3년까지 동문수학을 같이 했던 회원들도 많다. 해서 우리는 실향민 그들에 비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를 부모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거기다 요즘은 온라인이라 할지언정 여러 동문들과 안부나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우리 동악산기슭 사랑방이 있으니 오죽 좋은가! 요 며칠 사이 가입회원이 300명을 돌파했다. 앞으로 500명, 1000명 그리고 회원이 넘쳐 서버가 다운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무튼 우리 동악산기슭 카페가 여러분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이 그냥 일상적인 안부나 또는 고향의 정보 그것도 아니면 한 줄 출석 방에 짧고 간단한 인사라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강덕기(제월.39) 08.10.04. 03:18**

요즘 고향, 곡성에서 심청축제가 열리고 있어 함 땅겨 올려고 해요...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도 찾아뵙고...

섬진강변에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한들거리면서 반겨 주겠죠?

 **권용필 // 38회 // 흑석 08.10.04. 10:05**

네네 그럼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文相玉(금산43) 08.10.04. 10:48**

참으로 좋으신 말입니다.

 **봄햇살(이노순 40회) 08.10.04. 11:38**

네 감사합니다. 향기가 가득한 고향냄새가 이곳에 머물고 있어 정말 좋습니다.

풍성한 이 가을 오늘 하루도 미소가 가득한 날 되세요.

 **홍현희(입면초47입면중6회) 08.10.04. 18:42**

아이고~ 우리 선배님께서 젤로 훌륭하신 말씀만 하셨네요~

고향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 뭉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사랑방

동악산기슭 카페가 있어 행복합니다.

 **도토리 08.10.04. 19:52**

온라인은 이 시대의 흐르는 문화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동네 사랑방에서 수다를 떨었다면 지금은 카페에서~~

이름만 들어도 정겨운 분들과 한 공간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종윤이 오빠도 아련한 내 기억 속에 있었겠지만 이런 공간이 없었다면

어찌 얼굴을 볼 수 있었겠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정재(금산47) 08.10.04. 19:51**

우리들에게 이런 쉼터가 있다는 것...

그건 아마도 다들 고향이 그립고 한번쯤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맘들이 있어서 일 겁니다
보다 유익하고 재미나는 일이 있다는 건 운영진도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진솔한 하나의 이야기가 보고 싶어서 다시한번 와 지고...

종윤이성 이런 글 정말로 감사 합니다요.

양규영 08.10.04. 22:39

초등학교 졸업가가 생각납니다.
2절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의 가사처럼
앞에서 끌어주신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편안히 갈 수 있구요.
또한 뒤에서 열심히 밀며 따라오는 후배님들이 있기에
동악산 기슭에는 찬란한 아침햇살이 영롱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선인장 (택촌43회) 08.10.05. 09:48

당연히 크게 대답 혔구만요. 선배님 카페 만들어 주셔서 고마워요~~ ㅎ
옛날에는 어디 감히 사랑방에 여자들이 들어 갈수나 있었까요?
시대가 크게 변해 이렇게 큰 사랑방에서 수다를 떨어분께 속이 선하고
다가오는 갱년기 걱정없습니다! 우울증이란 단어 우리 선배님들 모르고 사시길 바랍니다.
수다 많이 떨면서요 ㅋ 정이 들면 고향이란 노래 가사도 있지만 어디 그런가요?
우리 모두 곡성 소리만 들어두 입면 소리만 들어도 심장 뛰는 소리가 틀려지지 않나여 ㅎ ㅎ
↳  임번섭(동산초 5회, 대장리) 08.10.05. 19:55

ㅎ ㅎ ㅎ 저는 대통령이 연설하는 줄 알았당게요. 감동 팍팍 묵었다에 한 표...

탑동(박종민:서봉41) 08.10.07. 11:28

참 아름다운 모임이 될 것입니다. 고향사람들의 자리,
입면향우회! 우리들이 모이면 부모님들이 서로 연락이 되고
자식들이 서로 친교를 나눌 수 있어 사람이 좋은 고을이 되겠지요!
시월의 햇살처럼 환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김지영(흑석) 08.10.08. 09:37

감사합니다.... 요즘 우울증으로 생명도 버리는 일순간인데...
대중으로 몰린 곳이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저런 글 보다보면 잠시나마 휴식과 향수를 맛볼 수 있으니까요!!!



네잎 클로바



오봉기(미국시애틀 서봉?)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산책 하던 중
네잎 클로바를 발견하고 신기해서 따려는 순간에
화살이 그의 머리 위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잎은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하는데요,
나는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네잎 클로바
그래서 보는 눈이 다르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건,
 아마도 우리의 눈이 너무 어두워서 그럴까,
 사실, 마음이 어두운 건 아닐까 생각이 든답니다.

마음을 열려고 애를 써 봐도
 클로버를 찾아내는 사람 마음만큼은 순수하지는 못한가 봐요.

어찌 보면 마음을 열고 듣는 것과
 마음을 열고 보는 것의 차이는
 그만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보아요,
 세상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김형욱(혹석37) 09.07.12. 17:45

봉기야! 좋은 세상이다. 먼 거리에서도 실시간으로 글을 주고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아름다운 세상에 늘 건강하여라~~~

시애를(서봉37회) 오봉기 09.07.13. 01:22

그래 고맙고... 너도 건강하고 잘 지내...

조정만(서봉47회) 09.07.13. 07:54

아직도 크로버가 많이 있는 곳이면 두리번거립니다^^



 김회경(45월평 思無邪) 09.07.13. 09:14

네잎 크로버는 행운을 상징하고, 세잎 크로버는 행복을 상징한데요. 변종의 네잎 크로버에 눈이 현혹되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행복의 세잎 크로버를 짓밟고 있다는 것 잊지 않아야겠죠? 우리의 삶이... 더군다나 현대인의 삶에는 더더욱 그렇지만 존재하지 않을 상상의 존재나 비현실적인 욕심이 빛어내는 거품들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 혹은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것을 얼마나 많이들 보는가! 문제는 소유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거나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로부터라는 것을..

↳  양경희(택촌43회) 09.07.13. 22:51

우리네 인생이 현실에 행복을 못 느끼고 멀리 있는 행운 쪽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게지요

 김재복(제월38회) 09.07.13. 10:11

네잎 크로바 행운만큼 언제나 늘 삶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양경희(택촌43회) 09.07.13. 22:53

제 생각은 나폴레옹이 키가작아 구부리지 않아도 총 안 맞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ㅋㅋ

 박종민(서봉41) 09.07.13. 18:40

그래요, 그 한 장의 네 잎을 찾느라 헌腥 보내는 시간이 아까워 저는 언제부턴가 찾기를 포기했습니다만, 가끔 누군가 한 장 건네준 네 잎을 보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는 기쁨이 행운이기는 합니다..... 어디서 누구 생각하며 그렇게 많이 따셨나요?

↳  양경희(택촌43회) 09.07.13. 22:44

그 사람? 혹시 그 여인 ??? 선배님 행복한 추억 간직하고 계시군여 ^*^

↳  박종민(서봉41) 09.07.14. 10:01

그 여인,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디 어찌 아셨소? ㅎㅎ

 양경희(택촌43회) 09.07.13. 22:47

가마동 돌아 매산리 들어오다 네잎 클로버 찾느라 쪼그리고 앉아 시간가는 줄 몰랐던 추억 ㅎㅎ 그러다 경운기 지나가면 우린 무조건 달렸지요 경운기 좀 얻어 타려고 아주 죽어라 ㅋ

↳  박종민(서봉41) 09.07.14. 10:06

경운기 탈라고 다리를 들어 올리느라 심이 들었을 것인디.... 더구나 달달달달 굴러가는 경운기에 올라타는 일은 막상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닐 것이었고요.... 맞네요, 네 잎 크로바 찾다가 경운기를 타는 것, 그것이 어쩜 어린 날 귀중한 추억의 자산이 되어준 행운은 아니었을까요?

-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시골 뚱돼지

박동규(서봉3?)

저희 시골집에서는 뚱돼지를 길렀습니다. 털이 고슬고슬하고 새까맣게 윤기가 나는 토종 돼지였습니다. 돼지막은 사랑채의 길에 면해 있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돼지 먹이로 주는 것은 개숫물과 개숫물에 받쳐진 음식찌꺼기, 그리고 하루에 서너 번 퍼주는 쌀겨가 대부분이었고, 여름철에는 고구마줄기나 연한 풀을 베어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바깥식구들과 이웃집 사람이 뚱을 내려 주었습니다.

사랑채의 돼지막 부분은 이 층으로 되어 있어 일 층은 돼지막(돼지우리)이고 이 층은 변소로 사용하였습니다. 변소는 제법 높았고, 어른 팔뚝만한 나무를 서너 개씩 엮어 양쪽 세로로 지르고 가운데를 적당히 트워 놓아 쪼그려 싹 자세로 일을 보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짚단이 두어 단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신문지나 찢어진 초등학교 교과서가 한두 권 있었습니다. 신문지나 찢어진 책이 있을 때는 그것들이 밑닥개로 사용되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짚 북새기가 밑닥개로 사용되었지요.

어린 심정으로는 돼지막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되었고,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돼지가 몸에 묻은 뚱을 털려고 머리를 좌우로 크게 흔들며 몸을 부르르 털 때 깨발린 엉덩이에 뚱발을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뚱발을 안 맞으려면 내려 주는 뚱이 돼지에 맞지 않도록 조준을 잘 해야 했습니다.

돼지는 시골살림에 살림장만 밑천으로도 쓰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집안에 갈 날이 머잖은 노인네나 과년한 처녀, 총각이 있는 집에서 초상이나 혼인날에 대비하여 돼지를 길렀습니다. 가을에 혼인을 시키려면 가을 무렵에 100근 정도 나가도록 계산 하여 새끼를 길렀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 돼지를 잡는 날이면 동네에서 그런 일을 잘 하는 어른들이 돼지를 잡는데, 고샅에 돼지 뱂다는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집니다. 뱂다는 소리는 실제로는 돼지 뱂을 딸 때 나는 소리가 아니라 돼지를 잡기 위해 돼지를 묶는 때 납니다. 돼지는 뱂을 따서 잡는 것이 아니라, 망치로 정수리를 내리쳐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돼지피를 받기 위해 뱂을 땊지요.

그런 날에는 면도가 잘 되지 않아 꺼먼 털이 삐죽삐죽한 껌질에 비계가 함께 붙은 살코기 몇 점이 담긴 돼지고기 국을 먹었습니다. 아이 때는 대개 껌질과 비계는 먹지 않고 살코기만 떼어 먹었습니다.

이노순(제월40) 04.06.03. 14:24

뚱돼지...어쩌면 글을 이리도 재미있게...
저도 늘 뚱돼지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ㅎㅎㅎ
시골돼지 한 마리 잡은 느낌입니다....
글 재밌게 즐감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석(만수37) 04.06.03. 19:32

뚱돼야지...
이제는 제주도 민속마을 근처 음식 파는 곳에 가야 있지요?
님의 이 기록들은 앞으로 민속사와 관련된 자료로 충분히 가치를 지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많은 글들 올려주시기를 채근하는 바입니다.

자비무적 04.06.03. 20:42

시골 흑돼지~~
옛날 곡성 석곡이 흑돼지로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곳에 들러서 먹고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온종일serv 04.06.04. 15:23

정말 재미있네요...ㅎㅎ
뚱돼지... 나이 먹어서 고기 맛을 알 때 쯤 되니깐...
토종 뚱돼지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제주도 뚱돼지가 유명하죠...
제주도에도 위 글과 비슷하게 기르더군요...
단지, 작대기하나 더 있는 것 빼고는...
뚱 받아 먹다가 거시기 따먹힐까봐 쪽는 막대기....
즐감하고 갑니다.

양혜룡(만수38) 04.06.04. 15:49

그리고 잡은 돼지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또랑으로 가서
돼지 배를 가르면 그 돼지 오줌보를 얻어 모래로 문질러 걸의 기름기를 없앤 후
입으로 힘껏 바람을 넣어 추수가 끝난 논에서 공차기를 했지요.
벼를 벤 후 포기가 삐죽삐죽해 멀리 굴러 가지는 않지만....
그 시절 고향의 추억이 절로 납니다...
정말 향수어린 글 잘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뭇짐이 그립습니다

방현기(택촌4?)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운동으로서 등산을 좋아하기 보다는 호젓하게 걸으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는 걸 즐깁니다. 온갖 나무 우거진 오솔길을 지나다가 소나무 아래마다 소복소복 쌓여있는 싱싱한 솔가리를 보면, 웬지 흥분이 됩니다. 갈퀴가 있다면 저 위 비탈부터 죄 훑어 힘차게 깎어내리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가리나무 하던 느낌이 생생히 살아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뭇짐을 지거나 가리나무 한 동 묶어보지는 못했고, 겨우 망태나 메고 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언젠가 찬바람 부는 늦가을 날 오후, 부모님과 분듯골 잔 다행이 보리밭 이랑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라다 본 앞산에서는 샷노란 솔잎들이 세찬 바람에 산산이 날리며 향긋한 솔 향을 실어왔습니다. 온 산 천지에 노오란 가리나무들이 수북이 쌓여가고 있었지요.

그 때였습니다. 우리 옆 논에서 일하던 나보다 세 살 많은 동네 형이 팽이를 던지더니 갈퀴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형이 나무를 다 깎어갈 것 같아서 덩달아 욕심이 난 저도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일에 단련된 그 형은 금세 족히 세 짐은 될직한 많은 나무를 깎아모았지만,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이 끝난 후 아버지는 실하게 꾸린 나뭇짐 한 짐을 짊어지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저녁 밥상머리에서 아버지의 칭찬을 받고 뿌듯했지요.

저는 어렸을 때, 왜 우리 집은 산이 없는지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동네의 산이 있는 집들은 하가 맙아 가을에 소나무도 베고 솔가지를 쳐서 마당에 집채같이 쌓아놓고 따뜻한 겨울을 나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우리 산을 가지지 못한 아버지는 긴긴 겨울을 날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몰래 국유림에 가서 솔가지도 쳐 오고, 날씨가 좋은 날은 겨우내 동악산 너머까지 가셔서 나뭇짐을 해 날랐습니다.



아침 해가 동악산 이마에 모습을 내밀 무렵, 말이담배 한 대 비벼 태우시고, 엄마가 보자기에 싸 주신 보리밥 든 양은 도시락 지겟다리에 매달고 콧노래 흥얼거리며 나무하러 가십니다. 저는 아이들과 동네방네 뛰어놀다 지치고 저녁 해가 천지봉을 붉게 물들일 때쯤, 집 뒤 외앗머리로 아버지 마중을 나갑니다.

어둑해진 논둑길을 가리나무 한 짐 가득 짊어지고 힘들게 오시던 아버지, 어떤 날은 나뭇단 위에 억새꽃이 함께 따라왔고, 어느 날은 어떻게 잡으신 건지 주우신 건지 죽은 까투리 한 마리 얹혀 있었습니다.

가을 추수를 끝내고 겨우내 남자 어른들의 가장 큰 일거리는 나무하는 일이었습니다. 솔가지를 쳐 오기도 하지만 주로 가리나무를 긁어 나뭇짐을 만들어 칡넝쿨로 묶어 지게에 지고 옵니다. 또, 여자들은 억새나 갈참나무 줄기로 나뭇동을 엮어 한 동을 머리에 이고 옵니다.

그런데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산감(산림감시원의 약칭인 듯)”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군청의 산림계 공무원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가리나무를 하다 들키면 과태료인지 벌금인지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 때 우리들은 “산감 온다”고 그랬는데, 이름이 상감마마의 “상감”처럼 들려서 더욱 겁이 났습니다.

당시는 정부에서 산림녹화를 있다고 소나무를 베거나 가리나무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단속도 심했습니다. 산주인도 허가해 준 것만 벨 수 있었습니다. 연탄도 기름 보일리도 없던 그 시절, 밥은 무엇으로 해먹고 긴긴 겨울밤은 어떻게 보내라고 그랬는지, 대책 없는 단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산감은 언제나 해질 무렵 동네 이장 댁으로 왔습니다. 이 때쯤이면 나무 한 짐 해 가지고 산에서 내려 올 시간이거든요. 이장님의 막걸리 한 되 담배 한 보루 내놓고 구워삶는 사이 소문은 삽시간에 짜악 퍼지고 온 동네가 비상사태에 들어갑니다. 나무하러간 사람이 있는 가족들은 소식을 전하러 산으로 들로 줄달음치고, 동네 어귀까지 있던 나무꾼들은 혼비백산하여 지게를 벗어던지거나, 여자들은 이고 오던 나뭇동을 내동댕이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리나무를 덮고 숨기고 야단법석이 납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리나무를 해오시면, 대밭 아래 고염나무 옆에 쌓아놓고 벗짚으로 엮은 이엉으로 빙 둘러 감춰 놓으십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안에 벼나 콩 등이 들어있는 뒤주나 타작 끝난 빈 벗단이 들어 있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어느 날인가 산감이 우리 집에 와서 그 곳을 긴 막대기로 쿡쿡 찌를 때 저는 간이 오그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물며 아버지는 얼마나 더 놀라셨을까요.

우리 동네에는 점을 보는 아주머니와 외아들이 골목 외진 곳에 허술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거의 날마다 나무를 해 날랐습니다. 산감이 동네를 아랫고샅부터 다 훑고는 그 집 골목 앞을 지나다가 느낌이 안 좋았는지 멈칫 했습니다.

산감 뒤에는 이장님을 선두로 어른들과 조무래기들이 줄래줄래 따라 왔는데, 우리들은 모두 ‘아이고! 일 났구나.’ 조마조마했습니다. 보나마나 그 집 둘레에는 해다 쟁여 놓은 가리나무가 담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산감이 고개를 갸웃하며 머뭇거리자, 젊은 이장님의 정색을 하고 산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거기는 가나마나당게요. 나무가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요.”

이장으로서는 동네에서 위반자가 나오면 관리 못한 책임도 있고, 산감에게 술대접 하며 우리 마을은 보나마나 없을 거라고 큰소리쳤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산감은 작심한 듯, 그 집이 있는 골목으로 바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대문도 없는 그 집 둘레에는, 산더미 같은 낙못동들이 빙 돌아가며 보란 듯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동 하지 말라고 그랬는디. 하이고 참!”

하얗게 질린 이장님 변명하는 표정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이런 웃지 못 할 사연도 많았지만, 산감 몰래 깎어 온 불땀 좋은 가리나무가 있어서 긴 겨울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❶ 코스모스 06.12.05. 19:49

우리집은 한번도 안 들켰는디....

일단 갈대를 깐 다음에 그 안에 가리나무를 숨겨 놔서....

그리고 아부지가 이장이라서...그나저나 소설가 맹키로 글을 참말로 잘 쓰는구먼...

❷ 방현기(택촌47) 06.12.05. 20:42

너무 과한 청찬에 모듈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향이란, 저에겐, 항상 눈물이고 어머니 품속 같습니다.

코스모스님^^ 두 곳에서 자주 만나니 너무 좋네.

↳ 코스모스 06.12.06. 21:57

나도 젤로 반가워요. 존칭어 쓸라니까 쪼까 깔찍지근하다.

❸ 박종민(서봉42) 06.12.06. 12:07

"담배 한 대 비벼 태우시고, 엄마가 보자기에 싸 주신 보리밥 든 양은 도시락 지켓다리에 매달고 콧노래 흥얼거리며" 산으로 가시는 걸음이 보일 듯 선명합니다.

잎담배를 손으로 비벼 습자지에 말아 피워 올리는 그 푸른 상념에는 가족의 일상이 물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던 어른들의 담배!

나는 지금 담배를 피우며 가족의 무엇을 생각하기는 하는 걸까?!

❹ 방현기(택촌47) 06.12.06. 12:11

제 아버지도 워낙 약주를 좋아하셔서 가용주(쌀막걸리)를 몰래 담가 먹었던 것 같아요.

쌀이 참 귀할 때인데 호사였지요.

❺ 안기석(만수37) 06.12.06. 18:38

새삼스럽습니다. 상감(산감) 나오리의 위세에 눌려 살았던 그 때 그 시절,

어쩐든 그래도 다 안 얼어 죽고 겨울을 지냈지요.

↳ 코스모스 06.12.06. 22:02

아부지 없을 때 상감이 갈대 안에 있는 가리나무를 쿡~쿡 찌를 때 좀 얼었지만 물끄러미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쳐다본 기억이 나요

❶ 박종윤 06.12.08. 17:00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단어, 상감(산감). 정감이 가네요.
어떻게 그리도 다 잊지 않고 기억을 하시는지 감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나마 "옛 시절 속으로 초대 해주어 즐겁게 잘 놀다갑니다.
김남주님의 편지라는 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 산길로 접어드는 양복쟁이만 보아도 혹시나 산감이 아닐까 혹시나 면직원이 아닐까
가슴 조이시던 어머니 헛간이며 부엌엔들 청솔가지 한 가지 보이는 게 없을까
허둥대시던 어머니 빈 항아리엔들 혹시나 술이 차지 않았을까
허리 굽혀 코 박고 없는 냄새 술 냄새 맡으시던 어머니..... 中略

❷ 김종만 06.12.09. 19:07

잠시 옛날로 돌아갔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면에서 – 애비요, 보소

박종민(서봉41)



어요, 뭔 일이든간에 웃어 낳기고 웃어 낳기소이, 와
그라고, 날마동 좋게 좋게 성제간 우애 있시 혀야 질여, 이!

시집온게 한아부이가 아가 아가 웃음시로 이빠라 혀싸셨어
아부이는 남양으로 징용을 가시불고 지심에 질쌈에 그려도
지달르고 지달른 심이 한아부이 웃는 웃음 덕에서 나오더만

그려, 큰집 돌봐야제 자네덜 키와야제 한숨 쉴 냄도 못내
그런 아부이가 살만헝께 땔롱, 자네덜 냉기놓고 가셔 제
형광등맹키로 정신이 피식 나가불더니 안 들오는 통인디
할머이도 그라시드란게 웃고 살자고 그라서
그람시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디 입으로는 허어,
억지로라도 웃다가본게 살째기 넘어가드란 말여
그 짬에는 죽을 모냥 같혀도 웃어분게 찢께 지내 암시랑 안혀
고로코 영한 거랑계, 웃음이, 그려

뿌수가진 거, 짜잔한 것도 쟁기놓다보면 요긴히 쓸 일 있드끼
 달리 걸크작대고 빼쳐쌓는 사쁨이래도 어놔주고 보듬아줌서
 공력을 딜이다보면 좋게 갚아줄 거이네라고 맨날 그러셨어
 할머이가 어른이셨네, 이려라저려라 그람시로 일러 주면은
 내는 고물고물 심바람한 심여, 내동 글 안던가, 할머이 말씀
 성제간에 속이 오그라진 사람은 놈 앞이서도 웃덜 못 혼다고

밀사리를 혀봤네, 오죽 안 좋아혔는가
 물 건네 깽변 포전밭이 다 밀밭일 적으 자네들이 졸르고 졸르면
 밀을 불에 사료갖고 맹글아, 쫀득쫀득 씹을수락 맛나한 것이라
 삼진날 씨나락 당구고 냉긴 냄지기를 불콰갖고 혀는 놈이나
 추석에 올게심니를 흘트고 쪘서 혀는 올게쌀이랑은 다르제

아까 헌 말, 뻘 말이라고 내뿔지 말고 아조 유념혀, 이
 자네는 팩성만 죽이면 더헐 일 있간디, 허기사 그 성질 넘준단가
 아부이맹키로 바른 소리 잘 혀는 것이 자네 본성이기도 허네만
 우짠 일이래도 웃어 낭길라고만 하고
 성제간 우애를 안 깨겄다 못을 박고 그려랑게
 밀사리 한 볼테기 갑이다 택으로 치고
 에미 속말 조께 들어준게 고마와, 이
 아그덜 단도리 잘 혀고, 인자 고만이요, 와



 박종민(서봉41) 12.06.03. 23:08

생일 맞으신 지기님 늦게나마 뵈니,,,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2박 3일 통신 두절하고 농장에서 꼬박 일하고 돌아오다보니)
 만약 울어머이가 내가 생일을 맞는다면 이렇게 타일렀지 싶어 올려봅니다
 그리고 밀사리는 깜부기 사진 올려주신 한봉수 갤러리님 생각도 겹쳤고요

↳  신행임(제월)39회 12.06.04. 19:04

밀사리, 여치집,, 동악산 고향이 아니면 이러한 풍경과 추억을 어디서 공감하겠습니까..
 어렸을 적 간변에 나가 아직 덜 여문 밀 한 다발 벼다가 친구들과 타작을 해서 손바닥에
 비벼 입김으로 불면 위의 사진처럼 파란색 밀사리가 얼마나 맛있었던지요,,,
 보리사리보다 밀사리가 훨씬 맛있었지요ㅎㅎ
 동악님들 모두 경험하고 자랐을 밀사리 정말 그립습니다 ~

 박상우(흙석43회) 12.06.03. 23:34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다툼으로 얼굴 붉히고 돌아서면서
 내가 이래서 안되는데 하면서 후회도 해보는 안타까운 마음들 뒤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껌 살돈이 없어서 밀을 계속 씹어 또랑물에 씻으면 껌이 되었는데
 생각에 감흥에 젖어봅니다.

↳  박종민(서봉41) 12.06.04. 09:58

성체간에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자꾸 보듬다 보면.....
 밀껌을 만들기 위해 또랑물에 생밀 씹은 것을 씻겨내고 있는 상우님, 보이네요!

 한야초 12.06.04. 06:20

서운한 일 있어도 웃고 살다 보면 가끔씩 좋은 일도 있는게...

↳  박종민(서봉41) 12.06.04. 09:58

그래 웃음이 영한 것여

 김종일(창정38) 12.06.04. 07:04

농장에 가셔서 일하고 오셨군요. 형제간의 우애를 위해 타이르시는 글귀...
 가슴이 찡합니다. 명심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밀사리도 그립구요.

↳  박종민(서봉41) 12.06.04. 11:18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요맘쯤 농번기 때 가신 할머니 생각이랑 같이 겹쳐서
 올린 것인데 좋게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방현기(택촌47회) 12.06.04. 12:33**

밀이 익어가는 철이군요! 밀사리, 여치집, 올게심니, 보기만 해도 들어만 봐도 정겹네요,^^ 웃어 내기고 웃어 낸기소이, 와. 그래야지요, 사는 게 뭐 있겠습니까, 고향맛 나는 맛깔스런 글 고맙습니다.^^

↳ **박종민(서봉41) 12.06.04. 18:36**

여름 잘 준비하여 시원하게 지내소서

▣ **한봉수(상금38) 12.06.04. 16:14**

보리보다 밀사리의 맛이 훨 맛있었지요. 밀껍은 밀타작한 후 덕석에 밀 말릴 때 한 움큼 입에 넣고 씹어 만들었지요. 그 시절 서봉마을의 정미소는 만능 정미소였지라. 벼와 보리의 정미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고 밀가루 내는 것(제분), 고춧가루 찧는 일, 목화솜 타는 일까지..... 그 때 그 정미소에서 일하시던 곱사의 장애를 가지셨던 아저씨가 생각이 나 웬일인지 눈물이 나네요.

↳ **박종민(서봉41) 12.06.04. 18:31**

밀가리로 국시를 뽑으면 한 가닥씩 줋어 먹느라 곰방구리 드나드는 새끼쥐처럼 굴던 어린 사람들.... 그 어린 사람들을 위해 어른들은 뼈가 녹도록 여름철 햅볕 속에서 하루를 가꾸었을 겁니다

▣ **김종옥(창정37) 12.06.04. 16:50**

어릴적 한이불속에 오순도순 살아가든 그 시절이 떠오르네.
고향 새음 물씬 풍기는 사투리와 사랑이 넘쳐나는 좋은 글 감사하게 잘 보았네.....^^

↳ **김종일(창정38) 12.06.04. 17:21**

맞아요... 이불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그래도 그 시절이 사람사는 것 같았어요...

▣ **신행임(제월)39회 12.06.04. 18:01**

그렇습니다,,, 웃음 속에는 어떠한 못이 박힌 응어리도 살며시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사람인자라 시간과 세월이 흐르고 나면 감정이 무뎌져서 가슴에 못이 박힌 상처라 할지라도 잊혀지는 게 우리네 삶이더이다. 처음 감정은 죽을 것처럼 힘들고 여려워도 긍정의 힘과 경험에 의해서 지혜를 얻고 살아내는 것 같아요. 없는 살림에 큰집까정 돌보려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냈을까요....,

힘겹기만 했던 옛 우리네 엄마들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되었습니다 ..

↳ **박종민(서봉41) 12.06.04. 1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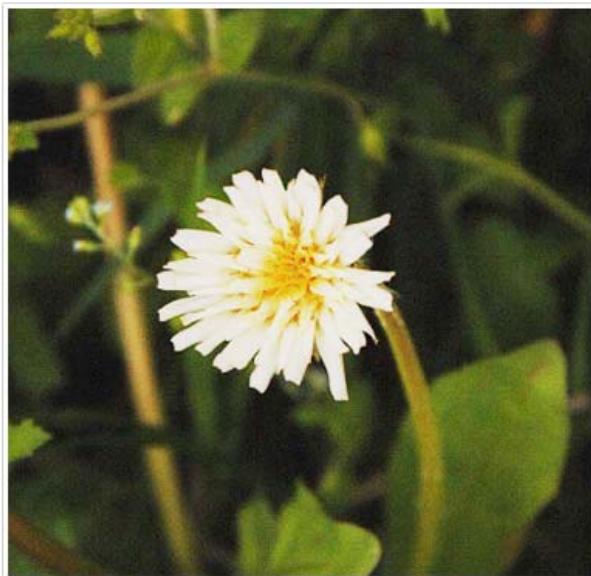
긍정의 힘이 어머니의 힘이고 대지의 힘이고 고향의 힘인가 봅니다



흰 민들레



한정훈(입석41)



소복한 여인의
한맺힌 넋이런가
하얀 민들레.....

입면 금산리에서

-야초-

 김종옥(창정37) 12.06.14. 20:34

누굴 그리 기다리느라 허리 굽혀 얼굴 내미는고....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하얀 민들레 는 실률은 못 보았네요.
힌 민들레 가 토종 이고 노랑 민들레가 외래종이라는데 보기가 힘드는지
하얀 민들레가 몸에 좋다고 썩쓸이 채취를 해 그럴까.
토종 민들레 번식 좀 만이되 문밖 담장 아래서도 보였으면 좋겠네요.
자료 감사합니다....^^

 박종민(서봉41) 12.06.14. 22:13

무척 까탈스러워요, 흰민들레... 제법 번질만 하면 잡풀에 치여서 금방 녹아버려요.
흰민들레 밭을 만들려면 제법 정성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풀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먹거리이기도 하면서 상식할 수도 없는, 딱 번질 만큼만 번지고
번지지 않을 만큼만 아니 번지는, 참말로 자연의 순리에
가장 적절하게 순응하는 식물이라는 생각입니다.
(노란 민들레의 잡다성. 다번식성에 비하면 우리 토종인 흰민들레는
글자 그대로 딱 토종 그만큼의 모습만 보입니다)

 박상우(흡석43회) 12.06.15. 00:37

돌보는 사람 없어도 참 아름다운 들꽃들... 그 옛날에는 가까이 있어도 무심코 지나쳤는데
바람 따라 훌씨 되어 어디에 터를 만들었을까? 그리워집니다.

 한봉수(상금38) 12.06.15. 18:06

상금마을 올라가는 꽃길에 난 민들레가 거의 모두 흰민들레더군요.

 신행임(제월)39회 12.06.15. 19:17

하얀민들레 아주 귀한 작품 주셨습니다.
서양에서 넘어온 노란민들레만 보아왔는데, 하얀민들레가 토종이라니 정말 반갑습니다,
민들레 훌씨되어 우리 동악에 고운바람타고 널리널리 퍼져
사랑방에 발 디딜 틈 없이 북적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누려는 고운마음 엿보고 갑니다~

↳  **한야초(입석41) 12.06.17. 08:22**

우리 것이 뒷전으로 밀려나니 한이 넘쳐납니다.

↳  **한봉수(상금38) 12.06.17. 16:26**

노랑민들레라고 하여 꽃 색깔만 가지고 우리 것이다 아니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토종 민들레에도 노랑색의 민들레가 있습니다.

단지 서양 민들레가 노랑색의 꽃을 피우면서 그 번식력이 상상을 초월하여
토종 민들레의 서식지를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야초(입석41) 12.06.25. 13:30**

그렇군요. 토종민들레 더욱 애착이 갑니다만 구별할 안목이 없어서요.

↳  **시애를(서봉37회) 오봉기 12.06.19. 15:20**

맞습니다. 아! 서양 민들레라고 잔디 사이에 나면 잔디를 죽이고
그 서양 민들레만 자리하고 있으니 약을 사다 죽여도 잎만 죽었다가
다시 뿌리에서 새잎이 나와서 정말...

↳  **한야초(입석41) 12.06.25. 13:31**

민들레의 끈질긴 생명력은 깜탄스럽습니다.



논 김매기

이문용(약천41)

장마라고 하지만 날씨가 따끈따끈하다. 모내기 끝난 논에는 뿌리잡은 벼들이 거름끼 머금고 쑥쑥 올라오고 있다. 날씨가 더워야 벼는 잘 자란다. 올해도 병충해 예방 잘 하면 풍년이 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벼농사 방법도 옛날과는 많이 다르고 변했다. 세월따라 다른 좋은 방법이 개발되니 예전보다는 쉽게 그러면서도 소출도 많이 나오는가 보다. 못자리 방법이 그렇고 모내기 방법이 그렇고 많은 손이 가던 제초작업이 그렇다. 예전 이맘 때 쯤이면 벼포기 사이 풀뽑기 논매기가 한창이지 않았던가.

뜨거운 햇볕아래 가뭄에 마른 논엔 호미 들고 풀을 매었다. 수렁치기 무논엔 보풀 새우질빵 달개비 물풀... 손으로 뽑고 뭉쳐 밭로 꾸~욱 밟아 놓으면 끝이었다. 힘들고 지루 할 때는 두레라는 이름으로 여럿이 함께 일하였다. 풍물도 치며 힘든 일을 놀이로 변화시킨 좋은 광경이었다.

새참 때가 되어 큰 나무 그늘에서의 식사는 또 얼마나 꿀맛이었던가. 거기에 반주로 막걸리 한잔이라 그런대로 농사일도 낭만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논풀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연구도 있었으리라. 한때는 톱니가 달리고 밀고 다니면 풀이 뽑히는 기계가 나오더니 시원찮은지 사랑받지 못했다.

지금은 모내기 후 논에 뿌려두면 잡풀이 나지 않는 제초제가 일반적인 것 같다. 힘들고 허리 아픈 논 김매기 작업의 일손을 덜어주었으니 좋기는 하다만 그 제초제가 인체에 어떤 해는 없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웰빙 바람을 타고 무농약 무비료 그런 농사법이 각광을 받는 세상이니 말이다.

여든여덟 번 손이 간다는 벼농사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그 벼농사에 사활을 걸었었다. 쌀이 많은 사람이 부자 소리를 들었다. 이제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소리 듣는 세상이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세상이다. 보다 많은 수확을 기대하면서 예전 논 김매기 하던 어른들을 생각해 보았다.

이제 논 김매기란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힘든 농사일을 어찌 글로 다 표현 할 수 있을까. 다만 아주아주 최고로 힘든 일이 농사일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 흥현희(만수47회) 09.06.27. 18:48

요새는 논을 안매고 우렁을 풀어 나붕게 다 뜯어 묵어 불드만요...

간혹 벼 잎사귀도 뜯어 묵기는 허드만...

● 매산_김영의(45회) 09.06.27. 19:48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그 힘든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고향의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해 봅니다. ~~~

● 탑동(박종민:서봉41) 09.06.30. 10:49

쌀이 살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참으로 위대하다!

● 서봉 36회정구임 09.07.01. 16:28

내도 그 전엔 많이 논~밭~메고 소깔도 무자게 비로 댕겼는디~ㅎㅎ

● 박종윤(서봉37) 09.07.01. 17:27

김매기 때는 피곤함을 잊기 위해 흥겨운 농부가도 부르고 참 낭만적이었는데 요즘은...



입면 시장통에 모르고 있었던 『복 받으세요』

김종옥(창정3?)

곡성군 입면 시장이 개장 한 것은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1959년 ~ 1960년쯤 개장 한 걸로 어렵잖이 생각납니다.

새로운 문화 협찰 박치기 상거래가 시작된 것이지요. 입면은 2일~7일 장입니다. 그 당시 창정리 사람들은 동네 앞에 시장이 생겨 무척이나 가슴이 설레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 때 내 어머니께서는 미분양된 점포에서 직접 재단하여 뺨쓰(팬티)를 만들어 파셨습니다. 첫 개장하는 장에서 뺨쓰를 사 입으면 돈을 많이 번다는 속설이 있어서였죠.

어머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장사를 시작 하자마자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미처 만들질 못해 못 팔 정도였습니다. 저녁까정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부자 많이 만드셨습니다.

나는 울 집 부자 된다고 좋아라 했습니다. 점심도 못 얻어먹고 시장만 돌고 또 돌았습니다. 어전 앞을 서성이다 꼬막 한주먹 쥐고 뛰어 숨어서 까먹고 건어물 전 앞에서 미역 귀 따먹고 또 다시 멸치 한주먹 쥐고 뛰어 숨어서 먹고... 아파 종옥이 장뜰뱅이가 되어 살 판 났습니다.

맨 날 장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악 회원님들 뺨쓰 하나씩 사 입으세요. 첫 개장하는 장에서 검정 고무줄 넣어 직접 재단 재봉하여 만든 포플린 뺨쓰 하나씩 사입고 복 많이 받으세요!

 김종일(창정38) 12.06.24. 18:20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처음 안 사실이네요. 암튼 장날은 즐거웠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는 재미도.... 그 날 저녁은 생선토막이라도 구경할 수 있었으니까요.

 김종옥(창정37) 12.06.25. 09:54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많거든요. 감사 합니다....^^

 박종민(서봉41) 12.06.24. 21:39

좋은 복, 오래 남을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입면장 그 긴 이야기가 여름밤 내내 이어집니다, 마음 속에서...

 박상우(흡석43회) 12.06.25. 00:45

내가 태어난 년도에 개장했으니 아! 지나간 시절이여~ 부산에서도 백화점 오픈 때
빨간 내복을 살려고 북새통입니다. 그리운 그 시절의 추억... 내 친구 원배집 약국이 있었고
종방에 우리 아침은 딸과 함께 계란을 팔았던 입면장 생각납니다.

 김종옥(창정37) 12.06.25. 17:32

지금도 내복을 사 입는군요. 시장의 추억들! 계란 한 줄에 10개... 지푸라기로 엮어 예뻤죠!^

 박종윤(서봉37) 12.06.25. 09:42

글을 읽다보니 옛 시절의 시장통을 한 바퀴 빙 돌아본 느낌이네. 참으로 정다운
시절이었는디... 가끔 어머니 따라 시장통에 가면 괜히 부자가 된 느낌이었고 말여.

 김종옥(창정37) 12.06.25. 09:58

팬티는 무료라네... 한개 가져가게..... ㅎ ㅎ 고맙네.....^^

 신행임(제월)39회 12.06.25. 22:31

비는 안 오고 날씨도 무덥고 하여~빨간빤쮸~휴~ 몇 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의 이바구
하며 웃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빨간빤쮸~ 각설하고, 이~크 머시여~ 앵경 똑바로 쓰고...
떼님들의 빨래 건조 문화, 와~우 빨간빤쮸 엄청 많았습니다. 아파트/주택 총 망라하여
도시 전체에서 나부끼는 빨래건조 물결... 옆집 아줌마 아찌 싸이즈는 자동으로 알아 부려요.
떼님들의 옷 말림문화 습도가 높아 집 안에서 말릴 수 없는 환경 때문이죠.
긴~장대처럼 빨래 건조대에서 말린다는 이유에 빨간빤쮸 구경 잘하고 미소 지워
보았습니다~

떼님들 빨간색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문화~ 복이 굴러 오기라도 하나요? ㅎ ㅎ

↳  **김종옥(창정37) 12.06.25. 21:00**

한국의 빤쓰 바람이 풍국까정 빤쮸 바람으로 ㅎ ㅎ 갸네들은 아무렇지 않겠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은 “저것이 뭐시다냐?” 얼굴 뜨겁겠습니다. 길다란 장대에 빨간 빤쮸가 펄럭 펄럭 휘날릴 때..... 저집 아줌매 아자씬 똥보 와 훌쭉이..... ㅎ ㅎ ㅎ
갸네들은 붉은색 황금색을 아주 좋아 하는것 같습니다....고맙습니다....^^

↳  **신행임(제월)39회 12.06.25. 22:30**

카페 글이란 주고 받는 피드백이 있어야 샘있는 것 같고요 ~

 **한봉수(상금38) 12.06.26. 13:04**

장이 서는 날 봇거리의 징검다리를 건너 석돌구렁의 진탕길을 걸어 어머님을 따라 시장에 다녔던 그 때가 생각납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봇거리의 징검다리는 물에 잠겨 물살을 헤치며 건넜지요. 그 징검다리가 복원되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  **김종옥(창정37) 12.06.26. 13:40**

봇거리는 서봉리 앞 냇가입니까? 옛날처럼 물도 많고 징검다리도 있고 하면 그 얼마나 좋을까요! 복원 되는 날을 기원해 봅니다. 서봉리 아래 보 있는 곳으로 어느 가을날 참게 잡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형을 따라 가서 보 위에 그물을 치고 기다리는데 참게란 놈 정확히 밤12시~새벽 4시까지 내리더군요. 꼭 소똥처럼 떠 내려와 그물에 걸리면 주어 담기만 하면... 별 밤 지새며 참게 잡던 그 시절 정말 그립군요~ 한봉수님, 고맙습니다....^^

 **안병만 12.06.26. 17:50**

5일장 이 열리는 날이 오면 누구나 할 것없이 여지없이 몰려들었던 그 때 그 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아니셨을런지요? 여기 저기에서 뻥뻥 튀기는 소리에 귀를 막았지만 (티밥) 그 소리가 나자마자 달려가 한 개라도 주워 먹어야 살 판이었으니 말입니다. 어무이 치맛자락을 불들고 장에 따라가야 봉어빵 한 개라도 얻어 먹을 수 있었던 그 시절! 그야말로 "눈물의 젖은 빵 한 조각을 먹어보지 않는 자와는 결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

↳  **김종옥(창정37) 12.06.26. 18:23**

아이쿠~ 안병만님 반가워요. 뻥~이요! 귀 막고 한 걸음 뒤로 물려 서 있다가 “뻥~” 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너도나도 달려들어 한 주먹씩 쥐고 냅다 뛰었지요. 너와 나의 먹거리였는데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잊고 지내왔네요..... 이렇게 많은 추억들을 쓸어 안고 시장 양철지붕은 녹슬어 가고 있네요...참....!!! 병만님 함께 해주어 고마워요....^^

↳ 🍽 김종일(창정38) 12.06.27. 09:27

정말 반갑네요... 하나 둘 나이 들어 이렇게 사랑방에 찾아 오시니 기쁩니다.
 안병만님은 형님 안병채님과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잘하셨는데 글도 잘 쓰시네요...
 대구에서 살고 있구먼요... 카페에서나마 자주 뵐요.
 타향에서 뿌리 내리면서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 많이 올려 주세요.

↳ 🍽 김형주(창정38회) 12.06.26. 19:59

아이쿠! 안병만 동생 오랜만! 반가워...
 입면시장에서 있었던 애환과 추억들 모두 동감입니다.
 ↳ 🍽 김종옥(창정37) 12.06.26. 21:35
 형주님 반갑습니다. 자주 들려주어 고마워요.....^^

↳ 🍽 (김영도) 매산 33 12.07.02. 16:15

그래요? 후배님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린시절 어르신 따라 장에 가서 구경하면서 국수 한 그릇 먹고 티밥 튀겨서 온
 그런 추억과 명절이면 검정 운동화와 검정 학생복 사러 따라 나간 그런 추억만 기억됩니다.

↳ 🍽 김종옥(창정37) 12.07.02. 20:19

선배님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동악인이라면 입면장에 대한 추억들이 너무들 많을 겁니다.
 저는 그 때 부모님께서 3~4년 장사를 하셔서 희미하지만 너무 추억이 많습니다.

↳ 🍽 (김영도) 매산 33 12.07.06. 15:10

추억을 되살려주니 오히려 내가 고맙지요. 건강하세요.

↳ 📖 안기석(만수37회) 12.08.17. 22:54

종옥님은 흄그라운드 수혜를 많이 받았군요. 이 점포 저 점포를 들러서 가격 비교를
 하시고 나서 물건을 사시던 우리어머님 모습이 선합니다.

처음에는 그럭 저럭 참고 따라 다닐만 했는데 온장을 살살이 뒤지고 다니시면
 왕짜증이 났지만 무서워서 속으로만 끙끙 앓았지요!

추억의 5일장이 그립습니다. 감사해요

↳ 🍽 김종옥(창정37) 12.08.19. 13:52

장날이면 창정리 아이들 떼지어 다녔지요. 다음날은 동전 주우러 다니고..... ㅎㅎ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갈 수 없는 그 시절이 그립네요.



검은돌 팽나무



한봉수(상금38)

검은돌 마을의 저수지 아래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팽나무입니다.



【2011.4.2】



【2011.7.26】



 양순용 (종방 38회) 12.08.06. 14:38

사계절 팽나무가 흑석고향을 지켜주는 듯하군요. 계절마다 모습이 달라 정겨움이 더합니다.
 계절마다 먼 길을 마다 않고 애써주신 한봉수 친구에게 무한 감사드립니다.
 흑석이 고향이자 처가집이라 자주 가는 곳입니다.
 저수지 밑 개울에서 투망질도 하고 그랬답니다.
 저수지 확장 공사 땜에 요즘은 환경이 좀 달라졌더군요. 친구야 날씨가 장난이 아닌데
 올여름 휴가 건강하게 잘 보내라.

 김종일(창정38) 12.08.04. 08:51

맞아.. 고향의 유산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진즉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군!
 입면의 모든 당산나무를 잎이 나기 전과 잎이 우거진 모습을 3~4년에 걸쳐
 빠짐없이 촬영을 했더구나! 그 사진은 입면 마을 이름 유래에 편집하여 올렸다.
 고향 전체를 사랑하는 큰마음에 고개가 숙여지는구나!

↳  한봉수(상금38) 12.08.04. 22:54

순용아! 종일아! 오늘 양내(약천)에 자연유산 보충사진 찍으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부러 오후 형님 고추 따드리는데 약간의 지각을 혀뿌렸다.
 예상치 못한 일이란 양내에 내가 찾아갔는데 아무 연락도 없었던 증원이가
 당산까지 마중나와 뿐였째, 덩달아 종방에 귀생이도 만나 뿐었째....
 이 상황에서 어찌 나오 그 다음 시간 약속이 맞춰지겠냐.
 일단은 자연유산 연재가 우선잉께 짐짓 기다려라 잉~~~

↳  김종일(창정38) 12.08.04. 23:22

증원이와 규성이... 반가웠겠구나! 그런 경우는 지각을 해도 좋다!
 안부 전하고 회포도 풀고 오너라~

 양순용 (종방 38회) 12.08.06. 14:55

앗따, 그려부렀그마잉... 봉수야 양내 하니까 그 옛날 소 물고 보리풀하려 다니던 생각이
 나는구나. 증원이하고 규성이도 만나 부렀구마잉. 무척이나 반가웠겠네.
 난 시간여유가 없어서 자네가 무척이나 부럽네 그려. 자네가 곳곳의 고향사진올린
 풍경들은 우리에게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엄청 귀한 보물이라네.
 내가 못 한 일들을 자네가 해주어서 무한 감사드리네.
 다음 만날 때 맛있는 술 한 잔 더 따라 주겠네. 그동안 건강해라.

▣ 김형욱(혹석37) 12.08.04. 11:09

그리운 고향 팽나무를 보니 어렸을 적 팽나무 밑에서 놀던 생각이 납니다.

한봉수님의 덕분에 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한봉수(상금38) 12.08.05. 10:27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동네동네를 휘집고 돌았는데 분명 그전에 있었던 나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안 보이더군요. 물론 자연의 법칙에서 영원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언젠가는 그 수명을 다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자연법칙은 피할 수 없는 일인지라

그 생명이 살아 숨쉬는 시절의 생로병사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보자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 김병완(41회) 12.08.04. 21:32

마치 오래된 친구 이름처럼 몇 번이고 불러보고 싶은 팽나무!

필자의 집은 소재지이지만 저수지 인근에 선산이 있어 가끔 기회가 있을 때

혹석리로 돌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오래된 팽나무~~

사진으로 보니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한봉수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 박상우(혹석43회) 12.08.04. 23:49

아이구 ! 정말 그립고 반갑습니다. 선배님 도대체 우리 마을을 몇 번을 방문하셨어요?

그렇잖아도 팽나무와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서 그리웠었답니다.

배고픈 시절에 열매가

먹고 싶어서 돌멩이를 열 번을 던져야 한 번 먹을 수 있었던 쌈싸름했던 그 열매~

여러 명이서 나눠 먹었던 걸 기억합니다.

멀리 저수지 밑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댐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래도 칼바위는 남아 있어서 다행입니다.

옆에는 38회 옥심이 누나집,

그 옆엔 35회 김성곤 선배님집... 추억을 간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한봉수(상금38) 12.08.05. 10:39

내가 검은돌에 갈 때는 양내에서 저수지 주변 길을 걸어 뚝방에서 내려와 나무 사진 찍고 월곡으로 넘어가 월명을 거쳐 매평 모교에서 일정 끝내는 것과, 모교를 거쳐 창정과 궁동을 들렀다가 내동, 종방, 서봉, 상금 집에 오는 장거리 일정이 있는데 순 도보 이동이라 파김치가 되곤 한답니다.

 윤옥희 (흑석42) 12.08.05. 23:05

새뜸에 살던 어린 시절... 뒷산 중턱에 있던 집에서 바라다 보이는 앞산이 있었고 그 중간에 하천이 흐르고 뚝길처럼 길이 있었고 그 길 중간에 팽나무가 우뚝 서 있었던 걸로 기억 합니다. 주위의 경관은 많이 변했네요. 보름날 불꽃놀이도 하고 논똑 태우고 난 다음 봄이 되어 쑥이 나면 쑥도 캐고 했지요.

그 동안의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과 닮아 보여 더욱 친근감을 갖게 하네요.

많은 세월이 흘러도 꿋꿋하게 우리 새뜸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흑석! 새뜸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 뭉클해오는데 팽나무 사진 진심으로 감사 드려요~

 한봉수(상금38) 12.08.06. 10:43

윤옥희님 잘 계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고향의 구석구석 모습을 기록(사진)으로 남겨 놓으려는 목적 중의 하나가 윤옥희님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는 출향민들이 옛 추억을 되살리며 항수에 젖어 보기도 하고 달래 보기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몸 발품 팔아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즐겁고 뜻 깊은 일이겠습니까!

 박상우(흑석43회) 12.08.06. 23:27

팽나무옆 개울에서 여름날 조그만 댐을 만들어 목욕도 하고

그 시절에는 가재도 잡곤 했었지. 모두다 어디 간거야 ? 그립다. 친구야

 심옥숙(흑석42회) 12.08.04. 09:05

우리동네 당산나무 그립습니다. 어릴 적에 배재 밭에서 담배를 따서 머리에 이고 오다 이 팽나무 아래서 쉬곤 했던 곳~~~ 정말 정겨웠던 그 곳!! 가슴이 뭉클하네요...

 조동주(상금42) 12.08.06. 19:52

금년 5월 사진에 보면 팽나무 옆에 굵은 관이 잔뜩 쌓여 있는데 무슨 공사를 했던 것일까요???

 한봉수(상금38) 12.08.07. 20:40

섬진강에서 흑석저수지로 물을 끌어올리는 도수관공사 후 남은 자재인 듯.

그 때는 그랬다

박상우(흑석43)

재산이 22조원이라는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저커버즈 결혼식.

그곳에는 다이애나에 드레스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었고 한 끼에 수억원씩 들인 호텔 음식도 아닌 동네 식당에서 시켜 먹었다 한다.

동방 예의지국에게 검소한 혼례 한수를 가르쳐 줬다고들 한다.

연예인들의 호화결혼식 보도를 접하다 보면 예의 본질보다 형식을 중요시하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사회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나무늘보처럼 느릿느릿 게으름만 피우며 자던 잠을 까치 내외가 합세하여 깍깍 울어대며 나를 깨우던 시절에 좋은 소식이 있을려나 그때는 그랬다! 선배가 옥과 다방으로 선보려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매산리 형제이발관에서 상고머리로 깎고 문화사진관에서 약혼사진을 찍었단다. 전통 결혼식 날에 나무기러기를 안고 맞절 끝에 표주박에 담겨진 술도 나눠 마시고 동네사람들도 옆집 담 너머에서 줄줄이 구경꾼으로 조연을 맡아 도움을 주었다.

결혼식 날 다무락 뒤에 뒷담화로 수근수근 신부 얼굴이 그냥 그렇네 ㅎㅎ 살도 찌고 ㅋㅋ 몸만 왔데나 봐.

시집살이 뻔하다. 그 집 시어머니 보통이 아닌데 아휴! 내가 한숨이 나네. 지난번 누구 각시는 트럭으로 한 차 신고 왔데.

농도 큰 걸로 해오고 텔레비도 해 왔데, 요즈음 사례를 들어보니 이바지 음식 30만원 소고기 생고기로 해 보내니 신랑 집에서는 양념으로 건성으로 보내왔다고 분해하던 신부집 하소연이 많더군요. 낙네임이 “긍정의 힘” 인 분은 딸 시집보낼 때 아파트 한 채씩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던데 나는 남매라서 쌈쌕, 대전에 내 친구는 딸만 셋, 어짜고 ㅎㅎ

38회 동창회 맨 아래 오른쪽 사진에 주인공 선배님은 신랑이 키가 작다고 결혼 안한다고 나를 거기다 짹다고 그렇게 울어 대더니, 지금은 너무 잘 살고 대전에 별장까지 있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했더니 죽는다고 웃더군요.

농도 짙은 우리시골에 그 시절 휴머니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 졌으면 싶다.

 신행임(제월)39회 12.06.10. 09:30

자정이 넘은 시간에 부산에서 올린 글을 휴일 아침에 서울에서 열어 봅니다, 온라인 세상이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해보며 컴만 접속하면 어디서든지 고향소식이나 좋은 글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마움입니다, 무엇이든지 점점 상품화 되어 내실보다 곁에 보여지는 것에 평가받는 세상이니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상우씨의 글을 통해 크게 공감하는 바랍니다.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를 해 봅니다, 저는 아들 딸 둘이라서 본전은 치룬 셈이네요ㅎㅎ 공감하는 글 일요일 아침에 커피 한 잔과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  박상우(축석43회) 12.06.10. 23:31

선배님 서울까지 가셨네요. 정말 부지런하게 사십니다. 나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나면 밤11시쯤 됩니다. 늦게 글 올리다 보면 밤침도 틀릴 때가 많아서 깜짝 놀란답니다. 모든 게 부족하지만 선배님들에 응원 하에 많이 배웁니다. 선배님도 남매 두셨네요.

 한야초(입석41) 12.06.10. 16:01

서양사람들이 의외로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허영과 사치를 버리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가꾸어가는 것이라 여깁니다.

└  박상우(축석43회) 12.06.10. 23:43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 서로 언론에게 잘 보이게 할려고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모 개그맨 커플 결국은 헤어져 서로 상처만 입고

하객의 옷차림까지 등수를 논하는 연예 매체들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옥(창정37) 12.06.10. 17:06

요즈음은 닉우스에서 사라진 듯합니다. 얼굴만 이쁘다고 다 행복하고 잘사는 것 아니지요. 속이 꽉 찬 못생긴 사람이 더 잘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장단점을 나눠 주신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사랑방에서 섯다를 하는데 솔광을 잡고 뒷표는 보지도 않고 섯다가 사꾸라띠 아님 난초가 나와 거덜 난적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 때 하는 말 인물 좋은 것이 집구석 망한다고 했어요. 요즘은 얼굴도 이쁘고 지식과 예를 두루 갖추고 끼도 많고 알짜가 많아 다행입니다. 가진 것 나누고 부족한 것 채워갈 수 있는 동악인 같습니다.

└  박상우(축석43회) 12.06.11. 00:07

요즈음엔 결혼 시키는 것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찮은 이바지 음식 가지고도 서로 얼굴을 붉히고 하니까요. 신부 측에서 30만원 쇠고기 보냈는데 신랑 측에선 양념된 고기로 대충 보내 왔나 봐요. 그것 때문에 얼굴 붉히는 사람들 학생신발은 나이키로 전부 포장을 하고 여학생들은 고2때 쌍커플 정말 차이가 차별이 되면 안 되는데요. 선배님 고마워요.

 **심옥숙(흑석42회) 12.06.10. 18:28**

참 방가운 후배님 흑석 소식 많이 부탁합니다. 죄송 꾸벅

 **박상우(흑석43회) 12.06.11. 00:23**

선배님 정말 반가와요. 복실이 하고 선배님 이름도 많이 거론 했었는데 ㅎㅎ 하두 안보여서 추억을 잊은 달님처럼 참 안타까워 했었는데 좋은 글도 생각나면 참여해 보세요.

 **박종민(서봉41) 12.06.10. 23:02**

이 땅별에 장개가고 시집가지는 않겠지만 3~40년 전쯤의 혼례 모습을 다시 그려봅니다.

사람 내음 깊은 여름밤입니다.

 **박상우(흑석43회) 12.06.11. 00:32**

선배님도 그 때 생각 나시겠죠. 친구들이 기마자세로 신랑 태워오고
나는 선배님 동창 김옥순 언니 결혼식을 전통혼례로 했던 걸 기억하는데요.
부산에서 예식장에서도하고 시골에서하고 그랬었는데... 고맙습니다.

 **김종욱금산2구52 12.06.11. 03:56**

아하 그랬군요. 그때 결혼식은... 한참 후배인 전 어렸을 적 혼례모습이 가물가물합니다.
우린 흑석으로 왕골 째려 다녔습니다. 매월하고 선배님 덕분에
저 또한 그 시절을 잠깐이나마 회상에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박상우(흑석43회) 12.06.11. 23:19**

그 시절 잊혀져 가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요. 왕골도 째려 다녔나보네요.
나는 택촌에 모심으로는 가봤는데. 뽕도 따고 님도 불려고.. ㅎㅎㅎ

 **이영숙(대꿀40화) 12.06.11. 16:55**

박상우님 그 옛날 그 때가 참 그립네요. 문구멍에 침 발라 서로 불려고 밀쳐가면서
그랬는디 상우씨 혹시 대전 명덕이면 대꿀에서 살았나요? 저희 당고모인가 싶어서요 ~~~~

 **박상우(흑석43회) 12.06.11. 23:30**

이영숙 선배님 알게 되어 반가와요. 명덕이 친척이 대꿀에 사시는데..
정숙 미숙 전부 친척이라던데요. 고맙습니다.

 **이영숙(대꿀40화) 12.06.12. 18:07**

반갑고 고마워요. 넘 좋으네요. 이렇게 존시상이요 ㅎㅎㅎ

명덕이 고모 위에 고모가 많아요. 명덕고모 연락처 좀 알 수 없을까요?
정숙이는 친동생, 미숙이는 사촌이래요. 감사혀요>>>

 박종윤(서봉37) 12.06.11. 23:47

그래요. 그때는 정말 그랬지요.. ㅎㅎ 후배님의 감칠맛 나는 글 잘 감상했습니다.

항상 좋은 글 많이 올려주어 즐겁게 잘 보고 있네요.

 박상우(흡석43회) 12.06.12. 01:06

반갑습니다. 선배님 늦은 밤에 찾아오셨네요. 습관적으로 체크하는 버릇인데요.

언제나 최신글 보면서 선배님의 이름을 찾게 되요. 며칠 만에 나오셨네요.

 이정재(금산47) 12.06.12. 01:27

제가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 우리 누님은 마당에 명석 깔고 사모관대 입은

그리고 한양에서 장사를 하신다는..... 얼굴도 하얀 남자...

그리고 쪽두리 입고 고운 한복 입은 우리 누님은 그 시절 그렇게 멋진 결혼식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결혼식이 좀처럼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냥 옛것은 춘스럽다고 호화로운 식만 강조합니다....

 박상우(흡석43회) 12.06.12. 23:31

반가워요. 이정재님을 기억해야하는 이유는 내가 등업 신청 했을 때

넘 반가히 맞아 주시어 이름에 인감도장을 꾹 찍어놓고 기억하고 있답니다.

37회 38회 까지는 전통혼례하신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고마워요.



철 없었던 나..

양준호(만수4?)

4학년?

아니다 그 땐 이야기꾼으로 인기 있었던 신갑식 선생님이 담임이셨고, 그렇다면 5학년 때 쯤 일까? "아버지 날" 행사를 맞아 글쓰기를 시켰다.

막연하게,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다. 솔이 취해 돌아 오셔서 엄숙하게 나를 부르시면.... 벌벌 떨면서 마중해야 했는데...

남 다른 재주를 가지고 이 곳 저 곳 떠 도니시며 품을 팔아 돌아오실 무렵은 꼭 취중이셨던 아버지.

그리고 행패를 부리셨나 보다.... 가장 편한 아내 앞에서.... 당하시는 어머니....

어머니께 물리적 폭력은 없어 보였지만, 남비며 솔이며, 그리고 심지어 당신이 손수 짜낸 정교한 그 책상까지 마구 마당으로 던져 오그라 뜨리고 말았다. 그 모습이 넘 취한 아버지와 닮았기에.... 그 상태를 응용하여 아버지의 모습을 내 마음의 눈으로 묘사한 것이 탈이었다.

담임 샘이 보기에 좋았나 보다.... 내가 쓴 글을 이 반 저 반 돌리며 읽혔는데. 한 마을 친척되는 아이가 그 소문을 내어 결국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다.....

또 한 번 솔에 취 한 내 아버지, 이번엔 사뭇 색다른 어조로 날 부르시더니 학교에서 있었던 글짓기 이야기 하신다... 자존심이 무척 상하셨던 아버지셨던 게다...

아버지....

잠이 들도록, 내 앞에서 줄 곧 한마디 하신다.... 지금도 기억 하는 그 한 마디,
"네가 뭘 알 겠느냐?" 그 말이었다...

어느메 누구 아버지가 모두 그러하듯 말여요....

 코스모스 08.02.09. 13:12

중학교 때 도덕이었던가  (암튼 얼굴 사각으로 생기시고 훈칠하게 잘 생기신 분)
 그 선생님이 자네가 그린 그림을 들고 이반 저반 댕기면서 양준호가 내 얼굴을 그렸다고
 교단에서 보여 주는데  정말 똑 같드만... 지금도 그 모습이 추억의 한 켠에 남아 있네.

 코스모스 08.02.10. 10:25

활~~~짝 웃으시면서 사진을 보여 주시던 선생님은 "김종실" 선생님 이셨네.

 범향기 08.02.09. 17:15

()

 이정재(금산47) 08.02.09. 19:06

아버지의 자리를.....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던,,,,,

 도토리 08.02.10. 13:11

내가 부모가 되어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벌써 우리가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

 천하무적 08.02.15. 10:22

어릴 적 아버지는 왜 그리도 무서우셨는지~~~
 지금이라면 온갖 아양이라도 떨어볼텐데~~~

└  이정재(금산47) 08.02.15. 13:49

아마 잘못한 일이 많았던 모양이지요 ㅎㅎ

└  코스모스 08.02.15. 20:04

난 떨만큼 떨었는디.. 하고 잡은대로 다 협쓰요.

 입번설 08.02.21. 15:54

아! 궁께 그 때 그림을 그려 드리지, 멀라고 글을 써드렸당가.
 그림만 봤으믄 술드시고 더 좋아서 한 잔 더 허셨을 것인디.

 박종윤(서봉37) 08.05.03. 09:32

그래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 대다수 아버님들의 자화상이 아니었까 생각되네요.
 짧은 글이지만 여러가지로 생각케하는 그 뭔가가 내포되어 있는 듯합니다.

 양규영 08.09.02. 01:20

난 그 분을 너무도 잘 알기에 그분의 사랑을 너무도 많이 받았기에
 그 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소리쳐 봅니다.

입면장 가는 날

김형우(흑석3?)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고향에 대한 향수가 그리운 것은 마음의 여유에서인지 세월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내 고향 입면에는 5일장이 서곤 하였는데 입면장날은 2일과 7일이고 옥과장은 4일과 9일 이었던 기억이다. 5일 마다 입면장이 서는 날이면 온 동네가 바빠진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힘든 농사일 중에도 이 날 만큼은 모처럼 농사일을 멈추시고 장에 가시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모처럼 시경도 보시며 화장하시고 아껴놓으셨던 옷을 꺼내 입으시며 곱게 단장 하시고 삼삼오오 모아서 장에 가시는 날이다.

초등학교 3학년 쯤으로 기억되는 어느 입면 장날.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께서 입면장 가신다는 말을 듣고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 나도 입면장 구경을 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 혼자서 책보를 메고 가마동을 지나고 창정을 지나 입면장에 도착하니 인산인해를 이루 만큼 많은 인파 속에서 약장사들의 만병통치약 파는 소리 이약 파는 소리 동동구르며 사라는 소리 참빗 사라는 소리 등에 온 장터가 왁자지껄 한다.

나도 뭔가 들뜬 기분에 그저 대장간이며 포목점, 곡물전, 그릇전등을 아무거나 눈에 들어오는 대로 구경하고 행여라도 어른들의 싸움이 있으면 더욱더 신나게 구경하다 마구 돌아다니다 보면 점심시간이 지난시간이고 많이 걸어서인지 배가 고파온다. 국밥집 옆을 지나면 더욱더 배가 고파 사먹을 돈이 있을리도, 사먹어 보지 못한 나로서는 아버지를 찾아 가는 수 밖에... 물론 학교 파하고 집에 가서 공부하지 않는다고 혼날 줄을 각오하고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아버지가 나를 보자마자 놀라시며 뭐 먹고 싶냐 하신다. 그 시절만 해도 짜장면은 먹어 보지도 못하여서 무얼 먹어야 하는지도 몰랐다. "밥 묵으려 가자" 하시드니 입면장 초입 우측 짜장면 집으로 가신다. 옆사람이 먹는 우동을 보니 집에서 자주 먹든 국수와 비슷하여 저거 먹고 싶다 하였드니 우동을 두 그릇 시켜 주셔서 맛있게 먹었다. 계란 풀은 국수가 무척 맛있었다. 점심을 먹고 나니 아버지께서 니 어머니 알면 어린애가 장돌뱅이처럼 장에 왔다고 혼난다고 비밀로 하라고 하시면서 얼른 집에 가라 하신다.

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 배도 부르고 어차피 장에 왔으니 실컷 구경하기로 마음먹고



입면장을 몇 바퀴 돌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우리 동네 뒷풀이 좋은 아저씨와 구르마를 만났다. 아저씨는 아주 한잔 드신 뒤라 흥에 겨워 콧노래를 부르시며 장을 본 물건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장터에서 흑석까지 걸어갈 일을 생각하니 구르마를 타고 가고 싶은 욕심에 눈치를 살피다가 인사를 드렸다. 광주댁 아들 아니냐고 하시드니 구르마를 타라 해서 얼른 짐 위에 앉아 덜그덩 거리는 우마차를 타고 집에 올 수 있었다. 물론 그 날 일은 어머니는 모르신다. 아버지는 비밀을 지켜 주셨고 그 뒤로도 입면 장날이면 가끔 아버지는 국밥을 사주시곤 하셨다. 물론 비밀로...

세월이 많이 흘러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시고 입면장은 사라지고...

아버지가 무척 그리워지네요.

아 버 지

-강신용-



아버지에는 없다

고향 마을에도

타향 거리에도

아버지

하늘 높이 불러보지만

텅빈

세월 뿐이다

장터 가면 혼히들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3회 특선하였던 류성하 화백의 "장날"이라는 작품입니다(2007년작).

2008년에 이 그림을 보고 구입하여 늘 감상하는 그림입니다.

류성하 화백을 만나 이 그림을 그리는 동기를 물었더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더군요.

● 온종일servant 10.12.19. 18:43

어린 시절의 입면장이 생각납니다...

짜장면, 국밥.... 그 시절에는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추억의 글, 고맙습니다.

↳ 김형욱(흑석37) 10.12.19. 18:50

온종일님 덕분에 가슴에 묻어 두었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박종민(서봉41) 10.12.20. 09:50

시경, 동동 구르드.....

참 아름다운 추억이 님에게 힘을 주는 것이겠지요.

그 중에 으뜸인 아버지..... 모습 환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욱(흑석37) 10.12.22. 21:43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좋은 시. 늘 감사합니다.

● 박상우(흑석43회) 10.12.21. 23:33

지금은 입면장이 없어졌지요. 김약국 집도 눈에 선한데.. 형님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 김형욱(흑석37) 10.12.22. 21:50

상우 요즘 바쁘네. 흑석으로...화순으로...함께 할 수 있는 고향 친구가 좋지!

내년엔 부산 여행할 계획인데 만나서 한잔하자~~~이런 저런 에피소드도 이야기 하고...

● 김지영(흑석41회) 10.12.23. 16:24

간혹 인숙 큰언니는 만나고 있지만 오빠는 사진으로 볼 수 있어서 잠시 멈추고 갑니다.

가끔 이장아제 우리 집에서 아침 드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며...

흘미 할아버님 생각도 나고... 그리고, 할머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직접 안방에 누워계신 그 때 모습이 떠올라요.

↳ 김형욱(흑석37) 10.12.23. 21:01

여기서라도 만나니 반갑다. 가끔 한동아짐 한동아제 생각나는데...

설날이면 꼭꼭 세배가면 한동아짐이 조종에 인절미 챙겨주셨는데...

한동아짐 참 정 많으신 분이시지...

아버지께서 가끔 너의 집에서 아침 드시곤 하셨지.

아랫 검은들 가시면 한동아제나 운동아제 댁에서 식사하고 오시곤 하셨는데...

 박종윤(서봉37) 10.12.27. 22:32

그래! 정말 다시는 느껴볼 수 없는 그 정다운 5일장이 그립기만 하다.

수타면으로 만든 짜장면도 그립고 말야.

글을 읽는 동안 입면장을 한 바퀴 빙 돌아본 느낌이구나.

 김형욱(흑석37) 10.12.28. 18:12

그 시절엔 장터에 구경거리도 많드만...

이웃동네 지인들하고 장터가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요즘 시장하고는 의미가 다르지...

 권 점숙 (흑석43회) 11.01.02. 22:09

선배님 옛 추억이 생각나게 하는 글 감사합니다.

저번에 옥과장에서 옛 장의 정취를 느끼고 왔어요.

선배님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건강하시구요.

 김형욱(흑석37) 11.01.02. 22:27

권약방님 흑석의 슈바이처이신데...

점숙이를 보니 권약방님의 당당함이 떠오르는군.

늘 검은들 권씨의 당당함을 잊지 말길....

권약방님하면 약장이 궁금 하드만 어찌되었을까?

 김병완(41회) 12.07.28. 11:07

입면장은 어릴 적 수많은 추억과 에피소드를 안겨다주었지요.

여러 추억이 있겠지만 특히 여름에 장이서면 장에 가서 실컷 구경하다가

집에 올 때 쯤이면 아이스케기 얼음과자 하나사서 입에 물고

집에 거의 다 올 때까지 천천히 빨아 먹으며 걸어 왔던 생각이 납니다.

형욱선배님 건강하시구요.

언젠가 한 번쯤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김형욱(흑석37) 12.07.29. 09:09

어려운 시절에 입면장날은 입면인들의 축제나 다름없는 기억입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흥정하는 재미가 있었고 덤이라는 여유도 있었습니다.

김병완 후배의 그 시절 어름과자의 작은 행복이 그려집니다.

▣ 김종옥(창정37) 12.07.28. 16:56

입면장 짜장. 국밥. 최고의 맛 이었지...

우리들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시장 한 바퀴 돌아보네.

좋은 글 고맙게 잘 읽었네.

↳ 김형옥(혹석37) 12.07.29. 09:15

삼복더위에 잘 지내고 있제?

종옥친구는 어린 시절 참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서 보기 좋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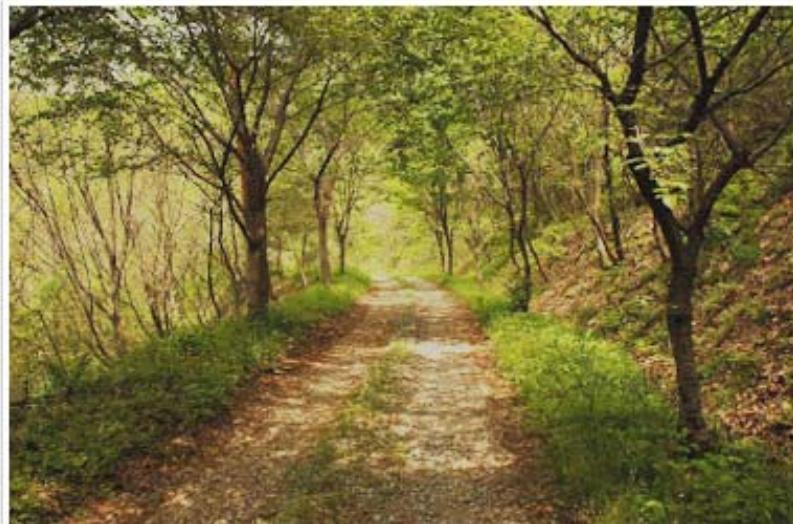
자네 글을 읽으면서 가끔 그 시절을 떠올려 본다네...





입면 최고의 산책길

한정훈(입석41)



그대와 함께
조용히 걸어 가면
뻐꾹새 울어
차마 못한 이야기
대신 해 주네.....

최고 좋은 산책길
금산리에서 제월까지 임도

-야초-

粝 신행임(제월)39회 12.05.15. 19:26

산책길 오늘같이 햇빛이 따가운 날에는
그늘로 길을 안내해 주는 고향의 산책길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최고 좋은 산책길 금산리에서 제월리 살뿌리까지 해님의 바라보며 걸어보고 싶습니다.

↳ 韓야초 12.05.16. 06:05

섬진강과 입면 넓은 들판 풍경,
꼬막껍데기 엎어 놓은 것 같은 마을풍경이 내려다볼수록 좋습니다.

粝 박종민(서봉41) 12.05.15. 19:30

성남재 아래 벚꽃 날리는 구비구비길
자드락자드락 같이 하노라면, 아, 좋으련만, 그대여!

↳ 韓야초 12.05.16. 06:10

봄, 여름, 가을, 겨울풍경이 모두 좋아.
찬찬히 걸어서 두어 시간 산책하기 좋지.
인적이 드물어서 산새소리가 유달리 맑더라!

粝 한봉수(상금38) 12.05.16. 17:43

아주 좋은 코스인 것만은 확실한데, 승용차와 소형트럭들이 다닐 수 있어서
외지 사람들의 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가 빈번하여 최고의 청정지역인 이곳의 환경오염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냉장고, 가전제품, 타이어 등을 싣고 와서 골짜기에 굴려 버리는 아주 무지 몰상식한
사람들..... 마을에서는 바르케이트라도 설치하여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 韩야초 박종민(서봉41) 12.05.16. 10:21

저런 빌어먹을 손!
큰일입니다, 정말!

粝 정태자(제월리39회) 12.05.20. 14:46

정말 걸어 보고 싶은 아늑함을 느낍니다.
제발 쓰레기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粝 양순용 (종방 38회) 12.06.11. 22:16

앗! 이렇게 좋은 산책길이 숨어 있었다니!
그런데, 너무 고마우신 한야초님! 죄송하지만 실명으로 좀 안 될까요?
아는 분은 괜찮은 디요. 저처럼 모른 사람들은 궁금해서 밤 잠을 못자고 끙끙 앓고 있답니당~~



관악산 야등

안기석(노름3?)

지난 주 금요일에 관악산 야간등반을 했다. 우리 카페에 한 축 낀 깨복쟁이 친구들과 함께 일냈다. 노름에서 같이 어린시절을 보낸 친구들--

강나루님과 최근에 가입한 심이섭님 이렇게 셋이서다.

관악산만 천 번 이상 올라본 강나루님의 제안으로 일주전에 약속되었다. 원래 계획은 오후 6시경에 오르려 했는데 내가 광주에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9시 조금 넘어서 출발했다. 막걸리 몇 병, 쑤르미 한마리, 연양갱 몇 개, 생수 몇 병-- 이렇게 해서 산을 올랐다. 나는 관악산 오르기 첨이었다. 그것도 야간산행으로.....

등산에 전문가적 취미를 가진 강나루님의 길라잡이가 아니었으면 엄두고 못 낼 일이었다. 간단한 산행이라 쉽게 생각했는데 그는 꼼꼼하게 사전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등산 루트며, 장비며, 먹을 것까지도.....

쉬엄쉬엄 한 30분 오르니 멎지게 펼쳐지는 과천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저녁이라 골짜기 길보다 산등성이 길로 가야한다며 바위 등을 타고 오른다. 산속의 밤은 춥다면서 강나루님이 걸쳐준 등산용 잠바를 입고 올랐기 망정이지 중간 중간 쉴 때마다 땀이 마르면서 스미는 냉기가 상당했다.

정말 몇십 년만이었다.

초등시절 거의 날마다 같이 올랐던 동네 앞산 뒷산. 날마다 뿐이랴 밤과 낮 구분없이 마음 내키면 오르던 산. 산촌에서 살았으니 산이 곧 놀이터 아니었던가? 그런 산을 몇십년 세월 되돌아가 같이 오르니 별나도 편하고 정겹다.

청소년기 지나면서 각자 서울로 부산으로 광주로 흘어져 직업 갖고, 결혼해서 가정 갖고, 자녀 낳아 기르고 세상살이 바빠서 같이 보낼 틈도 여유도 없었다. 이제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 겨우 같이 살가운 스킨십을 해보는 것이다. 어려서 부터 철나고 까지 고향에서 벌어졌던 우리들 사이의 갖가지 에피소드들을 다시 떠올리고, 재구성하고, 재평가하면서 웃기도 하고 골리기도 하고 그렇게 관악산 6부능선을 오르니 벌써 11시가 넘어간다.

그쯤해서 자리 펴고 앉아 막걸리 걸쭉하게 한잔 하니 자연스레 고향생각 뭉개뭉개 피어오른다. 막걸리스러운 생각, 분위기, 막걸리는 훙같이 논농사 짓고 사는 우리들의 윤활유였었지!

나무와 바위와 별과 달과 관악산 정상 기지에서 깜박이는 불빛과 그리고 우리 셋만이 어울린 관악산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아, 편하고 포근하고 시원하고 정다워라.

아직도 패기만만, 적막한 명산의 밤 무서워하지 않고 아직 뜨거운 열정 있어서 창창한 미래 꿈꾸며 그렇게 젊은 사람 셋이서 관악산 야등하고 하산하였다. 취기조차도 추억을 반추하면서... 물론 그날 밤은 같이서 잤다.

어느 집사람 왈

"그렇게 좋으면 그냥 셋이서 불어서 아주 시셨."



이노순(제월40) 04.05.09. 09:03

좋은 아침에 이글을 접하니 제가 관악산에 올라간 기분입니다....

언제 만나도 어머님 품속처럼 포근한 고향친구....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비무적 04.05.09. 12:41

안기석님~~~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글 좋잖아요?

관악산 아래 과천 옆이 내 사는 곳 안양입니다.~~~~~

안기석(노름37) 04.05.09. 17:12

자비무적님 언제 관악산 야등 같이 합시다. 정부청사 역에서 만나서 올라가면 됩니다.

김종만(창정38) 04.05.10. 21:30

안기석님! 정말 재미있게 사시네요. 부럽습니다.

박종민(탑동41) 04.05.12. 10:19

관악! 불의 산! 그것도 밤의 불산! 오르시다니..... 휘황하고, 그리고 마음이 불타오르고.....

안 보아도 훤히네요! 서울 있을 적 철마다 오르던 기억 새롭네요! ㅎㅎ

김나루 04.05.13. 11:58

어~ 나만 몰랐군! 여기 이렇게 좋은 코너가... 안기석님! 산행후기담 넘 멋져...!!! 나도 흉내 내서 가끔 산행기나 올려 볼까...후후...꿈도 야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주재파악이 안될까??? ㅎㅎ자비무적님! 가까이 살면서도 모르고 지냈네요! 우리 언제 같이 야등도 하고... 이슬이도 나누어 봄시다 그려.

김나루 04.05.13. 14:50

앗~싸...! 광주에서도 반승낙은 얻은 것 같고....신길동에서는 진즉 허락이 떨어졌고,

그럼 부산만 오케이하면... ㅎㅎ ...우리들만의 세상... 추억에 노림방을 만들어뿌려 ㅎㅎ

언제 양해룡님은 안길라나...

안기석(노름37) 04.05.13. 16:27

기대된다, 기대되,,, 꿈이 현실이 되기를..

윤명숙(혹석38) 04.05.15. 22:44

님의 글을 보니 고향 생각 물씬납니다... 옛날에 들던 쑤르미에 막걸리,

아버지 생각이 문득 나네요! 좋은 시간 활용하시는 것 부럽군요!!

싱그러운 대자연에서 심호흡하는 거 보약이라 생각드네요,,,

안기석(노름37) 04.05.16. 01:51

보약이고 말고요. 조금이나마 일상을 떠나서 삶을 관조하는 것-- 등산이 아닐까요? 더구나 고향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말입니다. 미리서 계획하지 말고 번개모임으로 한번 관악산에 오릅시다. 단 금요일이나 토요일에요.

두 친구

이정재(금산4?)

요즘 덥다 보니까 저는 책으로 피서를 즐깁니다.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갈 여유도 없습니다. 어떨 땐 집 앞 산행에 푹 빠져 소나무 숲에서 땀을 식히는 경우도 있고, 꽃을 찾아 종일 해매기도 합니다.

며칠 전 읽었던 책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 같아 옮겨봅니다.

두 친구가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며 걷다가 의견이 엇갈려 둘은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흥분한 한 친구가 또 다른 친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맞은 친구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엎드려 뭔가를 모래에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내 절친한 친구가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때린 친구는 부끄러워 얼굴까지 빨개 가지고 친구에게 사과하고 둘은 다시 사막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조금 전 싸운 것도 잊고 또 이야기를 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지친 몸을 씻으며 피로를 풀고 있는데 얼굴을 맞았던 친구가 비명을 질렀다.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나서 그만 물속에서 혀우적거렸다. 얼굴을 때렸던 친구는 익사 직전의 친구를 구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친구는 뾰족한 돌로 큰 돌에다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내 절친한 친구가 오늘 내 목숨을 구해 주었다" 감동한 친구는 왜 맞을 땐 모래에 글을 새기고 지금은 돌에 새기느냐고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상처를 주었을 때는 모래에다 써야 하네. 그래야 용서와 망각의 바람이 불어와 그 글을 지어 날려 버릴 것이고...."

누군가 내게 선행을 베풀었을 땐 비바람도 지울 수 없도록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돌에 새겨야 하네..... "



울님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서로 나눔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더위도 쉬이 물러날 것이라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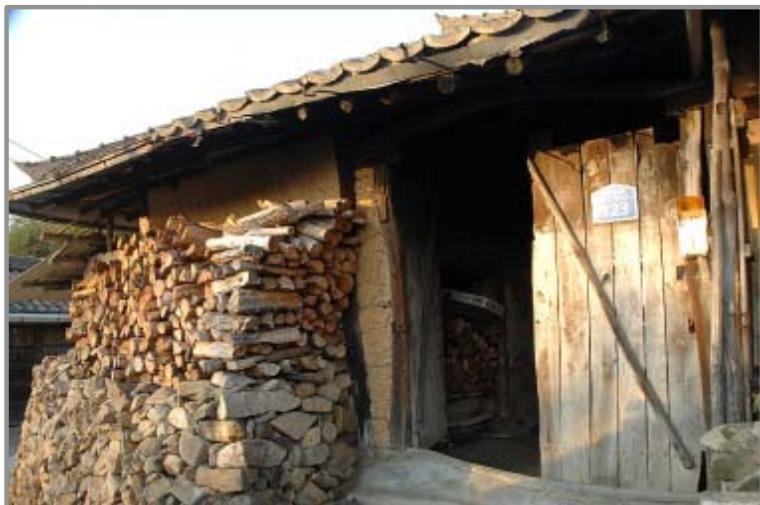
울님들 ~!!

나쁜 기억들은 빨리 잊고 좋은 기억들은 오래오래 간직하셔서 두고두고 비타민처럼 생활의 활력으로 쓰신다면 더 좋은 일이 많아질 거라 봅니다.

또 다시 새로운 한주의 시작~~

늘 좋은 추억만을 간직하는 그런 추억 쌓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의 문 찾으시길....



 **박종민(서봉41) 09.08.03. 15:05**

나는 지금껏 모든 고마운 것들에 대해 물에 썼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앞서네요.....
세월의 물에 쓸려간, 아 모든 고마운 것들....
이제는 종이에 찬찬히 옮겨봐야지!

 **지용철 09.08.03. 22:58**

참 좋은 내용인데 .. ^^**
실천이 중요하지.. ㅎ ㅎ ㅎ

 **지용철 09.08.03. 23:41**

정재야 너는 참 의미 있는 글을 많이 올리기에 ...
나도 한번 올려볼께...
잘 봐줘잉^^

 **(외금)정태옥 09.08.06. 19:04**

참 좋은 글이네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임번섭(등산초 5회, 대장리) 09.08.07. 08:59**

좋은 글이네. 여주의 텃밭은 잘 가꾸고 있는가?
지도를 보니까 찾아가기는 쉽더만,
언제 한번 날잡아 찾아 감세.

 **영희(45) 09.08.09. 18:38**

마음에 와 닿는 좋은 글이군요..

 **harima 11.12.09. 18:43**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마음 속에 꼭 새겨야 되겟네요..

컴퓨터

오봉기(시애틀 서봉?)



옛날에는 지저분한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간단한 컴퓨터
작지만 더 많은 일을 하는 컴퓨터
옛날의 친구도 만나고 선배님도 만나고 후배님도 만나는 컴퓨터
참으로 고맙고 반가운 컴퓨터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그님을 모르고 미안해하는 컴퓨터
들녘은 변하였고 입면은 그대로라 말하는 컴퓨터
모두다 입면에 태어나 꿈을 키우던 그님을 만나는 컴퓨터
여기서 쓰고도 저기서 볼 수 있는 컴퓨터
참 좋은 시대에 살며 모든 걸 눈으로 볼 수가 있는 컴퓨터
고맙다~~~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

 흥현희(만수47회) 09.06.29. 20:57

미국과 한국 소식을 동시에 알 수 있는 컴퓨터!! 요렇게 고향소식을 한방에...
선후배가 한자리에...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좋네요.

 푸르름 (양규영) 09.06.29. 22:40

근데 선배님 가족사진이 우째 뒤로 가 있습니까 ㅋㅋ

 탑동(박종민:서봉41) 09.06.30. 10:48

컴터, 고마운 것으로 고맙게 써야지요! ㅎㅎㅎ

 재보기(제월38회) 09.07.01. 09:32

그 곳에 생활도 일상은 같겠지만 많이 멀게 느껴집니다.
항상 건강한 삶이시길 ～

 서봉 36회정귀임 09.07.01. 16:27

컴터가 없었다면 이 행복감도 못 느낄긴데 ㄱ 하져~

 매산_김영의(45회) 09.07.01. 19:28

참말로 인자 컴퓨터, 핸드폰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아찔하고 컵컵허겠쥬? ~~~

 박종윤(서봉37) 09.07.01. 20:29

컴퓨터란 그 놈이 우릴 아주 편하게 해주는 괴물이지..
그러나 언젠가는 이놈들이 인간을 망가뜨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다네.

 허문희(서봉)39 12.07.31. 21:47

이놈에 컴퓨터가 구신보다도 영리하고 백여시보당도 영리허당개요.
옛적 할메 할아버지가 이런 걸 아시면 구신나왔다고 치워불었을 걸요.
언제나 같이 행복허세요.
고향도 한번 댕겨가시고요.



음력 설날, 옛 달이던 추억

방현기(택촌4?)

동악회원님들! 설이 다가옵니다. 즐거운 명절맞이 하시고, 고향에 잘 내려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래 추억을 공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이 무렵, 음력설이 다가오면 가끔 아버지의 나뭇짐이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해질녘, 뉘엿뉘엿 넘어가는 붉은 석양을 등지고 가리나무 한 짐 지게에 가득 지고 오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은 제법 굵직한 소나무 등을 통나무 채로, 또는 주먹만 한 생솔방울을 바지에 가득 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산을 찾지 못한 아버지는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남의 산에서 주인 몰래 베었거나, 아니면 동악산 깊숙한 국유림에서 불법 벌채를 했을 걸로 짐작합니다. 옛 고을 팔감으로 쓸려고 해오시는 나무였지요.

우리 마을은 설 전에 집집마다 옛을 달였는데, 하루 저녁 꼬박 불을 때야만 했기 때문에 가리나무로는 택도 없고 솔방울이나 장작불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미리 장작을 패서 정제 나뭇청에 쌓아 놓으십니다. 엄마가 저녁 내 옛솥에 불을 때다 지치면 사랑에 주무시다가 일어나 잠깐 거들어 주면 아버지의 임무는 끝납니다.

나머지 옛 만드는 과정은 온전히 엄마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졸린 눈 비벼가며 밤 늦게까지 엄마 불 지피는 아궁이 옆에서 몇내 몇내 뽀짝거리는 것은 옛을 완성하기까지 중간에 얻어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맛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꼬두밥'입니다.

저녁밥 때쯤, 엄마는 옛을 만들기 위해 시루 가득 흰 쌀밥을 되게 찍습니다. 평소에 밥 앗힐 때 보면 보릿쌀을 먼저 앗하고 그 위에 쌀 한 종지를 살짝 얹으면 그만일 만큼 쌀이 귀했지만, 설이 다가오면 아버지는 귀하게 모셔 둔 뒤주의 나락을 헤어서 쌀방울을 찧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옛 만드는데 많은 쌀이 들어가건만, 평소에 "밥에 무시 넣었나?" "고구마밥 해라"며 쌀 아까워하시는 꼽꼽한 아버지도 선선히 허락하셨던 걸 보면, 아버지에게도 설의 의미는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루에서 김 모락모락 나는 꼬실꼬실한 '꼬두밥'을 주걱으로 함박에다가 펴 담을 때, 한 주먹 집어서 입에 넣으면 꼬들꼬들 씹히는 맛이 달착지근한 게 그만이었습니다. 큰방 아랫목에다 큰 독아지(향아리)를 놓고, 펄펄 끓인 엿지를 물을 몇 동이 붓고 사카리를 넣은 후, 마지막으로 함지의 꼬두밥을 넣고는 막대기로 휘휘 저어서 뒤섞으시지요. 그리고는 실경에서 솜이불을 내려 독아지를 둘둘 감아 뜨뜻하게 덮어 놓으셨습니다.

둘째는 '감주와 엿밥'입니다.

꼬두밥 하느라고 방이 설설 끓는데다가 솜이불까지 겹으로 덮어놨으니 자정 무렵이면 독아지 속 내용물이 익어 발효가 되어 감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맛난 이 감주 한 그릇 먹기가 왜 그리도 힘이 들었던지, 자정까지 잠 안 들고 기다린다는 게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언제 감주 된가?" 묻고 기다리다 지쳐 잠 들면 아침에 일어나 내 몸으로 윗목에 남겨진 대접에 담긴 감주를 먹는 게 고작이었지요. 가끔은 잠이 든 나를 엄마가 깨워서, 따뜻하고 맛난 감주를 먹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체를 받치고 형겁 천으로 싸서 손으로 엿물을 꼭 짜고 거르면 엿밥이 남았는데 좀 팍팍하긴 해도 달콤한 게 먹을 만 했습니다. 양이 많아서 이웃집 한 그릇 갖다 주기도 하고, 하루 정도 지나면 식어서 맛이 없다고 우리가 안 먹으면 엄마는 아깝다고 밥 대신 드시곤 했습니다.

셋째는 '조청'입니다.

이렇게 걸러진 엿물을 부엌 가마솥에 불고 밤새도록 장작불을 땡니다. 여기부터가 본격적인 엿 달이는 과정인데 밤새 엄청난 나무가 소비됩니다. 방이 얼마나 뜨거운지 두꺼운 골판지 같은 장판이 누르거나 까맣게 타기도 했습니다. 누우면 허리를 데일 지경이었지요. 아버진 방장 벼린다고 걷어 놓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면 그 많던 엿물이 찾아들면서 끈끈해지며 조청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부턴 타지 않게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밤 새 한 잠도 못 주무셔 눈이 뻔하고 불기운에 얼굴이 상기된 지친 엄마의 모습을 보고 무척 안쓰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뜨거운 부뚜막에 앉아 천장의 그을음이 떨어질까 봐 가마솥 위에 키를 세워 받치고 부지런히 큰 주걱을 저으시며 불그레한 조청을 건져 올려 손끝으로 만져보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좋은 엿이란 빛깔이 붉지 않고 유백색으로 하얗고 깨물면 바삭바삭하고 딱딱하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엿은 역시 좋은 조청에서 나오는데 묽지도 되지도 않고 마치 맞게 불땀을 조절하는 게 조청의 생명이지요. 어머니는 엿 만드는 솜씨가 좋으셨는데, 설날 세배를 가면 어느 집 엿은 너무 딱딱해서 깨물기가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된 불그레한 조청을 큰 양푼에다 펴 놓으면 엿 달이기가 끝납니다. 조청을 솥에서 풀 때 바닥에 놀어붙은 조청을 닥닥 굵으면 조청 깨밥이 생기는데, 언젠가는 아버지가 그 딱딱한 걸 아깝다고 잡수시다가 입천장이 때알같이 부풀어 오르는 바람에 한참 고생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조청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유과와 강반(강정) 만들 때 필요했고, 대보름까지도 남아 있어 쇠죽솥에다 녹여서 가래떡, 쑥떡을 찍어먹기도 하고, 단맛에 맨조청을 염마 몰래 몇 숟갈 떠 먹었다가 속이 아파 혼이 난 적도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엿'입니다.

엿 고는 것을 '엿 멸인다'고 했습니다. '엿을 다 달인' 즉 '조청을 만든' 그날 저녁이 되면, 동네 아주머니 두세 분이 엿을 식이려(만들려) 우리 집에 오십니다.

"아파 운암떡! 집이 조청 차암 잘 되얏소이!"

"아니라우! 포옴 되게 된 것 같은디, 어쩌 괜찮을 성 싶으로오?"

"추운께 요 아랫목으로 내려오싯쇼이."

"괜찮혀라우. 여그도 방바닥이 뜨겁소."

조청도 알맞아야 하지만, 얼마나 좋은 엿을 만드느냐는, 엿을 식이는 두 사람이 얼마나 경험이 있고, 호흡을 잘 맞추느냐는 기술에 달려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먼저 한 사람이 뜨거운 조청을 손에 찬물 적셔가며 손 바꿔가며 잡아 늘이면 불그스레한 조청이 늘어지며 점점 하얗게 되는데, 그 다음엔 두 사람이 마주 잡고 한 손으로 받쳐주며 던지듯이 한참을 잡아 늘이면 엿가락이 만들어집니다.

적당한 굵기가 됐을 때, 또 한사람이 가위로 잘라서 문 열고 마루의 상 위에다가 콩고물을 깔고 엿가락을 줄줄이 놓으면 바람구멍이 송송 뚫리며 먹기 좋게 굳어 졌습니다. 서투른 사람은 손으로 잡는 부분이 많아져서 엿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다 된 엿가락은 부엌칼로 턱탁 알맞은 길이로 잘라서 석작에 차곡차곡 담았는데, 엄마는 날씨가 추워야 엿이 잘 만들어진다고 항상 말씀하셨지요.

우리 집 도장의 작은 독에는, 콩고물 속에 파묻힌 녹아서 물렁한 엿이 오래도록 담겨져 있어, 놀다가 배 꺼지면 훌륭한 간식거릴 제공하곤 했습니다. 90년 초까지는 엿, 유과, 강정을 설에 하셨던 것 같은데, 60 중반을 넘기신 어느 해인가부터,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어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무렵부터 우리 동네 엿 달이는 풍경도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설이 다가오면, 눈 덮인 고향 풍경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이런 정겹고 아련한 추억이 있는 맛난 엿을 어머니가 안 계신 지금은 맛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가! 얼른 일어나서 감주 묵어라." 하시며 잠자는 날 깨우실 것만 같은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절, 그 때가 너무 그립고 아쉬워 오래오래 내 유년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 흥현희(만수47회) 07.02.11. 22:02

실감나게 옛 만드는 걸 잘 표현했네요. 옛은 무쇠 솔에다가 고아야 헉~

☏ 이노순(제월40) 07.02.10. 23:00

정겨운 글 감사합니다... 어릴 적 한 달 전부터 설 준비했던 그 모습이 생생하네요,,,

☏ 흥현희(만수47회) 07.02.10. 23:04

엊그제 아부지 기일 때 엄마가 강정 유과 해주셔서 라면 박스 하나 가득 주셔서 지금도 묵고 있쓰요~ 불 때는 방에 장판이 갈색으로 타부러가고 다른 장판을 위에다 덧되어 놨드만요. 쑥떡 가래떡 보름나물들~ 콩고물 차로 가득 실어 왔네요. 그 중에 젤 맛있는 것은 깨강정!!(서방님이 젤 좋아해서 우리 세 여자는 조금 먹고 유과 강정만 먹고 있음)

☏ 양혜룡 07.02.10. 23:41

정말 향수가 밴 정감어린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그거 조금 묵을라고 줄을 온 눈 비비며 기다린 적이 있지요.

☏ 개밥의도토리 07.02.12. 09:48

글을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유년을 공감하는 글입니다~~~

이 맘 때만 되면 나일론 바지(설빔) 추워서 불 가까이 뾰짝거리다 무릎만 오그라졌던 기억, 설빔 사주신 어머니께 미안해서 그 바지를 설날에도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 박종민(서봉41) 07.02.13. 11:48

아,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진정 여기서 보게 되네요!) 복 많이 받으세요!

☏ 해바라기 07.02.13. 20:58

요즘은 참 보기 드문 광경이죠. 엊그제 친정에 다녀왔는데 올해는 다들 힘드셔서 안하신다더군요. 마음이 많이 서운하고 입안에 달라 불던 그 맛을 다시는 못 보게 되어 안타까웠는데 글로나마 대신 짹쩝 냠냠.....

☏ 이정재(금산47) 07.02.16. 17:12

바람님의 도장(광)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 배 터지게 생겼네요!

☏ 박종윤 07.02.23. 12:55

조청! 이런 단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득한 먼 옛날 얘기로만 들리네요.

잠시나마 옛 정취에 빠져 들었다 갑니다.



모 심은 입면 들녘

한정훈(입석41)



입면 들녘에
유모가 심어지고
농부의 꿈은.....

2012년 6월2일

-야초-

❸ 신행임(제월)39회 12.06.09. 12:07

계절의 변화앞에 어김없이 들녘에 모 심는 것은 변함이 없어 좋습니다~
모두가 정성이오 고향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고 마음 둘 곳을 찾고
새로운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
이것 저것 배려하는 손길 고마움 드립니다.

↳ ❸ 한야초(입석41) 12.06.09. 12:16

고향의 모습을 같이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❸ 김종옥(창정37) 12.06.09. 13:43

가뭄에도 거의 다 모내기를 했군요.
동악산은 변한 게 없는디...
논다랭이는 놓지 정리가 잘 되어 있군요.
사진 속 벼드나무 아래서 뜯밥에다 막걸리 한 잔 딱인디....
자료 고마워요....^^

❸ 박상우(흙석43회) 12.06.10. 00:48

거머리도 뜯기고 향기 나는 흙도 만지고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새참으로는 큰 팥 넣은 찰밥을 고봉으로 먹고 점심 또 먹고 했었는데..ㅎㅎ
고향 소식 감사합니다.

↳ ❸ 한야초(입석41) 12.06.10. 15:56

그놈의 거머리 무서워서...
논에 들어가기 싫었는디...
요새도 거머리 같은 놈들이 있으니께 항상 조심혀야 혀...

❸ 박종민(서봉41) 12.06.10. 22:09

거기 그곳 다시 모내기를 하는구나!
(우렁각시가 이고 오는 들밥을 기다려보고 싶은 풍경이다)

↳ ❸ 한야초(입석41) 12.06.11. 10:17

모심기를 마치고 새참 먹던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맛나게 먹던지...

 **한봉수(상금38) 12.06.11. 13:54**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나의 고향!
지금 전국적인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입면들은 아무 걱정이 없게끔
그 어느 곳도 따라 올 수 없는 수리시설을 갖추었기에 걱정 없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 밑에 매달린 동네들이 문제입니다.
어제 작은형수님과 통화했는데
그동안 가뭄을 버티게 해줬던 방죽물도 다 말라가고 있다 하셨습니다.
이럴 땐 장마라도 빨라 와야 하는데.....

 **권 용 필./38회//혹석 12.06.11. 19:34**

벌써 모내기네요.
세월이 무심하네요

 **박종윤(서봉37) 12.06.11. 23:50**

아!~ 옛날이여.
정말 그립고 정다웠던 모내기...
다시 한 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중국 오이화(烏爾禾)의 풍광

한봉수(상금38)



▣ **신행임(제월)39회 12.06.29. 14:49**

쿵짝!! 부지런히 운동을 끝내고 숨차게 뛴박질 했습니다....1등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네 삶을 둥글고 진솔하게 살라는 표상입니다.
신비롭기만 하는 빼어나게 기이한 모습들!
후각을 자극하는 향기 가득한 커피 한 잔과 마음의 여유를 얻고 갑니다 ~

▣ **박종윤(서봉37) 12.06.30. 11:16**

오늘도 후배님 덕분에 중국여행 실큰 하고 갑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리네요.

▣ **한봉수(상금38) 12.06.29. 16:49**

저의 방을 찾아주시는 열성 선후배 동기 동악님들 고마울 따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늘어나고
또한 댓글에 의한 마실방이 자연스레 만들어지니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이 방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은 저의 개인적인 과시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이 방의 연재가 끝나는 날 후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려합니다.
찾아오시는 한 분 한 분께 댓글에 대한 답글 못 달아 드리 것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숨이 붙어 있는 한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찾아오세요.

↳ ▣ **신행임(제월)39회 12.06.30. 15:12**

따스한 한 줄의 댓글이 날마다 이쁜 새벽에 일어나 고독하게 이 방을 지키며 게시해 준
주인공의 피로를 감싸줄 것입니다.
늘 사랑 안에서 바라보는 결과물들 소중함이 많아서
늘 아름다운 눈으로 추억 만들겠습니다 ~

▣ **김종일(창정38) 12.06.29. 22:11**

너무 감동적인 댓글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1,011일 째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아침 일찍
사진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는 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쓸쓸히...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시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사람의 냄새가 나는 분들께서 살가운 댓글을 달아 주시는군요.

▣ **양순용 (종방 38회) 12.06.29. 23:15**

정말 장관이로고 이렇게 좋은 풍광을 또 어디서 본단 말인가.
봉수친구 잘보고 간다. 무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고 아팠징~~

 신행임(제월)39회 12.06.30. 15:13

선배님!! 보이다 안 보이다 하시지 마시고 매일 오셔서 즐감하셔도 맘씨좋은 봉수오빠 세금 부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아름다운 풍경들이 오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요~ 삶에 찌들은 마음 함께 쉬어가요~

 박상우(흡식43회) 12.06.29. 23:57

이렇게 좋은 공간에 제가 막내입니다. 후배님들 집합을 할 수만 있다면 그냥.. ㅎㅎ
어디서 이렇게 좋은 사진을 공짜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보고 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선배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영숙(대꿀40화) 12.06.30. 12:30

그 동안은 감상만 했는디 글을 올려 주신 분
동악 카페가 아니면 평생 볼 수 없을 사진풍경을 올려 주시느라
애써주신 한봉수님과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강연자 12.07.01. 15:40

우~와~~~~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롭기까지한 귀한풍경
구경 잘하고 돌아 갑니다요~~감사 감사

 김이현(제월38회) 12.07.02. 15:20

참으로 신비로운 풍경입니다. 잘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선(42회 월곡) 12.07.02. 15:39

지구에 저런 곳이 남아 있다니. 정말 아름답군요...
영원히 간직하고 후대에 물려줄 우리의 유산이라 생각됩니다....
잠시나마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 편집자 주

신비로운 사진을 많이 게시하여 주셨으나 지면 관계상 3장 올렸음을 양해 바랍니다. 한봉수 동악갤러리님께서는 연재를 마친 후 최근에는 입면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기록으로 남길 우리고장 유산들을 기록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당산나무의 모습도 몇 년에 걸쳐 양상 한 모습과 잎이 우거진 모습의 사진을 남겼고 현재는 노거수(老巨樹)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군대 이야기

한영걸(제월39)

누구나 남자라면 통과 해야만 하는 국방 의무!

일부 몸이 불편한 사람, 그리고 소위 잘나간다는 특권(?)층을 제외한..... &

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군인이다..... 이게 군인의 길 1번이다. 50이 넘은 나이에 지난날 군대생활의 잊지 못 할 추억 하나를 생각하며 쓴 웃음을 져 본다.

난 사정에 의해 내 또래보다 2년여 늦게 입영을 하게 된다. 집결지를 거쳐 수용연대를 지나 꿈에 그리던 논산 훈련소의 훈련병... 후반기 교육인 김해 공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 ㅎㅎ(믿거나 말거나).... 군용 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팔려?간다.

전방일까 후방일까.....긴장의 순간.....

오늘의 주인공 조○○ 이녀석을 소개한다.

전라남도 곡성읍에 사는 녀석으로 나보다 2년 후배인데 나하고는 군번이 2번차가 난다.

내 군번 00004496이고 그 녀석은 00004498이다.

만능 스포츠맨으로 테니스에 능하다.....슬픔과 괴로움을 함께 해야 할 녀석~~~

다시 군용열차 안.

녀석이 슬며시 나를 부른다.

어이 무적이 선배. 자네와 난 대구여! 후방 이랑께.

뭣여 ! 니가 시방 뭣이라고 혔냐? 정말이여?.....

하여튼 동대구역에서 내릴 넘들을 호명하는디 녀석과 내가 끼여 있었다. 동기들과 작별하고 대구 K2(비행장)내에 중장비 건설 공병대에 전입신고를 한다. 녀석이랑 같이... (같은 내무반 바로 옆자리)... 정신없는 이등병 생활을 뒤로하고 5만 촉광에 빛나는 일등병으로 진급한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어느 금요일 밤 경기도 포천에 사는 서병장이 내일 전역을 한다. 점호가 끝나고 서병장의 고별사를 끝으로 졸병들은 취침에 들고 몇몇 고참은 고별주를 마신다. 하필 오늘의 주인공 조일병이 초번 불침번을 선다.

고참 하나가 불침번을 부른다. 야~~불침번!

“예~~일병 조일병.”

“너 수송부 15호차 안에 소주한병 있으니 가서 가져와.”

“옛!” 하며 나간다.

당시 안주라고 해야 취사반에서 가져온 된장에 양파쪼가리. 소주는 운전병이 운행 나가서 꼬불쳐 온 것. 잠시 후, 가져온 소주를 고참들이 나눠 마시는데. 먼저 한 잔을 짹 넘긴 서병장~~왈.....

“야, 18 요즘 소주는 18도로 나오냐?@ \$ &₩”

고참들 “예?!” 하며 소주를 마셔보고....

“어어? 이거 왜 아래? 야! 불침번 너 일루와 봐.”

“아~ 이 쉬끼야, 이 소주가 왜 이런 거?...”

한참 후 이녀석 하는 말에 우린 자다말고 배꼽이 빠져라 웃고 말았다... 뜨벌 소주 한병 땀시. 이녀석 왈....

소주를 가져오다 어찌나 술 생각이 나던지 이빨로 병을 깨고 한모금만 한다는게... 그만 반병을 꾸~울꺽..... 넘겨버렸단다. 생각다 못한 녀석은 물을 조금 채운다는 게 물이 넘쳐 버렸다나..... 그걸 갔다줬으니. 호랑이같은 고참들도 그말에 배꼽을 잡고 딩군다.....

다음날 토요일 서병장은 떠나고(포천사는 서병장 이 글 보면 연락 주시게)

우린 외출 외박 금지에다 수송부 집합명령이 떨어진다.....

*여자 분들은 모를거다 집합의 위력을).....남편님들께 문의 바람.

남자 벗님들은 알거다..... 줄빠따의 전통을.....소주사건으로 연 3일을 집합해야 했고,

그때 얻어터진 흥터가 지금은 훈장처럼 느껴진다.....

영광스런 전역과 함께 지금의 그 녘석

내고향 곡성에서 규모가 큰 스포츠용품점 사장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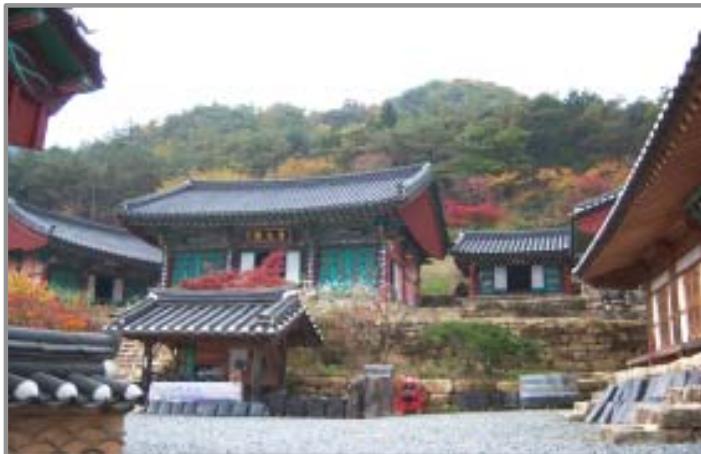
고향 선.후배님. 그리고 친구들 !

솜씨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후방 전선에서 땀흘리며 국토방위에
힘쓰고 있는 군인들의 화이팅을 외칩니다.

*총성. 단결. 필~승.....파이팅!!!

P.S : 먼저 이 코너를 만들어주신 온종일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이트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테그없이 올려봅니다.



도림사

❶ 안기석(만수37) 04.05.11. 05:58

그놈의 줄빠따 생각만 해도 즐겁소., 많이 맞았는데 한 대도 못 때린 나는 병신이로소이다.

❷ 이노순(제월40) 04.05.11. 08:33

남자분이라면 어디서던 군대 이야기가 시작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른가 봅니다...

저희 집도 두 아들 제대하고 오니 아버지와 함께 이슬이 놓고서 이야기가 시작하면

삼부자 통한다고 깔깔 웃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늘은 큰아들 예비군 훈련 군복을 모처럼 입는 모습을 보니 ㅎㅎ....

이젠 아저씨가 따로 없네요.

❸ 박종민(서봉41) 04.05.12. 10:48

여자가 싫어하는 이야기!

첫째, 군대 이야기!

둘째, 축구 이야기!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 ㅎㅎㅎ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에 정설은 없다는 거.... ㅎㅎㅎ

귀한 군대 생활의 추억,

그것 없으면 우리나라의 남자들 가슴이 비어 푸대자루처럼 후줄근할지도 모른다.

❹ 흥현희(입면초47입면중6회) 09.02.11. 23:22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

❺ 이노순(제월40) 04.05.12. 22:01

ㅎㅎ 탑동님 전 다행이도 축구하구 배구는 좋아합니다... 할줄은 모르지만요

❻ 자비무적 04.05.14. 22:35

찾아주신 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고 행복하세요...

❼ 탑동(박종민:서봉41) 09.02.03. 10:02

아, 이런 좋은 점도 있군요! 인터넷.....

한참 있고 있다가 낡은 만화책을 다시 보는 것처럼 다시 읽어볼 수 있어 좋네요!

 **선인장 (택촌43회) 09.02.08. 19:04**

군대 야그 엄청 듣고 살었죠.
우리 남편 논산에서 광주로 떨어져 엄청 서운 했다네요.
서울토박이가 집하고 멀어져 서울쪽으로 가는 기차 바라보며 부러워했는데
상무대에서 편하게 군대 생활했대나 어쨌데나 아유 ..ㅎㅎㅎ

 **박종윤(서봉37) 09.02.09. 00:36**

잼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전우의 우정 그리고 친구의 우정이 오래 하시길...

 **홍현희(입면초47입면중6회) 09.02.11. 23:25**

군대 갔다온 야그를 할 때는 눈이 반~짝!! 침꺼정 튀김서 허드만요~
첨엔 신기하게 들었지요...
시방은 지가 더~ 토시하나 안 틀리고 잘협니다요~ㅎ

 **매월당 09.06.26. 14:00**

군대도 안 갔다온 방위병선 수들이 군대야그는 정말 리얼하게.
얼마나 귀동냥을 많이 했으면 말도 안되는 말을 정말 잘 해볼던데,
(예: 월남 스키부대에서 스키 탈 때 엄청 고생했다고...등)

 **L 양경희(택촌43회) 09.07.05. 01:26**

ㅋㅋㅋ 울 시동생도 방위 산업체 다녀~
방위도 못받아 봐놓고 누가 뭐라면 빠르게
월남 스키부대요 월남 스키부대 한다
첨들을 땐 넘 황당 했죠 ㅋㅋㅋ

 **미국시애틀(37회) 오봉기 09.06.28. 15:34**

아~그놈의 군대!
나는 일군 통신병으로 이새호가 일군총장으로 있을 때에
원주에서 토요일마다 외박 나가라는 , 인사계 성화를 못이기고(돈이 없어)
전방 지원 강원도 화천 대성산 오피근무~
땅굴이 사람 죽이고 다시는 뒤돌아 보지 않는다고 했던 군생활!
지금은 인생의 토막난 세월의 동기들~
지금도 그 때가 한 동영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 고놈에 군대생활~



날씨도 더우니 섬진강 낚시터로

김종옥(창정3?)

종방 마을 뒤 섬진강 나루터 아래 여울목에서 은어 낚시를 한다.

은어는 강바닥 돌맹이 이끼를 먹으며 자란다.

그러므로 은어를 낚시질 한다는게 힘들다.

방법은 투망을 쳐 먼저 은어를 잡은 다음 리더를 할 수 있는 제일 큰 놈을 골라 낚싯줄을 코에 맨다. 그 다음 등지느러미 아래 훌치기 낚시바늘을 맨다.

여울목 가운데로 낚시를 던져 은어를 낚는다. 은어는 떼를 지어 다니므로 제일 큰놈이 길잡이 리더를 한다. 뒤따르는 은어는 꼬리에 매단 도둑 낚시에 걸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짜릿한 손맛을 보며 그 옛날 어르신께서 낚시를 하셨다.

자 우리도 바지 가랭이를 걷어 올리고 낚시를 해보자.

1등 금반지 한 돈

2등 은반지 한 돈

3등 동반지 한 돈

17시20분 낚시 시작!

물속에 들어가니 시원들 하시지요.....?



▣ **신행임(제월)39회 12.06.20. 18:05**

경품을 거셨네요 ~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으니 금반지 한 돈은 따놓은 당상이네요 ~ㅎㅎㅎㅎ
살아있는 글 미소 지워 봅니다 ~

▣ **문상옥(금산43) 12.06.21. 18:07**

광양 구례 등지에서 섬진강 강줄기에 보를 막아서

고기가 올라오지 못해 지금은 은어도 고기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

↳ ▣ **김종옥(창정37) 12.06.21. 18:59**

그렇군요. 물도 탁해지고 고기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우(흙석43회) 12.06.22. 00:29**

낭만이 있으십니다. 옛날에 물이 맑아서 얕은 곳인 줄 알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귀신 되는 줄 알았던 때도 있었는데...

그것도 여자 애들 있을 때...

지금은 물이 별로인가 보네요.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선배님!

↳ ▣ **김종옥(창정37) 12.06.25. 19:41**

위험 했던 경험이 있군요.

나도 알몸으로 섬진강 횡단하다 중간에서 힘이 다 빠져 선배한테 구조 받은 적이 있어요.....
애들 앞에서... 여자들도 있는데 알몸으로....ㅋㅋㅋ

▣ **김종일(창정38) 12.06.24. 20:44**

가끔 어떤 은어는 발목만큼 얕은 물로 나온 경우도 있지요...

좌로 우로 쉬~쉬 하면서 쫓다 보면 성질 급한 은어는 금

방 지쳐서 이내 발목 안쪽으로 들어오지요.

그 때 가만히 손으로 은어를 잡곤 했지요...기억이 나요...그 즐거움이...

↳ ▣ **김종옥(창정37) 12.06.25. 19:47**

모래무치 방되 앞 양수장에서 ㅎㅎ

웃 여울 쪽에서는 나무가지로 훑~훌 가라(피라미슷컷) 잡았었지....캬....!!

 **한봉수(상급38) 12.06.25. 16:02**

그 시절 동윤이와 나는 대밭에 가서 낚싯대가 될 만한 대나무를 잘라 낚싯대로 하여
홈배를 가로 질러 곡존으로 가서 형배를 불러내어 살뿌리로 가서 일단 맨몸으로
모래를 밟아 잠수하여 모래무치를 맨손으로 잡았는데 가끔 은어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실증이 나면 그 거센 여울에 낚싯줄을 던져 낚시질 했지요.
그렇게 해가 저물면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형배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곤 했습니다.
형배야! 그 때 그 생각 나제~~~~~

 **김종일(창정38) 12.06.25. 17:40**

맞아...나도 모래를 자근자근 밟아 모래무치 잘 잡았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여러가지 추억이 떠오르는구만.....

 **김종옥(창정37) 12.06.25. 20:58**

한봉수님! 섬진강 고기잡이 추억 많으시군요.
우리 동악인은 가슴 가득 섬진강 추억들이 있을겁니다.
나는 여름 방학이면 거의 섬진강에서 살았지요.
아버님 따라 밤 고기잡이 친구들과의 추억. 모두 지우고 싶지 않네요....고맙습니다....^^

 **김순옥*제월동강초5회 12.06.28. 11:53**

낚시로 잡는 손맛은???
아빠가~ 미루나무 막대기로 병풍처럼 강물을 가로질러 꽂아놓고
은어가 그곳을 지나가지 못한다는 습성을 이용하여 투망으로 건져 올려
자갈밭에 털어놓으면 팔딱팔딱 거리는 은어를 다래끼에 정신없이 주워 담곤 했지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은어를 손질해서 소금 뿌려 써서 말린 후 시렁위에 보관했다가
겨울에 튀김해서 간식으로 먹는 맛은 천하일미였죠~~~
그 고~소하고 바삭하고 부드러운 맛은 잊을 수 없네요~~~
은어는 있는데 콩기름이 더 귀하던 시절이었으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김종옥(창정37) 12.06.28. 15:52**

김순옥님께서도 아버님 따라 은어를 잡으셨군요.
말려서 겨울철 튀겨 먹는 맛 최고였지요. 고추장 발라 구워먹는 맛 또한 빼질 수 없었구요.
나도 여름방학이면 거의 매일 밤 아버님 따라 고기를 잡으러 따라 다녔습니다.
은어를 말려 석깍에 넣어두고 겨울에 찬으로....우리집하고 같았군요.
낚시하는 손맛은 고기가 걸려 발버둥 치는 모습이 낚싯대를 통해 손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지금 한 마리 낚아 보세요. 고맙습니다.....^^

-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신작로

박동규(택촌3?)

신작로는 항상 희뿌옇게 피어나는 흙먼지와 함께 기억됩니다.

면소재지와 몇몇 큰 동네까지만 신작로가 놓여 있습니다. 논다랭이로 이어진 비틀비틀한 논두렁길을 지나면 신작로가 나옵니다.

신작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 때이거나 그 이후 어느 때 닦여진 길이겠지만, 아주 오랜 옛적부터 신작로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작로 옆에는 제법 연륜을 머금은 미루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버스나 트럭이 마주치면 조수나 차장이 ‘빠꾸’ 와 ‘오라이’를 수십 번 해야만 비켜갈 만큼의 넓이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만인 논두렁길보다 훨씬 넓고 곧고, 끝없이 이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60년대 들어서야 겨우 정기버스가 다니기 시작한 작은 면소재지를 이어주는 신작로에 무슨 희뿌연 먼지가 맨날 났겠습니까만, 어쩌다가 차가 한 대 지나가면 꼬리를 물고 구름이 이는 듯 피어나는 흙먼지는 항상 신작로와 함께 생각납니다.

차가 한 대 나타나면 길에 깔린 자갈들이 툭탁거리며 차를 맞이하고 지나가던 행인들은 무서워서 신작로 가로 부지런히 비켜났습니다.

아이들은 버스 마후라에서 나오는 경유 연소 냄새가 좋아 버스 꽁무니를 쫓아 다녔습니다. 버스나 트럭에는 좀 거들먹거리는 운전수가 있었고, 차장이나 조수는 출발해도 좋다는 뜻으로 차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쾅쾅 두드리며 연신 ‘오라이’를 외쳐 댑니다.

별로 외지에 나갈 일이 없는 시골 아이들에게 알맞은 크기의 자갈들이 죽 깔린 신작로에 나란히 뻗어 길이 난 두 줄기 바퀴자국은 아직 가보지 못한 산너머에서 어느 흐린 새벽에 아련하게 들려오는 기적소리처럼 알지 못할 설레임 그것이었습니다.

❶ 양해룡 04.06.10. 17:43

바람 부는 신작로에 흘어진 낙엽~.

이미자의 “그리움은 가슴마다” 라는 노래가 생각나는군요!

좋은 추억 떠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❷ 온종일serv 04.06.10. 18:39

미루나무들이 나란히 서 있는 것도 신작로에 빠질 수 없죠...

입면 옥과 무정 담양 청평 고서 광주까지 60-70년대 그 당시

우리들을 열심히 실어 날랐던 버스기사님 중에

유난히 1088호 기사님이 가끔 생각납니다.

그 70년 당시 40세 쯤 보였으니깐 35년이 지난 지금은 75세-80세 되셨겠네요...

양재동님은 아실려나? ㅎㅎ

신작로 길, 뿌연 먼지, 1088호 버스기사님! 잠시 추억여행 행복했습니다.

❸ 안기석(만수37) 04.06.11. 03:43

몇 년 전 캄보디아에 갔다가 지금 님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그 시절을 떠 올렸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이 행복했지요?

옥과까지만 나들이해도 얼마나 확장된 삶의 범위였든지...

❹ 김이현(제월38) 04.06.11. 11:07

버스 경유 냄새가 왜 그렇게 구수했을까요?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요...

새삼 옛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동악인

양준호(만수4?)

아득했던 운동장이 왜 이토록 좁아 쪘는지 모릅니다.

맑고 맑았던 물 속에 은어 떼들 꼬리치고
우리의 풀장이 되었던
저, 모래차가 먼지를 풍기며 달리던
섬진의 물줄기는 어디로 갔는지.....

동악산과 "천지봉", "배님재"로
어린 시절 꿈을 키워주느라
끌고 다니시던 선생님 모습 찾을 길 없고
주조장 술 찌개 내음에 담을 넘다 불들려
벌벌 떨던 소나무 바닥 교실도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줍은 머슴애, 가시내들이 감히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는데
제각기 흩어져 살다가 이제는 반 백의 고개마루 바라보며
귀소분능이 이런가,
정이 그리워 삶이 그리워
지금, 옛 고향이 그립다고 합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훈장 짙게 새겨지고
마음은 홍진 세상 세월 속에서 무디고 닳았지만
동악의 뱃심 든든한 기상,
험난한 바위 사이 헤집고
유유한 섬진물의 지혜를 간직 한 사람들.
너무 떨어져 있다 보면 할 말도 별로 없고
시시콜콜한 세상이야기는 누구나 같아 보입니다.

잃었던 세월, 유년의 고향 한 컨 너머로
개나리, 종달새 날던 시절
코흘리개 입학하던 그 날처럼
잘난 것, 못난 것 없는 바로 그 장소의 그 날을 그리며
한번 실컷 회포라도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치, 꼭 그럴 것 같습니다.

인생의 남은 역정에서 건강하고 보람있게 살고
저기 아름드리 동악의 중턱 흑송처럼 곱디곱게 다져져서
인자한 아버지가 되고
정이 있고 감동이 메마르지 않는 섬진강처럼
젊음을 지니고 살 수 있는
늙은 아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대부이정재(금산47)** 08.02.03. 21:31

바우야 잘 사는지 모르겠다.
쥐 죽은듯 하면서도 이케 오랫만에 글 올리는거 보니까
살아있는건 확실한데....연락도 하며 살자구나...
우리가 어릴 적 섬진강을 놀이터 삼아 놀았듯이
이제는 이곳에서 놀자구나 설 잘 보내구!

 **바우(만수47회)** 08.02.03. 22:20

그래, 설 앞두고 있네... 너무 바쁜 시간이 지나 갔다.

 **코스모스** 08.02.03. 23:12

고향을 눈에 보는 듯이 잘 그렸네..
자주 좀 들어오시게.

 **최병필(서봉리,46회)군포** 08.02.04. 19:56

바우님! 그 옛적의 감동어린 행적을 이곳에 펼치니 고향생각 절로 나네요.
오늘 작은 아이 고3 졸업식장을 다녀오니 내 자신도 벌써! 세월은 못 말려!



입면초등학교 교정의 소나무



강 촌

한정훈(입석41)



작은 물새들
시름없이 날으는
강촌에 살고 싶네.....

입면합강에서

-야초-

 **신행임(제월)39회 12.06.06. 08:58**

함께 공유하는 자리 고맙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어딜 가나 푸르름이 가득한 유월...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 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는 강촌에 한 번 가보고 싶네요...

↳  **한야초 12.06.06. 09:08**

강 건너라서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언젠가 꼭 가 보고 싶습니다.

 **김종옥(창정37) 12.06.06. 18:22**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 아~ 강촌 그곳에 살고 싶어라....
한가로운 모습에 여유를 가져 봅니다.
강촌마을 아래 여울목 자갈밭에서 물새 알 도둑질도 한 곳입니다.
멀리 고리봉과 동악산이 잘 어울리네요. 고맙습니다...^^

↳  **한야초(입석41) 12.06.07. 05:25**

인적이 드물어 더욱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한봉수(상금38) 12.06.06. 18:42**

순창 땅을 달려온 섬진강물이 도리산과 생사마을 앞에 이르면 곧장 흐르지 못하고
물길이 휘어지는데 이곳부터 강물은 입면 땅에 들어서지요.
그 곳의 강 건너 마을 생사마을(남원군 대강면 생사리)이군요.
저도 옛날부터 이 마을이 궁금하여 작년 7월에 직접 가보았었습니다.
섬진강교가 완공되면 가기가 한결 가까워질 것입니다.

↳  **김종옥(창정37) 12.06.06. 19:02**

지금까지 저는 생살리로 알고 있었는데 생사리군요. 고맙습니다....^^

↳  **한야초(입석41) 12.06.07. 05:46**

달빛이 고요하던 밤
생사리 처녀들이 강을 건너 입면 총각을 만나러 왔다던데요...

 **박상우(흙석43회) 12.06.08. 00:08**

강촌이 있는 곳엔 언제나 러브스토리가 있나봐요...ㅎㅎ

 **박종민(서봉41) 12.06.11. 10:32**

맞다, 합강은 아닌디 아닌디 하면서 보니 생사리다.
저 원편 윗녘으로 강을 끼고 오르면 합강이 나오고 기차 다리가 놓이다만 아름다운 행가리
(향가)가 이어지지..... 다시 보니 생사리 참 아름답구나!



개만도 못한 조부모(祖父母)

박종윤(서봉3?)

아무리 “염녕생멸”(念念生滅)이라고는 하나 요즘 세상 돌아감에 정말 현기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 전 모 기관에서 발표한 가족실태 조사내용을 보자니 내 좁은 소견으로 이해 할 수가 없어 몇 자 적어본다. 2005년 가족실태 조사 내용 중, 가족범위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조사에서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를 가족이라고 응답한 이가 63.8%였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조사에서는 23.4%만이 가족이라고 인정을 했다 하니, “원! 세상에”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을 어디까지 가족이라 칭하는지 모르겠으나, 가족이란 어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 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라고 되어있다.

너무 빨리 진행되는 핵가족시대가 빚어낸 부작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석연한 점이 없지 않다.

그리고 2010년 세대 간 가족의식 비교조사에 의하면 요즘 청소년들 57.7%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아니! 그럼, 애완동물은 가족이고, 친조부모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이거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할지 당체 헷갈리는 세상이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비교적 유교사상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와는 괴리감이 너무 느껴져 아쉽기만 하다.

“야~ 이놈들아!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개만도 못하단 말이냐? 이 망할 놈들아!”라고 말하면 내가 너무 오버 한 것 일까? 당체 마음이 편하지를 않다.

▣ **박종윤(서봉37) 12.06.20. 17:23**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내용인지라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는 조사라 볼 수 있을진데...
내가 너무 보수적인지, 아님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같은 집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당체 헛갈리네요.

▣ **김종옥(창정37) 12.06.20. 15:15**

이~런 (???) 놈들.....!! 나만 생각하는 세상 참 힘드네. 잘보고 가네.....^^

↳ ▣ **박종윤(서봉37) 12.06.21. 14:01**

그러게. 다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는가? 감사하네. 잘 지내시게.

▣ **한봉수(상금38) 12.06.20. 16:07**

이것이 우리가 아니라고 절대 부정 못하는 현실입니다.

첫째는 가정교육의 부재 또는 잘못일 것이고, 그 다음은 공교육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즉, 교사는 있어도 선생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누구(남의)의 탓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탓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계속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 ▣ **박종윤(서봉37) 12.06.21. 12:58**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화상 이지요. 모든 이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동감하는 댓글을 올려주어 감사합니다.

▣ **한야초(입석41) 12.06.20. 21:56**

할아버지 할머니 제삿날에 와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끼드득대다가 돌아가는 세태입니다.
고기반찬에 메이커 옷으로 귀하게만 키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할 것인디...

↳ ▣ **박종윤(서봉37) 12.06.21. 14:03**

그렇습니다. 뉴 집이나 다들 비슷 할겁니다. 안타까울 뿐이지요.
찾아 주어 감사합니다.

▣ **허문희(서봉)39 12.06.20. 22:05**

선배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실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잘못된 삶의 발상인지 비극입니다. 과거처럼 서당에서 추구나 천자문 사자소학 등 아니면
명심보감을 가르치며 예절교육을 시켰더라면 개만도 못한 가족이 어디에도 있지 않을 것 같
습니다. 기막힌 현실입니다.

↳ ▣ **박종윤(서봉37) 12.06.21. 14:04**

어이! 후배님 잘 지내시는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핵가족 때문에 생긴 병폐라 생각하네.
잘 지내시게.

 **일반석(동산초 5회, 대장리) 12.06.21. 07:00**

끙게 베이비붐 세대는 낀세대라고 안그요. 인자 자식한테 덕보기는 글렀고 부모님은 열심히 봉양하고..그렇게 삽시다. 죽으면 조상들이 칭찬힐텐게. ㅎㅎ

 **박종윤(서봉37) 12.06.21. 13:02**

ㅎㅎ.. 그려 말이여. 인자는 자식들한테 기댈 생각은 말아야지.
지들도 자식을 낳아 길러봐야 알거여. 그나지나 언제 막걸리 한 잔 하세.. ㅎㅎ

 **장진선(42회 월곡) 12.06.21. 11:00**

근본적으로 부모들의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살아 계셔도 일 년에 한 두 번 얼굴보고... 돌아 가셔도 제사 때는
애들은 데려 가지고 않고 부모들만 참석하고... 참 ~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죠....

 **박종윤(서봉37) 12.06.21. 14:58**

그렇습니다. 교육을 못 시킨 부모가 문제지요. 나도 후배님 댓글에 동감을 합니다.

 **김재복(제월38회) 12.06.21. 14:37**

허망하고 허탈하기 짹이 없지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세상사 아무렴 우리라도 중심잡고 기본을 지킬 수 밖에요~~

 **박종윤(서봉37) 12.06.22. 23:19**

그러게요.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간 대화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고들 하네요.
공감해 주셔 감사합니다.

 **박상우(죽석43회) 12.06.22. 00:53**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는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보는 척 마는 척
강아지한테는 아이구 내새끼 엄마다 아빠다 튕굴며 지랄들 하고 있죠!
그렇게도 강아지를 좋아 하시려거든 버리지들 마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함께 살아 볼려는 생각부터 바꾸는 계기가 되어 주시길...
미국에서는 말도 가족처럼 생각하고 말고기도 안 먹는다는데
늙는다고 짐승들에게 까지 밀려 난다는 서글픈 현실이 마음 아픕니다.

 **박종윤(서봉37) 12.06.22. 23:28**

그러게 말입니다. 후배님 댓글에 공감이 가네요. 예전에는 전업주부로서 애들 가정교육에
신경을 썼는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나 결손가정이 많아 더욱 그러지 않나 생각 되네요.

 **백설공주 12.06.22. 17:46**

의료보험에 가입시켜달라 데모할지도 ^^^^

 **박종윤(서봉37) 12.06.22. 23:29**

ㅎㅎ..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군요

김재복(제월38)

어느 날인가 회원수첩을 보았는데 특별회원으로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조금은 의심스러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틀림없는 특별회원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지기님~운영자님들 혹시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조금은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뭔가 이 공간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느끼면서 책임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는 게 없어서 걱정이 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역할에 성실하게 임하며 자주자주 이 공간에 신고를 잘하면 최소한 면피는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앞으로 열심히 출석하고자 합니다. 평소 이공간과 인연을 갖은 저는 몇 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이 있어서 이제 그래도 고향에 많은 선후배님들과 교분을 나름대로 쌓은 터라 그리 두렵지만은 않은 거 같습니다.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고 고향사람들끼리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상호간 보완해 주고 어루만져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베어나오는 따뜻한 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 입면 동악인들의 마음씨 좋고 인정많은 특별한 애정이 바탕이 되어 이공간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대한민국 하고도 곡성군 입면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임이 있고 어쩌다 산수 수려하고 사람 내음이 물씬 베어나오는 곳에 고향이라는 인연을 갖게 되었는지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고향의 자존심과 긍지를 갖으며 가슴 활짝펴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라도 기죽지 않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 번 곡성동악인의 화이팅을 외쳐보고 싶습니다.

항상 애써주시는 지기님 운영자님들 고맙고 감사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합시다.

 온종일servant 09.06.30. 17:12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회원님, 게시판지기님, 운영자님들은 정말 재복님의 글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동악산에 올라 오시는 분들이십니다...
 아직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동악인에게 잘 홍보하여 주시고
 입면인답게 가능한 한 실명과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모임통보(문자메시지 등)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김재복(제월38회) 09.06.30. 18:05

분부 받았고 분발 하겠습니다. 친구야 건강 잘 챙기시게나 ~

 봄햇살(이노순 40회) 09.06.30. 21:05

고향역 노래를 들으면서 선배님 글을 접하니 완행열차타고 제월리로 향하는 기분입니다.
 오늘도 넉넉한 맘으로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김재복(제월38회) 09.07.01. 09:12

코스모스길이 잘 어울리죠 ~ 옥과 겸면풍경이 아름답지요. 늘 생활이 보람있길 바랍니다

 텁동(박종민:41) 09.06.30. 21:10

그럼요. 저렇게 고운 동악산, 저렇게 맑은 섬진강, 그리고 저렇게 너른 들판을 함께 하는 고향은 별로 없지요! 배산임수의 풍광으로 문전옥답을 바탕하여 준걸영애 많이 많이 태어나는 아름다운 고향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웃자고요!

↳  김재복(제월38회) 09.07.01. 09:18

고향의 향수 아련하게 젖어드는 애절함이 ~ 공감할 수 있는 우리라는 것. 항상 고마우이.

 서봉 36회정귀임 09.07.01. 16:25

선후배님들의 수고함으로 많은 님들이 더더욱 고향을 그리워 하면서도
 못 가보는 님들도 많을긴데 온정을 베풀어 준 덕분에 입가에 소리없는 미소를
 머금곤 한답니다~ ~~ 앞으로도 쭉~욱~ 수고들 해주세연~짝~짝~

↳  김재복(제월38회) 09.07.02. 10:28

별 한 일 없는데 과찬해 주심에 부끄럽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박종윤(서봉37) 09.07.01. 18:11

우리 나이 언저리 세대들은 누구나 고향이란 단어만 들어도 그리움이 가득 해지지요.
 자주자주 들어와 정다움을 나누며 살아갑시다.

↳ 🍔 김재복(제월38회) 09.07.02. 10:31

냠냠 워요. 참 좋지요 소식 주고받을 수 있어서 말이에요. 모쪼록 건강하세요 ~

🍔 매산_김영의(45회) 09.07.01. 19:25

선배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동악인의 긍지를 가집시다. 파이팅 !!

↳ 🍔 김재복(제월38회) 09.07.02. 10:33

그래요. 힘을 합해서 동악의 힘을 키워나갑시다.

🍔 흥현희(만수47회) 09.07.01. 21:12

코스모스 봉계 저 길을 하염없이 걷고 잡네요~~ 머리에 꽃으로 뻔 맨들어 찌르고..ㅎ

↳ 🍔 김재복(제월38회) 09.07.02. 10:35

코스모스보다 더 예쁜 동악의 마스코트 ~ 오랫만이네요. 정말 냠냠 워요

🍔 이정재(금산47) 09.07.03. 00:12

열심히 하라는 지기님의 뜻일 겁니다....

자주 그리고 한번이라도 더 오신다면 그 만큼 정도 돋독해질 거라 여겨봅니다 .

↳ 🍔 김재복(제월38회) 09.07.05. 10:18

이 공간이 넘 좋아서 자주 올께요 ~



서봉마을과 입면 들

동악카페 가족을 만나던 날

박상우(흑석43)

내 삶 속으로 걸어 들어 온 「동악산기슭 카페」

2012년 어느 봄날! 카페에서 인연의 정을 나누는 김종일 선배님을 비롯하여 선후배님들과 모임 날!

정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고향의 향기를 맡고 싶어 부풀은 꿈을 안고 부산에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직 동악카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귀국한 친구 윤옥희와 만나서 50만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도서관인 정독도서관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3층 세미나 실에는 중국에서 오신 한봉수 선배님을 비롯하여 일본, 강릉, 수원 등 거리를 멀다하시지 않고 참석해 주신 선배님들을 뵈니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상호 인사 소개로 서로를 확인하고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벚꽃 잎의 향기가 함께 휘날리는 자리, 성삼문이 태어난 마당에서 오페스트라가 향연으로 우리들을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그 옛날 어린 시절 추억이 담겨진 교육 역사박물관도 관람하였는데 봉승아학당 세트처럼 차려놓은 옛날 교실 안에는 벤또(도시락)를 올려 놓은 난로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낡은 풍금이 있어 그 앞에 앉아 보니 어린 시절 추억이 되살아나 즐거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원두막처럼 지어진 마루에 둘러앉아서는 동악카페 운영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견 발표를 해가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100미터 줄을 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그 유명한 북촌칼국수 집에 들어가 만두 보쌈을 조금 먹어보니 너무 맛이 있었는데 홀륭하신 선배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느라 다 못비우고 나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굶었었는데 ~ㅎ~ㅎ~

드디어 흔들고 노래하는 시간까지 다 보냈습니다.

무한히 포용해주는 선배님들과 지냈던 그날 밤 그 숨결은 잊을 수 없는 추억! 일본여자(윤옥희)만 쟁겨주었던 39회 김영준 회장님 비롯하여 연상의 여인을 부르며 연하남(나밖에)를 애타게 찾아 나와 함께 즐거움으로 선후배에서 누나 동생이 되어버린 신행임 선배님 항상 온화한 우정의 사랑으로 느낍니다.

참석한 걸 소중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카페지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기님! 대전에서 온 신명덕이가 가장 못나게 나온 사진을 제일 앞에 올려놨다고 나를 구박하네요.

아참! 멀리서 보고 싶어 모임에 왔는데 뵙지 못한 분들(김형욱, 박종윤, 박종민, 이정재, 이노순, 박동규, 이문용, 김영도, 이승태, 박성수, 김학구, 김지영, 양재춘, 임번섭, 박성수, 최영필, 최덕구, 강신숙....)

내가 당신을 무척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아주시길 바라며.....



2012.4.14 모임사진

 **한봉수(상금38) 12.04.17. 12:39**

후배님 참말로 방가워 부렀당께!

여러 번 써먹는 말이지만 나이 들어 갈수록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아스라한 그 시절 그 일들이 눈시울을 적시는 횟수가 늘어갑니다.

그 날 만나서 한없이 즐거웠답니다.

 **박상우(흡석43회) 12.04.17. 23:42**

친형님처럼 따뜻하게 다가오신 선배님 만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좀디좁은 입면 땅에서는 얼굴 한번 이름 한번 불러 볼 수 없었지만 고향을 들먹이면서 서로를 대하고보니 다정다감 정겨움에 마냥 올려주신 사진 속에서 따뜻함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신행임(제월)39회 12.04.17. 17:52**

그래요,,,고향을 통해서 맺어진 인연~ 만남은 소중합니다,,,

어느 사이 따뜻한 가슴으로 정을 나누는 동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서로 감정이 있기에 글로서 나를 알리고 서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점 하나 동악의 인연만은 축복으로 기억하며 선후배 관계인지라

정감이 가며 수더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간을 가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인상,,,부산에서 온 후배,,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지필에 고생했습니다~~ 고마워요 ~

 **박상우(흡석43회) 12.04.17. 23:56**

선배님께서 행운을 주셔서 그러는지 오랜만에 군대 간 아들놈이 전화를 해왔네요.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슴속에 안고서 선배님을 대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은 전부다 동안이세요. 어떤 비결로 젊음을 유지 하시는지?

나는 사진이 몽골 사람처럼 나왔다고 친구들과 뉴두리하면서 하루를 보낸답니다.ㅎㅎ

 **방현기(택촌47회) 12.04.19. 00:27**

북촌이 떠들썩했군요! 일본에서, 부산에서, 멀리서도 오셨는데, 부끄럽습니다.

 **박상우(흡석43회) 12.04.20. 08:44**

뵙고 싶었는데..아쉬움이 많네요. 조금이라도 젊음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음을 기약합니다.

 **양인근(42회)만수1구 12.04.20. 21:01**

만나서 반갑고 선후배님 보니 너무나 많은 정이 넘쳐 흐뭇했습니다.

 **박상우(흡석43회) 12.04.24. 01:03**

선배님에 따뜻한 마음 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해요.

 **신행임(제월)39회 12.04.22. 14:15**

반가워요,,, 저는 카페에 게시된 지필하신 글에는 그냥 못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모처럼 휴일에 집에서 푹 쉬면서 그동안 지기님의 배려로 "고향의 추억의 글"이란 방으로
님의 글을 편집해 놀은 글들 상우씨의 오래된 글과 영상을 꾸욱 보게 되었어요~
참으로 소박하고 꾸밈없는 글과 진솔하게 나열 된 작문들이 상우씨의 인격을 의심하게 합니다~
좀 더 일찍이 이 방을 알았더라면 많은 공유를 했을 텐데,,, 아쉬운 마음 끝이 없네요,,,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상우씨를 만나게 되서 영광입니다~ 자주봐요~ fighting

↳ 🍔 박상우(흑석43회) 12.04.24. 01:10

선배님 감추고 싶은 것도 많은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배울 점도 많은 우리 선배님!
오랫동안 변치 않고 카페 안에서 열심을 다해보자구요.
짧게 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ㅎ ㅎ ㅎ

📚 김형욱(흑석37) 12.04.22. 20:49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순간 본인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부분은 자극히 작은 부분이며
삶의 대부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은 주변의 환경에 의하여 살아져 가고 있음을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절실히 느끼고 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의 같은 공간에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고
이제는 중년의 나이에 동악산 기슭의 사이버 공간에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수고 해주시는
카페지기님과 박상우를 비롯한 많은 선후배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고 지난 모임 날 상우의
전화를 받고도 함께하지 못하여 미안할 따름이며 머지않은 시간 내에 만나서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대한다.

↳ 🍔 박상우(흑석43회) 12.04.24. 01:17

토요일에 대전모임 갔다가 일요일 흑석에 가서 산일하고 와보니 선배님이 찾아 오셨네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여기서라도 선배님을 뵙는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흑석에서 짧음을 함께한 사람들 보고 싶어도 소식을 몰라 안타까운 마음뿐이니까요.

📋 정태자(제월리39회) 12.04.24. 21:42

그 날 그 때 만난 착한 인상의 후배 상우님...
이번 만남을 통해 관심 갖고 차분히 글을 읽어갑니다. 고향을 향한 마음이야 다 있겠지만
이번 모임을 통해 우리 마음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해봅시다. 걱정은 글솜씨가 별로라는 것,,,
그날의 벚꽃들 잊을 수 없네요.

↳ 🍔 박상우(흑석43회) 12.04.25. 00:09

드라마에 출연해도 될 만큼에 미모를 소유하신 선배님! 너무 반가웠고 만나서 영광입니다.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고향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는 글을 생각해 내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더군요. 옛날 깊은 장롱 속에 넣어둔 앨범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살짝 빌려 그리움 속에
띄워 보낸 답니다.



시애틀에서의 고향생각

(끌말잇기에서)

中略~~수정(정)

시애틀(서봉37회) 오봉기 12.06.04. 13:34

정기받은 동악산 선후배님이 모인 곳, 이곳이 있어 이민의 외로움을 달래보는 곳, 마누라도 즐겨 찾아 고향(강원 원주)의 향수를 달래며 감사한답니다.
선후배님! 동악산기슭카페 파이팅! (팅)

김종일(창정38) 12.06.04. 14:26

팅팅거리며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동악카페가 고향의 향수를 달래주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니 보람입니다. 미국 시애틀 오봉기 선배님 잘 계시죠? 강원도 원주가 고향인 형수님까지도 동악카페를 들러 주신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영화가 생각나네요... 시애틀에 가고 싶어요.!
생각 많이 나시죠? 그리운 고향..(향)

시애틀(서봉37회) 오봉기 12.06.04. 16:20

(향)기가 나는 곳이 어디인가 찾아 가 보았더니 동악산 정기를 이어받고 자라난 입면초에서 나는 향기였기에 여기저기에서도 아니 맨하탄 건너서도 태평양을 건너서도 그 향를 품을 수 있구나...(나)

김종옥(창정37) 12.06.04. 17:11

나만 우찌 동악산카페에 늦게 들어 와가고 뛰어 다니느라 무쟈게 힘드네요. 여기저기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요. 하기야 12년이 되었으니.... 저 멀리 미국에서 중국에서도 다들 먼저 와있는데 어찌하다가 나만 이렇게 늦게 가입하였는지....!! 행동반경이 몇Km 밖에 안되어 집 앞만 빙빙 돌고 있었네요.... 하지만 이젠 동악산 카페 덕분에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세계 방방곡곡 다 가볼어~ 으메, 나 무쟈게 커 부렸어....(어)

김학구(매월50) 12.06.04. 17:23

어머니, 동악산, 젓줄....나의 고향은 동악이요, 기슭이니 어디간들 그 정취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몸은 맨하탄에 있어도 마음은 지척이요 고향이니 바로 의지가 되겠지요... 객지에서 고생하십니다. 선배님....건강하십시오!!...(오)

양순용 (중방 38회) 12.06.04. 23:00

오시거나 가시거나 소식도 없이 어느새 맨하탄까지 가서 님들을 그리움으로 올리십니까..? (까)



 양순용 (종방 38회) 12.06.10. 08:48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국이나 객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국만리 가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분들은 사정이 조금 다르겠지요. 봉기선배님은 더욱 고향이 그리우실 것 같습니다. 향수병 나지 않도록 동악카페에 날마다 오셔서 대화하며 고향 모습 사진으로나마 보시고 위안되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기 수도권에서도 큰 일 아니면 고향에 자주 가지 못한답니다. 한마디로 동악카페가 유일한 고향이죠. 카페지기님과 운영진분들이 카페 일을 끝내주게 해주시는 덕분에 우리는 그냥 무임승차하며 왔다갔다 눈요기하며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지요. 시애틀에서 보시걸랑 물고기 잡아서 초장 찍어 술 한 잔하는 모습 사진 아니 동영상 찍어 올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대해 볼께요. 동악회원 모두가 반가워 할 것입니다.

↳  시애틀(서봉37회) 오봉기 12.06.05. 15:00

물고기가 아니라 구이덕이라고 하는 놈인데 죽여줍니다. 조개과에 속해 있는디 그 놈을 초장에 쿠 찍어서 대쿠라(tequila) 한 잔 하면 다리 하나가 꿈틀 꿈틀 하지요. 옛날에 카페에 올린 것 찾아보면 구이덕사진이 있을건디... 물고기회요? 그건 따라지고 구이덕은 광땡입니다. 소주가 있지만 너무 비싸죠. 한 병에 8불인데 그 돈이면 다른 양주를 살 수 있으니 머리 아프고 골 때리고 애국자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김종일(창정38) 12.06.05. 15:04

네..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구이덕의 얼굴이... 슬슬 이야기 꽂이 피워지네요... 제가 사진을 찾아서 올려 보겠습니다.

↳  시애틀(서봉37회) 오봉기 12.06.05. 15:29

지기님 시애틀 오시면 꼭 구이덕으로...

 시애틀(서봉37회) 오봉기 12.06.05. 15:27

지금 여기 구이덕이 99% 차이나로 수출 한답니다.
파운드에 30불 한다고 하니 그 곳에서 먹을려면 얼마일까나?

↳  시애틀(서봉37회) 오봉기 12.06.05. 15:44

사실은 지금 구이덕에 대쿠라 한 잔 쭉 와이프랑 하면서...

↳  김종옥(창정37) 12.06.05. 18:57

친구야 반갑데이. 동악에서 자주 볼 수 있어 고맙구나!
나 경기도 일산에 살고 식구 4명 아들 딸 마누라 나. 손주는 아직....
↳  시애틀(서봉37회) 오봉기 12.06.06. 03:05
나도 너처럼 딸 하나에 아들이다. 딸은 미국이 싫다고 한국에, 자네처럼 일산 시민이라네.
외손주가 초등 3학년이고 아들은 여기 미국에 살면서 보잉사에 다니고,
나는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네...

↳ 🎂 김종옥(창정37) 12.06.06. 12:20

열심히 사는 모습 고맙네. 자식을 일찍 두었구만!

외손주가 초등 3학년이라니 난 언제나.....딸 보러오면 함 만나세.....^^

↳ 🎂 양순용 (종방 38회) 12.06.10. 10:09

워따~ 장가 한 번 빨리 갔구만요. 봉기선배님~!!ㅎㅎ 원자력 발전소 하니까.. 좀 으시시 하네요.. 방사선 조심 하시구요~~ 봉기선배님~ 대쿠라가 무슨 술입니까? 혹시 맥시코산 대낄라인지요? 그리고 구이덕은 무슨고기회 입니까? 그리고 이름 밑에 7번에 가보라고 하셨는데 잘 안보입니다.ㅎㅎ 아이고 궁금해라~~~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셈요. 미안합니당~~~~~

[오봉기 동악갤러리 방에서 7번에서 찾아 옮겨 왔음]





넙 **김종일(창정38)** 12.06.05. 16:03

아~ 정말 맛있겠습니다... 1파운드면 양(量)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요...

맨 위 접시는 몇 파운드쯤 될까요? 뺨에서 조개 잡듯이 잡나요? 궁금한 것이 많아지네요...

넙 **시애를(서봉37회) 오봉기** 12.06.06. 03:15

큰 놈이 4파운드 정도이고 접시에 4파운드 정도를 손질한 겁니다.

대부분 모래 속에 묻혀 있는데 25인치 이상 깊이에 있어서

잡기가 쉽지 않고 모래를 파면 금방 무너져 버리죠. 해서 통을 넘어가며 파지요.

구이덕 영어 발음이라 한국에서는 이름이 무얼까?

 김종옥(창정37) 12.06.06. 12:45

침 넘어가네요. 장화도 옆에 있는 것을 보니까 바로 잡을 수 있나 보네?
조개(코끼리조개)가 맞는지 난 아직 못 먹어봤는디 참 맛있게 보이네요.
지기님 퍼을 때 쇠주랑 같이 퍼 오시지...ㅋ
암튼 수고했습니다. 친구야 고맙데이.....^^

 시애를(서봉37회) 오봉기 12.06.06. 03:24

바다사진에서 희미하게 안개 속에 감추어진 큰 산이 보일겁니다.
만년설이라고 하지요. 여름에도 눈이 있으니까요.
작년 겨울에 한국에서 온 여자분과 LA에서 온 남자 분하고
눈 속에 묻혀 지금 못 찾았을 겁니다.
마운틴 레이어 만사천피트가 조금 넘는 산이고
1980년에 화산이 터진 해伦산이 옆에 있죠.

 김현남【37회】 12.06.06. 11:28

봉기야? 오랜만이다!
요즘에는 전화도 받아 보지 못하고 가끔 동악산에 들어와 보면
너의 글이 올라와 있어 별일없이 지내고 있는 줄 알고 있다.

 박종윤(서봉37) 12.06.12. 01:04

봉기! 잘 지내시는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네 그려.
항상 건강하시게나.





입면에서 - 보파 숙모

박종민(서봉41)

그 맛이 안나, 숙모가 붙잡는 초파일날 저녁을 같이 뜯다
꺼먼 쌀보리만 아, 그려도 아홉, 열 식구 둘러 안거 달았제
시째가 벤또를 싸먼 쌀 넌 놈 아이라고 똑똑 눈물바람을 혀
드르륵, 한 손에 상추 이파리를 든 채 낱다 창문을 연다

머리가 아프다가도 바람 씌면 낫아, 당하다본게 젠더져
일이 아이다 생각하고 이라고저라고 몬치다 보면 뭣인가
여그서저그서 담쏘담쏘 열어, 그리고그라고 묵고 살았제

감또개 널린 대문간, 백구는 새끼들한테 젖을 맡겼다
이삐다고, 자네 외숙이 자꼬 보고파, 보고파 썰래쫄래
따라댕기싼게 넘덜이 놀린다고 보파, 보파 허더이만
그려갖고 보파여, 이 보파, 택호가

테레비 동무여, 웃년 사람도 나오고 시상 안 가본 데도
다 가보제, 오금팍을 피더니 선반 위에 사진첩을 내린다
쩌그 액자속 허고 여가 다 있어, 자네 아부이, 계시거
남양 징용서 살아 오신 해 외숙이랑 순창장날 박았댜

사진틀 비껴 빛바랜 백지 위에 붓글씨 편액 하나 걸렸다
 견리사의(見利思義)라고 눈앞으 이문에 정신을 빼델 말고
 옳은 것을 생각혀야 한다고, 아그덜한티 물레준 말이다네,
 큰 아가 핵교 들어가니께 당신이 손수 먹을 같아 쓰겄어
 짜번 선거참에 국회의원 된 누구도 글씨가 좋다 글더만
 다 오래되야부렸어, 어? 누구랴, 아, 두째
 안 가네, 내도 짐이고 지도 짐이고 서로 글면 쓰간디
 전화기를 놓더니 뿔깍뿔깍, 호, 물을 한 모금 다신다
 잔 누워 쉬소이, 상동떡 고뿔은 어쩐가 건너다 볼라네

소쩍소쩍 소쩍새 소리인지, 스적스적 청대 소리인지
 뒤란 대밭 쪽으로 귀를 열다
 사박사박 속모 발소린지, 소쩍소쩍 소쩍새 소리인지
 마당 대문 쪽으로 귀를 열다
 봄밤, 깜뭇 깊다, 봄밤



 박종민(서봉41) 12.05.28. 23:31

누구야, 노모 생각나는 밤이다. 초파일, 반달만 쓸데없이 곱다

↳  신행임(제월)39회 12.05.29. 12:45

고향의 향기는 특별한 날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늘 가슴에 지워지지 않더이다 ...

이렇게 따뜻한 이웃이 곁에 있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볼만한 가치가 있는 듯합니다.,

 박상우(축석43회) 12.05.29. 00:14

ㅎ ㅎ ㅎ 뿔깍 뿔깍 나도 찬찬히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한번 읽어서 내 해석대로 읽고 웃고 생각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에

인연을 찾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좋은 글 고마워요. 선배님.

↳  박종민(서봉41) 12.05.29. 10:24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쟁겨보려는 님의 마음이 무척 편하게 다가옵니다.

 신행임(제월)39회 12.05.29. 16:01

그 시절에는 쌀밥이 최고인 줄 알았등만 인자봉계 흰쌀밥이 건강에 안 좋다고 혀,,

어찌 그리 옛 시절 심금을 울리는 단어만 골라 이년 가슴팍을

스물스물 파고들게 한당가요,

겪어보지 않고서 어찌 그 때의 보리고개를 이해할 수 있겠는지요,

보파 숙모 살아온 세월에 얼굴과 손마디에 고스란히 묻어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래요,

어제밤도 씨잘떼기없이 예쁜 초승달만

초저녁에 덩그런히 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옛 것의 보잘 것 없고 하찮은 것들에 많은 진리가 숨어 있더이다,,,

살아있는 듯한 님의 글을 볼 때마다 뒤통아 보게 되고

경험에 의해 많은 지혜를 오늘도 얻고 갑니다,,,

↳  박종민(서봉41) 12.05.29. 13:42

"옛 것의 보잘 것 없고 하찮은 것"처럼 살다 가신 분들을

그리워해보는 자리가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자 합니다.

● 온종일servant 12.05.29. 14:44

고향의 詩를 읽고 있노라면 정겨운 시골집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의 詩도 훌륭하지만 그 글을 읽고 댓글을 쓴 내용도 가히 훌륭합니다.

정말 입면의 긍지이고 자랑입니다. 요즘 더욱 카페에 자주 와 보고 싶은 이유들입니다.

↳ ● 박종민(서봉41) 12.05.31. 12:22

까페를 더욱 잘 지켜 주시니 저도 자주 들락거리게 됩니다, ㅎ

● 한야초 12.05.29. 21:09

보파 숙모님 고향을 지키며 오래오래 건강히 사시길 빕니다.

↳ ● 박종민(서봉41) 12.05.31. 12:23

자네가 올리는 사진 속에 가끔 보이신다,

우리 곁에 계시는 보파 숙모님!

● 콜라비 12.06.01. 18:38

어쩌면 구구절절이 옛 생각이 나게 하는지요

↳ ● 박종민(서봉41) 12.06.03. 21:57

저의 어머니들의 모습이지요!



눈 쌓인 동악산



난장판



김종옥(창정3?)

입면 시장에 1962~3년도쯤 난장을 텃습니다. 난장을 터면 5일 간격으로 장이 열리던 게 날마다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장의 축제지요. 각 점포들은 상품을 더 많이 준비하고 날이 밝으면 사람들 북새통을 이루며 시장은 어지러지네요. 씨름판, 빙고 게임장, 노래자랑은?

엿장수 뚱뚱거리는 소리, 빙고게임 마이크소리, 먼데서 온 아이들 부모 잊고 울어대고 나는 시장을 돌고 또 돌고 어느 양잿물 가게 앞에 서있다. 징과 망치로 양잿(응고 되있음)물을 깨트리는데 내 눈 밑으로 튀어 아이쿠 따가워.....

돌고 또돌고 빙빙돌고 씨름판에 와 우잉 애들 씨름판이다. 상품에 욕심이 난다. 그때 아마 입석리 후배 심씨인데 이름 생각 안나네.(그 후배님 연락주세요) 나보다 키도 적고 나이도 어린데 뭐 내가한번 나가봐?

두근거린 가슴을 가다듬고 전장터에 나간다. 살바도 없이 바지를 잡고 둘이 붙었는데 아니 이 후배 녀석 왜 이리 뻣신 것여 그냥 씨름판을 돌고 또 돌고 빙빙돌고 애라 모르겠다. 뿔깡 들려는데 애구구 뒤로 내가 넘어 감시로 밑에 깔려 부렸다.

이게 무슨 망신이다냐! 덩치 큰 놈이 작은애한테 져부럿으니 고개도 못 들고 뛰쳐나와 두련두련 아니야. 심판 오심이야 아니야 이건 오심이야, 변명거리를 찾아본다. 돌고 돌아 빙빙 돌아 저녁이 온다.

시장은 빙고게임 종이들로 나부끼고 술 취한 어르신들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덜 큰 어르신들은 싸움박질하며 키가 크고 애들은 씨름하며 크고 이렇게 시장은 성숙되가며 정말 난장판이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가며 요란했던 시장도 서서히 식어간다. 내일도 장이 열린다. 나도 시장에 또 나올 것이다. 그리고 돌고 또 돌고 빙빙 돌 것이다ㅎㅎ

● 박종민(서봉41) 12.06.26. 21:54

난장, 진짜 난장을 트기도 했군요!
그나저나 덩치로 못해본 후배도 있었나요? ㅎㅎ
눈에 양잿물이 아직 덜 씻겨져서 그랬던 건 아셨나요?
아, 장에는 참 많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 ● 김종옥(창정37) 12.06.26. 21:48

종민님! 난장판에서 실컷 한 번 취해 봅시다요....^^

↳ ● 박종민(서봉41) 12.06.27. 09:55

눈이 취하고 귀가 취하니 실컷 어지럽지만도
술 생각이 절로 나는 참이라도 내 돈으로 마시는 술이 술이간디요.
난장에서는 공술을 내는 인심이 있을 거라는 짐작은 갑니다만,
선배님이 도래방식을 깔면 제가 송구스럽지요 ㅎ (그란디 안주는 뭐이당가요,ㅋ)
↳ ● 김종옥(창정37) 12.06.27. 10:53

돼지 암뽕국 입니다..... ㅎㅎ

● 김종일(창정38) 12.06.27. 09:22

입면 장에 대한 추억과 애환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함께 무전여행했던 종옥님이 장돌뱅이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네요. ㅎㅎ
많은 경험을 하셨군요...

씨름에서 이긴 입석친구 빨리 카페에 오셔서 댓글로 답해 주시길 기원해 봅니다...
나도 난장판에 끼워 주세요... 함께 취해 보고 싶습니다...

↳ ● 김종옥(창정37) 12.06.27. 10:54

지기님 그 때 난장판 구경 못했나요? 지금 구경 함께 해봅시다.
그 씨름선수 입석리 38회~39회 키 좀 작고 야무진 친구였는데.....(심우섭)가물가물...

● 신행임(제월)39회 12.06.27. 17:00

그래요...고향에 대한 추억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게시물에 언제나 나누는 마음 엿봅니다.

● 박종윤(서봉37) 12.06.28. 13:40

ㅎㅎ..너무 리얼하게 글을 올려 주어 정말 난장판을 보고 있는 느낌이네.. ㅎㅎ
나도 씨름판에 끼어 응원도 하고 직접 씨름도 해보고 했었는데...

↳ ● 김종옥(창정37) 12.06.28. 16:02

시간이 좀 어긋겠나보네.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때 상 좀 받았는가? 고맙네....^^

 **안병만(창립3) 12.07.03. 18:02**

부락대항 입면 축구대회! 기억 나시는지요? 매년 8월 15일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그 시절 입면초등학교에서 열렸던 축구대회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축구선수 유니폼이라고 반팔 흰색 낫닝구에 등판번호를 매직으로 새겼음)

암튼, 그 날은 온통 부락민 모두가 하나 된 축제의 한마당이었지요!

모두가 며칠 전부터 짬을 내어 밭을 맞추고 서로가 우승할 거라고 선, 후배 할 것 없이

하나되 어 자신의 부락(마을) 명예를 걸고 어르신들까지 합세하여 응원을 펼쳤던

그 날은 우리 입면의 자랑거리이기도 했답니다. ^.^

 **김종일(창정38) 12.07.04. 23:45**

그 때 모두들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의 아버님께서 골키퍼 역할을 자주 맡으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추억의 글... 감사해요.

 **김종옥(창정37) 12.07.05. 11:45**

병남님 반갑네요. 그렇지요. 광복절 날 동네 대항... 무더운 날 참 열심히 응원하고 했지요

그날은 막걸리도 많이 먹는 날인데....

그때가 그립네요. 고마워요..... ^.^

 **안기석(만수37회) 00:01**

부락대항 배구대회도 열렸지요? 삼오리 키 크고 강 스파이크를 때려 여타 부락들이 적수가 될 수 없었던 그 선배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김종옥(창정37) 12.08.19. 12:03**

삼오리 김진태씨 일겁니다. 배구 잘 하셨죠. 고맙습니다..... ^.^

 **바우-양준호(만수47회) 12.09.08. 02:58**

저는 사실 입면 창정리 장터를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 가는 길에 우연히 옛 보는 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시면 꼭 알사탕 둑깨알을 누런 포장지에 싸 오셔서

장날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그린 그림들

심상윤(흑석41)

최근에 그린 그림들을 한자리에 모아 보았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과 좋아 하는 것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되었다. 어떻게 7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리도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앞으로의 7개월도 그리 빠른 속도로 달려 올 것이다.

지금처럼 물두하여 그림 그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뿐이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 드린다.



▣ 박종민(서봉41) 12.06.12. 12:47

상윤아! 좋은 작품에 매달리는 그 모습 좋다.
한 사람의 예술 세계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겠지.
마음을 다독거려 너를 그려내는 작업 건강하고 기쁜 손놀림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제 됐다 싶은 순간이 있을 것 아녀. 그 작품이 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제...

↳ ▣ 심상윤(혹석, 입면초41) 12.06.13. 07:56

종민이...고마우이...힘내서 해볼게.

▣ 김종일(창정38) 12.06.12. 13:01

짧은 글이지만, 읽고 보니 좋은 그림 못 볼까 긴장되네여.
뭐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시는데 방해를 하는지...
힘내세요!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있을까요?
부담없이 마음껏 좋은 작품 그리실 수 있게 기도할께요...
늘 감사합니다...캘리리님...

↳ ▣ 심상윤(혹석, 입면초41) 12.06.13. 07:57

감사합니다. 선배님. 스스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 신행임(제월)39회 12.06.12. 20:32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면 마음이 풍요롭다고 합니다 ..
한 작품 완성될 때 마다 희열을 느끼시겠지요
건강 잃지 마시길,

↳ ▣ 심상윤(혹석, 입면초41) 12.06.13. 07:57

감사합니다... 자기관리 잘하여 오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우(혹석43회) 12.06.13. 00:48

선배님 반갑습니다.
작품을 예술로 봐야하는데 내 눈에 자꾸만 년소자 관람불가..ㅎㅎㅎ
좋은 작품 놓도질게 즐기고 있습니다.

↳ ▣ 심상윤(혹석, 입면초41) 12.06.13. 07:59

상우.. 정말 오랫동안 못 보았구만...
옛 모습이 눈에 선하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래..

🍰 **조동주(상금42회) 12.06.13. 13:31**

음악에서 신동한테는 절대음감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미술에서는 신동을 뭐라고 칭하나요?

↳ 🍔 **심상윤(혹석,입면초41) 12.06.19. 06:05**

아마...색의 마술사...라고들 하지요...ㅋ

쉑 🍔 **박종윤(서봉37) 12.06.19. 00:01**

잘 할 수 있고 또한 좋아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시는
후배님이 부럽네요.

저는 그림에 대해 문외한입니다만 보기ガ 참 좋으네요.

앞으로도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시길...

↳ 🍔 **심상윤(혹석,입면초41) 12.06.19. 06:05**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섬진강



한정훈(입석41)



꽃은 쪘어도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서 가네.....

섬진강에서

-야초-



▣ **박종민(서봉41) 12.05.08. 18:46**

이 사람아, 언제쯤인지 어디메쯤인지도 좀 가르쳐 줘야제,
그래야 가슴에 꽉 다시 한번 더 박아 놓제..... 아, 고맙다!

↳ ▣ **한야초 12.05.09. 09:32**

종방에서 합강쪽으로 강변길을 걸어가다 보면 좋은 강변 풍경을 만날 수 있다네.

↳ ▣ **박종민(서봉41) 12.05.09. 12:08**

니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네가 깜박했다, 맞아!
저쪽 버들이 방산 쪽이고 이쪽 버들이 종방 쪽.....
오른 쪽 화면이 하류 쪽인지 미처 분간을 못혔다.
(왜냐면 방산 쪽으로 건너가서 구도를 놓아보면 공장 옆굴태기 정도일 텐디,
그 자리는 원래 저보다 강폭이 훨씬 큰 자리라서 상상이 잘 안 되더라니까...)

▣ **박상우(흙석43회) 12.05.09. 00:18**

초등학교 때 자주 소풍을 갔었던 곳인데...
그 시절이 그리워지네요.
숨은 그림 찾기도 했었는데 내 눈에는 왜 그리도 안 보였던지요... ㅎㅎ

▣ **한봉수(상금38) 12.05.10. 12:18**

고향의 젖줄, 영원한 추억의 강 섬진강!
저의 <고향풍정>에서도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꿈은
진안의 발원지에서부터 하동포구에 이르는 전 구간을 답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꿈으로만 끝날지는 모르지만 희망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향의 모습 잘 봤어요....

↳ ▣ **박종민(서봉41) 12.05.11. 20:27**

진안 데미샘에서 광양 망덕까지 이어지는 섬진강 육백 리(약 212킬로미터) 길!
비오는 장마에 뗏목을 타고 내려가 보려고 도전했던 총각 시절이 생각납니다.

▣ **정태자(제월리39회) 12.05.10. 23:28**

어릴 적 많이 봤던 냇가... 바로 섬진강 줄기였지요.
버들가지도 많았고 피라미 같은 물고기들도 자유로이 노닐었지요.

 양순용 (종방 38회) 12.05.29. 09:06

그 아름답던 섬진강 모래...
그리고 옥(玉)처럼 예쁜 많은 돌들..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곡성군에서 금호타이어 공장 지을 때 좋은 거 다 파가고
평탄작업이라도 고르게 해 놓았더라면
그래도 지금과 같은 웅덩이에 썩은 물은 고이지 않았을 것을...
금물과 같았던 맑은 물과 금모래 은모래...
강바닥은 풀 한포기 하나 없던,
깨끗하다 못해 그 물을 거울삼아 헤엄치며
물도 손으로 떼 마시곤 했던 그 옛날...
그런 옛 모습은 어디로 갔나?



중국 명산명승 사진 연재를 마치며...

한봉수(상금38)

2009년 11월 14일부터 <중국 명산명승>이란 제하로 저의 전용방을 개설하여 중국대륙 구석구석의 명산과 명승을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이 오늘로 딱 1,000일이 되었습니다.

이 1,000일 동안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개근하여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명산과 명승지가 150여 곳에 사진의 장수로는 정확히 19,474장입니다. 그 넓고 넓은 중국대륙에 볼만한 곳이 어디 지금까지 올려드린 150여 곳 뿐이겠습니까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대단원의 막을 오늘 내리려합니다.

이렇게 정열을 쏟았음에도 찾아오는 발걸음이 뜸했을 때 서운한 마음이 안 들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었고 고정적으로 찾아주시며 절대적인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주신 선후배님들이 계셨기에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장기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행임님의 한 동안 하루도 빠짐없는 달필의 댓글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중국 명산명승>은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만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시작이었다 생각하고 또 다른 테마로 읽을거리와 볼거리를 연재하려 합니다. 이곳에도 계속 찾아주세요.

아래의 글은 <사이버윤리>라는 마음에 와 닿는 글이 있어서 퍼온 글입니다. 자료를 올리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모두에게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글이어서 이곳에 옮겨보았습니다.



1. 아무리 나의 글이 조횟수가 저조하다 할지라도 꾸준히 글을 올리니 이것을 "인(仁)"이라 한다.
2. 정성들여 올린 글을 그 앞글과 뒷글까지 읽어주니 이것을 "의(義)"라 한다.
3. 재미있는 글을 읽었을 땐 그 글을 쓴 이에게 간단하게 리플이라도 달아 감사의 뜻을 전하니 이것을 "예(禮)"라 한다.
4. 웃기는 글을 쓰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작은 미소에도 리플로써 답하는 아랑을 깨달으니 이것을 "지(智)"라 한다.
5. 비록 자신의 글을 읽어주는 이가 적을지라도 그들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글을 쓰니 이것을 "신(信)"이라 한다.
6. 남의 글에 논리적 하자가 있거나 독단적이거나 치졸함이 보이더라도 절대로 반론이나 비평을 가하지 않고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리플하는 인내심을 일컬어 "화(和)"라 한다.



중국 명승명산 사진 19,474장 중의 1장입니다.

 **김종일(창정38)** 12.08.09. 07:04

3년 가까이 2만 장의 중국 대륙 사진을 하루도 빠짐없이 올려 주신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양순용 (종방 38회)** 12.08.09. 10:47

봉수친구야! 애 많이 썼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ㅎㅎㅎ 고마워

 **윤옥희 (축석42)** 12.08.09. 13:05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그동안 仁의 마음과 忍의 시간으로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동악인의 마음에는 선배님이 얼마나 동악카페를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선배님은 우리 동악인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선배님의 좋은 작품 기대 되네요~

 **조동주(상금42)** 12.08.09. 17:42



오랜 기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엊그제 입추가 지났건만 아직도 더위는 여전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후속 연재물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김종옥(창정37)** 12.08.09. 17:15

한봉수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양해룡** 12.08.10. 09:36

애 많이 쓰셨네,, 또 시작한다니 대단허이,,,

▣ 김병완(41회) 12.08.10. 09:43

이렇게 장엄하고 웅장 신비스러운 풍광을 사진으로만 봐도 흡족한 마음은 물론 천하를 얻는 기분입니다. 한봉수 선배님이 없었다면 어찌 이 거대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겠는지요?

봉수선배님께 다시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선배님께서 동악카페에 올려주신 고향의 풍경과

글을 보고 나서 견문이 많이 넓혀졌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작품 기다려지네요.

▣ 박재규(만수31회) 12.08.11. 08:44

한봉수 후배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루도 뺨 없이 1007회라는 기록적인 대단원을 마치셨군요.

평일. 공휴일 관계없이 거의 새벽 6시 이전에 3년 동안을 올리셨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소수민족 연제에 큰 기대가 됩니다.

가장 편한 자세로 중국대륙 명산을 다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감개가 크고 감사합니다.

└ ▣ 한봉수(상금38) 12.08.12. 14:04

박선배님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눈 덮인 입면 시장

옛 생각에 잠기며

김재복(제월38)

제월리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던 난 지금 돌이켜 보면 무척이나 개구장이였슴에 틀림없다. 우리 아버진 무척 엄하시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되는데도 난 착하지도 암전하지도 않은 말썽꾸러기 철부지로 자라 부모님 애를 무던히도 태우며 자란 기억에 조금은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애려움을 느껴본다.

초등학교 초년시절 지금은 폐교되어(동강교) 없지만 그 시절이 지금의 나에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으로 남아 있다. 입면 본교가 먼 관계로 제월리에서 3학년을 다니고 4학년이 되면서 비로소 소재지 본교에 편입하여 또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며 초등학교 6년과정을 마치게 된다. 제월리 분교시절에 급장을 했던 기억과 본교에 와서 곡성 중앙국교에 대표로 읽기대회에 나갔던 추억이 잊혀지지 않은 자랑거리인 것 같다.

난 동악산기슭 두곳에 인연을 갖고 있다. 한 곳은 제월리로 내가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며 자랐던 곳이며 또 한 곳은 현재 어머님이 살고 계신 매월리(매평) 부락이다. 중학교 진학을 하면서 이곳으로 이사를하게 되어 두 곳에 고향 마을을 갖게 됐으며 이유는 오로지 부모님께서 지대한 자식사랑으로 그 시절엔 제월리 교통편이 불편하여 혹여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염려스런 마음으로 이사를 했던 것이다.

부모님의 사랑에 비추어보면 지금에 난~ 부모님께 너무 너무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에 가슴 아파옴을 느끼곤 한다.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을 걸 하며 후회도 해보지만 아쉬움만 남는 거 같다. 이제 나는 남은 삶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고 배우는 자세로 후회됨이 없도록 정말 열심히 살고 싶다.

비오는 날 일요일에 사무실에 나와 있으려니 옛 어린 시절 추억이 생각나 두서없지만 몇 줄 적어 본다.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이 많겠지만. 지금 우리 나이엔 어쩌면 과거로의 회귀하고 싶은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는 것 같다. 배고픔의 시절 놀 거리가 없어서 먹어서 후회되는 나이먹기. 가이생, 진돌이, 딱치치기, 구슬치기 그중 제일 좋은 거는 땅따먹기~

 **이노순(제월리40회) 09.07.12. 14:14**

선배님의 지난 추억이 마침 제월리에서 놀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침 등교길 달리기는 기본이고 ㅎㅎ 그래도 그 때가 그립습니다.
언제 날 잡아서 제월리 살뿌리에 가야 될 것 같네요.

 **김재복(제월38회) 09.07.12. 14:46**

그래요 우리 예쁜 후배님이랑 살뿌리에서 삐. 겹에 쇠주잔 기우리며
옛날에 추억 속으로 빠져보게요 ~

 **시애를(서봉37회) 오봉기 09.07.12. 14:28**

왜~재기차기는 재월리 사람은 할 줄 몰랐는가, 빼 먹게~그래요,
우린 그 때 생각에 고향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련히~떠오르는 추억들이 뻐식이 웃게 하니깐!

 **김재복(제월38회) 09.07.12. 14:50**

그냥 문득 옛날생각에 철부지로 부모 속 많이 썩혀드려서 써본 글인데
마음의 전화. 이 션찮은거 같네요 . 선배의 건강과 행복을 ~ ~ ~

 **김형욱(혹석37) 09.07.12. 19:48**

제월리 친구들이 모두 아무지더만 ~~어린시절 학교 다니느라 행군을 많이해서인가바~~
덕분에 글 읽고 잠시 어린시절로 돌아가보네...

 **조정만(서봉47회) 09.07.13. 07:50**

동감입니다^^

 **김재복(제월38회) 09.07.13. 10:18**

과찬의 말씀이시고 아마도 자기방어의 기본 의식이 아닐런지 ~

 **박종민(서봉41) 09.07.12. 18:59**

그 깊고도 깊은 추억의 모퉁이에는 제월리가 있지요, 제게도..... 친척 집에 새배 가던 생각,
먼 길 오가든 동무들..... 통적굴 밑에 지금은 낚시터가 있는 근방 원두막에서 참외를 깎던
배 면장님 아들,,, 뭐니뭐니 해도 힘허정, 살뿌리가 아름다운 그런 자랑스런 곳이지요.....
고맙습니다, 좋은 추억 되살려주셔서!

 **김재복(제월38회) 09.07.13. 10:27**

후배님께서도 제월리에 대한 향수가 많은가보네. 눈감으며 상념에 젖고 있노라면 아름답고
정겨운 고향산천이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지거든 ~ 늘 귀한 답글에 고마우이~

-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60년대 이발소

박동규(택촌3?)

밑에는 몇 장의 판자를 이었거나 베니다 합판으로 대고, 위에는 30cm 정도의 유리를 여러장 끼워 만든 이발소 밀창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큰 거울이 보이고 그 앞에는 이발의자가 두세 개 놓여 있습니다.

거울 밑에는 때에 절은 빗과 가위를 넣는 통, 바리깡, 비눗물통 등이 놓여 있고, 여름이건 겨울이건 한가운데는 난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난로 연통을 휘감고 드리워진 철사 빨래줄에는 얇고 낡은 싸구려 수건이 몇 장씩 널려 있습니다.

비누가 들어 있는 면도통 옆면이나 때가 낀 난로 연통 옆면에는 거품을 내느라 면도솔을 문지른 자국이 하얗게 나 있습니다. 파리채가 어딘가에 놓여 있고, 천정에 매달린 파리잡는 꾼끈이 테이프에는 아직 살아있는 파리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낡은 금성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자 노래에 맞추어 누렇게 바랜 흰 가운을 입고 잊주머니에 흰 금속의 빗을 꽂은 이발사 아저씨가 흥얼거리면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박박 밟니다. 깎여 나와 바닥에 덩어리로 굴러다니는 머리털 속에는 오랫동안 감지 않아 생긴 하얀 비듬이 듬성거리고 때로는 머릿니도 보입니다.

그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거울 위에 걸린 한 폭의 그림입니다. 세로 40~50cm, 가로 1m 정도의 크기에 농부가 듬직한 황소에 쟁기를 달아 쟁기질을 하거나, 오두막 물레방앗간 아래로 적당하게 물을 머금은 물레방아가 한가로이 돌아가는 그림입니다.

액자와 앞면의 유리에는 구질한 정도로 먼지와 파리똥이 박혀 있지만 좀 바랜 가운데도 그림의 색깔은 나름대로 선명합니다. 장식을 위해 걸어 놓은 것이지만 어쩐지 이발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생경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안에는 한껏 멎을 낸 글씨체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푸쉬킨– 이라는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발소에서 삶을 생각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만, 삶의 고단함을 달래는 글로는 그래도 운치 있는 문구지요.

❶ 온종일serv 04.06.09. 09:48

정말 재미있습니다.

허리띠보다 약간 짧고 굵은 가죽의 색깔이 시커멓게 변하고,
양쪽이 닳아졌건만, 쑥~쑥 면도날을 세워서 까실까실한 농부들의 수염을 깎아냈죠!!!
이발소 그림... 푸쉬킨 글귀...ㅋㅋ 이제는 효자동 이발사가 생각나네요...
한 번 봐야겠어요..그 시대 이야기지만, 왕족의 이발소는 얼마나 화려했나!..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❷ 믿는 또끼 04.06.09. 10:21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렸을 적 보았던 풍경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❸ 안기석(만수37) 04.06.09. 21:27

매평 이발소가 참 정이 들었지요.

나중에 입면국교 정문 쪽으로 옮겼지요?

그 분 지금은 어디서 사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이~

❹ 자비무적 04.06.10. 23:18

즐거운 추억여행 잘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의 추억 열차는 계속 달려 가겠지요?



함허정

용(龍)못과 삿갓 방죽

김종옥(창정3?)

대부분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고향의 지명과 농기구 등 기억을 더듬어 몇가지 생각 나는대로 어린 시절 추억과 함께 적어본다.

창정리에서 종방리 가는 중간지점 8자 모양의 방죽이 있는데. 큰 방죽이 용못이며 작은 방죽이 삿갓방죽. 이를 합해서 용못이라고 부른다. 아무리 가물어도 방죽이 마르는 일이 없이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다.

옛날에 이 방죽에는 용이 살았고 방죽 밑으로 굴이 섬진강까지 뚫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다. 봄이면 방죽 변두리에 보랏빛 모란 꽃을 피워 논 밭을 오가는 사람 가슴을 설레이게 하였다. 여름 날에는 멱 감으며 모란 줄기를 따라 까만 바늘 왕관 모양의 모란을 캐서 하얀 알갱이를 깨먹고 또 구워 먹기도 하였다. 때론 말조개도 많이 잡을 수 있었다.

낚시로 몇 마리 잡으면 냄비에 넣어 조림을 해서 먹었다. 어르신들께서 고기를 많이 잡는 날에는 이웃에 나누어 주기도하고 매운탕을 끓여 식탁의 미각을 더해 주었다. 그 시절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는 시대인지라 정말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즐겁게 놀아 주기도 했던 그 용못! 마을 아이들은 낚시를 하면서 기다림을 배우고 먼 훗날 월척의 꿈을 꾸기도 했다. 늘 이렇게 베풀기만 했던 용못!

수로가 창정리 앞을 흐르는 냇가와 연결되어 아무리 고기를 잡아 내어도 물과 고기는 마르지 않는다. 가뭄에는 갈라진 높은 논으로 두레질을 하며 들을 해갈 시켜 주곤했다. 두레는 1인용 2인용이 있었으며. 또 물레방아 물레를 한 사람이 올라가 손잡이를 잡고 반대쪽으로 밟아 돌려 논으로 물을 퍼 올린다. 이동하기 불편하여 아주 고정시키고 여러 날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물레방아 물레는 보기도 흔치 않으며 물을 퍼 올리는 것은 그 시절이 아마도 마지막이 아닌가 싶다.

두레질을 하며 부르는 농부의 노래소리~



하나하면, 둘이로다. 셋이 가면..... 열에하나, 열에 둘,
숫자를 세어가며... 힘들고 지루함을 잊으려는듯.....
농부들의 노랫 소리가 용못에 울려 퍼졌다.

1960년대 중반(?) 즈음에 빵떼리(방뜰) 뜰은 대부분 밭이었는데 불도저(땅판차)로
밀어 논으로 개량하는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쌀 수확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용못을 메꾸던 날이었다. 반죽이 된 용못에 주변 동네 사람들이
몰려 와서 고기를 잡느라 아주라장이 되었다.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불도저가 용못을
메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아도 아쉬움이 남는다.

보랏빛 모란꽃이 피어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모란을 먹으면 수영을 배운 곳!
기다림을 배우고 꿈을 키워 준 용못과 삿갓방죽의 추억들! 내 가슴속 한 구석에
차곡차곡 묻어놓고 영원히 묻혀 사라져 간다.

용못. 삿갓방죽....! 용못. 삿갓방죽....!!



▣ **박종민(서봉41) 12.08.21. 20:21**

맞아요, 동악산이 날마다 제 얼굴을 비쳐보던 시경 같은 용못이었는디...
외갓집 가려고 내동쪽으로 가면서 만나는 용못! 가득한 노을이 지금도 선합니다.
한 번 어긋내고 나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자연이지요.
용못 가기 전 창정 배고픈 다리 옆의 느티나무처럼.....
언젠가 용못, 삿갓방죽 그 언저리에 돈 밟은 발을 쓱쓱 닦는 님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가물치처럼 뛰놀던 어린 날의 기억들은 토탄처럼 쌓여 있는데.....
↳ ■ **김종옥(창정37) 12.08.21. 20:43**

그래요. 친구들과의 추억도 많지요. 나에게는 용못, 삿갓방죽의 추억이 사계절 다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투망을 쳐 겨울에도 봉어 잉어를 잡으시는데 따라 다녔거든요.
종민님은 외가는 어딘가요? 내 외가는 죽전리입니다.

▣ **김종일(창정38) 12.08.21. 21:38**

8자 모양 중 기동 쪽 삿갓 방죽은 비교적 작았지요.
서봉쪽 방죽이 크고 고기도 많이 잡혔어요...
오염되지 않은 월척을 낚으면 푹 살아서 그 국물을 마시곤 했었는데...
정말 종옥님의 놀기는 특수한가 봅니다.
어렸을 때의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다니...
놀랍고 행복합니다...

↳ ■ **박종민(서봉41) 12.08.21. 21:42**

제 외가는 순창 풍산 우곡 광산 김씨댁입니다. 외가 종성이 소를 많이 기르고 있지요

▣ **김종일(창정38) 12.08.21. 21:35**

아~ 나의 어렸을 때의 추억이 많은 곳 용못을 어쩜 이렇게 생생하게 잘 묘사하셨는지요.
존경합니다. 그 당시 손때 묻은 우리 친구 신한식 할아버지의 대나무 낚시대는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성규 아버님과 우리 종옥님 아버님의 투망 솜씨는 정말 달인이셨지요...
완전한 보름달처럼 힘도 들이지 않으시고 동그랗게 던지셨어요. 개구리를 살아 있도록
]등에 낚시 바늘을 끼어 짧게 꼽아 놓고 용못을 한바퀴 돌면서 투망질 하다보면 그 사이
가물치가 개구리를 덥썩~ 주로 해 넘어가기 직전에 잘 물었던 것 같아요.
용못과 삿갓방죽을 가로 지르는 종방으로 가는 길은 조금만 비가 와도 넘쳐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양준호님이나 심상윤 화가님께서 위 글을 읽으시고
그림 한 장 그려 주신다면 월매나 좋을까요.
글을 읽으니 아름다웠던 어린시절로 돌아가 가슴이 설레입니다...

↳ 🍜 김종옥(창정37) 12.08.22. 10:50

맞아요. 아버님께서 투망을 쳐 잡은 섬진강 고기,
용못 고기로 우리집 식탁은 맨날 고기 반찬 이었어요.
창정 친구들 낚시 많이 했지요.
종일님 두레질 하는건 못보셨나요?

↳ 🍜 양규영(종방 42회) 12.08.21. 21:58

용못!! 오랫만에 들어보는 고향지명에 또다시 설레이게 하네요. 저의 어린기억은 용못
방죽으로 형님 친구분 따라 갔다가 우리집 백구가 방죽으로 뛰어들어 “백구가 빠졌다”고
형님 붙잡고 안달하며 울었던 기억과 낚시하는 어르신의 모습 그리고 불도저로 메꾸다
수령에 빠진 불도저의 모습... 그것을 빼내는 어른신들의 모습이 생각나고요.
삿갓방죽을 메꾸는데 갈퀴에 새끼를 둑어 던져서 잡던 자연산 장어~~~
지금은 부르는게 값이 아닌가요ㅋㅋㅋ 아참, 조개방죽도 있었지요.
삿갓 방죽에 내 대가 빠졌던 일들을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네요....
잊고 살았던 아름답던 추억들, 일깨워 주셔서 고맙고 행복합니다.

↳ 🍜 김종옥(창정37) 12.08.22. 10:59

규영 후배님, 기억력이 나보다 좋으십니다.
용못 메꿀 때 죽이 된 뜻에 다른 고기는 올라 오지 못하는데
장어는 힘이 좋아 죽을 헤치고 숨을 쉴려고 올라오죠. 코
구멍만 밖으로 내놓고 있으면 삽으로 뜨는 사람, 낫으로 걷어 올리는 사람....
규영님도 거기 있었군요.
나는 그 때 옷 입은 채로 용못에 들어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조개방죽도 많이 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 박상우(홀석43회) 12.08.22. 00:49

좁디 좁은 입면 땅에 그런 선배님들의 추억이 담긴 연못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방죽에서 모란을 땋는데도 열매를 먹는 줄도 몰랐네요.
그런 추억의 방주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니 허전하고 허무한 마음입니다.

↳  김종옥(창정37) 12.08.22. 11:09

상우님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찾아주시고....

모란은 구워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훠석 저수지 추억도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초여름에 약천에서 저수지로 내려오는 물을 향해 아버님께서 투망을 치시면

다래끼에 피라미가 가득했지요.

흙석저수지 고기와 섬진강 고기를 비교해 보면 저수지 고기가 훨씬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때가 그립네요. 고맙습니다.....^^

↳  박종윤(서봉37) 12.08.22. 12:23

용못을 가까이 가 보지는 못 했네만, 종방 들어 가는 신작로에서

먼 발치로 보았던 기억이 나네.

그러나 자네 글을 읽어보니 가 본거나 진배없네 그려..ㅎㅎ

↳  김종옥(창정37) 12.08.22. 16:34

주로 창정리, 종방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며 추억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네.

고맙네....^^

↳  이정재(금산47) 12.08.22. 14:51

그런 곳이 있었군요.....글 감사합니다 감동...

↳  김종옥(창정37) 12.08.22. 16:37

농지 정리를 잘 해놓아 지금은 그 자리를 바로 찾기도 힘들지요.

우리 어릴 적엔 참 고맙기만 한 용못 삿갓방죽입니다.

고맙 습니다.....^^

↳  방현기(택촌47회) 12.08.23. 13:38

땅판차, 새질낸데, 기억이 새로운 정겨운 말들이지요!

그런 방죽들이 있어 가물어도 창정리, 종방 들판이 푸르렀었죠.^^

↳  김종옥(창정37) 12.08.23. 20:17

그렇습니다. 가뭄에도 주변 논에 두레질로 들을 푸르게 했지요.

뛰놀던 그 시절이 좋았었죠.....

현기님 고맙습니다...^^



가물었던 어느 여름 날 이야기

방현기(택촌4?)

그 해는 봄부터 무던히도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도 외양머리와 서당너머에 있는 논은 저수지 물을 댈 수 있어 모내기는 겨우 끝낼 수 있었으나, 분듯골 논은 아직 물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

맷굴저수지의 물 길 제일 끝, 산비탈에 줄줄이 누워있는 일곱 다행이들은 보리타작, 이삭줍기, 쟁기질도 이미 끝내고 갈아 엎어진 채, 비는 언제 오나,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수지의 물이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서로 먼저 대는 바람에 우리 논에 오기도 전에 물이 끊긴 것이다. 물길이 좋아 일찍 심은 논의 벼들은 벌써 가지를 쳐서 포기가 소복했고, 검푸르러가는 벗잎들은 잔뿌리들을 실하게 내리고 있었다.

얼마 전 모내기 철에 맞춰 맷굴저수지 수문이 열렸을 때, 아버진 물을 대려고 밤을 꼬박 세웠었다. 수리잡(저수지) 관리인 비위를 맞추려고 술도 사며 선처(?)를 바랐건만, 도중에 조그만 저수지(거의 방죽 수준)의 물이 바닥나 버린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 논보다 저수지에 가까운 논주인들도 아버지와 같은 농부의 급한 마음이었을 터, 애초에 우리 논까지 물이 흘러 오기를 바랐던 게 순진한 일이었다. 수문이 열리던 날 저녁, 어두워지고 밥때가 지나도록 아버지가 들오시지 않자, 엄마는 무슨 일일까 근심스런 표정을 지으며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느그 아브지가 어찌 안 들오신다! 아니, 이 냥반이 어디서 쌈을 현다냐, 아니면 술을 육고 있다구?" "나 핑허니 땅겨오께, 깨간장에 비벼서 얘기 밥 좀 잘 떠먹이고, 아그들 모구 물린디 조심혀라."

엄마는 누나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물을 대다 보면, 자기 논에 조금이라도 물을 더 잡으려고, 남모르게 수로의 물꼬를 살짝 트거나 막는 바람에 서로 욕하며 멱살을 잡거나, 삽 든 손으로 샷대질을 하느라 분위기가 협약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다들 '허소'(반말) 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라도, 가문 날 물 앞에선 종종 양보가 없었다.

밥을 먹고 우리들은 라디오 연속극을 들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잠이 오는지 막내는 칭얼댔고, 금방 오신다던 엄마가 오질 않자, 우리는 점점 무섭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겁이 난 누나는 엄마를 찾으러 가자고 했다.

먼저 여동생 옷을 챙겨 입힌 후, 포대기를 띠고 막내를 등에 업었다. 난 작은 방에 가서 말을 놓고 아버지가 쓰는 꽈擦拭에 올라가 전에 보았던 군용 전등(기역자로 구부러진)을 찾았으나 약이 없어 불이 켜지질 않았다.

불이 안 들은다고 하자, 누나가 뜰방(토방) 마루 밑에서 먼지에 쌓인 초롱을 찾아냈다. 마치 청사초롱처럼 생긴 사면(四面)엔 유리가 끼워져 있었고 한쪽은 여닫을 수 있도록 문이 나 있었다. 안에는 다행히 호롱이 들어 있었다. 뚜껑을 열어 보니 시구지름(석유)은 넉넉했다. 나는 심지를 키운 후 성냥꼴로 불을 붙였다. 그리고 얘기 업은 누나를 앞세우고, 난 한 손엔 초롱을 들고 다른 손엔 7살 난 여동생 손을 잡고 엄마를 찾아 분듯골로 향했다.

후래시보단 못했지만 생각보다 호롱불은 밝아서 걷는데 불편하지 않았다. 집 뒤의 대밭길을 걸을 때는 컴컴한 대밭숲이 무서웠지만, 동네를 벗어나 들길로 접어들자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졌다. 무엇보다 누나가 든든했다. 길가 논두렁 풀숲 지렁이와 풀벌레들의 온갖 화음 속에, 하늘에선 반딧불이 반짝 반짝 날았고, 무논에선 개구리들이 악을 쓰며 울어댔다. 벼들 사이 논 바닥 물에 비친 별빛이 환해지는 만큼 호롱 불빛은 밝음을 잃어갔다. 나는 길이 좁아 동생 손을 잡지 못하고 앞세워 걸었다.

멀리 분듯골에 모닥불 타는 것이 보였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보리 베인 논 머리에 삽정이와 마른 보릿대로 불이 피워져 있었고, 아버진 푹신한 보릿대를 깔고 잠들어 계셨다. 아버지 입에선 막걸리 냄새가 났다. 엄마는 질겁을 하며 "여길 어떻게 왔느냐. 곧 갈 텐데 뭘라고 왔느냐."며 얘기를 바라보다 우리를 쳐다보다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모르셨다.

아버지는 저수지 관리인을 대접하다가 당신이 술에 취하셨다고 한다. 수로에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났으나, 논에는 물이 들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안 왔으면 니그 아브지 죽을 뻔 했다'고 혀를 차며 한숨을 쉬었고,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갈까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올려다 본 검푸른 하늘엔 별들이 무수히 돋아 있었고, 멀리 보이는 마을들에는 막 들어온(새마을운동으로) 전깃불이 곳곳에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박종윤(서봉37) 07.06.11. 01:42

잠깐, 단편소설 한편을 읽는 착각 속에 빠져 한참동안 머리 속이 텅 비었습니다...
 글 속에 대꿀 저수지 등등 우리네만 아는 단어라 더욱 더 정감이 가서
 너무 실감나게 읽었습니다... 방현기님 항상 건강에 유의 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코스모스(만47) 07.06.11. 08:41

현기님 머리 속은 추억이 가득한게 한 올 한 올 실타래를 풀어내어
 그 시절을 눈에 보는 듯 그려 내는 것이 참 감성적이네요.

 최병필(서봉리,46회)군포 07.06.11. 15:10

고맙소/ 바람같이 흘러간 세월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나의 현재는 문명의 발달과 현실에 찌들려 과거의 순수한 정과 넘치는 정을 멀리 한 채 혀
 눈 팔고 지나는 사이 이 감동의 체험담을 주셔서/ 그 누가 감동과 눈물로 회상하겠소/
 경험자만이 새겨 들을 수 있는 과거!!!

 천하무적 07.06.11. 18:22

잠깐이나마 소싯적으로 돌아가 추억을 더듬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대부이정재(금47) 07.06.11. 19:16

워 ~~~~ 따 글 한번 엿들어지고 맛깔스럽게 써 분네요.
 아주 어린 시절로 되돌아 간 기분입니다.

 좌우당간 07.06.13. 19:11

아따 거 육십년대 후반 대가뭄 때 야그렬 요로코롬 맛갈나게 썼듸야.....

이 글을 읽고 추억을 더듬어 봅니다 ~ 감사합니다 .

 대부이정재(금47) 07.06.13. 19:27

아마 그 때가 68년도 아닌가 여겨집니다.

 ► 「심시미—v」 ◀ 07.06.16. 08:25

소설이 아니라 시(詩)네그려...앞으로 시를 써도 맛깔스러울 듯 하다.
 멀리 낮선 이국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 얘기라서
 훨씬 기억에 새롭고 사실감이 도는 글이다.

 코스모스(만47) 07.06.17. 12:38

긍게 말여~~



입면 고향이 그리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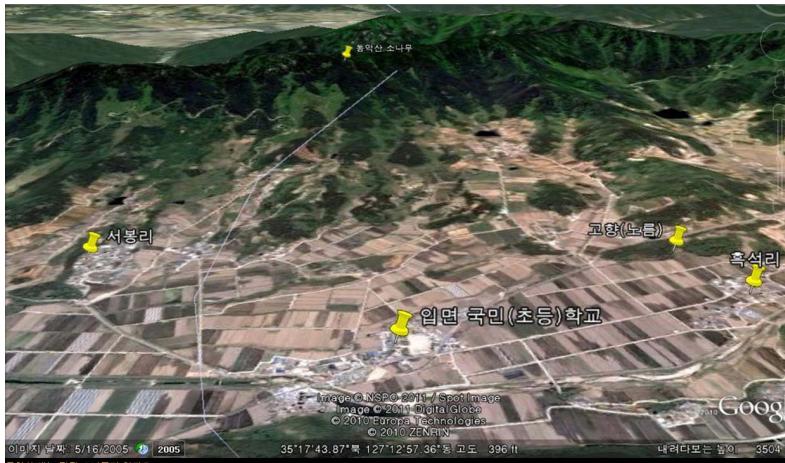
- 중국 북경에서 -



심용우(만수45)

입면 고향이 그리워 중국 북경에서 구글로 바라보았습니다.

고향땅과 고향 선후배님들 사랑합니다.



(* 심용우님은 2003년도에 동악카페에 가입,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 가신 동악인)

한야초 11.01.14. 17:28

높은 하늘에서도 우리 마을이 잘 보이는군요.

박종민(서봉41) 11.01.15. 07:38

아, 절절하네요. 그 토록 사무친 가슴... 제발 더 이상 뭣에도 부딪히지 말고 다치지 마소서!
오직 고향으로 덧났으니 고향으로만 치료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누가 제대로 장단이나
맞추겠소. 우선 객지니까 안사람 하고나 나누면서 향수를 어찌해 보시구려~

매산리***김영의(45회) 11.01.15. 13:47

이렇게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





입면 골프장(광주CC)



 **윤옥희 (혹석) 42** 11.08.31. 19:07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돌고 싶네요~ 광주cc에서~

 **온종일servant 11.09.01. 15:50**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을 바로 위에 있는 골프장이라 정이 가더군요...
섬진코스는 섬진강을 감아 돌고,
동악코스는 동악을 내려다보면서,
설산 코스는 옥과 설산 쪽을 보고 도는 코스이더군요...

 **강덕기(제월39회) 11.09.01. 08:22**

구경 한 번 못한 곳...

언제 시간내서 꼭 섬진, 동악, 설산코스 돌아야지..ㅎㅎ
파란 잔듸 넘 좋아요.

 **터프가이 11.11.05. 16:36**

또 근질근질하네.....함 때려 볼까나^*^

 **고향의 블(48회) 11.11.19. 11:21**

푸른 잔듸를 보니 한게임 하고 싶네요.

고향에 있는 골프장이지만

너무 멀다보니 안되던데 사진으로나마 보니 예쁘네요.

기회가 되면 운동한번 하고 싶네요.

 **오솔길 강문자(제월, 입면중10회) 11.12.06. 15:26**

고향에 가면 한번 가 봐야지 하면서도 마음뿐이네요....

처음 착공을 하고 공사하는 동안

저희 친정 엄마도 잠시 일손을 보탰다고 하시던데.....

잔디가 넘 예쁘네요



개판 치는 것을 보고 싶은디

양규영(종방42)

개들은 개판을 쳐야 진짜 개(?)여

42회 친구들아 어디서 무얼 하고 있나 궁금하다

우린 역사적으로 개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 부렀응께

동악산 기슭에서 개판 좀 치는 것이 어쩐가

41회도 43회도 ⑩자가 매일 따라 다니는데

그 사이에 42회 개띠들은 언제나 그 빨간⑩자에 불이 커질까

우리 42회에도 풍악을 울려 개판의 시대를 열어 가보자구



 코스모스(홍현희입면초47입면중6회) 08.09.07. 00:56

선배님 ~ 58년 개띠가 겁나 유명한디 .. 쪼까 지  리면 그리 되지 않을까요 ?
42회 화이팅 

 박종윤(서봉37) 08.09.07. 02:10

요즘 개들이 넘 상팔자라 개판을 치려고 할까요?
사람도 못 먹어본 별별스런 음식도 다 있드라구요.
그러니 아무래도 좀 짙겨야 개판다운 구경 좀 할 것 같네요.. ㅎㅎ 파이팅

 文相玉(금산43회) 08.09.07. 08:51

나도 개띠인디 그럼 여기에서 한 번 진하게 놀아보면 어쩔까유~~~

 양인근(42회)만수1구 08.09.07. 20:42

42회 친구들이 동악산 기슭을 모르는가 봐! 퉁 안보여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텁동(박종민:서봉41) 08.09.08. 10:14

곧 개(?)들이 나래비를 서겠네요! ㅎㅎ

 최병필(서봉리,초46/중5회)군포 08.09.08. 16:54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는 현실 안타까워 유~~~
그러나 선배님들의 이곳 사랑방 공간은 무궁무진 하유!!!!!!!
반갑습니다.

 매월산(김영삼-41회) 08.09.26. 23:57

개판이라고 혀서 깜짝 놀래부렀구만~이~○~
암튼 맞는 말이구만... 소판 보담 개판이 훨~~~낫것재....
ㅎㅎㅎㅎㅋㅋㅋ후배님들 미안!!!!

 양규영 08.10.01. 23:35

아이고 대도무문(大道無門)을 외치신 대통령인 줄 알고 깜짝~



꽈리



김종옥(창정3?)

울타리에 빨간 포의를 쓰고 예를 갖춘 꽈리입니다.

꽈리는 오장 육부 다 내어 주고 노래합니다.

뽀드득 꽉꽝 뽀드득 꽉꽝

꽈리는 잎새 사이사이 하얀 별 꽃을 피우던 따뜻한
봄날을 노래합니다.

뽀드득 꽉꽝 뽀드득 꽉꽝

꽈리는 잎새 사이사이 청포의를 쓰고 예를 더할 때
따뜻한 봄날을 노래합니다.

뽀드득 꽉꽝 뽀드득 꽉꽝

꽈리는 오장육부 다 내어주고 노래합니다.

뽀드득 꽉꽝 뽀드득 꽉꽝

꽈리는 지난 따뜻한 봄날을 노래합니다.

뽀드득 꽉꽝 뽀드득 꽉꽝.....

▣ 박종민(서봉41) 12.07.18. 22:17

파리가 부르는 봄날 노래
파리가 오장육부를 다 비우고 끌어내는 소리....
꼬라리의 노래나 나의 노래나 여름이 갑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여름날 정때 울려 퍼집니다
뽀드득~ 꽉꽉~
(파리가붉게 익은 뒤란에 여름햇날 음석을 만드는
고소한 내음 퍼지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여름 뒷마루 한가운데 앉아 피마자
이파리 흔들리는 것을 보는 듯, 고맙습니다)

↳ ▣ 김종옥(창경37) 12.07.19. 20:19

내일은 꽃피는 따뜻한 봄날이겠지요.

▣ 한봉수(상금38) 12.07.19. 11:43

그 흔하디 흔했던 파리도 요즘엔 보기가 힘들더군요.

↳ ▣ 김종옥(창경37) 12.07.19. 21:26

집집마다 다 있었지요. 언제 부터가 도시로 하나 둘...우리가 버린 것 같습니다.

▣ 박상우(축석43회) 12.07.21. 00:27

텃밭에 열매 달린 식물을 말하시는 거지요? 뽀드득 꽉꽉 따라하다 보니
중독성이 강합니다.
들풀들이 참으로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뒤로 한 채 그리워만 하다보니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 ▣ 김종옥(창경37) 12.07.22. 20:33

텃밭에 먹는 때알은 아니고 화단에 한 번 심으면 해마다 나는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집 올타리 밑 장독대 등 많이 있었죠.
여자 아이들 잘 익은 빨간 파리를 따 실핀으로 조심스레 씨를 빼내고 입안에 넣어
이빨로 살살 깨물어 꽉~꽝 소리를 냅니다.



광수네 집

한정훈(입석41)



60년대 저 창문사이
어느 소년의 책 읽는 소리
밤늦도록 들렸다
그는 유창한 연설가가 되어
대한민국 최고 도시
시의원이 되었다.

입면시장에서

-야초-

▣ 김종일(창정38) 12.07.01. 08:31

여기가 입석입니까? 동악인으로서 서울 도봉구 출신 김광수 서울시의원 생가군요.
자랑스럽습니다.

↳ ☰ 한야초(입석41) 12.07.02. 06:07

시장이 입석리에 속해 있습니다. 광수는 그 유창한 목소리는 어릴 적에 책을 소리 내어 읽은 덕이
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링컨대통령도 어렸을 적에 버릇이 소리 내어 책 읽는 것이었다던데... ㅎㅎ

▣ 신행임(제월)39회 12.07.01. 08:45

입면의 자랑입니다. 역시 책읽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
늘 고향소식으로 이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 한야초(입석41) 12.07.02. 06:08

입면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 웬지 제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 김종옥(창정37) 12.07.01. 14:18

큰 인물이 태어난 곳이군요. 새롭게 알았습니다. 야초님 고맙습니다..... ^^

↳ ☰ 한야초(입석41) 12.07.02. 06:09

작고 초라한 곳에서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큰 인물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박상우(흙석43회) 12.07.02. 01:08

어릴때 만화를 많이 봤는데 부끄럽습니다. 위인전은 조금 읽었는데 이 모양 이 꿀로 사니 .. ㅎㅎ
아무튼 입면에서도 여의도에 입성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 ☰ 한야초(입석41) 12.07.02. 06:10

어이 낙심하지 말게 아직도 희망이 있네... 한가지 목표를 꾸준히 가게나...

↳ ☰ 정태자(제월리39회) 12.07.06. 21:57

상우씨 나도 중학교 시절엔 만화에 푹 빠졌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어때서요.. 지금의 상우씨가 난 참 좋은데... ㅎㅎ ㅎ

▣ 김병완(41회) 12.07.24. 11:21

어릴 적 필자는 광수 집에 몇 번 들어가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땐 또래들 중에서도
광수가 비교적 키도 크고 남자답게 생겼었습니다. 아마 내 기억으로는
고딩 시절쯤 어느 날 갑자기 성남으로 이사 갔다고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대면해 보지 못했는데 서울에서 시의원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군요. 동창으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 게시글을 보고 찾아가 만났습니다.

입면출신 서울시의원과 함께

카페지기 김종일(창정38)



행정자치위원장 김광수(입석)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장환진(택촌)



김형욱(37회) 김광수(41회)

장환진(48회) 김종일(38회)

 양해룡(만수38) 10.06.03. 20:38

예~ 전혀 몰랐습니다. 카페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김광수의원은 입석41회이고, 도봉구제2선거구네요.
고향의 자랑입니다. 당선을 축하합니다.

 정행숙(서봉48회) 10.06.03. 21:17

장환진은 입면초등 48회이며, 입면중 7회입니다. 저의 동창이기도 합니다, ㅎㅎ
많은 축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 동작구 제2선거구. 대방동, 신대방동 상도3동)

 온종일servant 10.06.04. 10:49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면의 영광이며 동악인의 자랑입니다.

 정태자(제월리39회) 10.06.04. 14:18

추카 합니다~~~짝짝짝~~~
우리 후배님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순41회금산] 10.06.04. 22:07

당선을 축하 드립니다.
입면의 자랑입니다 ~~~~ 축하합니다.,

 박종민(서봉41) 10.06.05. 01:18

박수!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김재복(제월38회) 10.06.21. 13:12

서울 시의회 정치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악의 자랑이네요 ~~~~





가입인사



이봉재(금산42)

선후배 동창들 반갑습니다.

저는 입면초 42회 졸업생 이봉재입니다.

금산2구 내금에 살았고 지금은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냠 **박상우(흙석43회) 12.08.04. 00:34**

반갑습니다. 선배님. 42회 선배님들이 요새 많이 찾아 오신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낭만과 추억을 많이 느껴 주십시오..ㅎㅎ

냠 **[이경순41회금산] 12.08.04. 01:40**

반갑다 봉재야... 어서와...

냠 **심옥숙(흙석42회) 12.08.04. 09:08**

반갑네 친구 6학년 우리반 카페에서 자주 만나세

↳ **냠 이봉재 12.08.04. 14:15**

3반 75번 마지막 번호 친구야 보고 싶다

↳ **냠 조동주(상금42) 12.08.06. 19:23**

빼꼼~ 여기 6학년 3반 한 명 더 추가요..ㅎ

냠 **김종옥(참정37) 12.08.05. 11:34**

반갑습니다.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냠 **이정재(금산47)** 12.08.09. 05:11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냠 **이봉재** 12.08.09. 15:09

여기 들어오니까 반가운 사람들 많네요. 다들 반갑습니다

냠 **조동주(상금42)** 12.08.14. 13:07

닉네임을 '이봉재(내금42회)'로 바꾸는데 왜 안 바꾸는거??

냉큼 바꾸시요! 2박3일 맞아야 정신 차리지..ㅋ

냠 **양재준(49회혹석리)** 12.08.09. 17:17

선배님 동악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냠 **김종율(금산42회)** 12.08.10. 06:55

반갑다... 여그서 보는구나....

냠 **이봉재(금산42)** 16:45

그동안 뜼했는데 선후배님들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섬진강



글 모음집 발간에 대한 댓글



카페지기 김종일(창정38)

글 모음집을 발간하기 위해 동악산기술 카페 회원님들께서 12년동안 올려 주신 글, 사진, 그림 등을 보고 동악인들의 능력에 대해 다시한번 놀랐습니다.



동악산기술(제1집)이 잊고 살았던 아름다운 고향 이야기들을 입면인 모두가 함께 보면서 동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삶의 활기를 줄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악산기술 카페회원님들께서 한 땀 한 땀 정성껏 올려주신 댓글도 고향에 관한 이야기라서 함께 소개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욱(혹석37) 12.08.15. 21:24

입면초등학교 홈페이지의 자료에 의하면 1926년 개교하여 83회 5,61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더군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입면향우들의 모임은 활발하지 않으나 카페 운영자님들의 특별한 고향사랑으로 12년간의 길고 긴 세월 동안 고생하신 덕분에 600명의 선후배들의 사랑방이 되었네요. 카페지기와 동악갤러리님 그리고 운영자님들의 수고 덕분에 훌륭한 책자도 발간하게 되었고 어려운 고향 이웃돕기라는 정이 넘치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로 발전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향카페 글 모음집 발간이 밀알이 되어 더욱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한봉수(상금38) 12.08.14. 13:56

카페만을 운영하는데도 버거운 일일 텐데, 카페에 올려진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발췌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려는 작업에 감동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동악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 바라마지 않습니다.

▣ 김종옥(창정37) 12.08.14. 14:10

감사합니다. 험준하고 힘든 오르막길을 마다 않고 매일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오직 동악인을 위해 수고하심 깊이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조금만 소홀히 해도 시들어 가는 걸 이렇게 600명이란 큰 동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기님과 운영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악산기슭 책 발간을 기대합니다.

▣ 김재복(제월38회) 12.08.14. 14:23

동악인의 자부와 자긍심으로 우선 친장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지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자랑스러운 얼과 살아 숨쉬는
동악인들의 수많은 정보와 안부를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매개체로서도 훌륭한데~~
12주년 기념 제1집 발간에 동악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 박종윤(서봉37) 12.08.14. 18:12

사실 지기님 혼자서 노심초사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함이 못내 아쉽더군요. 하지만 이제라도 모음집 발행에 도움이 된다면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 볼까 합니다.
항상 지기님의 노고와 열성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모음집 발행이 잘 진행되도록 빌어봅니다.

▣ 김이현(제월38회) 12.08.14. 16:39

벌써 12주년이 되었군요.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문집까지 발간하시려 더욱 고생하시겠습니다. 파이팅!

▣ 박종민(서봉41) 12.08.16. 22:16

좋은 일에 멀리서나마 힘내시라고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모인 동악산기슭 문집이 기대됩니다.

▣ 이 문용(약천41회) 12.08.14. 20:04

동악산 기슭 12주년을 축하합니다.
동악 카페를 통해 41회 동창회도 시작하여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것이 카페기지님과 운영진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글 모음집 발간이 잘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정태자(제월리39회) 12.08.14. 22:05

참 대단하시네요. 많은 힘은 못되지만 박수로 힘을 실어 드리고 싶습니다.

 윤옥희 (혹석42) 12.08.14. 23:24

카페지기님과 운영진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동악산 기슭 카페가 600명이란 회원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여러 분야의 재능 있으신 선후배님들의 읽을거리와 볼거리의 제공도 큰 빛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고향 마을 이름의 변천사라든가 유래는
정말 흥미로웠고 내 뿌리를 알게 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악산기슭카페가 아니었다면 내가 태어난 곳의 역사도 알 수 없었겠지요.

참으로 유익한 고향의 정보가 가득한 곳~

고향이 그리울 때면 들려 쉬었다 갈 수 있는 정자나무 그늘 같은 곳~

이번 12주년기념 글 모음집 발간에 애쓰시는 모습에 그저 머리 숙여질 뿐입니다.

 박상우(혹석43회) 12.08.15. 00:47

내 삶 속으로 걸어 들어 온 동악산기슭카페!

어머니 품 속 같이 아늑하고 그리워지는 사랑의 매체가 되었습니다.

증발하고 사라졌다는 사실에 둔감해져 있었던 고향의 잊혀져 간 사진이나

추억을 접할 때마다 아련한 정감이 유발되는 여운을 안고서

전에는 느껴 보지 못한 새로운 의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종일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책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후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던데 조금이라도 동참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김종일(창정38) 12.08.15. 16:16

네! 동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댓글,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모두 동악산기슭카페 회원님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입면 선후배 카페로 말미암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친구, 친척, 가족이 함께 들어 오셔서
안부를 물기도 하고 또 동창회를 활성화하기도 하고, 제 자신도 몰랐던 우리 고향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알게 되어 정말 기쁘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등 전국 방방곡곡, 또 미국 일본 중국 해외에서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서 그 지역 소식과 고향소식을 서로 공유하니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재미있고 유익한 고향에 관한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현기(택촌47회) 12.08.15. 19:35

타고 난 게으름으로 자주 들르지도, 글을 올리지도 못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카페지기 선배님께 죄송한 맘뿐입니다. 바쁘신 일상을 쪼개어 우리 동악산
기술 카페를 아늑하고 풍성한 쉼터로 일구어주신 여러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카페 개설 12주년을 기념하여 준비 하시는 동악산기술(제1집) 발간에 미력이나마
도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병완(41회) 12.08.16. 13:01

다시한번 카페 가입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여려모로 등불이 되어 주고
삶에 있어서 인생의 활력소가 되어 주는 동악카페를 진정 사랑합니다.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방대한 자료와 고향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시 한 번 카페를 빛내주신 운영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기석(만수37) 12.08.17. 21:26

창정 장터 같은 이 카페가 개설된 지 벌써 12년이 되었다니
세월이 흐르는 속도가 마하 수준이 아닌가 싶네요.
선후배님들의 주옥같은 고향 되새김질의 결과물을 오프라인으로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기님의 열정과 몰입의 힘은 하워드 가드너가 주장한
창조적인 인물들의 특징 중의 하나인 '10년 법칙'을 연상하게 되는군요.
앞으로도 우리들의 고향의 공간이 더욱 확장 번성하기를 기원합니다.

한야초(입석41) 12.08.16. 22:01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책이 되길 바랍니다.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노순(제월40회) 12.08.17. 09:25

천장님께서 초대 해 주실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 되어
동악인 600명이 모인 고향사랑방이 되었네요.
그 동안 천장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의 아름다운 고향카페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카페개설 12주년기념 동악산기술(제1집) 발간을 계기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카페도 더욱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천장님 힘내세요!

 양해통 12.08.20. 05:48

동악산기슭 (제1집) 밭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입번섭(동산초 5회, 대장리) 12.08.20. 08:13

동의합니다. 아무런 댓가도 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고생하시는 선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정재(금산47) 12.08.20. 15:54

매일매일 이곳을 관리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기님께서는 하루에도 수백 번 들락거리며 모든 걸 톱니바퀴 돌 듯 유기적으로 해주시니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기만 합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가끔 찾아 뵙기만 하니 부끄럽습니다.
지기님 언제까지나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하시고....
막바지 더위에 건강 조심 하십시오.

 양규영(종방 42회) 12.08.21. 20:34

선배님 무엇이 이리도 바쁜지 요즘 들어 자주 들르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말로만 동악산기슭 카페를 사랑한다 하면서 요즘 스마폰으로 주로 접속하다 보니
메일 보는 것에 조금은 등한시 했습니다.
오늘에야 확인 했습니다.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도 힘들고 크나큰 일 계획 하셨구요.
마무리가 잘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늦게나마 동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문상옥(금산43) 12.08.23. 17:17

고생하십니다.
지기님 건강챙기시고 하시는 일 순조롭게 잘 마무리 하시길 빌어 드립니다.

 양인근(42회)만수1구 12.08.27. 13:11

선배님 감사합니다. 길이길이 남을 수 있도록 책으로 남기시니 앞으로 영원할 겁니다.



부록



- 추억의 입면초등학교
- 고향풍경 1-10
- 입면 마을 이름 유래
- 동악카페 대문 사진
- 운영진 명단 및 사진



추억의 입면초등학교



옛 입면국민학교 건물 전경

※ 졸업생 수

- 1926년 개교하여 83회 5,616명의 졸업생을 배출
(입면초등학교 홈페이지의 자료)



교표 및 교훈



스스로 공부하는
즐거운 학교

교 가

작사 작곡 미상

동 악 산 기 숙에 는 새 짹 이 움트 고
기 름 진 이 고장 에 자 라 온 우리 들

섬 전 강 맑 은 물은 금 물 결 친 다
슬 기 론 얼 굴 들이 하 늘 결 난 다

오 랜역 사 이 어 받 은 이 터 전에 는

내 일 의 기 등 들이 자 라 남 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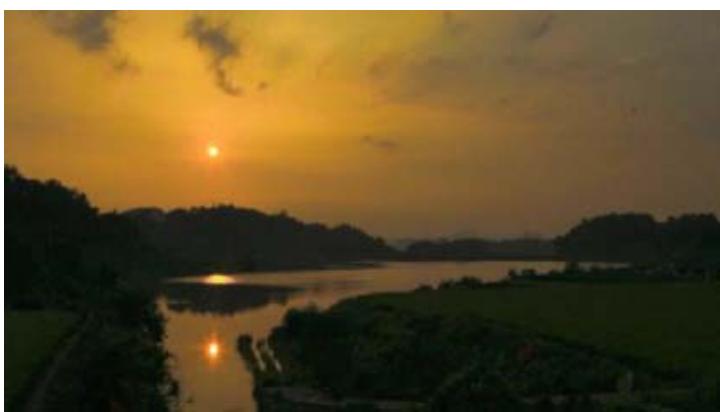
빛 나 거 라 굳 세 어 라 입 면 초등 학 교



고향풍경 1



고 향 풍 경 2





고향풍경 3



고 향 풍 경 4





고향풍경 5



고 향 풍 경 6





고향 풍경 7



고 향 풍 경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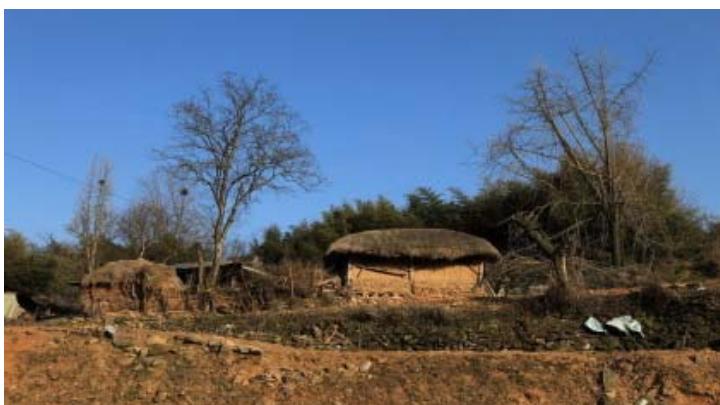




고향풍경 9



고 향 풍 경 10





입면 마을 이름 유래



*가나다순 정렬

1. 금산(琴山)리

● 금산1리 – 상금(上琴)마을

3백여 년 전 창녕 조씨가 탑동(서봉리)으로부터 이주했고, 그 후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1914년 내금, 외금, 상금, 택촌과 만수동, 운봉, 탑동, 마산의 일부를 합하여 금산리라 했다. 이중 제일 위쪽 마을이 상금, 상짐산이로 불린다. 1908년에 창평군 입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금, 외금, 상금, 택촌"과 "만수동, 운봉, 탑동, 마산"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금산리"라 하여 입면에 편입되었는데, 원래 금산으로 불리다 동락산의 "락"과 맞추기 위해서 또는 마을 뒷산이 거문고처럼 생겼으므로 "금산" 이라고 했다는 설과 함께 6대 면장인 정운학씨가 "금산"으로 바꾸었으며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상금, 상짐산이"로 불리고 있음.



상금 당산 느티나무

● 금산2리 – 내금(內琴) 마을

4백여 년 전 전주 이씨가 입주, 대종을 이루고 있다.

금산리의 안쪽 마을이어서 내금, 안짐산이로 불린다.

금산리 중에서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내금, 안짐산이"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내금 당산 느티나무



● 금산3리 – 외금마을(外琴)

3백여 년 전 전북 순창에서 입주한 안동 권씨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금산리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 외금, 외짐산이로 불린다.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피난을 많이 왔다고 전한다. 금산리 중에서 마을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외금, 외짐산이"로 불리고 있음.



외금 당산 느티나무

● 금산4리 – 택촌(擇村)마을

5백여 년 전 전북 남원에서 경주 김씨와 남원 방씨가 마을을 형성했다. 그 후 들어온 청송 심씨가 많다. 가려서 마을을 형성했다는 뜻으로 택촌이라 했다 한다. 장소를 가려서 마을을 형성했다고 하여 "택촌"이라고 불리고 있음.

논어의 이인편 모방에 나오는 "澤村, 宅村"의 한문은 맞지 않는다고 하고, "택말", "댁몰"이라고도 불리고 있음.



택촌 당산 느티나무

2. 대장(上大)리

● 대장1리 – 상대(上大)마을

3백여 년 전 밀양 박씨가 정착했다. 1914년 대리와 장동 약천의 일부를 병합하여 대리와 장동의 첫 글자를 따서 대장리라 했다. 윗마을이 상대마을이다. 본래 옥과군 입평면의 지역인데 1908년에 창평군 입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리"와 "장동" "약천"의 이름 일부를 병합하여 대리와 장동의 첫 글짜를 따서 대장리 하고 1구를 통상 대장리 윗마을에 위치하므로 "상대" 또는 "배점"이 "대점"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대점 당산 느티나무

● 대장2리 – 하대마을(下大)

3백여 년 전 창녕 조씨가 정착했다. 그 후 밀양 박씨, 광산 김씨 등이 입주했다. 대장리의 아랫마을이다. 마을 뒤 미랑산에 절터가 있다. 대장리 1구와 같이 "대리"와 "장동"의 첫 글자를 따 대장리라 하고 2구를 통상 대장리 아래에 위치하므로 "하대, 대판이" 등으로 불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대판 마을입구 느티나무



3. 만수(萬水)리

● 만수1리 – 대곡(大谷) 마을

이 마을을 대굴이라고 불렀다. 큰 마을을 대실 댓골 댓말이라 하는 경우가 흔하다. 한자로 표기하면서 대곡이라 한 것으로 본다.

1914년 운치, 노림, 매산, 상혹의 각 일부를 합하여 만수리라 했다.

만수리 중 윗마을이어서 상만으로도 불린다.

옥과군 입평면의 지역으로서 물이 좋으므로 "만수동" 또는 "만수", "대굴"이라 하였는데 (만민의 피난처여서 만수라 했다는 설도 있음).

1908년에 창평군 입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의 폐합에 따라 "운치, 노림, 매산, 상혹"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만수리라 하여 곡성군 입면에 편입되었으며, 만수리 중 윗쪽에 위치하고 있어 "상만, 대굴" 등으로 불리고 있음.



대골 당산 느티나무

● 만수2리 – 운치(雲峙) 마을

3백여 년 전 남원 양씨 양산이 정착했다.

골짜기를 넘어가는 고개, 구부러진 고개, 산 고개를 구름재라, 구릉재라 하여 한자로는 운형(雲形), 운치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이 마을의 경우 운치로 표기했다.

만수리 중 아랫마을이라 하만으로 불린다. 풍수설에 의한 지형이 "운중발용(雲中發龍)" 이라 하여 洞명을 "운치"라고 칭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언재, 운치, 운재"로 불려 오다가 부르기 쉽게 "언재"로 현재까지 불리며, 1914년 만수동과 합하여 만수리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며, 통상 만수2구를 "하만, 운치, 언재" 등으로 부르고 있음.



언재 당산 숲

4. 매월(毎月)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월평, 월곡, 월명동, 매산, 탑동(서봉리)의 일부를 합했다.
이때 월평과 매산의 이름을 따서 매월리라 했다.

● 매월1리 – 월평마을(月坪)

월평의 월은 들판을 뜻하는 들 야(野)의 들을 달(月)로 바꿔 표기한 것으로 본다. 월평은 앞산과 뒷산이 반월 모양을 구성하여 달을 첫 자로 따서 "월"을 붙이고, 평야지인 마을을 "월평",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을 "월곡", 서쪽에 있는 마을을 "월명"으로 부르고 있는데 통상 매월1구를 "월평"으로 불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월명 당산 느티나무



동악산기술 제1집

● 매월2리 – 매평마을(梅平)

1926년 입면초등학교가 설립된 뒤 흑석 저수지가 터지기 전 담양군 월산면에서 이성운이 정착, 마을이 형성됐다. 옹기점이 있어 점촌으로 불렸다. 매평의 매(梅)는 산을 뜻하는 뵸를 한자(漢字)로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본다. 매화낙지 터의 명당이 있다 하여 "매"자의 첫 자와 평야에 위치하고 있어 매월2구를 "매평"이라 불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매평 당산 느티나무

● 매월3리 – 매산마을(梅山)

조선 순조 때 김씨가 정착했다 한다. 매화낙지의 첫 자와 서북쪽에 산이 많아 매산이라 했다고 한다. 매산의 매는 산을 뜻하는 뵸를 한자로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본다. 매화낙지로서 "매"의 첫 자를 따고 북쪽에 산이 많아 매월3구를 "매산"으로 부르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매산리 소나무

5. 삼오(三梧)리

● 삼오1리 – 궁동(弓洞)마을

5백여 년 전 정씨가 거주했다 한다.

4백여 년 전 밀양 박씨 박경홍이 충북 영동에서 입주, 대종을 이룬다.

박언배와 부인 완산이씨를 기리기 위한 도지정 문화재 51호 충렬각(박언배는 의병장
(義兵將)으로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창의 황주전투 등 수차례 전공을 세우고 인조 10년
안주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가 전사하자 초혼장을 지냈는데, 장례를 하던 날, 부인 이씨가
두 살 난 아이를 시숙(嫡戚)에게 부탁하고 자결했다.

자결하면서 "지아비가 나라를 위해 죽었는데, 어찌 지아비를 위해 죽지 않을 것인가" 란
말을 남겼다고 하며 둘을 기리기 위한 제각과 오봉사(우리나라 3대 악성의 한 사람인
박연을 기리는 사당)가 있다.

1914년 오리동과 연지, 삼옹을 합하여 삼오리라 했다.

옥과군 입평면의 지역인데 응희 2년(1908) 창평군 입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오리동", "연지", "삼옹"을 병합하여 "삼옹"과 "오리"의 이름을 따서 "삼오리"라
하여 곡성군 입면에 편입되었음.

삼오1구는 단종 계유년 사육신의 화로 중조 한림공이 사육신과 한날 순절했고 형제 숙질이
함께 죄를 입어 그 여파로 옥과 설산으로 쫓겨와 월명산 아래 오리동에 한 암자를 지어
경학을 힘쓰며 세상사를 뜯구름같이 보고 부귀를 초개같이 여기시어 호 "퇴락"을 "월오헌"
이라 했다. 그때부터 마을 이름을 "오리동"이라 했다가 그 후 언제부터인지 "궁동" "오록굴"
등으로 현재까지 불리고 있음.



궁동 느티나무



● 삼오2리 – 삼응(三應)마을

삼오2리 150년 전 김해 김씨가 입주, 후손들이 살고 있다.

삼오 1구와 같고 "궁동", "삼오", "연지촌"과 3개 부락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여 삼오리 2구를 "삼응리"라 불러 현재에 이름

● 삼오3리 – 연지(蓮地)마을

방죽이 있는데 연꽃이 많아 연지리, 연촌, 연지촌으로 불린다.

삼응 서북쪽에 있는 부락으로 삼오 2구에 속해 있다가 1983년 분구되었으며 인근에 "쌍방죽(연방죽)"이 있는데 연꽃이 많이 피어 연꽃의 뜻을 본떠서 "연지리"라 하며, 통상 삼오 3구를 "연촌", "연지촌"으로 불러 현재에 이름.

6. 서봉(棲鳳)리 – 탑동(塔洞)마을

3백여 년 전 수원 백씨가 지금의 마을 뒷산 석간동에 정착하고
그 후 경주 최씨가 광주에서 입주했다.

이어서 밀양 박씨 박승종(朴承宗) =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효백(孝伯),
호는 퇴우당(退憂堂). 본관은 밀양(密陽))의 후손들이 주를 이룬다.

박승종은 1585년(선조 18)에 진사가 되고, 다음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589년 봉교(奉教), 이어 병조정랑 등을 거쳐
1600년 동지사(冬至使)로 명(明)나라에 갔다.

1604년 부제학, 1607년 병조판서, 1610년(광해군 2) 형조판서를 거쳐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고, 1618년 우의정으로 도체찰사(都體察使)를
겸하였다. 뒤에 영의정(領議政)에 올라 밀양부원군(密陽府院君)에 봉해졌다.

상위(相位)에 오르자 큰 비상을 주머니에 넣어 차고 다니며
<불행한 시대를 만나 조석(朝夕)으로 죽기를 기다리는데
어찌 이 물건이 없어서 되겠느냐>하고 흐느끼곤 하였다.

1612년 이이첨의 사주로 윤인·이인경 일당이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죽이려 할 때 수위(守衛)하였고, 1617년 폐모론(廢母論)을 극력 반대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때, 아들 자흥(子興)의 딸이 광해군의 세자빈(世子嬪)으로서
그 일족이 오랫동안 권세를 누린 사실을 자책,

아들 경기 관찰사(京畿 觀察使)와 함께 자결하였다.

반정 뒤 관작이 삭탈되고 가산이 적몰되었으나, 뒤에 철종 3년에 신원(伸冤)되었다.

마을에 있던 죽림사가 조선 순조 때 폐사되자

석간동에서 지금의 자리로 마을을 옮겼다.

이후 진주 강씨와 양천 허씨 등이 들어 왔다.

1914년 탑동, 가마, 노동의 일부와 전북 남원군 방산리(지금 강 건너 대강면)

일부를 합하여 서봉리라 했다.

봉이 죽림(竹林)에 산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도 전한다.

절터에 탑이 남아 있어 탑동이라 했다. 이전에는 봉죽(鳳竹)이라 했다.

창평군 입면의 지역으로서 서봉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탑동", "가마", "노동"의 일부와

전북 남원군 방산리 일부를 병합하여 서봉리라 하여

곡성군 입면에 편입되었는데

서봉리란 명칭은 마을 뒤에 죽림이 무성하여 봉이 서식하는 곳이라

마을 이름이 서봉리로 불린다는 설과,

입면 2대 면장 신봉식 씨가본 부락으로 입주하여

부락 이름을 바꾸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깃들일 서(棲)와 봉(鳳)을 써 서봉에 깃든다는 의미로 서봉으로 개칭

1955년 1, 2구로 분구되어 현재에 이른다.



탑동 당산 숲



7. 송전(松田)리

● 송전1리 – 송전(松田)마을

옥과군 수대곡면 지역으로 소나무밭이었다 한다. 솔밭, 송전이라 불리고 있다.

1914년 송전, 기동, 내동, 합강의 각 일부와 입면 노동 일부를 합하여 송전리라 하고 옥과면에 속했다. 1983년 송전 1,2,3,4구 4개 마을 모두가 입면에 편입되었다.

옥과군 수대곡면의 지역으로서 소나무밭이었으므로 "솔밭" 또는 "송전"(풍수설에 송학하 전형국)이라 불리우고 있는데 응희 2년(1908)에 창평군 입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송전리", "기동", "내동", "합강리"의 이름 일부와 입면 노동 일부를 병합하여 "송전리"로 개칭, 옥과군에 속하였다가 1983년 2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송전 1,2,3,4구 4개 마을 모두가 입면에 편입되었으며, 통상 송전 1구를 "송전"으로 부르고 있음.

● 송전2리 – 기동(基洞)마을

샛터골에 터를 잡아서 신기동이라 부르다가 기동으로 불린다.

마을 앞 골짜기를 지금도 샛터골이라 부른다.

● 송전3리 – 내동(內洞)마을

송전리 중 안마을이라 내동이라 칭한다. 안골이라고도 불렀다.

임진왜란 의병장인 유팽로와 관련된 말무덤이 마을 앞에 있다.

유팽로는 의병장.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형숙(亨叔) · 군수(君壽), 호는 월파(月坡). 개국공신 만수(漫殊)의 후손으로, 경안(景顏)의 아들이다. 천성이 효우(孝友)하였다고 한다. 1579년(선조 12) 진사시에 합격하고, 1588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옥과현에서 살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양대박 · 안영(安瑛) 등과 함께 궐기하여, 피난민 500명과 가동(家童) 100여명을 이끌고 담양에서 고경명의 군사와 합세하였다. 여기에서 고경명이 의병대장으로 추대 되었는데, 그는 고경명 휘하의 종사(從事)가 되었다. 당시에 기호지방에 돌린 격문을 지었는데, 그 격문이 『정기록 正氣錄』에 실려 있다. 호남의병들은 처음에 근왕(勤王)을 목적으로 북상하려 하였으나, 일본군이 전주를 침입하려 하자 금산에서 적을 맞아 싸우게 되었다. 전투에 앞서, 적의 수만의 병력을 오합지졸인 아군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협한 요지에 분거(分據)하였다가 적이 교만하고

나태해지기를 기다려 공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 싸움에서 패전하였다. 일단 탈출한 그는 고경명이 아직도 적진 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적진에 뛰어들어 그를 일단 구출하고는 끝내 전사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대사간에 추증되었으며, 뒤에 광주(光州) 포충사(褒忠祠)와 금산 종용당(從容堂)에 제향되었다. 이때 유팽로의 말이 유팽로의 머리를 물고 그의 생가인 합강리로 돌아왔다고 전한다. 그 말을 묻어 주었다는 의마총이 내동 마을 앞 논밭가운데 있다.

송전리 중에서 내부에 있는 안마을이라 "내동"이라 칭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송전리 서북쪽에 위치함. 옛날에는 안골이라고도 불리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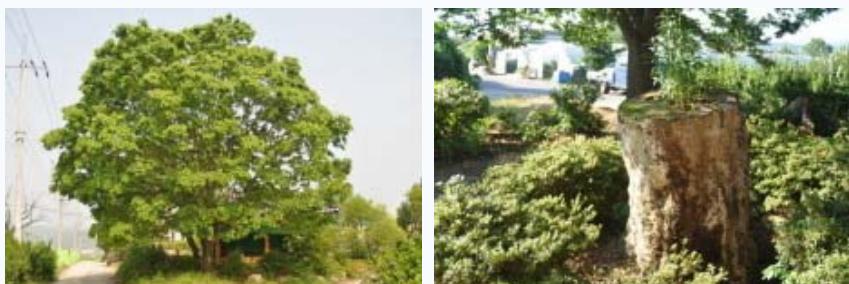


내동 이팝나무

● 송전4리 – 종방(鍾舫) 마을

1932년 황무지에 종연방직에서 봉나무밭을 만들고, 잠실 5동과 주택 다섯 채를 지어 옥과 양잠장이라 불렸다.

지형이 배와 같고 배가 입출항 당시 종이 올린다는 뜻으로 "종방"이라 명명하였으며, 일제 말기 옥과군 송전리로 되었다가 1983년 2월 행정구역 변경으로 입면 송전리로 편입, 송전4구를 "종방"으로 불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종방 느티나무와 잘린 팽나무



8. 약천(藥川)리 - 약내(藥內)마을

고려 신종 때 한림학사를 지낸 조통의 후손들이 많다.

조통은 고려 중기의 학자로 자는 역락(亦樂) 본관은 옥과(玉果).

문과에 급제한 뒤 정언 · 고공낭중(考功郎中)이 되었고,

금(金)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구금되었다.

금나라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높이 사, 이듬해 돌아와서 태자문학(太子文學)을 거쳐
지서북면유수사(知西北面留守事)가 되었다.

1199년(신종2) 동경초무사(東京招撫使)로 활동하였고, 좌간의대부

국자감대사성한림학사(左諫議大夫 國子監大司成翰林學士)로 치사하였다.

최당 · 백광신 등과 기로회(耆老會)를 조직하여 유유자적하였으며,

이인로 등과 함께 해좌칠현(海左七賢)으로 불렸다.

경(經) · 사(史) · 백가(百家)에 두루 뛰어났다.

경주 김씨, 남평 문씨, 광산 김씨, 연일 정씨 등이 살고 있다.

돌안으로 불리웠으나 마을이름이 좋지 않아 고쳤다 한다.

동악산이 마을의 주산이므로 약수(藥水), 낙천(樂川)이라 했다.

1914년 장동 일부를 합치고 약천리라 했다. 조통이 세웠다는 한림정에 관한 얘기가
전하고 있으나 그 위치는 숲이 우거져 있을 뿐이다.

원래 양내(돌안)라 불리웠으나 동명이 나빠서 고쳐보자고 하여, 동락산이 부락의
주산이 되어줌으로 명산의 생수가 신선하여 "약수", "약천"이라 하였고, 1908년에
창평군 입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동 일부를 병합하여
약천리라 하여 곡성군 입면에 편입, 현재에 이르고 있음.



약천 당산 느티나무

9. 입석(立石)리

● 입석1리 – 하립(下立)마을

3백여 년 전 경주 김씨가 정착했고, 이어 청송 심씨, 인동 장씨(장형용 선조), 천안 전씨, 광산 김씨, 등이 입주했다. 선돌이 있으므로 선돌 또는 입석이라 했다

통상 거석기념물인 선돌은 연대(年代)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신석기 시대부터 초기 금속기시대에 걸쳐 대부분이 건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돌은 단독으로 세워진 것이 대부분이고, 때로는 쌍으로 세워지거나 동일 장소에 여러 개가 세워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 규모는 일정하지 않지만, 주로 인공(人工)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높이 1~2m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간혹 원래부터 있던 6~7m 규모의 기둥모양의 큰 돌을 선돌로 삼은 경우도 발견된다. 또 선돌에는 제사신앙이 수반되어 있어 부락민의 신앙대상으로 신격화되기도 하고, 또 특이한 전설 등을 지니고 있어 부락민의 절대 불가침의 대상으로 보호받기도 한다.

1914년 월산리를 합하여 입석리라 했다. 입석 아래라 하립, 아랫선돌로 불린다. 옥과군 입평면 지역으로서 선돌이 있으므로 "선돌" 또는 "입석"이라 하였는데, 융희 2년(1908년) 창평군 입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월산리를 병합 하여 "입석리"라 하고 곡성군 입면에 편입됨. 입석리 1구를 입석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하립" "아랫선돌"로 불리며 현재에 이름

● 입석2리 – 상립(上立)마을

상립, 웃선돌로 불린다.

옥과군 입평면의 지역으로서 선돌이 있으므로 "선돌", "입석"이라 하였는데 입석 2구가 1구 위에 있는 마을이므로 "상립", "웃선돌"로 불리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상입석 버드나무와 팽나무



10. 제월(霽月)리

● 제월1리 – 곡촌(谷村)마을

이 마을은 골말이라 불렸다. 군촌 동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골짜기 마을은 대개 골(골짜기)+마을>골말로 변화했다.

한자로 표기하면서 골짜기 谷(곡) 자와 마을 村(촌) 자를 써서 곡촌이라 한 것이다.

1914년 군촌, 곡촌, 탑동의 각 마을과 전북 남원군 소견곡면의 신기리 일부를 합해 제월리라 했다. 도산천이 달처럼 둘러싸고 흐른다고 해서 붙였다고 한다.

돌로 보를 만들어 고기를 잡는 살부리가 남아 있다.

본래 옥과군 입평면의 지역인데 1908년에 창평면 입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군촌"과 곡촌", 탑동의 일부와 전북 남원군 소견곡면의 신기리 일부를 병합하여 지형이 섬진강(도산천)이 달처럼 둘러싸고 흐르므로 "제월리"라 하여 곡성군 입면에 편입되었는데, 군촌 동북쪽 골짜기에 있는 제월1구를 곡촌으로 불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골말"이라고 불렸다고 전함.



곡촌 당산 느티나무

● 제월2리 – 평촌마을(坪村)

군촌 동북쪽에 있는 앞들이 평평한 마을이다.

제월 1구와 같으며, 제월리 중 군촌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앞들이 평평하여 제월 2구를 "평촌"이라 불리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제일3리 – 군촌마을

조선 여난군 때 청송 심씨 심광형의 조부가 들어왔고, 심광형이 다시 새터를 잡아 마을을 형성했다.

이 군촌은 1520년대 심광현이 새터를 잡고 군지촌이라 했다. 그가 강학하던 곳이 군지촌정사 (민속자료 155호)다. 함허정(涵虛亭)은 조선 중종(中宗) 38년(1543) 심광형이 이 지역 유림들과 풍류를 즐기기 위해 지은 정자로 호연정이라고도 한다. 종손자 심민각이 오래된 정자를 옛터 아래쪽으로 옮겨 다시 지었으며 5대손 심세익이 고쳤다. 지금 있는 건물은 1980년에 수리를 한 것이다. 앞면 4칸, 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구성은 마루 1칸을 3면을 터 만들었고 2칸 반은 방으로 꾸몄다. 나머지 오른쪽 반 칸은 바닥을 한 단 높여 쪽마루를 두었다. 이 풍광 좋은 곳에 지금도 자리하고 있다. 후손들 중에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군촌(군지촌)은 1520년대에 심광정이 자손만대에 영세거주지 새 터를 잡고 "군지촌"이라 촌명을 정하고 자기 서제를 "군지촌정"이라 하였다. 이 마을을 군지라고 한 이유는 고대 순임금이 정한 12주중의 하나를 분주(分州)한 적이 있는데 본인이 낙향을 순임금의 분주에 비하여 자손이 번영을 이어가라고 군지촌이라 정한 것이 1914년 가운데 "지" 자를 빼고 "군촌"이라 불러 현재에 이름.



군촌 함허정 숲



11. 창정(昌亭)리

● 창정1리 – 가마동(柯馬洞) 마을

250여 년 전 청주 한씨가 전북 임실에서 입주했다 한다.

1914년 가마 노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창정리라 했다.

큰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을 뜻하는 표현은 많다.

크다 라는 옛말은 감(아래아가 붙은 감)이었는데, 큰 골짜기마을은 주로 감(아래아가 붙은 감) + 골> 감아골> 가마골> 가막골> 까막골로 변했다.

한자로 쓰면서 '까막'을 '까맣다' 또는 까마귀를 연상해 까마귀 오(烏)로 쓰거나, '가마'를 가마솥으로 보고 釜(가마솥 부) 또는 轎(가마 교)로, 소리 나는 대로 '加馬', '加幕'으로 적기도 했다. 이 마을의 경우 釜자를 써서 부동으로 하다가, 소리 나는 대로 가마동으로 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지령이 가마솥모양이라고도 한다.

옥과군 입평면의 지역으로서 창정이라 하였는데, 응희 2년(1908)에 창평군 입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마" "노동"의 이름 일부를 병합하여 "창정리"라 하고 곡성군 입면에 편입됐는데, 통상 창정리 1구를 가마솥 모양으로 창정리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가마 '부'자를 따서 "부동"으로 불리다 "가마동"으로 불리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가마동 느티나무

● 창정2리 – 창정(昌亭)마을

1955년 1월 분구되어 창정리 2구가 됐고 통상 창정으로 부르고 있음.



창정 당산 버드나무

● 창정3리 – 노동(蘆洞)마을

산이 갈라지는 곳에 있는 마을의 경우 산골짜기 마을 = 갈+골>갈의골>갈애실>가랫골>가래골로 변화되었다. 한자로 표기하면서 갈을 갈대로 보고 노동이라 적은 것이다.

창정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창정리 3구 "노동"(창자)로 불리었으나

현재 3구도 "창정"으로 많이 부르고 있다. 1955년 1월 분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12. 흑석(黑石)리

4백여 년 전 옥천 조씨가 설촌했다 한다.

청송 심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큰 들판이나 산과 연결된 마을의 경우

감(아래아가 붙은 감, 크다의 옛말)을 앞에 붙여서

감+들>감들>검들>검들이(껍들이)>검덜이>금들이>금들 등이나,

검들>껍들>검은들>검은달>검은다리, 검들>껍들>까만들>까막들 등으로 변화했다.

이 마을의 경우 '거문 돌'을 한자인 '흑석'으로, '금돌'을 한자인 '금평'

두 가지로 표기했다. 상흑, 하흑, 노림을 합하여 1914년 흑석리라 했다.



동악산기슭 제1집

본래 옥과군 입평면의 지역으로서 검은 돌이 있으므로

"검은들" 또는 "흑석, 금평"이라 하였는데,

1908년에 창평군 입면이 되었다가 금평이 검은들로 변하고,

"검은들"이 "검은돌"로 오인되어 "흑석"으로 되고,

"상흑리, 하흑리, 노림리"를 합하여

1914년에 흑석리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흑석 팽나무



* 출처 : 인터넷 검색 + 입면사무소 자료임. (틀린 부분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은 한봉수 갤러리님의 작품에서...

동악산기슭카페 대문 사진





 동물 (공개)

카페지기 김종일(항정3..)
회원수 602
방문수 333 [프로필](#)

내 정보 [▶](#)

[카페 글쓰기](#)

최신글 보기
 인기글 보기
 이미지 보기
 동영상 보기

안녕하세요(인사방) [▶](#)

- ♥ 한 줄 출석방 [▶](#)
- ♥ 끝말 잊기 [▶](#)
- ♥ 가입인사 등업신청방

살아가는 이야기들 [▶](#)

- ♥ 자유 게시판 [▶](#)
- 故 韓培에 관한 글 [▶](#)
- ♥ 요즘 있었던 일 [▶](#)
- ♦ 세계 속의 대한민국 [▶](#)

동악 모임 사진 [▶](#)

- 10-12년도
- 2009년도
- 2008년도
- 2007년도
- 2006년도
- 2005년도
- 2004년도
- 2003년도
- ★ 회원 수첩

동악인의 쉼터 [▶](#)

- ♦ 고운시 좋은글
- ♦ 수다방(수다 떠세요)
- ♦ 영화 & 동영상
- ♦ 음악 감상실
- ♦ 식물(꽃, 열매)
- ♦ 한바탕 웃어요
- ♥ 중년의 휴게실
- ♦ 건강을 위한 정보
- ♦ 알아두면 좋은상식

동악 갤러리 [▶](#)

- ♦ 한봉수(중국소수민족) [▶](#)
- ♦ 한봉수(고향풍경) [▶](#)
- ♦ 한봉수(중국명산명승)
- ♦ 박증민(고향의 詩)
- ♦ 한마초(고향 사진)
- ♦ 박상우(道場의 글)
- ♦ 박증윤(고향&삶의 글) [▶](#)
- ♦ 심상윤(靜的 動的世界)
- ♦ 오봉기(미국시애틀)
- ♦ 방현기(영화리뷰)
- ♦ 박동규(開談雜說)
- ♦ 심용우(복경의 삶&산)

모임방 [▶](#)

- ✎ 선배님 모임방 ★
- ✎ 제31회 모임방 ★
- ✎ 제32회 모임방 ★
- ✎ 제33회 모임방 ★
- ✎ 제34회 모임방 ★
- ✎ 제35회 모임방 ★
- ✎ 제36회 모임방 ★
- ✎ 제37회 모임방 ★
- ✎ 제38회 모임방 ★
- ✎ 제39회 모임방 ★
- ✎ 제40회 모임방 ★
- ✎ 제41회 모임방 ★
- ✎ 제42회 모임방 ★
- ✎ 제43회 모임방 ★
- ✎ 제44회 모임방 ★
- ✎ 제45회 모임방 ★
- ✎ 제46회 모임방 ★
- ✎ 제47회 모임방 ★
- ✎ 제48회 모임방 ★
- ✎ 제49회 모임방 ★
- ✎ 제50회 모임방 ★
- ✎ 제51회 모임방 ★
- ✎ 제52회 모임방 ★
- ✎ 후배님 모임방 ★
- ✎ 동강초 모임방 ★
- ✎ 동산초 모임방 ★
- ✎ 창립초 모임방 ★
- ✎ 사이트 안내방 ★

가입방법》》

- ① 인터넷 주소창에 <http://cafe.daum.net/ipmyen>을 치면 바로 가입
- ② daum.net에 가서 “동악산”을 검색하여 카페이름『동악산기슭』을 클릭하면 됩니다.



운영진 명단 및 사진

(2012. 9. 1현재)

순	등급	닉네임	현 거주지	아이디	비고
1	카페지기	김종일(창정38)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ji71kim	
2	운영자	박종윤(서봉37)	서울 양천구 목동	pppkk3	갤러리
3	운영자	박동규(택촌37)	서울 구로구 구로1동	9389dkp	갤러리
4	운영자	양해룡(만수38)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eadragon54	
5	운영자	김종만(창정38)	서울 양천구 신월동	jong0605	
6	운영자	박성수(서봉40)	서울 구로구 오류1동	pssukr	
7	운영자	박종민(서봉41)	전남 순천시 조례동	iiirem	갤러리
8	운영자	심길섭(매평45)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jitpae21	
9	운영자	이정재(금산47)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123lee	
10	운영자	임번섭(대장동산5)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Ibis33	
11	운영자	조동환(상금48)	서울 노원구 상계동	dpcdh1	
12	운영자	오봉기(서봉37)	미국 시애틀	bongkioh	갤러리
13	운영자	이노순(제월40)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lns1335	
14	운영자	정맹숙(서봉48)	경기 안산시 상록구	jinwoo-1011	
15	운영자	김영의(매산45)	부산 남구 대연1동	key3802	
16	운영자	조재갑(서봉41)	경기 부천	solnamu57	
17	운영자	한봉수(상금38)	중국	hbs1955	갤러리
18	운영자	이문용(약천41)	서울 강북구 우이동	dlansdyd1845	
19	운영자	김영도(매산33)	전북 전주시 덕진구	yd3311	
20	운영자	정종섭(금산42)	인천 계양구 계산동	jho2115	
21	운영자	문상옥(금산43)	전남 곡성군 곡성읍	sangok87	
22	운영자	한정훈(입석41)	광주 북구 문흥동	hjh57	갤러리
23	운영자	김영신(창정47)	광주시 북구 오치동	kys903kys903	
24	운영자	심상윤(흑석41)	전북 익산시 영동동	james-monroe	갤러리
25	운영자	양명숙(외금45)	서울 동작구 흑석동	ymst2	
26	운영자	양경희(택촌43)	경기 수원시 권선구	lala3038	
27	운영자	김재복(제월38)	광주시 북구 운암동	kjb1644	
28	운영자	방현기(택촌47)	경기 시흥시 신천동	hkbang6	갤러리
29	운영자	김영준(매산39)	서울 강남구 대치동	ystd2053	
30	운영자	박상우(흑석43)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qkrtkddn9093	갤러리
31	운영자	윤옥희(흑석42)	일본 静岡県(しづおか)	miki3733	
32	운영자	신행임(제월39)	서울 노원구 하계동	a62281932	
33	운영자	양인근(만수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yikteacher	
34	운영자	정태자(제월39)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san8775-1	
35	운영자	심용우(만수45)	중국 북경	shimparksa	갤러리
36	운영자	김종옥(창정3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jongok1123	
37	운영자	김이현(제월38)	서울 중구 을지로4가	yhtaxcec	
38	운영자	김형욱(흑석37)	서울 노원구 상계동	noja122	
39	운영자	박재규(만수31)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pjk9052	

동악산기슭카페 갤러리님들



카페지기 김종일



박종윤



박종민



박동규



오봉기



한봉수



박상우



방현기



심용우



심상윤



한정훈

※ 갤러리방을 가지고 게시글 · 사진 · 그림을 연재하는 분들



동악산기슭카페 운영자님들



임번섭



이정재



박성수



양해통



조재갑



김종만



정앵숙



윤옥희



이노순



김영도



양경희



양인근



김재복



김종욱



김영의



김이연



조동환



신행임



심길섭



김형옥



양명숙



이문용



김영준



정태자



박재규



정종섭



김영신



문상욱

※ 카페에 매일매일 또는 자주자주 오셔서 댓글과 신규가입자 등업을 해 주는 분들

글모음집 작품 선정 회원님들



안기석



김영길



양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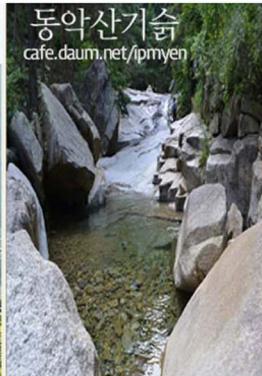
한영길



양규영

★ 꿈은 이루어진다

카페지기 김종일(창정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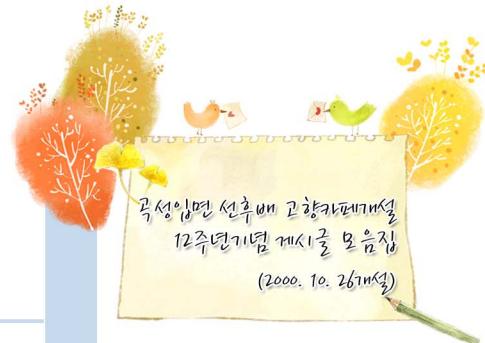


	동물 (공개)
카페지기	김종일(창정3..)
회원수	602
방문수	333
	프로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 정보	

입면 선후배님들의 사랑방 동악산기슭카페가 2000. 10. 26 개설되어
12주년을 맞이하면서 600여 명의 고향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꿈이 있다면
고향의 옛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여력,
고향에서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힘,
휴가 때나 골치 아플 때 가족과 함께 하룻밤 푹 쉬고 올 수 있는
동악산기슭이나 섬진강변에 동악인의 별장을 갖는 것!

1,000명의 회원이 가입되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위력이 있으니까요.
1년에 1회 1인당 1만원을 후원 한다면 10,000,000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들
이제는 고향에서 편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동악산기슭(제1집)

기획 / 편집 카페지기 김 종 일

만든사람들 김종일 박종윤 박종민 박동규
한봉수 박상우 윤옥희 임번섭
방연기 오봉기 한정훈 김형욱
동악산기슭카페 운영진
그 외 카페 회원

발 행 일 2012년 10월 26일 발행

발 행 인 카페지기 김 종 일

인쇄처 (주)경인디앤피

TEL_02)741-5941~5 Fax_02)741-5944

